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② 06. ④ 07. ⑤ 08. ⑤ 09. ②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① 16. ③ 17. ⑤ 18. ③ 19. ③ 20. ⑤
 21. ⑤ 22. ③ 23. ② 24. ① 25. ④ 26. ③ 27. ④ 28. ④ 29. ① 30. ④
 31. ③ 32. ② 33. ④ 34. ③ 35. ④ 36. ④ 37. ③ 38. ⑤ 39. ① 40. ⑤
 41. ③ 42. ⑤ 43. ② 44. ⑤ 45. ②

[1~5] 화법

[1~2]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을 ‘작품 1’, ‘작품 2’, ‘작품 3’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강연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강연에서는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이고 그 기능에는 언어적 기능, 조형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후 이를 나누어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강연의 이후 전개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직접 제시한 부분은 없다. ② 강연에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들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강연이 진로 축제에 초청받아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지만, 청중들이 희망하는 직업들이 제시된다거나 그 특징들을 서로 대비해 강연 내용의 활용 가치를 강조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강연에서 질문은 드러나 있지만 이는 청중이 던진 질문이 아니다. 강연자가 ‘이런 글자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겠지요?’, ‘좀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일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내용을 강조하거나, 강연한 내용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 경우만 있다.

2. 필요한 내용 파악 및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의 말미에 있는 내용 확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해당 질문의 경우 화면에 ‘작품 1’, ‘작품 2’, ‘작품 3’이 한꺼번에 띄워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한 작품들이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인지를 강연의 내용을 정리하여 생각해 보면 된다. ‘작품 1’은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글자들을 전체적으로 크면서도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 되도록 제작하였다. 즉 ‘작품 1’은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했고 이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작품 2’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인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어서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조형적 기능을 잘 드러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강연에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의미와 상관 없이’ 글자를 작품의 재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③ ‘작품 3’은 강연에서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여 제작자의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즉 ‘작품 3’은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해당하는 작품이므로, 이를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로 볼 수는 없다. ④ ‘작품 1’은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인 반면, ‘작품 2’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이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를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작품 2’와 ‘작품 3’은 모두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경우지만, ‘작품 2’는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고 있는 반면, ‘작품 3’의 경우는 글자의 의미와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두 사례 모두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는다는 진술은 적합하지 않다.

[3~5]

3. 중요한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학생들 간의 토의에서 핵심 내용인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의 내용 파악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들은 내용이 많고 어려운 책을 주어진 시간 안에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방안을 내었다. ‘발표와 질의응답’은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 내용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청중이 되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고, ‘자유 토의’는 구성원들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두 형식에서 구성원들은 토의 시간 이전에 책의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참여자들이 토의 이전, 즉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발표와 질의응답’은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 내용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청중이 되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므로, 모임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특정인이 사전에 결정될 것이다. ② ‘자유 토의’에서는 준비과정에서 따로 주도자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각 참여자의 역할이 같다고 할 수 있다. ③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 모두 참여자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 모두 책의 일부 분량을 정해서 읽어 와야 하므로 책에서 다룰 분량이 정해져 있다.

4.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실제 토의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A]와 [B]는 토의에서 학생들이 한 발화이다. 이것은 이 토의의 주요 화제라 할 수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A]에서는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을 언급한 후, ‘자유 토의 방식’의 장점을 언급하여 ‘자유 토의 방식’의 장점을 부각하는 식의 말하기를 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과 다른 방안의 장점이 언급될 뿐, 특정 방안의 문제 해결 방안 및 다른 방안의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③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과 다른 방안의 장점이 대비되어 언급되고 있다. 특정 방안의 장점을 다른 방안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B]는 두 방안 모두 개개인의 준비가 미흡하면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방안의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⑤ [B]는 두 방안 모두의 한계 혹은 약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방안의 장단점을 언급한 후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 말하기 과정 분석 및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학생 1’의 마무리 발언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말하기 과정 및 효과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 1’은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하자고 하며 그 문제점은 차츰 개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의 의견에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해당 부분은 두 방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③ 두 방안 중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 제삼의 방안을 절충안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④ 대부분의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소수 의견 존중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⑤ 학생들의 의견이 오간 것을 토대로 특정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지 따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6~10] 작문

[6~7]

6.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에 제시된 ‘누나’의 조언과 ‘동생’의 반응을 토대로 조정 방안을 파악할 때, ‘누나’의 셋째 발화 중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에 대해 ‘동생’이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활동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누나'의 첫째 발화부터 '동생'의 둘째 발화까지의 대화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 ② '누나'의 첫째 발화부터 '동생'의 넷째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③ '누나'의 셋째 발화부터 '동생'의 다섯째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⑤ '동생'의 다섯째 발화부터 '누나'의 마지막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를 참고하면 '동생'이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미는 '초등학생과의 친화력'과 연결된다. ⑤의 내용 구체화 방안 중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극복'은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통해 드러내려는 의미와도 연결되지 않으므로 ⑤는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미는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와 연결된다. ①과 ②의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①과 ②는 모두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미는 '설명 능력'과 연결된다. ③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미는 '초등학생과의 친화력'과 연결된다.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8~10]

8.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본문>의 5문단은 시민 공원에 옮겨진 소나무가 잘 적응하고 있어 솔솔 개방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5문단의 개요인 ㉔과 다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행사 시간과 장소 및 참석 대상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㉑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 마지막 문장에 ㉒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 앞부분에 ㉓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소나무가 기증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소나무 처리 문제의 해결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㉔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부제>는 6문단에 제시된 학생회장의 말과 연결되면서 소나무 기증의 의의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학생회장의 말에 담긴 소나무 기증의 의의는 ‘나눔’과 ‘협력’이라는 건학 이념 실천 및 시민들의 쉼터 마련이다. 따라서 ②는 <보기>에 부합하는 부제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며 소나무 기증의 의의로도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므로 <보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이라는 표현은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소나무 기증의 의의에 대한 내용은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것과 다르다. ⑤ <본문>의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학생회장의 말이 아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서술어인데, 앞절의 주어인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은 뒷절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문장에서 ㉠의 주체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③의 ‘점검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수정 방안’에 제시된 ‘시민 공원은’은 ㉠의 주체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므로 ‘수정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앞으로 개최될 행사에 대한 서술어인데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행위로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② ㉠의 뒤에 이어지는 ‘신축’은 ‘건물 따위를 새로 만듦’이라는 의미로, ㉠은 ‘신축’의 의미 중 일부와 중복된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④ ㉠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이므로 <본문>의 내용과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검 결과’가 적절하며, ‘때마침’으로 수정할 경우 <본문>의 내용과 호응이 되므로 ‘수정 방안’도 적절하다. ⑤ ㉠은 ‘-되다’와 ‘-어지다’를 함께 사용하여 피동 표현이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이 문항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대화 1>, <대화 2>와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자료>를 통해 볼 때, 15세기 국어의 ‘도박’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난 것은 ‘뵤’이 ‘ㅈ’ 앞에서 반모음 ‘ㅛ[w]’로 바뀐 결과이다. 따라서 ‘뵤’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뀌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화 1>의 내용에서 현대 국어의 ‘뵤다’는 ‘뵤고’, ‘도와’로 활용하고, 현대 국어의 ‘젓다’는 ‘젓고’, ‘저어’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뵤다’, ‘젓다’는 <대화 2>의 ‘굽다’, ‘짓다’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③ <자

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화 2>에서 ‘△’이 사라지면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다고 하였으므로,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난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④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뚩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뚩-’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뚩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뚩-’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2. 중세, 근대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주어진 탐구 활동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곱다’는 ‘뚩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ㅂ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뚩-’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뚩-’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뚩-’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곱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곱게, 고편, 고편’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ㅂ’ 앞에서 반모음 ‘ㅂ’로, ‘ㅂ’ 앞에서 ‘ㅂ’로 바뀌었으며, ‘ㅂ’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ㅂ’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곱게, 고편, 고편’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긋다’는 ‘젓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ㅅ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젓-’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긋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긋게, 그서, 그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은 16세기 중엽에 사라졌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긋게, 그어, 그은’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③ ‘눅다’는 ‘뚩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ㅂ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뚩-’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뚩-’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뚩-’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눅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눅게, 누빔, 누빔’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ㅂ’ 앞에서 반모음 ‘ㅂ’로, ‘ㅂ’ 앞에서 ‘ㅂ’로 바뀌었으며, ‘ㅂ’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ㅂ’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눅게, 누빔, 누빔’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④ ‘빚다’는 ‘좁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좁-’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빚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빚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6세기 중엽에 음절

끝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ㅅ’이 나타났으므로, 17세기 초엽에도 ‘빗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⑤ ‘잡다’는 ‘좁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좁-’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7세기 초엽 역시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3.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의 예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꺠+고 → [꺠고] → [꺠꼬]’, ‘읠+지 → [읠치]’의 음운 현상에서 ‘읠지’의 경우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꺠고’의 경우 자음이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맑+네 → [막네] → [망네]’, ‘값+도 → [갑도] → [갑또]’의 음운 현상에서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자음은 탈락하는 현상(자음군 단순화)이 일어나고 있다. ‘맑’의 ‘ㄹ’에서 ‘ㄹ’이 탈락한 것, ‘값’의 ‘ㅈ’에서 ‘ㅅ’이 탈락한 것이 그것이다. ② ‘맑+네 → [막네] → [망네]’, ‘꽃+말 → [꼇말] → [꼇말]’, ‘입+니 → [임니]’의 음운 현상에서는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비음화)이 일어나고 있다. ‘막’의 ‘ㄱ’(파열음)이 ‘ㄴ’(비음)의 영향을 받아 ‘ㅇ’(비음)으로 교체된 것, ‘꼇’의 ‘ㄷ’(파열음)이 ‘ㄹ’(비음)의 영향을 받아 ‘ㄴ’(비음)으로 교체된 것, ‘입’의 ‘ㅍ’(파열음)이 ‘ㄴ’(비음)의 영향을 받아 ‘ㄹ’(비음)으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③ ‘낮+일 → [날닐] → [난닐]’, ‘물+약 → [물낙] → [물략]’의 음운 현상에서는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의 ‘ㅈ’이 ‘ㄷ’으로, 그 ‘ㄷ’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 ‘물약’에 ‘ㄴ’이 첨가된 후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④ ‘낮+일 → [날닐] → [난닐]’, ‘꽃+말 → [꼇말] → [꼇말]’, ‘팠+죽 → [팠죽] → [팠죽]’의 음운 현상에서는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음절 끝소리의 규칙)이 일어나고 있다. ‘낮’의 ‘ㅈ’이 ‘ㄷ’으로 교체된 것, ‘꽃’의 ‘ㅈ’이 ‘ㄷ’으로 교체된 것, ‘팠’의 ‘ㅌ’이 ‘ㄷ’으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14. 문장의 짜임새 파악, 겹문장의 종류 구별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에 대해 설명한 뒤,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 밑줄 친 단어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묻고 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어제 부모님이 일을 시키셨다.’가 된다. ‘일’은 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는 ㉠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졌다.’가 된다. ‘공원’은 뒤에 ‘에서’가 붙

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어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그들이 어제 결혼했다.'가 된다. '그들'은 뒤에 '이'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누나를 많이 닮았다.'가 된다. '친구'는 뒤에 '가'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탁자가 나무로 되었다.'가 된다. '탁자'는 뒤에 '가'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가 된다. '생각'은 뒤에 '이'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옷을 주었다.'가 된다. '옷'은 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누나는 털실로 장갑을 짰다.'가 된다. '장갑'은 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가 된다. '주말'은 '에'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관중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남겼다.'가 된다. '경기장'은 뒤에 '에'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15. 단어 형성의 원리, 새말 창조의 원리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합성어를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 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함께, 밑줄 친 단어의 결합 방식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언과 용언은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뛰노는'은 '뛰-+늘+-는'으로 분석되고,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조와 다르게 연결 어미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뛰노는'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몰라볼'은 '모르-+-아+보-+-리'로 분석되는데, 용언 '모르-'와 용언 '보-'가 연결 어미 '-아'로 이어져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③ '타고난'은 '타-+-고+나-+-니'로 분석되는데, 용언 '타-'와 용언 '나-'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지난달'은 '지나-+-니+달'로 분석되는데, 용언 '지나-'가 체언 '달'을 수식하면서 관형사형 어미 '-니'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⑤ '굳은살'은 '굳-+-은+살'로 분석되는데, 용언 '굳-'이 체언 '살'을 수식하면서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16~24] 독서

[16~19] 과학,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신경 조직을 모델링하여 만든 것으로,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입력 단자와 입력값들을 처리하는 부분, 출력 단자로 구성된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들을 바탕으로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얻는다. 인공 신경망은 이러한 기능을 지닌 다수의 퍼셉트론들이 여러 계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뉘는데,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에는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을 만들고, 이를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이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면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제공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구한다. 오차 값의 일부는 입력층의 퍼셉트론에 있는 가중치에 더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중치가 갱신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출력값은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어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출력값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

[주제]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의 과학적 원리

16. 내용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치의 합, 즉 가중합을 구한다. 그리고 이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내보낸다. 그런데 '가중합'과 비교하는 '임계치'는 2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고정된' 값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④ 2문단에서 가중합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라는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고 했다. ⑤ 5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의 학습 단계에서는 정답 값에서 출력층의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에 더한다고 했다.

1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는 여러 개이지만, 출력 단자는 하나

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② 5문단에서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빼서 구한다고 했으므로, 둘이 같으면 오차 값은 0이 된다. ③ 3문단에서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된다고 했다. ④ 1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인간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라고 했다.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후에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고 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야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색깔과 형태가 다른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4문단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는 색깔과 형태에 속하는 입력값은 각각 다른 입력 단자에 입력해야 한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인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일 경우에는 정답, '1'일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다고 했다. 이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0.5 \times 1 + 0.5 \times 0 + 0.1 \times 1$,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 이때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인 1에서 출력값인 0을 뺀 '1'이 된다. 그런데 이 오차값의 일부가 입력 단자의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므로, [B]로 한번 학습시키면 가중치 W_a , W_b , W_c 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퍼셉트론을 이용한 학습 단계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학습 단계를 마쳐야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으므로,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보기>에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을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으므로, 퍼셉트론이 1을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았다고 볼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이 반복될수록 출력값이 정답에 수렴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의 경우에는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정답인 '1'에 수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경우, 가중합은 입력 단자 a, b, c의 현재 가중치에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인 1, 0, 1을 각각 곱한 후, 이를 더하여 얻은 값 0.6이 된다. 그런데 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1이 아니라 0이다.

[20~24] 인문,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지문해설 : 이 글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을 통해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의 몇 가지 유사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하는데, 이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크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유비 논증을 통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을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의 유사성이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 인과적 메카니즘은 동물마다 다르고,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면서도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동물 실험의 유효성 논란을 통한 유비 논증의 이해

20.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마)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사용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고, 기능적 유사성 차원에서 유비 논증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문제를 유비 논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유비 논증이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논증임을 밝히고 있고, 그 유용성을 동물 실험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인간과 실험동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대상의 유사성이 크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함을 실험동물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정작 동물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2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마)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고 이때의 유사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라)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있는 반면 동물들의 고통은 동물들이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행동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꼬리의 유무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유비 논증을 통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2. 주장의 타당성 평가

정답해설 : (라)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거를 비판할 때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에만 주목하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라)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와 (라)를 통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거는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 간에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인과적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듯이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은 인간을 대신하는 '실험 대상', ㉡는 인간과 실험 대상의 '유사성', ㉢는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해 보면 ㉠은 실험 대상으로서 '어떤 개(㉣)'에, ㉡는 유사성으로

서 '비슷하게 생긴(㉠)'에, ㉠은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로서 '몹시 사납고 물려
는 버릇(나)'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보기>의 ㉠은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를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나)의 '인간'에 대응된다.

24.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는 의미의 '끼치다'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담당하게 하다'는 의미의 '맡기다'와 뜻이 다르므로 ㉠과
㉡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

[25~27] 문학

[25-27] 고전시가 - (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나) 작자 미상, 「동동」, (다) 작자 미상, 「가시리」

(가) 이 글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
닭, 고려 속요와 『시경』 '풍'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 속요
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민간의 노래 중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하면서도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
악으로 편입되었다.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궁중 잔치에서 불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고려 속요는 '풍'과 달리 작품의 특정 부분에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거나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특정한 부분을 덧
붙이기도 하였다.

[주제]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과 특성

(나) 이 작품은 현존하는 우리 문학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월령체(달거리) 노래로, 각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통해 정서를 표현한 고려 속요이다. 분장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고려 속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 주며 임에 대한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정한, 그리움 등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고독의 비애

(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적 화자의 슬픈 마음을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

2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에서 하층 노래가 상층 노래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 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악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는 부분과 3문단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와,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덧붙인 내용으로 임에 대한 송축(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서사>, <정월령>, <이월령>, <삼월령> 등에 반복되는 형식적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후렴구로 노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2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의 제1행과 제2행은 물수리 한 쌍이 모래톱에서 우는 정경을 제시한 것으로 시적 대상이 변화한 것이 아니며 대칭 구조로 볼 수도 없다. (다)의 제1연과 제2연도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4문단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를 통해 [A]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정월령>은 정월의 넷물과 비교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움과 관련된, (나)의 ‘만춘 들릿꽃’은 타인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지을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하고 즐거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는 임과 시적 화자 간의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서 [A]를 두고 ‘부부 간의 화락과 공경’, ‘풍속 교화의 시초’라는 평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A]가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이월령>에서 ‘높이 켜 등불’에 빛대어 임이 모두가 우러러 볼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으며,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다.

[28~33] 독서

[28~33] 예술과 과학, ‘다양한 특성의 음들로 이루어진 음악의 아름다움’

지문해설 : 이 글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인 음악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으로 나뉘는데,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부분음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반면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부분음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 글은 진동수 개념을 통해 이러한 음의 특징과 악기의 소리가 갖는 음색의 특징, 음의 어울림인 음정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로 리듬, 가락, 화성, 썸여림, 음색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주제] 음악에서 사용되는 소리와 다양한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

28.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진동수라는 과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음과 음의 어울림인 협화도를 진동수를 활용한 음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슬리크의 형식 미학의 관점을 언급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은 음과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결합하여 비롯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소리에 대한 인간의 감각과 음악 감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글이 아니다. ② 이 글은 진동수라는 과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을 뿐,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소리를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으로 구분한 뒤 그중 고른음에 대해 자세히 풀어쓰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정과 음악적 요소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은 아니다. ⑤ 이 글은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각각 고른

음, 시끄러운음으로 나누고,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의 특성을 설명한 후에 음정과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이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라고 하였으므로,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에서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라고 하였으며, 6문단에서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라고 하였으며, 6문단에서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0.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한슬리크는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④는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음들을 구성하고 있어 한슬리크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⑤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가 나타나 있어 한슬리크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들에 해당한다.

3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그림>에 표현된 부분음 중 기본음은 진동수가 가장 작은 110Hz에 해당하는 소리이다. <그림>에서는 이 부분음의 세기는 5가지 부분음 중 가장 센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그림>은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림>은 타악기인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Hz가 아니라 110

Hz로 인식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3문단에서 <그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2문단에서 진동수는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220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지면 하나의 부분음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음색 또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3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P와 Q 사이의 음정은 $5/4$ 이며, Q와 R 사이의 음정은 $6/5$ 이므로 P와 Q 사이의 음정($5/4$)은 Q와 R 사이의 음정($6/5$)보다 넓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5/4$ 인데, 이는 장3도 음정에 해당한다.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3/2$ 인데, 협화 음정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이므로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P의 기본음은 440Hz이고, S의 기본음은 880Hz이다. 3문단에 따르면, 바이올린은 현악기이며, 현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P의 부분음은 440Hz, 880Hz, 1320Hz 등이 있으며, S의 부분음은 880Hz, 1760Hz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2/1$ 이고, Q와 R 사이의 음정은 $6/5$ 이다.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하였으므로 P와 S 사이의 음정($2/1$)은 Q와 R 사이의 음정($6/5$)보다 협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3.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정답해설 : ‘오겠다고’는 ‘구해’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의 ‘버리니’, ②의 ‘주었다’, ③의 ‘뒤라’, ⑤의 ‘보고’는 모두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34~45] 문학

[34~38] 현대시 - (가) 박두진, ‘향현’ / (나)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수필 - (다) 박이문, ‘눈’

(가) 이 시의 화자는 멀리 있는 산을 보기 위해 비상한다. 거기서 본 산은 다양한 존재들을 품고 있다. 화자는 이 존재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4연과 5연에 비추어 볼 때, 산에 사는 존재들의 침묵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를 깨트릴 ‘화염’을 기다리면서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 불어’ 평화롭게 사는 세계가 도래하기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화합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갈망

(나) 이 시는 ‘물’과 ‘불’의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의 합일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죽어 가는 것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는 ‘물’로 인해 세상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파괴와 죽음을 모두 넘어선 다음 물로 다시 만나 모든 것이 융화된 새로운 이상향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

(다) 눈[雪]과 눈 덮인 세계에 대한 사색이 담긴 수필이다. 글쓴이는 눈을 따뜻하며 조용하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여 글쓴이는 고독에 빠진다. 그런데 이 고독은 오히려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글쓴이는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라고 말한다.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하여 순수한 시간이므로 누구나 사색과 철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제] 눈의 속성과 그에 대한 사색

34. 표현상 특징 파악정답

정답해설 : 시에서의 청자란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는 ‘산’을 ‘너희들’,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기다려도 좋으랴?’라고 거듭 묻고 있다. 이 물음은 ‘화염’과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설의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청자를 찾을 수 있다. ‘흐르는 물로 만나자’와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는 화자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므로 청자에게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대구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 지은 둘 이상의 글귀를 말한다. 4연과 5연의 끝 구절은 모두 ‘기다려도 좋으랴?’인데, 이를 대구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회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서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찾을 수는 있으나 이들이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다)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가)는 화자의 과거 체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상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⑤ (나)와 (다)에서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3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
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
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연과 5연에서 드러난 화자의 바람으로 보아 (가)의 '침묵'은 산의 부
정적 상태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는 화자
의 바람을 설의법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화염'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이다. ③
(나)의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
는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소망의 실현을 바
라고 있다. ⑤ (가)의 '즐거이 뛰는 날'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사
는 것과 연관되므로 평화로운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는 것과 연관되므로 진정한 합일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의 '우르르 우르르'는 물의
생동하는 힘을 표현한 것이다. ㉡은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이므로 불이 소멸
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물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비유되고 있다. ㉡은 불의 총족
감과는 관련이 없다. ② 비는 '물'의 한 모습이므로 ㉠의 비는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
다.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와는 무관하다.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대감
을 드러낸다. ⑤ 비는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보다는 하강하는 물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3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넷째 단락에서 글쓴이는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
을 갖게' 한다면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아를 재발견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고독'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은 둘째 단락에
서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부분에서 스스로 연민을 느끼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② 마지막 단락을 보면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마지막 단
락에서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진술은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지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첫째 단락에서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
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웃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재구성

정답해설 : ‘포근하다’는 단어는 보드랍고 따뜻한 촉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⑤가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짧은 글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㉗, 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④ ㉗의 조건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39-42] 현대소설 - 염상섭, ‘삼대’

지문해설 :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중심으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세대나 이념 등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이다. 계급과 가문을 중시하는 구시대의 전형인 조 의관과 위선적인 개화 지식인인 상훈, 그리고 합리적이지만 보수적인 지식인 덕기의 삼대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덕기의 친구이자 사회주의자인 병화, 조 의관의 첩이자 철저한 물질주의자인 수원집 등의 인물들을 통해 근대적 과도기인 1930년대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제] 삼대에 걸친 한 가족을 중심으로 본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39. 인물의 심리

정답해설 : ㉗의 내용을 보면 상훈의 부친이 족보를 만드는 데 ‘한 천 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 정도의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족보에 부정하게 이름을 올리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이 남에게 흉잡힐까 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줄여 말한 것이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①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맥락을 보면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결국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는 질문은 일종의 설의법으로 이해하여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B] 중간 부분에서 덕기가 상훈에게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B]의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B]의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의 발언에서 ‘이렇게만 하시면야’는 문맥 상 세간을 들이기 위해 천여 원을 들이는, 즉 낭비하는 상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덕기가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재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바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세간 값을 과하게 쓴 것을 아들이 탓하는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기본적으로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 덕기에게 하는 상훈의 말이 세간 값을 치를 수 없으면 놓고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앞의 맥락을 보면 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상훈도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들의 말을 막는 것은 남들 앞에서 부자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 상훈이 아들에게 하고자 한 말은 세간 값을 치루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미 아들에게 했으므로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1. 갈등 양상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상훈은 자신이 산 세간 값을 아들이 계산해 주지 않고 간섭을 하는 것과, 정미소 장부를 내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라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아들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상훈의 아버지 조 의관은 아들 상훈이 학교에 돈을 디밀고 자신의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한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하고 있으나 [B]에서 덕기의 아버지 상훈은 아들 덕기의 치부를 들추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아들 상훈은 아버지가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버지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 부분을 보면 [B]에서 덕기는 아버지 상훈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힌 상황에 동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서는 족보를 사는 데 돈을 쓰는 것을 간섭하는, [B]에서는 세간을 들이는 데 돈 쓰는 것을 간섭하는 아들의 말에 역정을 내며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아들 상훈은 좀 더 유리한 데에 돈을 쓰지 않고 아버지가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B]에서 아들 덕기는 아버지가 불필요하고 과하게 세간살이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과 ㉡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은 영감의 시선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어 체면 때문에 부당한 일을 남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감내하는 영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은 덕기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덕기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타락해가는 상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은 영감으로 일정하고, ㉡ 역시 덕

기로 고정되어 있다. ㉔ ㉕에서는 상훈이 아니라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고, ㉖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㉗ ㉘에서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훈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㉙에서 덕기는 상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심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㉚ ㉛에서는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는 ‘옳다’는 것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㉜에서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는 심리는 이해하지만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43-45] 고전소설 - 조위한, ‘최척전’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전란의 와중에 이산과 상봉, 유랑과 귀향을 겪은 최척과 옥영 가족의 이야기이다. 시간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소설들이 중국이나 조선만을 소설 속 배경으로 삼은 것과 달리, 사건의 무대가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소설의 배경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당시의 전란을 겪은 민중의 고통을 다루었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초자연적 도술이나 우연이 아닌 주인공들의 노력 위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측면에서 사실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제시된 장면은 일본에 끌려간 옥영이 돈우의 상선을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오고, 명나라로 건너갔던 최척도 동료들과 상선을 타고 안남으로 왔을 때,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의 시 소리가 매개가 되어 극적인 상봉을 이루는 장면이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43.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두 주인공의 재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타국(베트남)의 강어귀에서 쓸쓸함을 느낀 최척이 조선의 곡조로 피리소리로 마음을 달랜다. 귀에 익은 피리 소리를 들은 옥영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 자신이 남편과 있을 때 창작했던 시를 조선말로 읊는다. 이 소리는 다시 최척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배를 찾게 만들어 둘은 극적인 상봉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상봉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한 매개체는 조선의 곡조로 연주한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이 조선말로 읊은 시이다. 피리의 곡조와 조선말의 시는 모두 두 인물이 과거에 함께 나눈 문화적 경험이며, 문화적 경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두 인물의 상봉을 가능하게 한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장면에서는 최척과 옥영을 제외한 조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최척과 옥영이 주변 인물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돈우가 옥영을 남성으로 오해하기는 하였으나, 옥영의 고난은 전란으로 인한 것이지, 돈우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⑤ 최척과 옥영이 상봉하면서 통곡하자 주변 인물 중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돈우가 자신이 아끼는 옥영과의 이별을 슬퍼하기는 하나 최척과 옥영의 상봉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44.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최척은 아내가 창작한 시구를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의 인물이 읊는 것을 듣고, 그 인물이 혹시 아내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는다. 깊은 밤에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린 다음, 아침이 되어 아내와 상봉한다. 따라서 밤은 최척이 이제껏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때이고, 아침은 극적인 상봉을 통해 그 긴장이 해소되는 때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글에서 밤에 오고가는 피리 소리와 시 읊는 소리는 최척과 옥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해당하며,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인 것은 아니다. ② 부부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회에 이르는 과정을 위기의 조성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③ 밤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날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아침에 계획 실행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④ 아침에 부부의 이별이라는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이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최척의 말에 따르면, 밤에 옥영이 읊는 시는 부부가 헤어지기 전 아내가 짓고 읊었던 시이다. 옥영이 옛날에 지은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하는 처지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지, 시가 이산과 유랑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장면의 시간적 배경은 '경자년(1600년)'이다. 돈우가 옥영을 데리고 있게 된 지가 '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고향을 떠난 것은 1596년쯤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임진왜란(1592~1598년)의 기간에 속하므로, 이 작품의 사건은 전란과 유랑 체험의 역사적 실제성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이 일본인의 배를 찾아가게 된 것은 일본인의 배 안에서 '조선말'로 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또 옥영이 저절로 시를 읊게 된 것은 '조선의 곡조'로 된 피리 소리를 듣고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말', '조선의 곡조'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사건의 배경이 타국(안남의 강가)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부의 상봉을 지켜보며 놀라 소리치거나 함께 통곡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며, 이들의 눈물은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돈우가 옥영을 넘길 때 돈 받기를 사양하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양심을 보여주는 행위로, 임진왜란 당시 교전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에 해당한다.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⑤ 27. ④ 28. ④ 29. ④ 30. ②
 31. ⑤ 32. ② 33. ⑤ 34. ④ 35. ⑤ 36. ① 37. ⑤ 38. ⑤ 39. ②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④ 45. ①

[1~5] 화법

[1~2]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강연자는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재스민 차 드셔 본 분은요?’, ‘혹시 꽃을 넣은 전통 음식을 먹어 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볼까요?’라고 청중들에게 질문하며 그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강연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연자는 강연 중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강연자는 강연을 시작할 때 ‘요리 연구가 ○○○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뿐,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⑤ 강연자는 자신의 강연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강연자는 ‘철쭉꽃은 화전 재료로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며 철쭉이 진달래꽃과 달리 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을 뿐, 이 둘 사이의 형태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에서 강연을 들은 학생은 자신이 들은 내용과 사실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 않고 단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궁금해 하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강연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다. 즉 ㉡에서 식용이 가능한 꽃의 목록과 이를 재료로 한 음식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다. ③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하여 학교 화단의 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강연을 들은 학생은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강연의 내용을 화단의 꽃에 적용하고 있다. ④ 동아리 행사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던 학생이 강연의 내용을 활용하여 ‘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라는 해결책을 떠올렸다. ⑤ ㉡에서 학생은 꽃을 재료로 한 음식과 관련하여 꽃들을 식용 가능 범주와 식용 불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3~5]

3. 필요한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연설 마무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 2의 네 번째 발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는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시된 토의 내용 대부분이 연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모색과 관련되어 있다. 즉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찾기와 제시 순서 정하기,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보도 자료, 법 조항, 통계 자료 등)에 대한 언급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3이 학생 2의 발언에 대해 경각심 유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하여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도움이 되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학생 1이 제안한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방식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어서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자.’는 학생 1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5. 중요한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학생들의 발언 중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를 합의된 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② 학생 3의 첫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2, 학생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⑤ 학생 3의 두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동의하고 있다.

[6~10] 작문

[6~8]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초고>는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 마지막 문장의 ‘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② 1문단 둘째 문장의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③ 2문단과 3문단은 각각 농업에 도입될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환경 제어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⑤ 2문단의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2문단의 넷째 문장, 3문단의 둘째, 셋째 문장에서 그 문제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초고>에는 미래 식량 위기 예측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또한 [B]에서 식물 공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을 뿐,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의 마지막 문장은 ㉠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② ㉡의 현상은 모두 기상 상태와 관련된 피해들인데, [A]의 둘째 문장에 ‘기상 상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 예측과 조절을 어렵게 하는 원인임이 언급되어 있다. ④ [B]의 셋째 문장에서 언급한 ‘고층 건물 형태’는 ㉢의 실현 가능한 모습에 해당하는 식물 공장 형태이다. ⑤ [B]의 둘째 문장 중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은 ㉣의 요소에 해당하며, 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에 대해 언급하여 ㉣을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 제시에 활용하고 있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초고의 마지막 문단 둘째 문장은 ‘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 있으나, 고쳐 쓴 글의 둘째 문장은 그 문장을 대신하여 농업 분야 정보 통신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 해결할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여 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 검토 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통해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고쳐 쓴 글과 비교할 때 초고의 마지막 문단에서 달라진 문장은 둘째 문장이다. 이는 수식 관계가 어긋나거나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이 아니므로 ①, ④, ⑤의 첫째 항목은 검토 의견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쳐 쓴 글에는 농업 분야 정보 통신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 해결할 문제점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①, ②, ⑤의 둘째 항목은 검토 의견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9~10]

9. 작문의 과정 평가

정답해설 : [A]의 2문단에 자신과 친동생이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B]의 2문단에 친구 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문제 해결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1문단에서 '상담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의 상황'을 떠올린 것과, [B]의 1문단에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책'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2문단에서 자신이 '친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B]의 2문단에서 '친구 간에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마음을 달아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A]의 1문단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에서 '상담 선생님'께서 '복재비'의 역할을 하듯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과, [B]의 1문단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꾸준한 대화를 통해 교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제시한 후에 이를 '소리꾼'과 '복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감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A]의 2문단에서 친동생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해 부끄럽다.'라고 언급한 것과, [B]의 2문단 둘째 문장에서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③의 첫 문장에서 '대화'를 '열쇠'라고 표현하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문장에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교감해 나간다면'은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며, '데면데면하던 사이도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것'은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첫 문장에서 '좋은 친구'를 '등불'에 비유하고 다음 문장에서 비유의 의도가 제시되어 첫째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둘째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둘째 문장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에 해당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은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

였으나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한다면’은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은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둘째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첫 문장의 ‘지름길’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나, 둘째 문장에서 ‘먼저 다가서려 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면’은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표현이다.

[11~15] 문법

[11~12]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지문 해설 : 이 글은 복잡한 단어 구조나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실제 단어 분석 사례와 문장 분석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글이다.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문장이라도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나가면 그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직접 구성 요소의 개념과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의 방법과 의의

11.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따르면,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해야 한다. ‘눈웃음’은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눈+웃음’이 된다. 3문단에서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눈웃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눈웃--+음’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웃음’은 ‘웃--+음’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음’이 명사 파생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웃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웃음’이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들이웃’은 ‘나들이+웃’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나들이’는 ‘나들--+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나들이웃’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③ ‘드높이(다)’는 ‘드높--+이-’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파생어이다. ‘드높-’은 ‘드-(접두사)+높-’으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드높이(다)’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④ ‘집집이’는 ‘집집--+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집집’은 ‘집+집’으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집집이’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⑤ ‘놀이터’는 ‘놀이+터’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놀이’는 ‘놀--+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놀이터’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12.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4문단에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혹은 서술어를 포함한 주어 이외의 부분)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서술어는 '들었다'이다. '소포가'는 '들었다'의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직접 구성 요소를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나눌 수 없고, '들었다'의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은 "(언니는/민수는/...)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 '소포가 도착했다고'와 '들었다'로 분석되어야 한다. '소포가 도착했다고'는 인용절로 안긴 절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문장 전체의 주어 '지희는'과 서술절 서술어 '목소리가 곱다'로 이루어진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므로 올바른 분석이다. ③ ㉢은 주어 '동수가'와 서술어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④ ㉣은 서술어가 '밝혀졌다'이고 주어는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이다. ⑤ ㉤의 서술어는 '명언이다'이고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이다. 참고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은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13. 문법 요소

정답해설 :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에서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인칭, 3인칭 인물의 의지는 화자가 알 수 없으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과거 일에 대해서는 주체의 의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나는 집에 가겠다."는 미래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나 "나는 집에 갔겠다."는 과거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는 ㉡, ㉢, ㉣, ㉤의 밑줄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분석하여 그 기능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다.

14. 인용 표현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첫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므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 곧 '오늘'이 되어야 한다. 또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쓴 것인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말할 때 아들의 말이 간접 인용이 되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나'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있-'으로 서술어를 바꾸어야 하고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말해야 한다. <보기>의 두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므로, ㉡에는 주어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또 직접 인용의 명령형 '남겨라'는 간접 인용에서는 어간 '남기-'에 '-(으)라고'가 붙어야 하므로 '남기라고'가 되어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위의 정답 해설을 통해 ②, ③, ④, ⑤가 오답임을 알 수 있다.

15.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미틱’의 현대어 풀이는 ‘밑에’이므로 ‘의’는 높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하늬’의 현대어 풀이는 ‘하늘의’이므로 ‘스’은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② ‘請^ㅎ스^ㅅ복쇼셔’의 현대어 풀이는 ‘청하십시오’이므로 ‘-술-’은 ‘부터’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자음 앞에서는 ‘-습-’이 사용되나 모음 앞에서는 ‘-술-’이 쓰였다. ③ ‘아라보리로소니잇가’의 현대어 풀이는 ‘알아보겠습니까?’이므로 ‘-잇가’는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잇가’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쓰인다. 반면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는 ‘-잇고’가 쓰인다. ‘예/아니요’로 판정하여 대답할 만한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므로 ‘-잇가’가 쓰인 것이다. ④ ‘내’의 현대어 풀이는 ‘내가’이므로 ‘내’가 ‘나’의 주격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내’는 ‘나+ㅣ(주격 조사)’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ㅣ’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여 이중 모음을 이룬다.

[16~24] 문학

[16-18] 고전 시가 - 신흙, ‘방옹시여’

작품해설 : 작가인 신흙이 광해군 때 일어난 계축옥사로 인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시기에 창작한 시조 작품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작품 전체가 긴밀한 연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옹시여’는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들과 자신을 아껴 준 선왕(선조)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들로 이루어졌는데, 자연 속의 청빈한 생활과 유교적 충의 사상을 연결하여 품격 있게 표현하고 있다. 제목인 ‘방옹(放翁)’은 조정에서 밀려난 노인이라는 뜻으로 작가 자신을 가리키며, ‘시여(詩餘)’는 시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속세를 벗어난 전원생활의 정취와 연군의 정

16.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다)는 초장에서 봄비가 내린 후의 정경을, 중장에서 꽃과 버들이 활짝 핀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종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달빛을 벗 삼아 산촌에서 지내는 심정을 독백조로 노래한 것으로,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수간모옥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자족감과 자긍심을 드러낸 것으로, 과거와 대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라)는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에

서 입을 그리워하며 시름에 젖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는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마)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임이 찾아오는 소리로 착각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도 않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봄빛’은 꽃과 버들이 활짝 핀 것을 비유한 것이다. 화자는 활짝 핀 꽃과 버들을 보며 ‘화류’도 때를 맞춰 피는데, 임은 가고 오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봄빛’은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눈’은 화자의 은거지와 속세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에 ‘선조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이라는 정보가 있으므로, 화자의 은거는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나)의 종장을 바탕으로 감상하면 ‘수간모옥’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된 것이 아니라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내포한 소재이다.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과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는 소재는 아니다. ⑤ (라)의 ‘부용 당반’이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나, (라)의 종장으로 볼 때 현재 임이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1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마)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착각을 야기한 대상이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위의 ‘낙엽’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착각을 야기한 대상을 봉황이 깃을 다듬는 ‘그림자’라고 비현실적으로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해 비판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마)의 초장에서는 ‘워석버석’이라는 청각적 자극이, <보기>의 초장에서는 ‘어른어른커늘’이라는 시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마)의 초장의 ‘님이신가 이려 보니’와 <보기>의 초장의 ‘님만 너겨 풀썩 니러나 썩썩 나셔 보니’에서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의 중장의 ‘낙엽’과 <보기>의 중장의 ‘그림자’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마)의 종장에서는 ‘유한한 간장이 다 끈질까 흐노라’라며 화자 자신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종장에서는 ‘늬 우일 번 흐여라’라며 화자가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다.

[19-20] 현대시 - (가) 윤동주, ‘병원’ / (나) 박목월, ‘나무’

작품해설 : (가)는 병원의 풍경에서 본 젊은 여자 환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여인의 병과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이미지,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모습을 보게 된다. ‘나’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의 몰이해에 대해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만, ‘성내서는 안 된다’고 분노를 자제한다. 화자는 여인에게 공감하며 자신과 여인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3연의 산문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시는 대상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시키는 한편, 현장감을 주기 위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묘사에 의한 시각적 이미지가 돋보인다.

[주제] 고통과 고독에 대한 연민, 상황 극복의 기원

작품해설 : (나)는 화자가 여행 중에 본 나무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여행 중 나무에게서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는 모두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화자는 이 나무들이 외부의 풍경으로서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화자의 내면에 자란다는 말은, 그 나무와 같이 화자 또한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인식을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사물을 통해 자신의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주제] 나무를 통해 깨닫게 된 삶의 근원적 고독

19.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일까’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수도승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와 같이 변주하여 제시함으로써 나무가 연상시키는 고독의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흰옷’, ‘하얀 다리’ 등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는 ‘병원’, (나)에는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들이 일상의 공간과 대비되고 있지는 않으며, 두 작품 모두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사물의 속성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는 것에 가깝다. ⑤ (가)에서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 계절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20.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병원에서 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여자의 병과 고통,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하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 화자가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를 원망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여자’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나)에서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에게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의 고독한 모습과 자신의 내면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나무’들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병을 앓는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성 → 조치원 → 공주 → 온양 → 서울까지의 여행 중에 본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서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병원에 온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떠올리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떠올린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에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그 여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내고 ‘내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통해 이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고독한 내면을 깨닫게 되고, ‘나무’들의 모습이 ‘외로워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여자’에게 공감을 느끼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보는 행위를 통해 ‘여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게서 느꼈던 묵중하고 침울한, 고독한 모습이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본질임을 깨닫는다. 이를 ‘뿔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21~24] 시나리오/현대 소설 - (가)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나)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작품해설 : (가)는 황순원의 소설 ‘독 짓는 늙은이’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일생을 독 짓기에 바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도공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다만 원작이 단편 소설이므로 시나리오에서 많은 각색이 이루어졌는데, 시나리오에서는 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을 늙음과 젊음, 돈과 비인간성이 원인이 됨을 대립적인 인물의 유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독 짓는 노인의 장인 정신과 비극적인 삶

작품해설 : (나)는 일생을 독 짓기에 전념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독을 굽는

자신의 가마 안에서 최후를 맞는 장인의 모습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 준 세계에 대해 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독 짓기를 향한 장인의 굴하지 않는 집념

21.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송 영감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병색이 완연하였기에 독을 짓는 과정의 진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이로 인해 숯내를 많이 마시게 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송 영감이 지닌 능력의 한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냐! 이걸 독이 아냐’라고 외치는 모습을 자신의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독에 대한 절망감으로,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독에 대한 장인의 집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② 자신이 지은 독을 단순한 ‘흙덩이’로 바라보는 모습을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장인의 모습으로, 똥손이가 이겨 놓고 간 ‘흙덩이’를 독을 짓기 위한 소재로 본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③ ‘매섭게 ~ 뿔하니 간다’를 장인의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 결과로, ‘조수의 환영’을 장인의 내적 갈등이 작품 제작에 전념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본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⑤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박살 내 버린 후 그것을 보며 열열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가치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병색이 짙은 중에도 작품 제작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의로 판단한 것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2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송 영감은 자신이 제작한 독이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은 독’임을 확인한 후 비통해 하며 독을 모두 박살 낸다. 반면 석현은 ‘성한 것두 있어요’라고 외치며 이를 막으려 한다. 즉 송 영감은 독의 완결성에 주목한 반면 석현은 쓸 만한 것에 주목하고 있어 두 사람이 독의 완성도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독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송 영감이며, ㉠에서 말끝을 흐리는 옥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수는 송 영감의 병색을 걱정하고 있다. ② ㉠에서 똥손이는 송 영감의 행동에 놀라고 있지만 그것이 송 영감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송 영감이 얼마나 병색이 짙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 그것을 송 영감이 가마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엄마와 조수가 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에 해당한다.

2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술자가 송 영감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송 영감이 깨어난 일,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다녀갔던 일, 아침에 밥을 먹었던 일, 아이와 저녁을 먹는 일’ 등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에 의해 인물 간의 대화가 간접적으로 진술되고 있지만 서술자의 개입과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아이의 말을 통해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소개되고 있지만 송 영감과 앵두나뭇집 할머니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⑤ [A]는 송 영감이 기절했다 깨어난 상황만 서술하고 있고 공간의 거리감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경우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임을 감안할 때,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는 독이 깨지는 것에 대한 옥수의 내면적 아픔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지시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를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시각적 묘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송 영감의 관점에서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진술해 줌으로써 ‘백자기’를 바라보는 송 영감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개연성을 부가하고 있다. ② 송 영감의 행동을 저지하는 뺨손이가 송 영감에 의해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되고 있다. ③ ‘뚜왕’이 여러 차례 제시됨으로써 독이 모두 깨지는 상황이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있으며, ‘뚜왕’ 소리를 통해 아픔을 느끼는 옥수의 내면과 오열하는 송 영감의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완성되지 않은 독을 ‘못나게 지어’졌다는 진술로 표현할 때와 달리 ‘비틀어진 독’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미완성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5~39] 독서

[25~30] 기술,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이는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콘크리트는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로마 시대에 건축된 판테온에 쓰일 정도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골재를 반죽한 혼합물로, 골재의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쓰임에 따라 골

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지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한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보아 주택을 건축했다.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했는데, 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발전 과정은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이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 과정

25.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콘크리트는 예로부터 많이 쓰였지만,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이 약한 특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개발되었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을 보여 주면서 판테온, 사보아 주택, 김벨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콘크리트의 특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의 특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콘크리트가 로마 시대에도 쓰였다는 점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기원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건축물들의 한계를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④ 콘크리트의 물질적 특성인 강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시각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 각 재료와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도 탐색하고 있지도 않다. ⑤ 로마 시대, 근대, 근대 이후의 건축물의 특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건축물들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은 지상의 출입구, 2층의 주거 공간, 지붕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보아 주택은 층을 구분하였다. 그에 반해 ‘김벨 미술관’은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판테온의 돔은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였다. ②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정원이 조성되어 여유 있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③ 5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김벨 미술관은 인장 강도를 높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기둥 사이를 넓게 벌려 개방감을 주었다. ④ 1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판테온의 지붕 중앙에는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을 내부 공간에 들어오도록 하였고,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의 목욕실 지붕에는 작은 천창을 설치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넣은 철근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 만든 것으로, 콘크리트가 굳은 뒤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든다. 철근이 줄어들면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해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훨씬 크다. 철근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에 보강재인 철근을 넣은 것으로 철근보다는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볼 수 없다. ② 3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철근은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위주로 보강한다. ③ 2문단과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철근을 넣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 굳혀 만드는 것으로, 콘크리트 반죽이 굳는 동안 수화 반응이 일어난다. ⑤ 2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콘크리트는 서로 다른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강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했다. 3문단에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는 0.15라고 했다. 따라서 A(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와 B(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A와 B의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포아송 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의 분모의 절댓값이 같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므로 포아송 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절댓값이 A가 B보다 더 클 것이다. 즉 A의 지름이 B의 지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는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더 적다고 했다. ② 철재의 포아송 비가 0.3이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이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의 변화의 절댓값보다 크다. ③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0.15이므로,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의 변화의 절댓값이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보다 작다. ⑤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A와 B의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포아송 비에서 분자의 절댓값이 같다는 것이다. 포아송 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이 B가 A보다 더 클 것이다. 즉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29.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철골은 산화하여 녹이 슬 수 있으므로, 건축에 철근을 사용하면 산화 방지 조치를 한다고 했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에 쓰인 철골 기둥에도 산화 방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녀 규격화된 직선 형태로 제작된다고 했다. 따라서 철골은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만드는 재료로 적절하지 않다. ③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로, 김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두 미술관은 각각의 건축 재료를 활용해 기

등 사이를 넓혀 개방감이 들도록 하였다. 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여덟 개의 철골 기둥만으로 평면 지붕을 떠받치게 하여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사보아 주택도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를 지탱하게 하여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원형(圓形)’은 문맥상 지붕의 중앙에 있는 천장의 모양을 이르는 것으로, ‘둥근 모양.’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의 밑줄 친 ‘원형(原型)’은 문맥상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산물(產物)’은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다. ③ ‘점성(粘性)’은 ‘차지고 끈끈한 성질.’의 의미로 쓰였다. ④ ‘위주(爲主)’는 ‘으뜸으로 삼음.’의 의미로 쓰였다. ⑤ ‘영감(靈感)’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의 의미로 쓰였다.

[31~34] 과학, ‘열역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열과 일을 둘러싼 과학자들의 탐구를 소개하고 있다. 카르노는 열의 실체인 칼로릭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일을 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보았다. 한편 줄은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며 상호 전환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후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 설명이 줄의 발견과 위배됨을 지적했다. 하지만 열기관의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는 열의 방향성과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주제] 열역학에 대한 여러 과학자들의 탐구

3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카르노의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을 볼 때, 칼로릭 이론의 오류는 톰슨에 의해 밝혀졌는데, 톰슨은 열기관의 열효율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이는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② 2문단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③ 1문단에서 칼로릭 이론은 열을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졌다고 해도 쇠구슬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

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32.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카르노에 따르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줄이 입증한 사실에 따르면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따라서 칼로릭 이론으로는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을 볼 때,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은 증가성을 가지고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열과 일의 상호 전환을 볼 때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다'라는 진술은 맞지 않다. ③ ㉠은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계된 것으로 에너지의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다. ④ ㉠은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카르노가 활용한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⑤ ㉠은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다만 4문단에서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카르노의 이론이 지지되고 있다.

33.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일과 열은 상호 전환 가능한 물리량으로서 증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볼 때, 열기관의 '열의 양(A)'과 '일의 양(B)'의 관계를 구하면 그 값은 100%를 절대로 초과할 수 없고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열손실을 말하므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는 그 값과 상관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한 것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② 5문단을 볼 때, 값은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③ 5문단을 볼 때, 값은 흡수한 열의 양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④ 5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에서의 '어긋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에서 '부르다'는 '어떤 행동이

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은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에서 '다루다'는 '기계나 기구 따위를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은 '액체 따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넘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영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에서 '흐르다'는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에서 '생기다'는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5~39] 사회,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법인격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단 법인의 개념과 성격을 소개한 다음 법인격 부인론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된 사단과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이 되어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도 사단 성격의 법인이며 대표적인 회사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있다. 일인 주식회사에서 사단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3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사단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며,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사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단은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이 갖춘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하며, 사단은 운영 기구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설명하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 측면에서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하는데,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라고 정의되고,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6. 핵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라고 진술되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을 참고할 때, 회사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는다. 2문단을 참고할 때, 일인 주식회사도 회사의 일종이므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일인 주식회사이다. ③ 3문단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④ 3문단에서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의결 기관으로 둔다고 진술되어 있다. ⑤ 2문단에서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7.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인 ‘허울’이 포함된 문장은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이다. 이로 보아 ‘허울’의 문맥적 의미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 회사 자체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 할지라도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㉓와 ㉔는 문맥적으로 사단 법인과 사원 개인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원 개인은 법인의 법인격과는 구별되므로 사단이 진 빚을 갚을 의무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③ 1문단에서 사단은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는데,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지 않지만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㉔의 문맥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이다. ④ ㉓는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㉑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 ㉑에 입각하여 회사가 아니라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져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법인격 부인론은 특정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④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지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39.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의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비(具備)하다’는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의 뜻이므로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구비하다’로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겸비(兼備)하다’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의 뜻이다. ㉢ ‘대비(對備)하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의 뜻이다. ㉣ ‘예비(豫備)하다’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의 뜻이다. ㉤ ‘정비(整備)하다’는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의 뜻이다.

[40~45] 문학

[40~45] 고전 소설

(가) 우리나라 전기소설

지문해설 : 이 글은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정립 과정을 다루면서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 중국의 전기의 ‘기이한 사건’을 받아들여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이라는 독자성을 갖춘 전기소설은 외롭고, 소극적·폐쇄적이며, 내면성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설화와 차별화되어 왔다. 이러한 전기소설은 설화와는 다른 방식의 갈등을 다루면서 점차 소설적 면모를 갖추었고, 전기소설의 다양한 구도는 이후 몽유록 소설, 영웅 소설, 애정 소설로 계승되었다.

[주제]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특징과 정립 과정

(나) 작가 미상, ‘김현감호’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신라 때 처녀로 변신한 호랑이가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설화로서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진다. 밤늦은 때까지 절에서 탑돌이를 하던 김현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눈다.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에 간 김현은 이 여인이 호랑이가 변신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데, 여인의 세 오빠가 악행이 심해 하늘이 재앙을 내리려 하자 여인은 김현의 손에 죽을 것을 결심한다. 그렇게 하여 여인은 자결하고 김현은 호랑이를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오르게 된다.

[주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

(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

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서 보여 준 이생과 최낭의 자유연애에 의한 사랑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랑을 실현한 사건은 작가의 애정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흥건적의 난으로 깨어지고 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최낭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 이는 비극적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4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서 비롯하였으며,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인데,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전기소설은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이생은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최낭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며, 자신이 인간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그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라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의 3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에서 최낭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비극적 결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가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고, 범을 잡아 벼슬에 등용된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의 김현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소극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이 다

섯 가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가)의 3문단에서,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김현과 범의 갈등 해결은 불교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의 이생은 최남이 환신해 돌아오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남과 함께 살면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이생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횡액을 당해 죽은 (다)의 최남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 원통해 하다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남은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며,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서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의 최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외로움'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여주인공인 처녀(범)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처녀와 헤어지고 있다. 그리고 [A]에서 남주인공인 이생은 여주인공인 최남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고 하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자신이 죽으면 다섯 이로우미 갖춰진다고 하면서 김현에게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남은 자신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고 말하면서 남주인공인 이생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남주인공인 김현에게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처녀(범)는 자신의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김현에게 알려 주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남은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달라며 이생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나, 이를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④ (나)에서 여주인공은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죽이고, 그 공로로 벼슬에 올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함으로써 범이

제 몸을 죽여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아내인 최냥이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준 후에 병을 얻어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올랐으므로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최냥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

4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처녀(범)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범의 희생으로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이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김현은 처녀(범)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처녀(범)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에서 김현은 임금에게서 벼슬을 얻고 있으므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임금은 범을 잡기 위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에 따르면, 이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성취되는 서사일 뿐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로 보기 어렵다. ⑤ (나)에서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범이 희생을 감행하기 직전의 일이다. 범의 희생에 대한 김현과 처녀(범)의 갈등이 이미 해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장면이 부처가 김현과 처녀(범)의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는 서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과 산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최냥은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시다’라고 하면 이생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황천으로 가서 살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이생을 만류하고 나서 점점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시다’라는 구절

이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생과 결혼한 최낭은 행복하게 살다가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횡액'은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을, '구렁'은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하므로 이생과 최낭의 사랑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최낭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헤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짜 잃은 새'에 빗대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잃은 최낭의 슬픔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③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온 최낭이 이생에게 옛날의 '굳은 맹세'를 지키자고 제안하자 이생은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두 남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 ⑤ 최낭은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죄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는 이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최낭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다)에서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사건은 이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장면이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에서 횡액을 만나 죽은 최낭은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최낭은 능동적인 여인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최낭은 이미 죽었으나 '환신'으로 이생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기쁜 정'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산 자(이생)와 죽은 자(최낭)가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은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최낭은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나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최낭은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는 저승과 이승이라는 이원적 공간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이생은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는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④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④ 23. ⑤ 24. ③ 25. ③ 26. ⑤ 27. ② 28. ② 29. ① 30. ②
 31. ④ 32. ③ 33. ⑤ 34. ④ 35. ① 36. ③ 37. ③ 38. ④ 39. ⑤ 40. ①
 41. ④ 42. ① 43. ③ 44. ⑤ 45. ①

[1~5] 화법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정선의 산수화 중 ‘관동팔경’의 주요 작품들이 시각 자료(화면)로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정선의 산수화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예로 쓰이고 있다. <총석정>은 수직준법과 생략의 기법, <삼일포>는 평원법을 써서 산수화의 ‘환’을 실현했고, <낙산사>는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등 청중이 발표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작품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시각 자료로 작가의 작품들이 열거되었으나, 참고 서적은 제시·열거되지 않았다. ‘환’에 관한 산수화 연구가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참고 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마지막에 제시되는 시각 자료는 점경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 <낙산사>이며,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발표자가 첫 번째로 제시한 시각 자료는 <총석정>이며,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⑤ 시각 자료로 작가의 작품들이 활용되었으나, 정선의 작품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시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발표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발표자는 정선이 <삼일포>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였고, <총석정>에서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삼일포>에서 정선이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메모한 내용 ㉠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환’이라고 하며,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정선의 산수화에 ‘환’이 실현되었다는 메모 내용 ㉠은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정선의 산수화에서는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하며, 점경 인물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정선이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산수화에 등장시켰다는 메모 내용 ㉞는 적절하다.

③ 발표자는 정선이 <총석정>에서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총석정>에서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더욱 부각하였다는 메모 내용 ㉟는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낙산사>와 관련하여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라고 발표하였으므로, <낙산사>에서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다는 메모 내용 ㉡는 적절하다.

3. 입론의 내용 및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의 심사 방식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고 새로운 추첨 방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1'은 기존 심사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 계획 제출 기회가 공평하다는 점, 준비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찬성 1'의 입론에서 용어의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해당 동아리를 선정하는 방식이 심사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였으며, 기존의 심사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는 주장하지 않았다.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⑤ '반대 1'은 입론에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반대하여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열거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말하기 전략 추론

정답해설 : [A]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며, 찬성 측 주장대로 추첨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의 탈락 가능성,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B]는 반대 측 입론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며, 작년 설문 조사 결과 자료를 근거로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자는 반대 측 발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B]에서 찬성 측은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측이 앞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평가 기준의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 대신 다른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② [A]에서 반대 측은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추첨으로 방식을 바꾸었을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기존 방식(심사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찬성 측은 상대측이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근거를 들었으나, 상대측이 사용한 근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거의 출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⑤ [A]와 [B]에서 양측은 상대측의 주장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지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반대신문 [A], [B] 이전의 논의에서 양측은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지 않았다.

5. 토론 내용의 분석

정답해설 : 반대 측은 추첨 방식을 반대하고 기존의 심사 방식을 옹호하는 토론자이다. ㉠ 추첨 방식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므로 ㉠ 추첨 방식이 ㉡ 심사 방식보다 더 공평하다는 주장은 반대 측은 주장이 아니라 찬성 측의 주장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찬성 측은 ‘찬성 1’의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그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고, 추첨 방식은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다고 하며, ㉠ 추첨 방식이 더 적합한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찬성 1’의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데, 이를 추첨 방식으로 바꾸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여 ㉠ 추첨 방식이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서 추첨 방식을 시행하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음을 들어 ㉡ 심사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반대 1’의 입론에서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 심사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6~10] 작문

6.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이 문항은 [A]를 쓰는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A]에 어떤 순서로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A]에서 ‘학생’은 우리가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접하고 있음을 밝혔다.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매체인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광고 매체에 대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이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은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가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할 예상 독자를 위한 언급으로, ㉡이 반영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생’은 매체 이용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여러 유형의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 반응을 언급한 것으로, ㉢이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했음을 밝혔다. 이는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에 대한 부정적 경향에 대응해 새로운 광고가 등장했음을 언급한 것으로, ㉣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이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는 ㉠-㉡-㉢-㉣이다. **정답 ④**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는 기사형 광고이고, [B]에서는 기사형 광고는 광고가 아니라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 제시된 자료의 제목 ‘좋은 물이 장수의 비결’에는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B]에서 기사형 광고는 전문가의 인터뷰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고 했다.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B]에서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이 이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제시된 자료에서 ‘특집’이나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B]에서 기사형 광고에서는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광고를 삽입하여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고 했다. ‘△△샘물’이 11월 2일에 출시되고, 500ml의 제품 가격이 1,000원이라고 밝힌 것은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B]에서 기사형 광고에는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 기자’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제시된 자료에 이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가 이 광고를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조건에 맞게 쓴 글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에서 제시된 조건은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새로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에서 ‘학생’이 새로운 광고 기법으로 소개하는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⑤의 ‘광고를 유용한 ~ 착각을 유도한다.’는 이러한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매체 이용자들은 ~ 필요가 있다.’에는 매체 이용자에게 새로운 광고 기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기 전에 쓰였던 광고 기법의 문제점이다. 또 매체 이용자가 아니라 기업이 광고를 점검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② 새로운 광고 기법 중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의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된다. 따라서 언급된 문제점은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존 광고에 대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아 부작용이 적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없다. 또 새로운 광고 기법이 아니라 기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④ 새로운 광고 기법 중 검색 광고의 문제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매체 이용자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10]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학생’이 연상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은 ‘이 푸른 잔디’를 보며 바깥 마른 갈색의 잔디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과정을 떠올려 보았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 관찰한 것은 ‘바깥 마른 갈색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은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하며 그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곳의 잔디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밟혔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학생’은 바로 그 때문

에 잔디를 불쌍하게 보았다.

② ‘학생’은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다시 잔디가 싹을 틔운 것을 보며 잔디의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③ ‘학생’은 잔디밭의 잔디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견뎠다는 생각에 잔디에 대해 대견함을 느꼈다.

④ ‘학생’은 잔디밭의 길을 보며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지금은 사라진 잔디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학생’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라진 잔디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문맥상 ㉠과 뒤에 이어진 말은 모두 ‘잔디 싹’의 긍정적 미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인 ‘-고’를 써야 한다.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의 연결 어미를 ‘-지만’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동사 ‘겪다’는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의 의미로, 서술어로 쓰일 때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서 부사격 조사 ‘에’는 목적격 조사 ‘를’로 고쳐야 한다.

② ‘눈에 보이다’의 의미를 지닌 어휘는 ‘뜨이다’로, ‘뜨이다’의 준말이 ‘띄다’이다. 따라서 ㉠은 ‘띄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의 앞뒤 문장은 모두 잔디의 긍정적 측면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은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 ‘그러나’가 아니라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 다 더’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동사 ‘이루다’는 ‘뜻한 대로 되게 하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는 문맥상 목적어 ‘꿈을’을 첨가해야 한다.

[11~15] 문법

11.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본래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던 ‘가깝다’가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①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에서 ‘낮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에서 ‘낮다’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

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중심적 의미가 추상화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크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이다.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에서 ‘크다’는 ‘가능성 따위가 많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며,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에서의 ‘크다’ 역시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③ ‘넓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이다.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와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에서 ‘넓다’는 모두 ‘너비가 크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④ ‘좁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이다. ‘내 좁은 소견을 말씀드렸다.’와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에서 ‘좁다’는 모두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에서 ‘작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며,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에서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12.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옹고’는 ‘옹고 → 옹고 → 옹꼬 → [옹꼬]’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옹고 → 옹고’에서 (가)를, ‘옹고 → 옹꼬’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꽃힌’은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ㄸ’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꼬친]이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② ‘몹이’는 연음으로 인해 [목시]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에 의해 [목씨]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③ ‘비웃’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인 ‘ㅅ’이 온 경우에 해당한다. (가)에서 설명한 ‘음절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마찰음 ‘ㅅ’이 파열음 ‘ㄷ’으로 교체되어 [비온]이 된 것으로,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만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얹고’는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안코]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1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우선 중세 국어의 ‘큰 막스물(막숨+을) 여러(열--+어)’와 ‘번개 구름(구름+을) 흐터(흠--+어)’, 현대 국어의 ‘큰 마음을 열어’와 ‘번개가 구름을 흠어’에서 ‘열다’와 ‘흠다’의 목적어가 모두 드러나 있으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두 동사는 모두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自然히 막스미(막숨+이) 여러(열--+어)’와 ‘散心은 흐튼(흠--+은) 막스미라(막숨--+이라)’에서 ‘열다’와 ‘흠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자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경우 ‘열다’와 ‘흠다’는 ㉠과 ㉡의 첫째 문장에서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열--+리--+어)’와 ‘산심은 흠어진(흠--+어지--+ㄴ) 마음이다.’에서처럼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결합돼 쓰이는 모습을 통해 자동사로는 쓰이지 않고 타동사로만 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14~15]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

지문 해설 : 이 글은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의 다양한 문법적 특징과 결합 제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거나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것,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거나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것과 같은 접미사의 문법적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또한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고,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접미사의 결합 제약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주제]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의 특징

14. 단어 형성의 원리

정답해설 : 제시문에서는 명사 ‘먹이’나 ‘늪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먹이’와 ‘늪이’의 ‘먹-’과 ‘늪-’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서 ‘놀이’는 동사의 어근 ‘놀-’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에 해당하므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죽이다’의 어간 ‘죽이-’는 ‘죽다’의 어간 ‘죽-’과 구별된다는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서 ‘비워’의 어간 ‘비우-’는 ‘시간이 빈다.’에서 ‘빈다’의 어간 ‘비-’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지만, '높이'의 품사는 명사가 아닌 부사이다.

④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서 '끓였다'의 어근인 '끓-'에 붙은 접미사 '-이-' 역시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살다'(*살이다), '읽다'(*읽이다) 등과 같이 접미사 '-이-'가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도 있다.

⑤ ㉡에서 '오시기'는 '오-+-시-+-기'로 분석된다.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는 접미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간 '오-'와 명사형 어미 '-기' 사이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끼어든 것에 해당한다.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경우 해당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으므로, '오시기'의 품사는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

15.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접미사가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주어가 동작을 다른 대상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한 예(㉠)와 접미사가 타동사에 붙어 피동(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의미를 더한 예(㉡)를 찾아야 한다. ④의 ㉠은 '보이지 않게 몸을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진 예에 해당하고, ㉡은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감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진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기쁨, 슬픔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아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다. 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울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돌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② ㉠은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를 잊거나 풀어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놓다'에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③ ㉠은 '물체의 전체 면이나 부분에 대하여 힘이나 무게를 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누르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찢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⑤ ㉠은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날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맡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16~20] 인문, '지식의 구분'

지문해설 : 이 글은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과 이와는 상반된 입장인 '콰인'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하였다. 반면, 콰인은 이러한 구분을 부정하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을 상정하여 지식에 대해 설명하는 '총체주의'를 주장하였다.

[주제]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의 주장

1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의하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한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콰인은 2문단에서 가설을 포함한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②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콰인은 4문단에서 지식의 변화가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콰인은 3문단에서 분석 명제가 지니는 순환성을 바탕으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인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고, 4문단에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③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④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하여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콰인은 2문단에서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고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 예측이 도출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④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은 분석 명제로, 과학적 지식은

종합 명제로 구분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로 판단하였으므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4문단에서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과 같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시험되는 과학적 지식과 같은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⑤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17.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콰인은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하는 것을 부정한다. 두 번째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의적 표현은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필연성 개념은 다시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라는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면서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의하면 포퍼는 예측이 맞을 경우보다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②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하여 미혼임을 확인하는 경험적 방법은 분석 명제임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콰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적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동어 반복 명제는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이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했을 때 참, 거짓이 바뀌는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18.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기되는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는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실용적 필요에 따라 전체 지식인 ㉔의 수정을 통해 가설인 ㉔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정확

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설인 ㉠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4문단에서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 대부분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지만 실용적 필요로 인해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측인 ㉞가 거짓으로 밝혀져서 ㉢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수정 부분은 실용적 필요에 따라 주변부가 될 수도 있고 중심부가 될 수도 있다.

㉢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설인 ㉠와 전체 지식인 ㉢로부터 예측인 ㉞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수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는 전체 지식인 ㉢의 주변부, 즉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지만, 중심부 지식 중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 법칙과 같이, 경험과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총체주의는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예측과 경험의 충돌로 인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이 반드시 틀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총체주의의 입장과 동일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②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뀌 쓰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의 의미를 지닌 ‘다다르다’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잇따르다’는 ‘사건이나 행동이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봉착하다’는 ‘어떤 상태에 부닥치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회귀하다’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기인하다’는 ‘어떤 것에 원인을 두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1~26] 문학

[21-26] 전쟁 소설

(가) 전쟁 소설의 성격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재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박씨전'에서는 실제의 전쟁 결과와는 다르게 박씨 부인이 오랑캐군을 무찌른다는 허구적인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전장'에서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전쟁의 폭력성을 다루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제시된 두 작품을 통해 전쟁 소설이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인식하려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했던 '박씨전'과 '시장과 전장'

(나) 작자미상, '박씨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인 박씨 부인이 청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다. 박씨 부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피화당이라는 공간을 침입한 청나라의 군대를 영웅적 활약을 통해 무찌른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처참한 패배와 굴욕적인 화친으로 인해 손상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오랑캐군을 무찌르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활약

(다) 박경리, '시장과 전장'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상흔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남긴 곡식을 서로 퍼 담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식을 담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씨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윤씨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남기고 간 쌀을 얻으려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지영은 죽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윤씨와 지영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박씨전'은 실재했던 전쟁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했지만 소설 '박씨전'에서는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청나라 군대를 무릎 꿇게 한다. 이는 실재했던 전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여성 인물인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가 가해 세력으로 등장한 용골대 등의 무리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시장과 전장'은 실재했던 전쟁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쟁의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박씨전'에 등장하는 '용골대'는 실존 인물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군사를 이끌던 장군이었고, '시장과 전장'에 등장하는 '중공군' 역시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중공군을 말하는 것이므로 '용골대'와 '중공군'은 모두 실재했던 전쟁을 환기하고 있다.

2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박씨전'에서 박씨가 청나라 군사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박씨를 너그럽고 관대한 인물로 설정하는 대신 청나라 군사들은 박씨의 자비를 입어 목숨을 구하는 초라한 존재로 설정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임장군전'에서 용골대가 승전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므로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계화와 박씨는 용골대를 꾸짖으며 굴복시키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실재했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던 치욕을 허구적 인물을 통해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계화와 박씨는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서술자는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에는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 느끼는

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전'에서 용골대는 박씨 부인을 무찌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물로, '임장군전'에서 용골대는 조선을 침략하여 승리한 후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용골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은 병자호란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박씨전'과 '임장군전' 두 작품에서 모두 왕대비는 청나라에 볼모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박씨전'의 경우 '임장군전'과 달리 박씨의 영웅적 활약에 의해 왕대비가 청나라에 볼모로 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했던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용골대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오.”라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수하 장졸들의 죽음을 박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가득하고, 조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은 전쟁으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조선의 도원수로 등장하는 인물인 김자점은 용골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군의 무능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소설의 독자들은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하는 모습으로 오랑캐군을 설정하여 오랑캐군이 은혜를 모르는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끓주린 이리떼’는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에 지쳐 곡식을 보고 달려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끓주린 이리떼’라 표현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아직 윤씨가 총에 맞기 전이므로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윤씨는 식량을 얻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과 그렇지 않은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고, 악을 쓰며 곡식을 퍼 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조차 상실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윤씨는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윤씨는 죽으면서까지 쌀자루를 꺼안고 있다. 윤씨의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인물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지영은 총에 맞아 죽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에 돌아온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벼랑을 기어오르는 것은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김씨 부인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라 말하면서 윤씨를 찾아 강변으로 달려가는 지영을 만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가 강변에 도착하여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용골대는 처음에 화살로 공격을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화약 염초를 이용하여 화공을 쓰게 된다.

② 박씨가 오랑캐군을 공격한 것은 왕대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용골대가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씨가 오랑캐군과 조선의 화친 언약을 몰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윤씨가 김씨 댁 아주머니와 함께 식량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다.

⑤ 윤씨는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라 말하고 있으므로 윤씨는 피란을 간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중략’ 이전에 한강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식량을 자루에도 담아 내는 장면, 윤씨가 사람들을 따라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는 장면, 그리고 ‘중략’ 이후에 윤씨를 찾아 지영이 강변으로 달려가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인물의 행위가 현재형 시제를 통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감이 잘 드러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회상의 형식이 아니며, 인물 간의 갈등 역시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②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적 배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 역시 제시되지 않는다.

③ 인물의 경험이 관념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윤씨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원인은 알 수 있지만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윤씨와 김씨 댁 부인간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날 뿐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7~32] 현대시 - (가)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지문해설 : (가)는 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지만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했던 김수영 시인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신을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화자는 이러한 '반역된 생활'에 몰두하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반역의 정신'을 향해 살아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활을 위해 시에서 멀어졌던 화자는 다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기 위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진정한 시를 쓰기 위한 진지한 자기 성찰

(나)는 불상 제작에서 형태와 내용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부처의 모습(형식)을 중요시하는 동연과, 부처의 마음(내용)을 중요시하는 서연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함묘진과 그의 딸인 함이정, 함이정의 아들인 조송인의 3대의 인물이 동연, 서연과 얽혀 있는 관계가 맞물리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식과 내용, 이 두 요소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예술적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예술의 본질적 가치 추구

2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3연에서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나의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친구'의 방문으로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2연에서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과 '아내', 그리고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4연에서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6연에서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1연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8연에서 '시를 반역한 죄로 /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이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3연의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 '이미 정해진 물체'는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므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는 생활에 시선을 고정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가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보기>에 따르면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1연의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화자가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고 하였으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고 하였다. 7연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은, 화자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보기>에 따르면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반역의 정신'을 지향하는 것은 화자가 ㉣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

㉤ <보기>에 따르면 ㉢에서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고 하였다. 화자가 ㉢에서 ㉣으로 변모하면서 '메마른 산정'에서 '구름'을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구름의 파수병'은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2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방 두 칸', '마루 한 칸', '말썽한 부엌', '애처로운 처'를 나열하면서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썩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함이정은 개울물을 바라보면서 '얼굴', '얼굴 뒤엔 구름', '구

름 뒤엔 하늘'과 같이 물 위에 비쳐 보이는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물을 마시며 맑고 시원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B]가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함이정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A]의 대상들은 '남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평범한 삶의 조건들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대상들이 화자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B]의 대상들은 개울물 위에 비쳐 보이는 것들일 뿐 함이정의 불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④ [A]에 제시된 대상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대상들을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으므로 [A]에서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B]에서 함이정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서연의 얼굴을 '우리 얼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고 볼 수 없다.

⑤ [A]와 [B]에서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30. 갈래별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㉞에서 '상복'을 입고 있던 함이정과 조송인이 '밝은 색 옷'을 입으면서 함이정과 조송인이 서연의 장례식을 치르던 장면에서 서연과 동연이 서로의 예술관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㉞에서 한 가운데 있던 천막이 무대 위 천막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통합되게 된다. 그러므로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㉞에서는 조명을 통해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장면에서 개울물은 이 세상과 저세상을 분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㉞는 조명 변화를 통해 개울물에 주목하게 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㉞의 뒤에서는 함묘진이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가는 행동이 나타나므로 ㉞는 등장인물이 무대 안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㉞에서는 인물의 다급한 행동이 나타나 있으므로 ㉞가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서연의 예술관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하늘'과 대비되는 공간이 아니며, 조송인이 작곡을 하고 있는 장면은 서연과 함이정이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과 연결되므로 이 '길'은 서연의 예술관이 조송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6연의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에서 화자는 '생활'을 상징하는 '집'과 '시'를 상징하는 '거리' 사이에서 방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과 '거리'는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연의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에서 화자는 '먼 산정'으로 상징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먼 산정'은 화자의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게 위해 상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작업장'에서는 불상 제작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서연과 동연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개울물의 '이쪽'은 이 세상을, 개울물의 '저쪽'은 저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라고 외치며 서연의 뒤를 따르는 함묘진의 행동을 고려할 때, 서연이 향한 개울물 '저쪽'은 단순히 저세상을 의미하는 공간을 넘어 서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2.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조송인의 대사는 이후에 등장하는 함묘진, 동연, 서연 사이의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송인이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 이후에 극중 사건은 현재에서 서연과 동연이 갈등하던 과거로 전환되고 있다.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 등장하는 동연과 서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에 등장하는 함묘진의 두 제자이다.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동연과 서연이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임을 알 수 있다.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를 통해 서연은 어떠한 재료로도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추구하던 자신의 예술관을 구현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서연은 예술에서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3~36] 독서

[33~36] 과학,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지문해설 : 이 글은 반추 동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되는데 인간과 반추동물 모두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위가 넷으로 이루어진 반추 동물은 섬유소를 섭취하면,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의 효소 복합체에 의해 셀룰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이 포도당은 다시 F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 이 과정의 대사산물로 아세트산과 숙신산이 발생한다. 이때 대사산물인 아세트산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과 체지방 합성에 이용되고 그리고 숙신산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인 프로피온산을 합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비섬유소인 녹말은 반추위에서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은 S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S는 산성도에 따라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을, 산성일 때에는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젖산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한편 비섬유소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S가 과도하게 성장하면 젖산 배출이 많아지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반추위 내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F, S의 생장이 멈추고 L과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급증하여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주제]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3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과 얽혀 있는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분해된 포도당은 F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사람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해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통해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셀룰로스의 구조를 끊고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으며, 반추위 미생물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했을 때 유발된다.

34.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㉞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고, 산성도가 높아지면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㉞는 젖산 생성 미생물로서 산성도에 따라 젖산의 배출 양에만 영향을 줄 뿐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는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며, ㉞는 세포 외부의 pH가 5.5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 ㉞ 모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포도당을 분해하며, ㉠는 포도당을 생존 유지와 성장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배출하는데, 특히 아세트산은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또 ㉞ 역시 산성도가 중성일 때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아세트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할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산성도가 높아지면 pH가 6.0이하로 떨어지므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한 ㉞는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의 섭취가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 ㉠의 생장이 촉진되어 젖산 배출이 증가하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는 세포 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여 생장이 감소하고, ㉞는 왕성하게 성장할 것이다.

35.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으로 합성되지 않는다. 또 비섬유소도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에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③, ④, ⑤). 하지만 섬유소가 F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이 되고, 비섬유소가 S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이 되므로 ㉠에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2문단에 따르면, F는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데 이때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S는 산성도에 따라 아세트산과 에탄올,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며, 이 중 아세트산과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에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F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

며, S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3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배출하는 대사산물이다. 산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대사산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므로 숙신산의 배출은 반추위의 산성도와는 관련이 없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비섬유소인 녹말의 양이 충분하고 산성도가 높을 때 대사산물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중성일 때보다 산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프로피온산의 양이 증가하므로 포도당의 양도 증가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분해한 포도당을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가 pH 6.0 이하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가 산성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7~42] 독서

[37~42] 사회, 보험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보험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지 의무라는 법적 제도가 있다. 고지 의무를 통해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것이다.

[주제]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 실현을 위한 법적 의무

37.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글의 중심 화제를 찾기 위해서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보험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한 후, 2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3문단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고지 의무를 소개한 후 4, 5, 6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험사의 상품 판매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험 상품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을 해야 보험이 해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상법에서 보험사에게 계약 해지권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계약 해지권은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잘못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권한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보험료/보험금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공동체 B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은 공동체 A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보다 두 배가 높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면 B에서의 보험료는 A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같다면 A에서의 보험금은 B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결국 B에서 사고 발생 확률은 A의 두 배이지만 보험금은 A가 B보다 두 배 많으므로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공정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도 두 배로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공정한 보험에 따라 보험료도 두 배로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B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은 A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의 두 배이다. 따라서 A와 B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같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보험료율은 보험료/보험금이다. 따라서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같다면 B에서의 보험료는 A에서의 보험료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4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진실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3, 4문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고지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고지 의무는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로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보험사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해지권 행사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5문단에서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는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B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의 의미이다. 그런데 ㉑에서의 대비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㉖와 선지 모두,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㉓와 선지 모두,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④ ㉔와 선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㉔와 선지 모두,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썩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43~45] 고전시가

[43~45]

고전 시가 - 홍순학, ‘연행가’

작품해설 : 조선 말기 홍순학이 1866년(고종 3년) 3월에 왕비 책봉을 주청하기 위한 사신 일행의 서장관으로 연경(북경)에 다녀온 후에 지은 장편 기행가사이다. 작가는 4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133일 동안 견문한 내용을 시간과 여정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작가가 견문한 것들을 사실적이면서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어서 당대의 청나라 문물과 문화적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은 사신 일행이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황제의 상을 하사받고 잔치를 마친 후 날짜를 정해 조선으로 귀국할 때의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주제] 사신의 일행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견문과 감상

4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연행을 하는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 자명악 같은 낯선 풍물을 접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나누고,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체험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회환 날짜를 정해 귀국할 때의 시원하고 상쾌한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를 학문과 관련한 사물을 나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은 필담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화자의 입신양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 글에서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묘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를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로 볼 때 화자는 귀국하는 도중이지 여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은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올 적(청나라로 출발할 때)’에서 시간이 한참 경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절로 울어 소리하며’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편저편’이라는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고급 목재로 된 의자에 마주 앉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행의 ‘처음 인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귀국 준비를 위해 바쁘게 짐을 싸고 있는 것이지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분분하고’는 음성 상징어가 아니라 형용사로, 떠들썩하고 뒤숭숭한 상황을 나타낸다.

④ ㉠의 앞 구절과 뒷 구절을 대구적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의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는 상황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B]의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청나라 황제에게 사례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의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와 [B]의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필담’을 통해 서로 간에 간곡한 정을 전달하고 있으며, [B]의 ‘구고두’는 청나라 시대에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공식적 예법으로, 황상(황제)이 조선 사신 일행에게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은혜에 의례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④ [A]의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필담을 통해 비로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B]의 ‘비위가 뒤집혀서’는 푸짐한 잔치상을 받았으나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곤란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언어가 같지 않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곁밤’은 음식을 나열하여 잔치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1. ③ 2. ④ 3. ① 4. ② 5. ④ 6. ④ 7. ① 8. ② 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① 14. ②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① 20. ②
 21. ① 22. ① 23. ⑤ 24. ① 25. ⑤ 26. ① 27. ② 28. ⑤ 29. ④ 30. ④
 31. ③ 32. ② 33. ⑤ 34. ② 35. ③ 36. ③ 37. ④ 38. ③ 39. ⑤ 40. ②
 41. ⑤ 42. ④ 43. ③ 44. ② 45. ⑤

[1~3] 화법

[1~3]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3문단, 4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5문단 첫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진술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문단 2번째 문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진술되어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찾을 수 없다.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2.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청중 분석을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발표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발표에는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학교 인근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으니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지난 주 진로 시간 강연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인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언급하고 있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발표를 들은 학생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①은 유형 문화유산과 달리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원이 가능한지 묻고 있다. 따라서 ①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복원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문화유산의 훼손 정도에 따른 복원 가능 여부의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존 원리를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④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유산의 복원 노력을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4~7] 화법, 작문

[4~7]

4.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은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바로 앞부분의 말을 재진술하고 있다. 또한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발명가’의 세 번째 말에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 2’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발명가가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인지 단계에 속하는 내용을 예측하며 말하고 있다. ⑤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의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5.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 발명가의 세 번째 말을 보면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4문단을 보면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나)에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발명가가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에서 자신이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찾을 수 없다. ② 발명가의 마지막 말을 보면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의 발명가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이 아닌 필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발명가 첫 번째 말을 보면 발명이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6. 요약하기 실제

정답해설 : 선생님은 중심 내용을 요약할 것, 중심 내용의 의의를 덧붙일 것을 조언하고 있다. (나)의 중심 내용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요약을 위해서는 이 모형의 세 단계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에서 학생 2가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발명가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라고 대답하는 지점에서 이 모형의 의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나)의 1문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조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②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지 않고 있다. ③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핵심 내용을 잘못 요약하고 있다.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라는 것이지 주변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⑤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지 않고 있다.

7.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의 중심 화제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나)는 '자전거'를 예로 들어 각 단계에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서 '먼저', 3문단에서 '그 후', 4문단에서 '마지막으로'라는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가 글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돕고 있다. ③ 표현이 어색한 문장으로는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를 들 수 있다. '보이기'는 '보기'로, '탐색된다'는 '탐색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3문단 마지막 문장은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적어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첫 문장이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로 끝난다. 따라서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8~10] 작문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찾아야 한다. (가)의 4문단을 보면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

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4문단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여름방학 기간 단축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가)에 반영되어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은 여름방학 단축의 이점인데, 이는 (가)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ㄹ은 예상되는 반론을 떠올린 것인데, (가)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제시하여 (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나)의 어느 부분에서도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서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글의 목적은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학습 부담이 커져서 여름방학 기간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③ (나)의 3문단을 보면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④ (나)의 4문단을 보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 중 특별실 보수 공사를 하였지만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10.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A] 부분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묻고 있다. [A]의 핵심 내용은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이 서로 다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는,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나)의 4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 학습 일수 제한’은 (나)의 3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

료 활용 방안으로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③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는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연결되기 어렵다. 또한, [A]는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진술이므로 오답이다.

[11~15] 문법

[11~12]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

지문 해설 : 이 글은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특성을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상하 관계에 있어 같은 계층에 있는 공하의어 사이에는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하의어들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는 점,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할 경우 상보적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주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특성

11. 어휘의 의미 탐구

정답해설 :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즉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구’는 ‘악기’의 상의어이고, ‘악기’는 ‘북’의 상의어이다. 그러므로 ‘악기’는 ‘기구’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북’은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② ‘타악기’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에 해당하므로 [두드림]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④ 공하의어는 상의어인 어떤 단어에 대해 같은 계층에 있는 하의어를 일컫는 말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기구-악기-타악기-심벌즈’라는 상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에 해당하지만 ‘기구’의 공하의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⑤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을 더 가져 의미 자질 개수가 더 많다. ‘악기’의 사전 풀이에 비추어 볼 때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악기’와 ‘관악기’가 ‘악기’의 상의어인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12.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을 찾는 문항이다.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그 두 단어들끼리 양립하지 않으며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보기>의 문맥에서 '지구의 양극'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북극'과 '남극'은 '극'이라는 상의어에 대해 공하의어이다. 그리고 '북극'이면서 동시에 '남극'인 경우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하고, '극'이 '북극'과 '남극'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북극'과 '남극'이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보적 반의 관계도 성립하고 있으므로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상의어를 '계절'로 본다면 '여름'과 '겨울'은 공하의어이고, '여름'이면서 동시에 '겨울'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계절'에는 '봄', '가을'이라는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상의어를 '조류'로 본다면 '펭귄'과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펭귄'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조류'에는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여름'과 '계절'은 공하의어에 해당하지 않아 비양립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상보적 반의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상의어를 '동물'로 본다면 '개'와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개'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동물'에는 '펭귄',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3.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음운 개수의 변화 양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음운의 개수는 교체가 일어나면 변하지 않고,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면 각각 한 개가 줄어든다. 반면 첨가가 일어나면 한 개가 늘어난다. '흙하고'는 '흙하고 → 흑하고 → [흐카고]'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탈락(자음군 단순화) 및 축약(거센소리되기)을 통해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든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저녁연기'는 ㄴ첨가에 의해 'ㄴ'이 첨가되어 [저녁년기]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저녕년기]가 된다. 첨가 및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한 개 늘어났다. ㉢ '부엌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엌문]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영문]이 된다. '부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은]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은]이 된다. '부엌문', '부엌'은 각각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변하지 않았다. ㉣ '엷지'는 '엷지 → 엷찌 → [언찌]'의 음운 변동이, '뭉고'는 '뭉고 → 뭉꼬 → [물꼬]'의 음운 변동이 일

어난다. 둘 모두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㉔ ‘넙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ㄴ’이 탈락하여 [넨네]로 바뀐 후 유음화에 의해 ‘ㄴ’이 ‘ㄹ’로 교체되어 [넨레]가 된다. ‘뵤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여 [뵤는]으로 바뀐 후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방는]이 된다. ‘넙네’와 ‘뵤는’은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14.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 주어진 예문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㉔에는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절과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또한 ㉔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과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㉔에는 ㉔과 달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인 서술절이 안겨 있지 않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은 관형절을 의미한다. ㉑에는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이, ㉒에는 ‘내가 만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㉓ ㉑에는 명사절 ‘봄이 빨리 오기’ 속에 부사어 ‘빨리’가 포함되어 있고, ㉒에는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 속에 부사어 ‘정말’이 포함되어 있다. ㉔ ㉑에 안겨 있는 문장인 ‘따뜻한’에는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㉒에 안겨 있는 문장인 ‘그가 시장에서 산’에는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㉓ ㉒에서 부사절 ‘엄마가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㉒에서 관형절 ‘그가 시장에서 산’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15.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정답해설 :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서술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보기 1>의 설명에 따를 때,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즉 (1)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 (2)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영형태(∅)’, (3)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로 실현되었다. <보기 2>의 ㉔에서는 체언 ‘니’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2)에 해당해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 ‘니+-라’로 쓰이고, ㉕에서는 체언 ‘바’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3)에 해당해 ‘ㅣ’로 실현되는 ‘바+ㅣ+-라’로 쓰인다. 그리고 ㉖에서는 체언 ‘다락’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1)에 해당해 ‘이’로 실현되는 ‘다락+이+-라’로 쓰인다. ㉗에는 ‘니라’, ㉕에는 ‘바’의 ‘ㅂ’와 ‘ㅣ’가 결합한 형태인 ‘배라’, ㉖에는 체언의 끝소리가 서술격 조사 ‘이’의 첫소리로 연음된 형태인 ‘다라기라’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정답 ㉕**

[16~21] 독서

[16~21] 인문, 사회 융합 ‘율곡의 법제 개혁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율곡의 사상을 바탕으로 율곡이 제시한 법제 개혁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학의 근본적 목적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으로,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이’와 ‘기’를 바탕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이고, ‘기’는 끊임없이 변화·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율곡은 둘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인도 탁한 ‘기’를 잘 다스리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을 제시하였다.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는 수양의 세 방법을 제시하였고, 천도의 실현하려는 수양론과 더불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도 제시하였다. 율곡의 경세론을 대표하는 것이 법제 개혁론이다. 율곡은 왕도나 오류는 고칠 수 없지만 잘못된 법제는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에서는 ‘록(錄)’에 수록된 규정들이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으로 판정되면 ‘법전’에 오르게 되는데, 한번 ‘대전’에 실린 규정은 국왕이라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조종성헌’이라 불렀다. 율곡은 자신이 고치려는 법이 ‘조종성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법제 개혁론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주제] 율곡의 법제 개혁론의 사상적 배경과 의의

16.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6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경국대전》에 기록된 내용은 꾸준한 정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유학, 곧 성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에서는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된 경지에 오르는 사람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이이는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하여 『성학집요』를 지었다고 했다. ③ 5문단에서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여기면 국왕이 조정의 회의를 통해 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고 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이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에 실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으로 판정된 것이 ‘대전’에 실린다고 하였다.

17. 세부 내용의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자 원리는 ‘기’가 아니라 ‘이’라고 하였다.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천재지변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는 ‘기’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존재한다. ③ 율곡은 왕도나 오류는 ‘이’이므로 고칠 수 없지만, 왕도와 오류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율곡은 일반인도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율곡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갖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18. 생략된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율곡이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수기는 ‘이’가 아니라 ‘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② ‘이기지묘’란 ‘이’와 ‘기’는 구별되지만 분리됨 없이 존재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이통기국’은 일반인도 수양을 하면 ‘일반인’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과 상통하며, ‘수기’와 ‘치인’을 통해 기질적 병폐를 극복해야 할 이는 ‘성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다. ⑤ 경전 읽기와 같은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수양 방법은 ‘역행’이 아니라 ‘궁리’이다.

19.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율곡은 ‘이’가 물질적 요소인 ‘기’와 분리되지 않고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플라톤은 ‘이데아’가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율곡은 ‘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이데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율곡이 말한 ‘성인’은 수양을 통해 될 수 있으므로, ‘성인’은 수양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플라톤이 이상적인 통치자로 생각한 ‘철학자 왕’은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구현하려는 사람이다. ④ 율곡은 ‘이’가 형체는 없지만 ‘기’와 함께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플라톤은 ‘이데아’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⑤ 율곡은 유학을 통해 이 땅에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하였다. 반면에 플라톤은 현실에서는 이데아, 즉 이상 사회가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에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이’와 ‘기’의 특성을 정확히 제시한 것이다. 다만 선조는 근래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방안을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은 법제 개혁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것으로, ‘치인’을 위한 경제론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율곡은 부당한 법령임에도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부당한 법령은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세가들을 비판하였다. ④ 율곡은 불변적 가치를 지닌 삼강은 ‘이’의 영역이지만, 이를 실현할 법령은 ‘이’의 영역이 아니므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이 ‘이’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경국대전》은 성종 때 확정된 것으로, 율곡은 성종이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은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21.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숙종은 사람을 죽인 ‘갇’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명률》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고, 《경국대전》은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결국 숙종의 주장은 ‘갇’의 행위를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한 사례로 보지 않은 것이므로 조종성헌인 《경국대전》에 따른 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숙종은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갇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갇의 처형을 주장한 것은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숙종은 《경국대전》은 성스러운 규범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숙종은 《경국대전》에 적혀 있는 (나) 역시 ‘양법미의’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다만 숙종은 ‘대전’의 내용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멋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⑤ 숙종은 을을 죽게 한 갇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갇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2~25] 독서

[22~25] 사회, ‘통화 정책’

지문해설 : 이 글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등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라는 요건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정책 외부 시차’의 발생이나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해서는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두 입장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각 주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요건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시작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화 정책의 목적을 간단하게 드러냈을 뿐 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의 '예를 들어'라는 표현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1문단에서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채권의 매수와 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준칙주의'와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재량주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 중 경제학자 병은 경기를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이때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과 1문단에 언급된 '기준 금리가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통합하여 판단하면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매 분기 2%를 유지'하려면 1, 2분기에서 미리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하면서 2, 3분기에 3%로 제시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이때 2,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1%p 떨어뜨려서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가 1.5%p 올라야 가능하다. 즉 ⑤처럼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면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하여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에 따라 3분기 물가 상승률도 2%를 유지하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게 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될 것이고, 2분기 기준 금리를 2.5%로 유지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 역시 4%로 조정될 것이다. ②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된다. 그리고 2분기에 기준 금리를 4%로 인상하면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다시 3%가 될 것이다. ③ 1분기 기준 금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분기 물가 상승률도 3%를 유지하겠지만, 2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로 조정될 것이다. ④ 1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2분기 물가상승률은 2%로 조정되겠지만, 2

분기 기준 금리를 4%로 인하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3%로 조정될 것이다.

24.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하여 준칙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어김으로써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훼손되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준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준칙주의’의 입장에서는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칙은 잘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③ ‘준칙주의’는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량주의’는 이와 달리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도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재량주의’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부양’은 두 개의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또는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의 ㉞는 침체된 경기를 다시 활발하게 살린다는 의미이므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에서의 ‘부양’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파급은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의 의미이다. ② ‘발현’은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를 의미한다. ③ ‘수반’은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의 의미이다. ④ ‘유의’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의 의미이다.

[26~29] 현대시

[26~29] (가)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나) 조지훈, 고흥 의상,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작품해설 : (가)는 문학적 시간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자연적 시간을 변형하고, 재구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과거

형과 현재형의 표현이 선택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의 모호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제] 자연적 시간의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

작품해설 : (나)는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기품 있는 자태를 고가(古家)와 봄밤을 배경으로 그려냄으로써 고전적 우아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묘사가 돋보이는 이 작품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고전적 우아미는 ‘부연’, ‘풍경’,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거문곶줄’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와 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주제]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아름다움

작품해설 : (다)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아버지가 된 화자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과거와 현재를 엮어 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하얗게 결빙된 한강의 이미지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유년 시절, 추위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떠올리는 동시에 한 줌 뺏가루가 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주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봄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을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그 흐름을 작가의 의식에 따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대상을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가)에서 설명한, 화자의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거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건너’, ‘열고’의 표현을 보면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이 ‘이 밤’과 ‘옛날’을 통합적으로 인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이지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흔들어지이다’에서 현재형이 나타나므로, ㉤이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1연을 보면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예닐곱 살 적 겨울’이라는 과거에 화자가 위치했던 공간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의 1연, 3연의 첫 행에서 호명되고 있는 대상이 ‘어머님’인 것으로 보아 (다)는 화자가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연에서 추운 겨울날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던 기억을 언급한 것이나 2연에서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언급하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유년 시절 아버지와 겪었던 일임을 알 수 있다. ③ ‘옛날처럼 나는’을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고,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3연에서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가는 것은 현재이고, 그 풍경을 보며 화자는 과거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이 장면에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가 시적 현재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현재의 시점에서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2행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는 ‘아미를 숙이고’ 있는 여인의 자세와 ‘호접’의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것이지 시적 화자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굽아라’, ‘파르란’과 같은 시어의 변형을 통해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②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거문곶줄’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밭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여인의 움직임에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파르란 구슬빛’, ‘자줏빛’, ‘하얀’과 같은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9. 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은 화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팡팡 얼어붙은 잔등’은 추위로부터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면과 행동의 반대가 아닌 내면과 행동이 일치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것은 자식을 지켜주는 아버지로서 화자의 모습이고,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것은 유년 시절 화자를 보호해 주었던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두 모습의 호응을 통해 아버지에서

화자로 그 마음이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② ‘늘 그런 추억’이란 자식들의 추위를 막아주느라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는 것과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한 줌 뺏가루’와 이승의 물로 화신하여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는 모두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놓고 싶’다는 것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기억과 연결된 정서로 자신을 지켜주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30~34] 독서

[30~34] 기술,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DNS 스푸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IP 주소 대신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IP 주소는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려워서, 이를 대신 하여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도메인 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과정은,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인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IP 주소를 묻게 되는데 이때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UDP는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도착한 응답을 신뢰하게 되는 허점이 있는데, DNS 스푸핑은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주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시 이용하는 UDP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하여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3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의하면 DHCP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문단을 보면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때이다. 따라서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의하면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이 글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2문단), DHCP 프로토콜(3문단), UDP 프로토콜(5문단)이라는 세 종류의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단에서 이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문단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 4개

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㉓ 2문단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라고 제시되어 있다. ㉕ 5 문단에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라고 제시되어 있다.

3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㉑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다. ㉒는 클라이언트가 ㉑에서 네임서버에 보낸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네임서버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네임서버는 자신의 목록에 해당 IP 주소가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므로, 네임서버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늘 찾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5문단을 보면, 네임 서버는 질의 내용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자신의 목록에서 찾다가, 자신의 목록에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알려 주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간다. 따라서 ㉑에서 ㉒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패킷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네임서버이므로 수신 측은 다를 수밖에 없다. ㉒ ㉑에서 ㉒가 두 번 동작했다면, 질의 패킷을 받은 첫 번째 네임서버의 목록에 질의를 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받아 ㉒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㉒가 동작한 것이다. 즉 첫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다른(두 번째)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요청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응답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첫 번째 네임서버와 두 번째 네임서버로 서로 다르므로 송신측이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㉒ ㉑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㉒는 응답 패킷이 버려지는 상황이다. 6문단에 의하면 ㉑의 상황에서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한다. 그런데 5문단에 의하면 UDP는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고 되어 있으므로, ㉑의 상황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은 공격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네임서버가 보낸 것이다. 따라서 ㉒에는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옳은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㉕ ㉑ 상황에서 ㉕는 공격자가 보낸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㉕의 IP 주소는 ㉑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아니다. ㉒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㉑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에 포함되어 있다.

3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보면 사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 IP 주소가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같은 것은 구별되지 않아서 식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DNS에 대한 설명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DNS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4문단에 의하면 이때의 IP 주소는 '공인 IP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하였고, DNS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DNS가 필요 없는데, 3문단에서 사설 IP 주소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된다고 했으므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다. ③ 3문단에 의하면 유동 IP 주소는 DHCP가 각 컴퓨터에 부여하는데,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 부여했던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는 것은,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2문단에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④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가 중복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 IP 주소 방식은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선지의 내용대로 동일한 IP 주소를 부여하면 중복 지정을 하는 것이 되므로 글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컴퓨터들에도 동일한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3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지문에 따르면 DNS 스푸핑은 DNS를 이용하여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하지 않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hosts' 파일에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적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네임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보기>에 제시된, 클라이언트가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일컫는 용어이다.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아니다. ③ <보기>에 따르면 hosts 파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해 해당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아니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포함된 문장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IP 주소를 숫자로 표를 하여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것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인 ㉠은 외부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는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이다’의 뜻을 가진 ‘표시(標示)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포함된 문장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고유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 것이다. 이때 ㉡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을 지닌 ‘생성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제조(製造)되다’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이 만들어지다.’ 혹은 ‘원료에 인공이 가하여져 정교한 제품이 만들어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포함된 문장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 대신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설명한 것으로, 도메인 네임이 어떤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은 문맥상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성(構成)되다’이다. ‘발생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포함된 문장은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정(認定)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⑤ ㉤이 포함된 문장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패킷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이다. 이때 ㉤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주고받을 때 UDP 프로토콜의 ‘방식에 따라’ 혹은 ‘그 방식을 이용하여’라는 뜻이다. 그런데 ‘비교(比較)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35~38] 고전 소설

[35~38]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적성의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안평국의 두 왕자 성의와 향의의 선악 대결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동생 성의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은 소설이다. 내용은 크게,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둘째 왕자 성의가 서역으로 가서 일영주를 구해 오는 과정, 형인 향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죽을 고비를 넘긴 성의가 우여곡절 끝에 천자의 딸 채란 공주와 혼인하는 과정, 안평국으로 돌아온 성의가 향의의 방해를 이겨내고 왕이 되어 영화를 누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 설화의 바탕 위에 도교적 색채가 가미되는 한편, 효(孝)라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인 작품으로, '육미당기'나 '김태자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제] 효의 실천과 권선징악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화상이 성의에게 한 말 중에, 보탑존자가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라고 어제(작일에) 자신에게 분부하셨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안평국 왕자는 성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성의가 찾아올 것임을 보탑존자가 화상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라고 하면서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성이 가름함을 알아보고 치하한 것이다. 또한 화상이 성의의 능력을 시험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② 성의는 칠 일 재계 후에 다시 오라는 화상의 말을 듣고, 차라리 이곳에서 죽겠다며 존자를 당장 만나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성의는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하고자 일영주를 구하려는 것이지 존자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성의의 피리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이 선동이 속객을 희롱하는 것 같다고 느껴 시동에게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고 한다. 따라서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⑤ 시동은 호 승상의 명을 받아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선다. 그가 혼자 나서기를 두려워하거나,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36.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에'라고 한 말은, 전생에 천상계의 존재였던 성의가 묘일성신과 갈등을 겪었고, 이번 생에 그 묘일성신과 형제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세의 묘일성신은 현세의 형 향의이다. [B]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의는 형인 향의가 무죄한 인명을 해치고 자신도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A]에서 제시된 묘일성신과의

전세 악연이 현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B]에서 성의는 어머니의 병세가 어떠한지, 일영주를 썼는지 등을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B]에서 성의는 인자하신 어머니가 이리다가는 ‘황천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통곡하는 것이지 자신이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B]의 성의는 한 조각 판자에 의지하여 떠가다가 달은 적막한 바위 위에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B]에서 성의는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파 중에 월흔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만든 형 향의 때문에 슬피 통곡하고 있으므로, 탄식을 통해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A]에서 말한 ‘월한을 풀 날’이란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의 처량한 피리 소리는 눈이 먼 채로 적막한 곳에 홀로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성의의 슬픈 심사가 투영된 소리이다. 따라서 이 피리 소리는 성의가 지닌 피리 부는 재능의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두 눈을 상하고서 적막한 바위 위에서 한탄하던 성의가 문득 듣게 된 소리로, 성의는 이 소리가 대밭에서 나는 것임을 알고 그곳이 축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② ㉠은 대 소리를 쫓아 내려가려던 성의가 문득 듣게 된 오작(까마귀와 까치)의 우짖는 소리로, 성의의 손이 짙이는 곳에 실과가 있음을 알려준 신호로 볼 수 있다. ③ 대 소리를 따라 대밭에 온 성의는 ㉠을 듣고 그 대를 더듬어 찾아, 칼로 베어서 피리를 만든다. ⑤ 피리를 불며 심회를 달래던 성의는 ㉠을 들은 호승상 일행과 만나게 된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존자는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성의가 올 것임을 화상에게 미리 알리고, 오는 즉시 보고하라고 하였다. 마음이 부정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 것이니 칠 일 동안 재계하고 나서 오라는 말을 한 것은 존자가 아니라 화상이다. 또 성의는 권선징악적 성격을 지닌 이 작품에서 선악 대결 당사자 중 선인에 해당하므로 존자가 만나지 않으려 하는 부정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존자는 성의에게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였다. 이는 곧 하계와 대립되는 천상계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금강경과 같은 불경이나 염주 등은 물론이고,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를 높여 이르는 말인 존자(尊者)도 불교적 소재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이 소설이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④ [B] 부분에 드러나 있는 성의의 탄식은 가족의 일원인 형 향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세가 그토록 처량하게 되었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⑤ 성의가 어머니의 병을 구완하려고 일영주를

연으러 서역까지 간 것은 <보기>에 제시된 대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41] 현대 소설

[39~41] 현대 소설 - 이호철, '큰 산'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액운을 환기하는 고무신짜를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대학 출신의 샐러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에서, 즉 어느 정도 교양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비양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고향 마을의 '큰 산'을 떠올린다. 마음의 중심을 잃은 현대인들에게는 '큰 산'처럼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비판과 넉넉한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

39.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첫 문단을 보면, 열흘쯤 전 아침에 대문 앞 쓰레기통에 버린 고무신짜를 아내가 밤에 끄집어내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던진 사건의 경과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진술에는 '~던 모양이었다.', '~을 것이다.'와 같은 '나'의 추측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남의 집에 던져 버렸던 고무신짜가 다시 '나'의 집 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열흘쯤 뒤의 아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는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부분이 없다. 주요 사건은 '나'의 집 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에 서사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동시 사건의 병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활짝 개어 오른 하늘에 관한 '나'의 상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로 설정되어 있다. ③ 아내의 말을 듣고 '나'가 생각에 잠기는 부분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과도 거리가 있다. ④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나'이기 때문에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글에는 인물의 위선적 면모가 표면에 드러난 부분도 없다.

40.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아내는 밤새 눈이 온 것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고, '나'는 그런 아내의 '낭랑한 웃음'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맑고 밝은 분위기를 띠던 작중 상황은 열흘 전쯤 내다 버렸던 불길한 고무신짜가 담 밑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하게 된다.

고무신짜를 발견한 아내의 목소리는 혈떡거리듯 떨리고 있으며, ‘나’는 머릿속의 아득한 끝머리에 깊고 빈 들판이 확 열리는 듯한 공포에 휘감기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나’는 눈이 내린 풍경을 보고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라며 기뻐하는 아내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라는 무뚝뚝한 대답을 건네고, 맛장구를 쳐주지 않는 ‘나’에 대해 아내는 야박스럽다고 가벼운 타박을 한다. ③ 이 글에서 ‘열흘 째 전의’ 일과 관련하여 인물이 한 말은 “고무신짜예요, 또 그, 그 고무신짜.”이라는 아내의 말뿐이다. 또한 고무신짜에 대해 ‘나’와 ‘아내’는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가 열흘 째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실감에 젖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아내는 ‘나’에 대해 ‘미심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아내는 액운을 환기하는 듯한 고무신짜를 멀리 내다 버리지 않고 대문 앞 쓰레기통에 버려 둔 것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⑤ ‘나’는 눈 내린 겨울 아침에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문득 무언가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 생각을 얼른 지우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다. 따라서 ‘나’가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날이 되살리려 애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나’에게 아내는 “흥, 이치 좋아하시네.”라고 악의 없이 말한다. 장난스러운 표정이 된 아내는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이런 대화 내용은 합리적 자세나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 등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열흘 째 전, 아내는 ‘고무신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서, 어두워질 무렵 쓰레기통에서 고무신짜를 꺼낸다. 골목길을 기웃거리다가 어떤 집 담장 너머로 고무신짜를 던져 버리고 돌아온 아내는 ‘액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고무신짜가 어떤 액운을 상징한다고 믿고 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으므로, <보기>에서 제시한 대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아내가 액운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고무신짜를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것은 남이야 어찌 됐든 내 집에만 액운이 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므로,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 것이다.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고무신짜를 보고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주술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어서라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뜰에 떨어져 있는 고무신짜를 보며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사고의 영향도 받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혼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

[42~45] 고전 문학

[42-45] 고전 시가, 고전 수필

(가) 주세붕, '오륵가'

지문해설 : (가)는 주세붕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오륵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계도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 작품에는 가부장적인 가정 질서와 국가 질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사인 <제1수>에서 오륵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 후 나머지 각 수에서 유교적 덕목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하나씩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념적인 주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적 삶을 통해 표현한 점,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 점,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한 점 등이 돋보인다.

[주제] 인간이 지켜야 할 오륵의 도리 강조

(나) 이곡, '차마설'

지문해설 : (나)는 말을 빌려 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을 제시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을 제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고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외물에 따른 인간의 심리 변화와 그릇된 소유 관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4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같은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름' 등의 표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으며,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한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같은 표현을 통해 오륵을 지키며 바람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에 주목하면서 그릇된 소유 관념을 경계하고 소유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와 (나)는 모두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 '어와', '아'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와 (나)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 있지만 상반된 세계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바람

직한 자세를 권고하는 작품으로, 이상향에 대한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한 진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4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는 말을 빌려 탄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유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을 임금,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주인과 비복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고 참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제2수>부터 <제6수>까지 관념적 덕목(유교의 오륜)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한 것이지,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제4수>는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거안제미, 擧案齊眉)’를 통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4수>는 화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지,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3수>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벌과 일개미의 생태로부터 주인(임금)에 대한 종(신하)의 도리라는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③ <제5수>의 초장에서 아우가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젓’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제5수>에서 형님과 아우는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오륜을 지키며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를 비유한 표현이다. ⑤ <제6수>의 초장에서 ‘늙은이’는 부모에, 어른은 ‘형’에 빗대어져 쓰이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라며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나)에 인용된 맹자의 말은 그릇된 소유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통해 오래도록 빌리고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린 경우 전전긍긍하게 된다

고 여기고 있으나, ‘노둔하고 야원 말’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위험은 준마를 빌려 질주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2문단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를 통해 준마를 소유할 때 의기양양한 감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세상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미혹된 일이라 보고 있다. ④ 이 글에서 ‘독부’는 빌린 권력을 돌려준(빼앗긴) 후의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 1. ② 2. ⑤ 3. ② 4. ④ 5. ① 6. ④ 7. ② 8. ⑤ 9. ⑤ 10. ③
- 11. ② 12. ① 13. ③ 14. ⑤ 15. ① 16. ① 17. ⑤ 18. ③ 19. ② 20. ①
- 21. ④ 22. ③ 23. ⑤ 24. ④ 25. ④ 26. ⑤ 27. ③ 28. ④ 29. ② 30. ⑤
- 31. ⑤ 32. ③ 33. ④ 34. ④ 35. ④ 36. ③ 37. ⑤ 38. ③ 39. ④ 40. ①
- 41. ① 42. ② 43. ① 44. ③ 45. ③

[1~3] 화법

[1~3]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만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자료를 인용한 까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 성분 표시 순서를 변경한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강연자가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제시된 강연 부분에서는 청중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2. 듣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 의하면 ‘당류’는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2문단 중간 부분에 의무 표시 성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무 표시 성분으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1회 제공량’에서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 함량 표시 방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을 보면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개정 전 표시 도안이므로 적절한 생각이다. ③ 3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진 데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④ 4문단에서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개정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위치를 구분해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추가 설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강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일부 가공 식품’에 한하여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결정되는지는 강연 내용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2문단에서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지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⑤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4~7] 화법, 작문

[4~7]

4.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은 (가)의 1문단에서 또래 상담을 받으며 위안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은 2문단의 공부방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 마지막 문단에서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과 ㉢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5.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에 또래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경험을 제시하면서 ‘또래 상담 요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지원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④ 지원자의 포부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찾을 수 없다.

6. 면접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면접자는 자기소개서 3문단에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에서 면접자가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자 면접 대상자는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이라고 말하면서 상담자의 태도

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A]의 질문과 답변은 각각 ㉞, ㉟와 연결된다.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C]의 질문과 답변은 각각 ㉠, ㉡와 연결된다. ‘상담 상황’을 제시하며 질문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상담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7.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나)에서 ‘면접 대상자’가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가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중간 부분에서 면접자가 ‘래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자 면접 대상자가 ‘래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③ 면접자가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라고 반응하고 있다. 또한 ‘잘 알고 있네요.’라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다. ④ 면접자의 마지막 말에서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래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면접 대상자의 직전 답변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⑤ 면접의 도입부에서 면접자가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8~10] 작문

8.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 3문단을 보면 학생들이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의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 ④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에 들어갈 내용은 건의 주체, 즉 A 단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과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에서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시내버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②, ③ A 단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④ 건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없다.

10.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불편을 보여 주는 인터뷰 자료이다. (나)는 자가용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가)와 (나)를 활용하면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가용 이용률의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글의 논지와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불편을 드러내는 인터뷰이므로 문제의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다. ② (나)는 시내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시내버스 기피 현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나)를 활용하여 자가용 이용률과 시내버스 이용률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다)는 다른 지역에서 학생 전용 급행 노선 운행이 실시되어 시내버스 통학 학생 비율이 전보다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가)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없는 지역의 학생이 겪는 불편이고 (다)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 운행으로 인해 통학 시간이 줄어 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신문 기사이다. 따라서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11~15] 문법

[11~12]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한 수업 대화

지문해설 : 합성 명사의 형성 방식에 대해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고 있다. 선생님의 설명은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된 경우를 각각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형성 방식

11. 단어 형성의 원리

정답해설 : ㄷ의 '사대'는 '사범'과 '대학'에서 첫 음절만 따서 형성된 경우로, 선생님의 마지막 설명 중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 '인강'과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ㄹ의 '비빔냉면'은 용언의 활용형 '비빔'과 명사 '냉면'이 결합한 경우로, 선

생님의 설명 중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의 ‘선생님’을 줄여 ‘쌤’을 만든 것은 앞말과 뒷말의 일부 음절을 딛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의 ‘개살구’는 접두사 ‘개-’와 명사 ‘살구’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기 때문에 제시된 수업 대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ㄷ의 ‘점잔’은 ‘점잔은 태도’를 뜻하는 명사인데, 형용사 ‘점잔다’로부터 만들어진 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합성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수업 대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12.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잘못’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①에서는 합성 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앞말 ‘잘’과 뒷말 ‘못’은 모두 부사이므로 ①의 ‘잘못’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의 예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것’은 관형사 ‘새’와 명사 ‘것’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새색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③ ‘요사이’는 관형사 ‘요’와 명사 ‘사이’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새색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④ ‘오늘날’은 명사 ‘오늘’과 명사 ‘날’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논밭, 불고기’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⑤ ‘갈림길’은 용언 ‘갈리다’의 활용형 ‘갈림’과 명사 ‘길’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13.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우리’는 대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보기>의 대화 중 ㉠은 대화 참여자 ‘수빈, 나경, 세은’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의 ‘우리’ 역시 머리핀을 사러 같이 갈 수 없는 ‘수빈’을 포함한 대화 참여자 세 명을 모두 가리킨다. 이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통해, 그리고 ㉠과 함께 쓰인 ‘셋이’, ㉡와 함께 쓰인 ‘다 같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나경 혹은 나경을 포함한 형제자매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 ‘우리’ 역시 수빈 혹은 수빈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 ㉡와 달리,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청자인 수빈이 포함되지 않는다.

14.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의 ‘보습고’에 쓰인 선어말 어미는 ‘-습-’인데, 이는 듣는 이, 즉 ‘세존(世尊)’을 높이기 위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 문장의 객체, 즉 ‘여래(如來)’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보습고’의 현대어 풀이가 ‘뵈고’인 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중세 국어에서는 설명 의문문이나 판정 의문문이나에 따라 서로 다른 종결 어미가 쓰였다. ㉠는 의문사 ‘무슴’을 포함하는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느뇨’가, ㉡는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느냐’가 쓰인 것이다. ㉠와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동일한 종결 어미가 나타남을 볼 때 중세 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국어와 대비된다. ② ㉠의 ‘마를’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의 ‘벼를’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확인된다. ‘을’과 ‘을’은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어에서는 둘 모두 ‘을’로 실현됨을 볼 때 중세 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국어와 대비된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부르는 대상을 존칭하고자 할 때에 ‘世尊하, 大王하, 님금하’ 등에서 처럼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쓰였다. 호격 조사 ‘하’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으며, ㉠에서 ‘世尊하’를 ‘세존이시여’로 풀이하듯 ‘(이)여’와 ‘-시-’가 결합한 형태인 ‘(이)시여’가 존칭의 호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④ ㉡의 ‘보더시니’가 현대어로는 ‘보시더니’로 풀이됨을 볼 때 선어말 어미 ‘-시-’와 ‘-더-’의 결합 순서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시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의 예문에 쓰인 ‘-겠-’은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의 앞 문장에서 ‘-았-’과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 ㉡의 뒤 문장에서 ‘지금’이라는 부사와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 쓰인 ‘-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의 앞 문장에 쓰인 ‘-르’은 ‘올 것이다’와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지만 뒤 문장의 관형사형 어미 ‘-르’은 ‘왔다’의 ‘-았-’과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의 ‘진학한다고’에 쓰인 ‘-ㄴ-’은 ‘내년에’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⑤ ㉣의 앞 문장에 쓰인 형용사 ‘작다’는 ‘오늘’과 함께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기본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19] 독서

[16~19] 예술, '하이퍼리얼리즘'

지문해설 : 팝아트와의 대비를 통해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징을 설명한 글이다. 팝아트와는 달리 하이퍼리얼리즘이 현실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헨슨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를 예로 들어 하이퍼리얼리즘에서 어떤 기법들을 이용하여 실재에 가까운 재현을 이루어 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성과 주로 사용되는 기법

16.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성'과 '사실성'을 중심으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2문단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문단의 첫 문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현실성'이 높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현실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실성'은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다. 팝아트가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것은 대상을 실재와 같이 재현하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팝아트는 사실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한 재현을 추구하는 하이퍼리얼리즘이 사실성이 높다. ③ 각주의 설명에 따르면 트롱프뢰유는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대상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퍼리얼리즘이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밀한 재현을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④ 주로 인쇄매체를 활용한 것은 팝아트이고,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였다. 또한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내용은 하이퍼리얼리즘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⑤ 팝아트는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는 반면,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하이퍼리얼리즘의 사례로 제시한 헨슨의 작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3문단에서 ㉠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의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되었으며 실물 주형 기법으로 사람의 크기와 형태를 똑같이 재현하고 여기에 가

발, 목걸이, 의상 등의 오브제를 덧붙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4문단에서 ㉠은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붙여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통해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의 여자는 욕망의 주체이며,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는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한 것이고, 상품은 일상 속 그대로의 대상이다. ④ 4문단에서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1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헨슨의 작품과 <보기>에 제시된 쿠넬리스, 코수스의 작품을 비교하여 미술에 대한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실제 살아있는 말을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직접 체험을 통해 말에 대해 느끼고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쿠넬리스는 대상을 직접 제시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대상을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재현의 방법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실물 주형 기법을 쓰는 것보다 실물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재현의 방법이라고 평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헨슨은 자신의 작품에서 실물 주형 기법 등을 통해 사람의 형태와 크기 등을 똑같이 만들어 냈다. 시각적인 면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온기, 냄새, 소리를 통해 다양한 감각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물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헨슨이 아니라 쿠넬리스가 미술 작품에서 다양한 체험을 강조할 것이다. ② 헨슨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술의 역사적, 정치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는지 여부는 제시문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감상자가 실물을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작가의 생각, 의도를 담아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을 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작가에 의해서 작품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쿠넬리스가 아니라 코수스의 생각에 가깝다. ⑤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실제의 의자만이 아니라 의자 이미지(사진)와 의자의 개념도 함께 제시한다. 코수스는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의 ‘들었다’는 공통적으로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㉓는 ‘남의 힘에 의지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에서 ‘기대어’는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㉔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에서 ‘이어’는 ‘뒤를 잇따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㉕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에서 ‘보는’은 ‘어떤 일을 맡아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㉖는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의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⑤에서 ‘높였다’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라는 뜻의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20~22] 문학

[20~22] 현대시 - (가)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정지용, ‘달’

지문해설 : (가)는 ‘플라타너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며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꿈을 가진 존재, 넉넉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덕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으며 외로운 삶을 함께해 준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플라타너스와의 교감과 합일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유한성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이상을 지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지문해설 : (나)는 달빛에 비친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감흥을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밤중에 달빛에 이끌려 나온 화자는 홀로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빛에 비친 마당의 모습은 마치 호수의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달빛을 받아 더욱 곱게 보이는 흰 돌, 달그림자로 인해 수묵색으로 짙게 보이는 녹음 등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 광경에 숨소리, 비둘기의 울음소리 등의 청각적 이미지와 오동나무의 꽃향기라는 후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달밤의 고즈넉한 정취를 더하고 있다.

[주제] 달빛에 비친 조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흥

20.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매 연마다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부르며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소망 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의 초점을 ‘플라타너스’라는 중심 대상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가)의 1연에서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

하고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고풍스러운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에서 ‘젖어 있다’, ‘늘인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며,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역동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 ‘하늘’, ‘별’ 등에 대해 지향하는 것은 상승적인 이미지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2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홀로 되어 외로울 제’라고 인식하며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밤중에 달빛이 마당을 비춘 광경을 ‘홀로 보’면서 고요하고 정감 어린 정취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가)의 화자 자신이 느낀 고독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조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을 통해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가)의 화자가 경험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련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의 화자도 ㉡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과거 추억을 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화자가 무기력한 태도를 느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을 통해 무기력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의 화자는 달밤의 풍경을 보며 정서적 감흥을 얻고 있으므로 담담한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고, ㉡은 (나)의 화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되므로 이를 통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화자는 ‘영창’을 통해 달빛이 비치자 밖으로 나가서 ‘마당’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창’은 방안과 바깥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창’ 자체가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고독한 여정인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 걷는 모습을 통해 사물인 ‘플라타너스’와의 교감을 보여 주며, (나)의 화자는 달빛에 비친 ‘흰 돌’을 의인화하여

‘이마’가 ‘유달리’ 곱다고 함으로써 사물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통해 사물과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밀물’처럼 밀려온 ‘달’을 접하고 마당에서 달빛에 비친 ‘한밤’의 정취를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곳을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마당’에 달빛이 가득한 모습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각각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할 때까지 ‘네 이웃이 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어 <보기>에서 제시한 구도의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을 ‘못 견디게 향스럽다’고 함으로써 달빛에 어우러진 사물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26] 문학

[23-26] 현대 희곡 - 차범석, ‘불모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하루가 다르게 빌딩숲으로 변해 가는 서울 한복판의 모습과, 거기 둘러싸인 낡은 한옥에서 살아가는 최 노인 일가의 삶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1950년대의 어두운 사회상을 조명한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문명과 전통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피폐함, 가족의 해체와 세대 간 불화 등을 상징한다.

[주제] 근대화의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 해체와 세대 간의 갈등

2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서울 한복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략’ 바로 다음 부분에서 경수의 대사 중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같은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서울 중심의 실제 지명을 노출함으로써, 최 노인이 자기 집 주변에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리는 상황을 개탄하며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역정을 내는 극중 상황에 사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언어유희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놀이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말 잇기 놀이, 어려운 말 외우기, 새말 만들기,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 같은 것이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러한 언어유희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집을 둘러싼 각 인물의 내면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재’가 제복을 차려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장을 통해 ‘경재’의 심리

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경재’의 등장, ‘복덕방’의 퇴장, ‘최 노인’의 퇴장과 등장 등에 대한 지시를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4.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어머니’와 ‘경운’은 ‘예? 전세라구요?’라고 말하는 ‘경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와 마찬가지로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기에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상황이다. 뒤에 나오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뭇 하시게요?’라는 ‘어머니’의 대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라는 ‘경운’의 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 노인’은 주변에 들어서게 된 높은 건물들 때문에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되어 버린 집에서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 같이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 ‘경재’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옛날 일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향해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장난스러운 훈계를 한다. 일반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라 웅변을 하는 어조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자연스레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③ 아들인 ‘경수’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복덕방’이 흥정을 그만두고 나가자 ‘최 노인’은 ‘김 첨지! 김 선생!’이라고 급히 부르며 따라 나간다. 그 앞의 대화에서 ‘최 노인’은 ‘복덕방’을 계속 ‘김 첨지’라고 불렀다. 이때의 ‘첨지’는 대체로 나이 많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그 ‘김 첨지’가 기분이 상하여 흥정을 깨려 하자 그의 마음을 돌려 보고자, ‘첨지’ 대신에 그보다 좀 더 대우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고쳐 부른 것이다. ⑤ ‘최 노인’이 갑자기 화초밭을 짓밟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란 ‘어머니’는 말리려고 황급히 뛰어내리느라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은 다급한 심리가 행동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집을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최 노인’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의도를 짐작도 못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 인해 ‘최 노인’이 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고려해 가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경재’의 말에 대해 ‘최 노인’은 ㉠와 같이 말한다. 이는 그가 예전과 달라진 지금의 각박한 세상을 말세라고 볼 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경재’는 옛날 일이 무슨 소용이냐며 오늘은 오늘이라고 말한 뒤, 웅변 연사의 흥내를 내면서, 역사는 설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소 익살스럽게 들릴 듯한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복덕방’은 ㉢와 같이 말하는 ‘경수’의 태도가 노인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껴서 기분이 완전히 상하고 말았으며, 이는 전세 계약을 위한 흥정의 중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③ ‘경수’는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 노인이 ㉠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⑤ ㉠는 ‘경운’도 ‘경수’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이다. 이를 들은 ‘최 노인’은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이라며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6.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최 노인’은 좌우를 가로막은 건물들 탓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작물들이 도무지 자라질 않는 상황에서도 화초밭을 정성껏 가꾸어 왔다. 그의 마지막 대사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화초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초밭은 ‘불모지’가 될 지경이고 집을 전세 놓으려던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 분노, 상실감과 좌절감 등을 느낀 ‘최 노인’은 화초밭을 마구 짓밟으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라고 외친다. 그러므로 화초밭은 ‘최 노인’이 자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허망해하는 감정이 드러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앞부분에서 경재가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화초밭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화초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화초밭을 짓밟는 행위가 어떤 면에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집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란 말은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최 노인’은 함부로 짓밟고 ‘어머니’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면 적절할 수 있다. 한편 화초밭에 대한 ‘상반된 행동’이란 말이 그것을 소중히 가꾸는 행동과 함부로 짓밟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두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된다. 그리고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 화초밭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④ ‘최 노인’은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자책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가 화초밭을 짓밟는 것은 자책으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분노나 절망으로 인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27~32] 과학+인문,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고전 논리'

지문해설 : 이 글은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고전 역학과 달리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을 설명한 후,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한다는 견해가 논리학에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을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과 반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공존하고 있는 미시 세계의 팽이를 가정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이 미시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논리학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과 관련해서는 프리스트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하면서 '참'과 '거짓'만이 아니라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있는 LP를 제시하였다.

[주제]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양자 역학과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진리치가 공존하는 비고전 논리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의 앞 절을 보면 아인슈타인은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에 적용하면, 아인슈타인은 관찰(달을 보는 일)이 물체(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는 점을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는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관찰 이전에도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선지의 진술은 양자 역학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관찰하고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관찰 자체가 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② 1, 2문단에서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문단은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거시 세계와 달리~'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시 세계의 팽이와 미시 세계의 팽이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하며 관찰을 통해 그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미시 세계에 국한하였다. 즉 거시 세계에서도 관찰을 통해 상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자 역학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선지의 진술은 양자 역학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관찰 이전에는 미시 세계의 팽이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데, 선지의 진술은 이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관찰에 의해 물체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견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관찰'에 의해 존재 여부의 확률을 따지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2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2문단을 보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네 자리의 이진수를 4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해도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2문단의 설명대로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 개가 존재하므로, 선지에 제시된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2^4 개, 즉 16개이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문의 3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상태의 공존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하나의 비트에 0과 1 모두를 담을 수 있어서 연산 처리 횟수를 줄임으로써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지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의 2문단을 보면 일반 컴퓨터는 2비트를 이용하여 두 자리 이진수를 연산할 때 4번, 즉 이진수의 개수와 같은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컴퓨터로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면 세 자리의 이진수 개수만큼인 2^3 번, 즉 8번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그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보기>의 1문단에 따르면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처리 횟수와 연산 속도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로 처리할 때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8배 빠르다. ③ 한 자리의 이진수는 0과 1로 2개가 있다. 따라서 1비트를 이용해 이를 처리하려면 일반 컴퓨터는 2번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다르다.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횟수는 한 번이고,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횟수도 한 번이다. 따라서 두 속도는 같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선지의 진술로 볼 때 선지에 제시된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도 자기 지시적 문장이므로 거짓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 중 예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면, 선지의 문장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것을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 아니므로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니다. ③ 4문단을 보면 이치 논리는 ‘참’ 또는 ‘거짓’의 진리치를 가지며,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선지에 제시된 문장은 거짓말쟁이 문장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갖지만, 이치 논리에서도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다만, 이치 논리로 그 진리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뿐이다. ④ 4문단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의 예로 든 것 중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고전 논리에서도 진리치를 ‘참’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장은 모두 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 있다면, 실제 음절은 열일곱 개인데 자기 지시적 문장에서 여덟 개라고 했으므로 고전 논리에서는 이 문장에 진리치를 ‘거짓’으로 부여할 것이다. ⑤ 5문단에서 비고전 논리를 주장한 프리스트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이 거짓말쟁이 문장은 아니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0.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지문의 6문단에 따르면,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는데, 전건 긍정 규칙은 전건인 P가 ‘참’이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것처럼 조건문 ㉠과 그것의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다. 즉,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니고 있다. LP에서는 조건문 ㉠의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 Q가 ‘거짓’이면 조건문 ㉠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조건문 ㉠과 조건문의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경우 Q는 ‘거짓’이 된다. ③ 선지에서 제시한 내용은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할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고전 논리에서는 ㉠과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다. 따라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가 ‘거짓’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A는 이치 논리인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는 물론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는 (ㄹ)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B는 LP와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B도 (ㄹ)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은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ㄷ)과 (ㄹ)은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때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B는 (ㄷ)과 (ㄹ)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로 판단할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로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ㄱ)이 ‘참’이라고 주장할지 ‘거짓’이라고 주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두 개의 진리치 외에는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B는 LP와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인정한다. (ㄱ), (ㄴ)은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전

자의 관찰 이전 상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③ (ㄷ)과 (ㄹ)은 모두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A와 B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B는 (ㄱ), (ㄴ)이 미시 세계에서의 관찰 이전 상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3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지니게’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게’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것을 한자어로 바꿀 경우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는 뜻의 ‘보유(保有)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상식적인 생각’들이 물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는 ‘따르면’으로 사전적 의미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면’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는 고전 역학에 ‘근거하면’이라는 뜻이므로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는 뜻의 ‘의거(依據)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는 ‘알게’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게’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는 뜻의 ‘인지(認知)하다.’는 적절하다. ④ ㉣는 ‘던진다.’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는 뜻의 ‘제기(提起)하다’는 적절하다. ⑤ ㉤는 ‘들어맞는다.’로 사전적 의미는 ‘정확히 맞다.’이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는 뜻의 ‘부합(符合)하다’는 적절하다.

[33~37] 문학

[33-37] 고전 복합:

고전 소설- (가) 작자 미상, ‘춘향전’, 고전 시가- (나)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여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양반 자제 이몽룡과 퇴기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의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

어neath 사랑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의 굳은 의지와 탐관오리를
혁파하는 이몽룡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제시문은 부친의 승진에 따라 이몽룡
이 남원을 떠나는 부분으로, 이별을 슬퍼하는 춘향이 이몽룡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안타까운 이별로 인한 비애감

지문해설 : (나)는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노래로 만든 조선 시대의 잡가이다. 당
시 인기 있었던 판소리 ‘춘향가’에서 청중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인 춘향과 이
도령의 이별 장면을 따로 떼어 노래하고 있다. 한편, 잡가는 조선 시대 문학 작품 중
일부를 수용하여 당대의 정서를 표출하였고, 또 그중 일부가 국악, 민요 형식으로 현
대에 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시대 문학이 현대로 계승되는 과도기적인 문
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이별로 인해 춘향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비애감

33.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진시황의 분서 사건, 박랑사와 관련된 사건 등의 고사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 상황에 직면한 ‘춘향’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춘향’이 당면한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련님’은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으로 인한 이별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에서 알 수 있듯
이 상황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② ‘이런 일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
하였소?’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
였다. ③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제비’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에서 알 수 있듯
이 ‘춘향’은 할 수만 있다면 이별의 억울함을 천상적 존재인 옥황에게 호소하고 싶다
고 말하고 있다.

3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㉞의 앞부분인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 지게
하겠지요’를 고려할 때, ‘판결문’에는 춘향이 송사에 패소하는 내용, 즉 ‘도련님’에게
는 죄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명문’을 쓴 것은 춘향
이 아니라 ‘도련님’이다. ②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 하겠소’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지’에는 ‘춘향’의 억울함이 담겨 있을 것이다. ③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 한 장’은 ‘도련님’이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사또에게 재판에 대해 청탁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도련님’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 즉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⑤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언’을 쓸 때는 ‘순사또’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쓸 것이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 되자더니’,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를 고려할 때, ④의 표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맹세가 깨져 버린 상황에 대한 ‘춘향’의 심화된 슬픔이 담겨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를 고려할 때,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삼단 같이 좋은 머리’채를 잡혀서라도 ‘이 도령’을 따르겠다는 ‘춘향’의 말은 자신의 머릿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를 고려할 때, 문맥상 ⑥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라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별을 막고 싶은 ‘춘향’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춘향’이 이별을 막기 위해 ‘도련님’이 탄 말의 꼬리를 잡고, 말은 춘향의 가슴을 차는 모습은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을 희화화한 면은 있지만, 이것이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산첩첩 수중중한데’를 고려할 때, ‘이 도령’과 이별하게 되면 그와의 재회가 어려울 것임을 ‘춘향’이 탄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에는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하는 ‘춘향’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 말하는 ‘춘향’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도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춘향’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님, 순사또, 형조, 한성부, 비변사’ 등에 하소연하여도 그들은 같은 양반인 ‘도련님’의 편을 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분 제도가 있었던 당대를 살아가던 양반에 대한 민중들의 의식을 ‘춘향’의 면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② ‘소지, 소장’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이에 패소하더라도 ‘팔만장안 억만가호’에 걸식하여 종이를 구해 임금께 ‘상언’을 쓰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바탕으로 ‘춘향’의 적극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④ ‘할 수 없이’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주안상을 차려 송별연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이별 상

향을 받아들이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⑤ (가)와 (나) 모두에서 ‘춘향’은 ‘이별’이라는 글자를 만든 사람을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천하장사 항우’로 하여금 이 글자를 깨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이별 상황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B]에는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화자와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라고 말하는 ‘춘향’의 역할을 하는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할이 다른 두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춘향’과 ‘이 도령’이 이별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기>에 제시된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춘향’은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안타까움을 ‘생논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등장인물의 겪고 있는 내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보기>에서 언급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② [A]에서 ‘춘향’은 이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도련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이 거듭되어 진술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보기>에서 언급한 분량을 늘리려는 잡가의 담당층의 의도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③ [B]의 첫 행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별이라네’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집약적인 표현은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을 작품 내용 안으로 빠르게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한 작품 속에서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면 그 의미나 정서가 강조되기 마련이다. [B]에 표현되어 있는 ‘못 가시리라’의 반복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38~42] 독서

[38~42] 사회, ‘집합 의례’

지문해설 : ‘집합 의례’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 및 양상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글이다. 뒤르켐에 따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이를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그는 또한 현대 사회에서 집합 의례가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개인들이 서로 결

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겼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꾼 기능주의 이론을 주창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위기 시기에는 잠재해 있던 가치가 부상하여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알렉산더는 파슨스, 스멜스와 달리 집합 의례가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거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공연론’을 통해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집합 의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38.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중심 화제인 ‘집합 의례’를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뒤르켐의 이론이 파슨스와 스멜서에 의해 보완되고 있으며,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의 한계가 알렉산더의 견해로 보완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집합 의례에 대해 학자들이 선행 연구를 수용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주요 학자들이 이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집합 의례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파슨스, 스멜서와 알렉산더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반된 견해를 절충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 ⑤ 집합 의례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 중심 화제 파악

뒤르켐은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므로 공동체 성원들이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집합 의례를 통해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으로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 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가 행해진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세부 정보 파악

파슨스와 스멜서의 견해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가치, 즉 성스러움이 사회적 삶 아래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위기 시기에 부상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다가 위기 시기에 그들의 관심을 가치, 즉 성스러움에 두는 것이다. 이는 관심이 속에서 성으로 옮겨감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성이 아니라 속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 역시 성이 아닌 속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위기 시기에 봉착하게 되면 집합 의례를 통해 흐트러진 향상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위기 시기에서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기 시기에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파슨스, 스멜서는 집합 의례의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유기체가 흐트러진 향상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처럼 결과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알렉산더는 집합 의례는 현대 사회에서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역시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파슨스, 스멜서는 집합 의례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의 통합이 회복될 것이라 보았다.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는 것은 도덕 공동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①과 달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집합 의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알렉산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 것은 파슨스, 스멜서이다.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파슨스, 스멜서는 위기 시기에 사회적 삶 아래 잠재해 있던 성이 부상하며 속보다 우선시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알렉산더 역시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구체화한 대본 등을 들고 있으므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 아니다.

4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알렉산더의 견해에 따르면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다. <보기>의 사례는 대본, 배우, 미장센 등의 공연 요소들이 존재하는 사회적 공연으로 볼 수 있는데, 소각장 유치에 대해 A시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동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요소들 간의 융합이나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공통된 가치를 주민들이 중시하게 된다면 가치의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각장의 유치를 둘러싼 논란은 A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앙 언론은 상징적 생산 수단으로, 경찰은 사회적 권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에 의해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지역 경제 발전에 동의하고 있지만 소각장의 유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 소설 - 임철우, '눈이 오면'

지문해설 : 이 소설은 급속하게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상실감을 다룬 작품이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워 오다가 장남마저 일찍 여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그'(찬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마을인 '꼬두메'를 찾아 나선다. 이 여로의 사이사이에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면서 고향에 얽힌 서럽고 그리운 추억들이 펼쳐진다. 작가의 비판적 현실 인식이 서정적 문체로 표현된 작품이다.

[주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의 아픔

4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특정 인물, 즉 '그'(찬우)가 회상하는 과거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중략' 이전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고, '중략' 이후는 어머니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던 두 달 전 늦가을에 대한 회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략' 뒷부분에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밝은 유난히 썰렁했다.' 같은 부분이 있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 배경과 분위기를 제시한 것일 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학교 운동장, 빈민 구호소 식당, 집 등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경 묘사로 인해 사건 전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글은 전지적 성격을 지닌 서술자가 ‘그’의 내면 심리, 주관적인 느낌까지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서술의 초점은 계속 ‘그’에게 맞추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인물로 서술의 초점을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어머니’가 데리고 간 빈민 구호소 식당에서 ‘그’에게 먹이는 ‘한 그릇의 국수’이다. ‘어머니’에게 이끌려 빈민 구호소에 들어서게 될 때 ‘그’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아들인 자신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다는 냉랭한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 마지못해 국수를 먹던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고, 가난한 삶의 고난을 환기하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면서 목구멍이 빠근해져 오는 것을 느낀다. ‘그’는 방금 ‘어머니’가 자신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어 구호소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돌아가신 아버지 애걸 꺼내며 혼을 내서 자기를 울게도 만들었지만, ‘어머니’의 속마음은 가난의 설움, 가난 때문에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자식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 같은 것이었음을, 국수를 먹으며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수를 먹기 전까지 ‘그’와 ‘어머니’는 표면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수를 먹다가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본 ‘그’는 목구멍이 빠근해져 옴을 느낀다. 따라서 국수가 둘 사이의 갈등을 지속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그때 국수를 먹은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국수라는 음식은 싫어한다고 했을 뿐, ‘그’가 국수 때문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국수를 먹게 된 것은 ‘그’가 ‘어머니’를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여기서 국수가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일 것이다. ⑤ 국수를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슬픔과 설움이 북받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으므로 국수를 통해 ‘어머니’가 위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5.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그’가 ㉔을 듣고 불길함을 느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가 불길함을 느꼈다는 진술은 ‘중략’ 바로 다음, 이제는 노인이 된 ‘어머니’한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에 나온다.) 국수를 먹던 어린 ‘그’가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을 한 것은 ㉔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아들을 향해, 그렇게도 배가 고프더냐고 냇두리 같은 말(㉔)을 한

‘어머니’는 ‘그’를 이끌고 구호소 식당으로 간다. 그리고 자식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 없다며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냐는 말 ㉠로 타박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아마도 ‘그’가 배고픔 때문에 구걸이나 도둑질에 해당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리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호소 식당을 보고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죄책감으로 인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그 전까지,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에는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른 적이 없었던 ‘어머니’는 ㉢에서 처음으로 ‘찬우야이!’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음성은 평소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이 ‘생경한 이질감’으로 인해 ‘어머니’의 변화를 또렷이 느끼게 된 ‘그’는 ‘내심 섬찝했’다고 하였다. ㉣ ㉤에도 드러나 있듯이 ‘그’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이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온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던 과거를 현재와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며, 그로 인해 ‘그’는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얼른 헐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③ 08. ① 09. ④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② 15. ① 16. ⑤ 17. ③ 18. ② 19. ③ 20. ③
 21. ④ 22. ⑤ 23. ② 24. ④ 25. ① 26. ⑤ 27. ① 28. ⑤ 29. ① 30. ④
 31. ③ 32. ② 33. ① 34. ③ 35. ⑤ 36. ⑤ 37. ① 38. ② 39. ② 40. ⑤
 41. ④ 42. ④ 43. ③ 44. ② 45. ④

[1~3] 화법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한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궁중 음식의 의의를 밝히고 발표에 활용된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조선 왕조 궁중 음식」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언급하고 있으며,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 내용 중 수라상에 대해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③ 발표자가 발표 중간에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라고 질문한 후,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라고 하며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발표의 앞부분에서 ‘수라상’이라는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인 ‘수라’의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발표자는 화제 제시 후 곧바로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2. 자료 활용 방식 및 의도 추론(자료 활용 방식 평가)

정답해설 :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후, 곧바로 음식이 차려진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라상의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가 전골 요리에 쓰였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을 뿐,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③ ㉠은 수라상의 사진이 아니라,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을 활용한 것이다.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것이 아니라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을 간단히 차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상의 하나로 ‘낮것상’의 사진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으로,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

이 나타날 뿐이므로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반응 분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청자1은 발표의 앞부분에서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언급한 후, 설명은 두 개만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자3은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의 의의를 밝힌 후 ‘고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유입된 재료에 따른 수라상 음식들의 변화를 추론하고 있을 뿐이므로,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청자1은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표를 통해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자2는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발표를 통해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이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표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자3은 ‘고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유입된 재료에 따라 수라상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청자2는 ‘기미 상궁’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고, 청자3은 ‘고추’와 같은 재료가 조선 후기에 유입되었다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4~7] 화법, 작문

4. 토의 준비 과정의 추론

정답해설 : 「허생의 처」라는 작품을 활용한 (가)의 토의에서 ‘현지’는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의를 시작할 때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토의 주제를 언급(㉓)하고 있고, ‘민호’와 ‘영수’의 토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정리(㉔)해 주고 있으며,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가)에서 ‘현지’는 발언 순서를 지정(㉑)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㉒)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토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B]에서 ‘영수’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민호’의 의견에 대해 “맞아”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나서,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라고 하며 ‘민호’의 의견에 대해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과연 그럴까?”라고 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②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민호’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한 것이 아니라, ‘민호’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B]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고, ‘영수’가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은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관계’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전자가 주된 이유이고 후자가 부차적 이유라는 식으로 구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민호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했다는 의견을 냈다가 영수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했는데, (나)의 1문단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②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그 문단의 나머지 내용들은 해당 의문에 관한 답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영수는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허생의 처가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를 불행의 원인으로 여긴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나)의 2문단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임을 밝혔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첫 문장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에 해당하는데, 뒤이어 민호는 그것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자신의 생각이 편협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㉔는 행복 수준을 조사할 때 그 기준으로 물질적 풍요 수준, 인간관계의 만족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외적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인 ㉕을 구체화하여, 물질적 부와 함께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행복의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는 소득 수준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없고, 이런 내용은 ㉖과도 무관하다. ② ㉔는 일

정 소득 수준을 넘어선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는 ㉠과 내용상 관련이 없다. ㉡ ㉢와 ㉣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 형성의 조건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고, 이는 ㉠과도 관련이 없다. ㉤ ㉥와 ㉣를 활용한다 해도, 물질적 부의 추구가 가족 간의 관계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 또한 ㉦을 물질적 부의 추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8~10] 작문

8.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에서 결정한 글감인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1문단에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나)를 보면,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수집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우리 학교에서 봉사의 날을 도입한 취지도 제시되지 않는다고. ㉢ (나)에는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의 선정 과정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 병렬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나란히 늘어놓는다는 뜻인데, (나)에서는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가 (나)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어떤 문항들로 진행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다.

9.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은 우리 학교 학생들 중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설문 조사 자료이다. ㉡는 교육 전문 잡지에 실린 글로,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과 보완 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 모두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현행 운영 방식의 단점이라는 내용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만 활용한 [A]와 달리, ㉡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다. ㉢ [A]에서는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로 자발적 참여 유도의 어려움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에 의하면 ‘보람을 느낄 수 없음’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불만족 이유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A]를 보완한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 ㉣에는 학교에서 별도의 봉사 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A]에서 언급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 ㉣에 의하면, ‘자발성이 떨어짐’이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에

의하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봉사 활동에 대한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의 수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우선 주제와 맞지 않는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의의를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한다면, ~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추가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수정 전에는 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 수정 후에는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 ③ 수정 후의 글 내용 중에는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언급이 없다.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되지 않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되지 않았다.

[11~15] 문법

[11~12] 단어 형성 방식과 국어의 변천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먼저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파생어에 쓰이는 접미사는 간혹 어미나 조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법적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언 어간 + 어미’, ‘체언 + 조사’의 형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는 미지칭 인칭 대명사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칭 대명사로 굳어진 사례에 대해 상술한다.

[주제] 단어의 형성 방식과 국어의 변천

11.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니, 깨뜨리지만’ 등으로 활용을 하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용언 ‘깨뜨리는’의 어간은 ‘깨뜨리-’이고, 어미는 ‘-는’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이는 많지 아니하나 기개와 체질이 굳센 사람’의 뜻을 지니는 ‘아기장수’는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② ‘맨손’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과 어근 ‘손’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③ ‘쌓인’의 어간은 ‘쌓이-’인데, 이때 ‘쌓-’이 어근이며 ‘-이-’는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모습이’에서는 체언 ‘모습’과 조사 ‘이’가 결합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12. 국어의 변천

정답해설 : [A]의 설명을 토대로 <보기>의 탐구 결과를 확인하면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누’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형태로 굳어졌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만 사용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중세 국어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를 ‘누, 누고, 누구’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는 ‘누’이며, ‘누고, 누구’는 ‘누’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 + 고, 누구 + 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누고, 누구’가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나타난다. ③ 현대 국어인 (다)에서는 (나)에서 쓰인 ‘누고’는 나타나지 않으며 ‘누구’만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누 + 고/구’가 (나)의 ‘누고/누구 + 고’로 변화하였음을 볼 때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인 ‘누 + 고/구’가 새로운 단어 ‘누고/누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와 ‘누구’가 모두 나타나지만 (다)의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③에 쓰인 부사어 ‘너무’는 ‘샀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어 ‘헌’을 수식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주어-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여 ‘푸른’을 수식하고 있다. ② 명사 ‘하늘’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평평’이 각각 부사어로 쓰여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④ ㉠의 ‘엄마와’와 ㉡의 ‘취미로’는 모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후자와 달리 전자는 문장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이다. ⑤ 일반적으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가’를 취하여(생략이나 보조사 실현 가능)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 ‘재가’는 보어이며, ㉣은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그런데 둘 모두 서술어 ‘되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14.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 ㉠ ‘흙일’은 ‘흙일 → 흑일 → 흑닐 → [흥닐]’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 ㄴ 첨가(첨가), 비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달는’은 ‘달는 → 달느 → [달른]’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발야구’는 ‘발야구 → 발냐구 → [발랴구]’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임을 알 수 있다. ‘첨가’는 ㉠과 ㉢에서만 일어날 뿐 ㉡

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3회의 음운 변동이, ㉡과 ㉢에서는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③ ‘교체’는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의 개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고려하면,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ㄴ 첨가(첨가)가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고, ㉢에서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늘었다. ④ ㉠은 자음군 단순화(탈락), 유음화(교체)가, ㉢은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⑤ ㉠과 ㉢에서 첨가된 음운은 둘 다 ‘ㄴ’이다.

15. 국어사전의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에서는 「10」의 뜻풀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심적 의미에 대한 뜻풀이인 「1」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변화가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국어사전에서 「[]」는 표준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는데, 개정 전에는 [김:밥]만 인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김:밥]과 [김:뺨] 모두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냄새’에 대한 뜻풀이는 개정 전후가 동일하지만 ‘내음’은 개정 전에는 경상도 방언으로 처리하였던 데 반해, 개정 후에는 표준어 표제어로 등재하고 새로운 뜻풀이를 제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태양계’의 개정 전후 뜻풀이에서는 ‘9개의 행성 → 8개의 행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는 과학적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결과이다. ⑤ ㉢에서는 ‘스마트폰’을 표제어로 추가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던 문물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표현을 표제어로 올린 것이다.

[16~19] 독서

[16~19] 인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과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어떤 평가를 받아왔으며,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목적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이론에 대한 근대 학자들의 비판들을 소개한 후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현대의 학자들이 지적한 반박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17세기 이후의 물질론적·환원론적 사고와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탐구에 대하여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탐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담긴 핵심적 사고와 그 의의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소개 - 이 이론에 대한 근대 학자들의 비판 - 이 비판에 대한 일부 현대 학자들의 반박 - 목적론의 의의 제시’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글의 처음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소개한 후 근대의 학자들인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의 이 이론에 대한 비판들과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일부 현대 학자들의 반박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는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했다는 것은 목적론에 상응하는 다른 이론을 제기했다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대등한 다른 이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목적론에 대한 근대 학자들의 반론을 제시하였다. 각 이론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근대 학자들의 비판과 현대 일부 학자들의 반박을 목적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절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③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과 이 비판들에 대한 반박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비판의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④ 목적론에 대한 비판으로 근대의 학자들의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대순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목적론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지닌 긍정적 의의를 부각하며 글을 끝맺고 있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고, 그러한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을 하며,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난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 마지막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다시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미는 이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로 생각했다. ② 1문단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낙엽을 비롯한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⑤ 목적론에서는, 자연물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고 본다.

1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그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릴레이는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입장에서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③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며 목적론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고, 우드필드는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베이컨 등 근대 학자들의 목적론 비판을 반박했다. ④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하였다. 볼로틴은 목적론을 비판한 근대 과학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기는 했지만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⑤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사물을 의인화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드필드는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1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함으로써 자연물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 환원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보기>의 마이어 역시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나’며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마이어의 생각은 엠피도클레스의 생각과 유사하지만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창발론의 입장은 엠피도클레스의 견해와 상충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를 반박했다. ② 마이어는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피도클레스의 물질론적 주장과 반대의 견해를 보였다. ④ 마이어는 모든 자연물이 아니라 생명체의 특징으로 ‘창발론’을 주장한 것이며, 생명체의 경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러한 내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이어 역시 생명체의 특성이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2] 현대시 - (가)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나) 김광규, '묘비명' / (다) 삶의 반영으로서 시

지문해설 : (가)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은 '짹짹 얼'은 강, 하늘 끝에 달은 '사막'과 같은 공간적 배경과 '밤'과 같은 시간적 배경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화자는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강 건너 어딘가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삶의 희망에 닿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나)는 세속적 영달을 추구했던 인물이 남긴 '묘비명'을 소재로 물질적 가치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 지적하고, 역사가와 시인의 역할에 대해 반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주제]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세태 비판과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다)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시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시 쓰기를 통해 시인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시가 반영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일상적 진실'과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당위적 진실'로 구분하고, 시인은 이 두 가지 현실을 시를 통해 형상화하면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를 갖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인간의 일상적 현실과 지향을 반영하는 시(詩)

20.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화자가 부른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짹짹 얼은 강과 사막을 건너 무지개의 한 가락 어디에 닿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고, (나)는 '묘비명'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불의 뜨거움을 곳곳이 견뎌내고 표현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가 청자를 염두에 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자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와 (나)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 있지만 (가)의 경우 풍자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갔소'와 같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는 '달 밝은 밤'이나 하늘 끝에 달은 '사막', '눈물 먹은 별' 등 자연의 모습이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비석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와 '뜨거움'과 같은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나)가 물질적 가치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임을 고려할 때,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나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는 표현에 반어적 어조가 활용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경우 반어적 어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는 시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반영’이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나타나는 ‘일상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과 ‘있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는 ‘당위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은 ‘죽음’과 ‘밤’의 이미지를 통해 일상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 아니며,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뺨뺨 얼어 조이던 밤’의 표현에서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혹독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가 건너가고자 하는 강 저편의 공간적 배경을 ‘사막’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상황이 삭막하고 고된 것임을 표상하고 있다. ③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인 ‘밤’에 희망을 표상하는 ‘무지개’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를 물질적 가치로 인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묘비명’은 부정적 인물을 예찬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에 영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강을 건너간 ‘노래’는 화자가 부른 것이므로, ‘노래’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의 관점에 따라 이 작품을 ‘시에 대한 시 쓰기’로 보면 시의 화자는 곧 시인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② 3연에 ‘노래’가 강을 건너 간 이유를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노래’가 집조차 없’는 이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시인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묘비명’의 내용은 시와 소설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고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한 사람의 삶이 담긴 것이다. 화자는 정신적 가치가 외면 받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묘비명’은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묘비’에 기록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후세인들에게는 ‘귀중한 사료’가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묘비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통해 화자는 시인으로서 ‘무엇을 기록’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23~26] 문학

[23-26] 고전 소설 - 김만중, '사씨남정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선인인 사 씨와 악인인 교 씨를 등장시켜 처첩 간의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행실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한 처벌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유 한림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에는 무능한 가장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조선 사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담고 있다. 지문에는 교 씨의 참소로 폐출된 사 씨의 모습과 교 씨와 동청의 모의로 유배당한 유 한림의 행적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사 씨의 덕행에 대한 칭송과 악행을 저지른 교 씨에 대한 징벌

2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는 사 씨의 질문에 유모와 시비가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모'는 황릉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모가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를 통해 사 씨와 남해 도인이 인연이 있음을,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를 통해 사 씨를 바다 끝으로 데려다 줄 조력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를 통해, 여승이 관음보살의 명을 받아 사 씨를 도우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를 통해, 유 한림이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를 통해, 유 한림을 낫게 한 샘물이 마을 사람들의 병을 없애는 방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는 사 씨를 바다 끝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여승이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사 씨가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과 사 씨와 두 왕비의 재회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렴을 내리는 소리’는 그림 속 왕비를 만나는 꿈에서 깨도록 하는, 즉 사 씨를 비현실 세계에서 유모와 시비가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나무 수풀’은 사 씨가 왕비를 만나러 가는 상황과 유모와 시비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상황, 즉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 상황을 중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상화’는 사 씨가 꿈속에서 만난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과, 초월적 존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꿈에 나타났음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병을 뜯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와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은 꿈에서 본 물건으로서, ‘병’이 있던 자리에 솟은 샘물은 유 한림의 병을 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㉓는 곤경에 처한 사 씨에게 조력자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는 왕비가, ㉔는 유배지에서 죽을 지경에 이른 유 한림을 낫게 해 줄 ‘병’을 전달하는 노파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㉓와 ㉔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는 진술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㉓의 경우 꿈에 등장한 인물이 순임금의 부인인 아황과 여영임을 밝히고 있지만, ㉔의 경우 흰 옷을 입은 노파라고만 말하고 있어 해당 인물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유 한림이 노파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③ ㉓에서 왕비는 사 씨에게 ‘때가 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㉔에서는 유 한림을 낫게 할 수 있는 ‘병’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곤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㉓에서 사 씨는 역사 속 인물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있고, ㉔의 경우 유 한림은 어느 노파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㉓와 ㉔의 경우, 사 씨와 유 한림이 아황과 여영 또는 흰 옷 입은 노파를 만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문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⑤ ㉓와 ㉔에는 꿈을 꾸 주체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 씨와 유 한림의 출생 내력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주 사람들이 유 한림과 관련한 신기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 물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

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노파를 만나 병이 낫는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유 한림이 외로움과 고초를 겪게 되면서 예전의 총명함이 돌아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 ③ 사 씨가 꿈에서 역사 속 인물을 만나고, 관음보살의 명령을 받은 여승을 만나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 ④ 유 한림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과 관련된 곳을 사람들이 학사정이라고 지칭하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괴이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평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27~32] 독서

[27~32] 사회, ‘정부의 정책 수단’

지문해설 : 이 글은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사례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오버슈팅이라 한다. 오버슈팅은 단기적인 물가 경직성이나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 촉발되는 것으로, 시장의 조정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균형 환율 수준으로 회복되게 된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율의 급등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설명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주제] 환율의 오버슈팅을 사례로 본 정부의 정책 수단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자국 물가가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할 것이고,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2문단을 통해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 하는데, 이는 물가 경직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금리 하락의 폭이 작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을 통해 환율은 단기에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한 반면 물가의 경우 단기에 신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가의 조정 속도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을 통해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영할수록 오버슈팅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물가 경직성이 클 경우에는 물가의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므로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길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2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자동성은 정책 수행을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카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위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서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자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강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의 강화는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반면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지출이 수반되므로 가시성이 높다. ③ 자연 보존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금지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높다. 문화재 발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 ④ 정부 기관에서 특정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일수록 직접성이 높으므로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은 직접성이 낮은 정책으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정부 기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직접성이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에 해외 자금 유입이 증가한다면 B국에서는 통화량 증가에 따라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B국의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B국에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적어지는 반면 A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금융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므로 A국 환율의 오버슈팅은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여 A국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A국의 수출이 증대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A국에 외환의 유입이 증가하면 A국 환율은 다시 낮아져 균형 환율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시장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A국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A국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환율이 균형 환율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책 당국이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A국의 내수는 위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단기에는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에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실질 통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c이다. 한편 시장 금리의 경우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였다가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면 반등하게 되므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a이다. 환율의 경우 오버슈팅에 의해 크게 상승하였다가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균형 환율로 수렴되는데, 이는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런데 자국의 물가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균형 환율 역시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b이다. 정답 ④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5단락에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 설명되고 있다. 미세 조정 정책의 수단으로 정보 공개, 가격 규제 축소, 세금 조절, 환율 변동 보험 제공, 지급 보증 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의 통제와 같은 강제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 보험의 제공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② 5문단에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품에 대한 세금 조절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④ 5문단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급 보증 제도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⑤ 5문단에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32.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노출되다’는 ‘겉으로 드러나다.’의 의미로 쓰이는 말로, 사동의 의미가 없다. ‘드러낼’은 ‘드러나다’의 사동사인 ‘드러내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말이므로 ‘노출될’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괴리되다 :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 ③ 초래하다 :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다. ④ 복귀하다 :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다. ⑤ 도모하다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33~37] 문학

[33~37] 고전 시가 - (가) 이정환, ‘비가’ / 현대 수필 - (나) 이병기, ‘풍란’

작품 해제: (가)는 작가가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지은 총 10수의 연시조이다.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가 느낀 수치심과 비통함,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특히 치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한탄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제1수에서는 꿈을 통해 청나라에 붙잡혀 있는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 제4수에서는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제상을 떠올리며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탄이, 제6수에서는 무신이 많으면서도 싸우지 못하고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에 대한 아픔이, 제7수에서는 두 왕자와 백성들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고 근심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이, 제8수에서는 자신을 풀에 대조하면서 국치를 당한 데 대한 아픔이, 제9수에서는 치욕적인 역사적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주제] 국치(國恥)에 대한 비분강개

작품 해제: (나)는 작가가 난(亂)을 기르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작가는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난을 잃고 얻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난에 대한 애정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도 자신의 옆에서 위안이 되어 준 난에 대한 애정과 예찬을 두 수의 시조에 함축적으로 담아내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33. 화자의 태도 이해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세자와 백성들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상황에서 고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꿈’에서나마 ‘만 리 요양’을 가

서 ‘학가 선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름겨워 흐노라’와 ‘갈 길 몰라 흐노라’를 통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에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비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는 작가가 역사적 순간마다 고난을 겪으며 힘들게 삶을 영위하는 모습과 그때마다 난 역시 고난에 처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난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삶을 유한하다고 인식하거나 이를 한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 작가는 고난의 순간마다 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현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치욕적인 역사적 상황이 자신이 바라는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뇌하고 회의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함께 해 준 난에 대한 고마움과 예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3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해설: (가)에서 화자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졌다는 것은 화자가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자가 ‘서울’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학가 선객’은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킨다. 그런 그를 ‘꿈’에서 보았다는 것은 화자가 소현 세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 나오는 ‘박제상’은 신라의 사람으로 일본에 잡혀간 왕의 아우를 구하고 죽은 충신이다. 화자는 그러한 충신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나)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도 뿌리만성한 난을 돌보아 살리거나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풍란’을 길러냈다는 말을 통해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작가는 ‘두실와옥’이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대조되는 누추한 공간이지만 고서와 난, 그리고 술 한 병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즉 ‘정신’을 기르는 존재로서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해설: ㉠은 치욕적인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저절로 잘 자라는 존재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은 이리저리 날리는 존재로, 부정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은 화자와 대비되어 근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화자가 혼란의 역사적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이므로 둘 다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저절로 자란다는 것은 근심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며 ㉣이 바람에 날려 갈 곳 모른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둘 다 세월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소재이다. ③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볼 수도 있으나, ㉡은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라기보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는 소재이다. ④ 화자는 전란 후의 치욕적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은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라기보다는 현재의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해설 : <제7수>의 ‘달 발근 밤’은 임금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 <제8수>의 ‘봄비’는 화자와 대비되는 ‘풀’을 자라게 하는 소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는 화자가 꿈속에서 청나라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에게 다녀왔다는 의미이고,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는 청나라에 잡혀 있는 세자를 모셔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두 구절에는 세자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제4수>에서 박제상이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과 <제6수>에서 ‘조구리’와 같이 세자를 호위하여 모셔 올 이가 없다는 것은 화자가 이러한 충신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제6수>에서는 나라에 무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하여 어려움(辛苦)에 처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란, <제7수>에서 말하는 세자의 ‘이역 풍상(異域風霜)’이다. 즉 ‘이역 풍상’은 청나라와의 화친으로 인해 세자가 이국(異國)에 잡혀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④ <제7수>에서 화자는 잠을 자지 못하며 근심하고 있는 임금을 떠올리고 있으며, 나아가 <제9수>에서는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라 말하며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해설 : ‘썩은 향나무 껍질’은 난이 자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난의 ‘옥 같은 뿌리’와 대조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단락에서 작가는 난이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어울리는 대상이 아니라 ‘두실 와옥’과 어울리는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옥 같은 뿌리’가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4문단에서 작가는 난이 피워낸 하얀 꽃의 ‘방렬·청상한 향’을 맡으며 [A]를 창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때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으로, 이것이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③ [A]의 바로 아래 부분에서 작가는 ‘나는 난연이 있고 난복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단락에서 ‘어느 집에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고 하였다. 즉 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난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A]의 ‘아는 이’로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의 위 부분에서 바닷게를 먹고 병이 나서 병석에 있으면서 난을 곁에 두었는데 그 향이 좋아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⑤ [A]에서 작가는 병상에서 옆에 둔 난초에 대해 글을 쓰면서 ‘옥 같은 뿌리’,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이라는 어구로 ‘난’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늘 함께해 온 ‘난’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8~42] 독서**[38~42] 기술,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전송 과정 및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인 데이터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부호화 과정은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선 부호화는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주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전송 과정과 부호화 방식

3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2문단에서는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수신기에는 부호를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영상을 비롯한 디지털 데이터는 소스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잉여 정보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추

가하는 정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하는 정보가 아니라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추가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상을 전송할 때도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은 채널 부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가 최댓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을 갖기 위해서는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동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에는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1/2로 동일하다면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라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문단에서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④에서 각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로 동일한 경우가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은 최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였으며, 주석에서 평균 정보량은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은 기호의 정보량과 반비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3/4, 1/4인 경우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4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부호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부호로 판단을 하므로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도 오류는 정정된다고 하였다. 즉 000,

001, 010, 100을 모두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가 정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생기면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다. 0이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000이 되는데, 만일 이 중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생겨 011이 되면 1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1로 인식되므로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선 부호화는 부호들을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선 부호화는 수신기가 아니라 송신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문단에서는 어떤 기호 집합에서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는 기호의 발생 확률이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③ 3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채널 부호화의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잉여 정보를 추가하여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함으로써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잉여 정보를 포함한 상태에서 선 부호화한다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부호율은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이후의 비트수로 나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채널 부호화 과정을 통해 잉여 정보를 추가한 후의 비트 수는 채널 부호화 과정 전의 비트 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부호율은 1보다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차동 부호화는 기준 신호를 활용하여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비’의 부호는 ‘10’이므로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111000’이 된다. 여기에 차동 부호화 방식을 활용할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이라면 처음에 1이 나왔으므로 전압을 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뒤이어 1이 나왔으므로 전압을 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음에도 1이 나왔으므로 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후 ‘000’이 나올 때에는 전압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그대로 ‘음, 음, 음’의 전압을 갖게 된다. 따라서 ‘111000’이 차동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라고 하였으며 1문단에서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4개의 기호는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며, 각각의 기호는 2개의 평균 비트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의 최댓값은 2이

다. ② 2문단에서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개의 기호를 각각 2개의 비트 수로 부호화하였다. 그러므로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흐림’은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01100001’로 바뀐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은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하며, 수신기에서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삼중 반복 부호화된 결과를 ‘110001’과 ‘101100’으로 수신하였다면 이는 모두 ‘10’으로 판단되어 같은 날씨로 판단된다. ⑤ ‘흐림’이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000111’이 된다. 이를 차동 부호화할 때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00111은 ‘양, 양, 양, 음, 양, 음’의 전기 신호로 변환되게 된다. 그러므로 ‘음, 음, 음, 양, 양, 양’의 전기 신호를 ‘흐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파악

정답해설 : 동음이의어란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이다. ㉔는 변화된 것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금이 간 인간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㉔의 ‘복원’과 의미가 같다. 그러므로 ㉔와 ㉔의 ‘복원’은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㉔는 ‘글이나 사진 따위를 전류나 전파를 이용하여 먼 곳에 보냄.’의 의미이다. ㉔의 ‘전송’은 ‘예를 갖추어 떠나보냄.’을 의미하므로 ㉔의 전송은 ㉔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② ㉔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하며 ㉔의 ‘기호’는 ‘즐기고 좋아함.’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㉔의 기호는 ㉔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③ ㉔는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기호’를 의미하며 ㉔의 부호는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㉔의 부호는 ㉔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⑤ ㉔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의 의미이며 ㉔의 ‘결정’은 ‘애써 노력하여 보람 있는 결과를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㉔의 결정은 ㉔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소설 - 이문구, ‘관촌수필’

지문 해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고향인 관촌부락을 배경으로 한 8편의 연작소설 ‘관촌수필(冠村隨筆)’ 중 하나인 ‘관산추정(關山芻丁)’으로,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정서는 ‘도깨비불’을 매개로 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교차시키는 구

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도깨비불’은 고향의 공동체가 공유했던 ‘금기’로서 어린 시절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금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결속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작가는 사라진 ‘도깨비불’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공동체의 해체와 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

4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이 글은 어린 시절의 ‘도깨비불’에 대한 인상과 어른이 된 후의 ‘도깨비불’에 대한 인상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도깨비불’을 보며 두려워하였는데 어른이 된 후에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도깨비불’에 대한 인물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은 ‘도깨비불’에 대한 인물의 과거와 현재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와 현재에 ‘도깨비불’을 보는 사건을 반복이라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하나의 사건이 한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공간의 이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지문의 경우 ‘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⑤ 이 글은 시간이 순서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한 것도 아니며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뒤틀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와 ㉠ 다음의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 있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어른들이 ‘도깨비불’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우기며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 다음에 나오는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어린 시절 보았던 ‘도깨비불’을 우연히 보게 된 것에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와 ㉢ 뒤에 나오는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며 ‘가슴의 설렘’과 같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 뒤에 나오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기대했던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실망감과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구절을 보면, ‘아무리 무더워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도깨비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어른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보면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윗글의 어른들이 금기의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한 것은 금기가 설정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아이들 세대 역시 ‘도깨비불’에 대한 금기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낮춘말’로 ‘귀뜸’하는 행위는 곧 금기를 말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한 감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곧 ‘나’의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상실의 대상이 어린 시절의 추억인 ‘도깨비불’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한 감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① 06. ⑤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④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②
 21. ⑤ 22. ③ 23. ② 24. ① 25. ③ 26. ⑤ 27. ① 28. ③ 29. ② 30. ⑤
 31. ④ 32. ④ 33. ⑤ 34. ② 35. ③ 36. ① 37. ④ 38. ② 39. ③ 40. ③
 41. ① 42. ④ 43. ① 44. ⑤ 45. ②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강연자가 ‘부딪친 적 있나요?’라고 물은 후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죠?’라고 물은 후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강연자가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있는 모습과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강연자가 청중과 상호 작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의 주된 내용은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이유와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지는 않다. ③ 강연자는 자외선에 대한 청중들의 배경지식을 물어보고 난 뒤 ‘다들 잘 알고 있군요.’라고 하고 있다. 배경지식을 환기 하면서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강연을 마무리하는 5문단에서 강연자는 청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당부하고 있을 뿐, 청중에게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하고 있지 않다.

2. 듣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학생이 제기한 의문인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는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제기한 의문이 아니다. 학생의 의문은 강연에서 야생 조류의 개념 정의나 그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라는 생각은 강연 내용과 관련된 학생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라는 생각은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학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학생이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

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학생이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영역까지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강연자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2>는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자료 1>은 ㉠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색 인식 영역과 관련된 ㉠이 아니라 전방 인지 능력과 관련된 ㉡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자료 1>이 아니라 <자료 2>이다. ㉤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은 전방 인지 능력과 관련되므로 적절한 자료는 <자료 2>가 아니라 <자료 1>이다.

[4~7] 화법, 작문

4. 토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학생 1’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2’의 제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지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

[오답피하기] ㉡ ‘학생 2’가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리, □□길에 대한 언급은 만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학생 2’가 만나거리에 대해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말하자, ‘학생 3’은 ‘그럼 만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학생 3’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생 2’는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하면서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라는 과제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토의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의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라는 부분에서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서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에서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하지만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에서 찾을 수 없다. ㉢ ㉣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사용한 것이지만 ㉠은 인상적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은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제안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B]에서 ‘학생 3’이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C]를 보면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난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산할머니 제당과 문화제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B]에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C]를 보면 제당에서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제당과 문화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B]에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C]를 보면 은행나무와 관련된 산할머니의 일화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③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B]에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은 [C]에서 찾을 수 없다. ④ [B]와 [C] 모두 바람맞이 언덕이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주는 공간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는 바람맞이 언덕과 무관하다.

7.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학생 3’의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자는 의견과 ‘학생 2’의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자는 의견에서 찾을 수 있다.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 ‘반딧불’,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라는 문구는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두운 여름밤’과 ‘밝은 반딧불’의 대조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학생 2’의 의견도 반

영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랑시의 예술 분야의 특색을 담고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②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사랑시의 전통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8~10] 작문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은 글의 초고 어느 부분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글의 초고에 반영된 생각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 의식에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 ‘실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사극이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9.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의 가치와 ‘사극’의 가치를 동등하게 언급하며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다고 서술되어 있다.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은 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게 서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사극’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은 ㉡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사극의 본질이 실제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A]는 사극이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 두 요소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상력’의 균형을 언급하고 있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와 허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② 허구를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④ 사실로서의 역사가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허구를 통해 공감을 유도한다는 [A]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보기>에 없으며, 허구와 역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과도 맞지 않다. ⑤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 역사적 사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사극을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11~15] 문법

[11-12] 명사/부사 파생 접미사 및 명사형 전성 어미의 통시적 비교

지문해설 : 이 글은 현대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아 발생하는 ‘단어의 형태가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품사 구별을 위해 해당 접미사 혹은 전성 어미가 결합한 단어들의 문법적 특질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세 국어에서의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 명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의 쓰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특히 현대 국어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주제] 명사/부사 파생 접미사 및 명사형 전성 어미의 통시적 비교

11.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4문단의 사례 및 설명, 2문단의 명사와 부사의 특성에 대한 기술 내용을 고려할 때 ‘노피’는 ‘높-’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노피’는 ‘높-’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 부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름’은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여름’은 ‘열-’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② ‘거름’은 ‘걸-’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걸-’에 명사형 전

성 어미 ‘-음’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③ 3문단의 설명을 통해,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용언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에는 ‘-음’이, 음성 모음일 때에는 ‘-음’이 각각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의 ‘노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와 결합하는 ‘ㄴ’은 양성 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 ‘높-’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함을 파악할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결합은 모음조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곧다’, ‘곧다’가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12. 파생 접미사와 전성 어미 이해

정답해설 : ④ ‘도움’과 ‘믿음’ 모두 해당 절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 ‘믿음’은 부사어 ‘온전히’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움’과 ‘믿음’은 둘 다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많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얹’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격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슬픔’은 명사임을 알 수 있다. ②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멸치’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볶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몹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쁨’은 형용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③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큰’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묶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춤’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⑤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울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밝게’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웃음’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13.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정답해설 : ‘도매가격(都賣價格)’과 ‘도맷값(都賣-)’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한자어’이고 후자는 ‘한자어+고유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세방(傳貰房)’과 ‘아랫방(--房)’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한자어’이고 후자는 ‘고유어+한자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③ ‘버섯국’과 ‘조갯국’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둘 다 ‘고유어+고유어’이다(㉡). 그런데 전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후자는 모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④ ‘인사말(人事-)’과 ‘존댓말(尊待-)’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한자어+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

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존댓말’은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에 비해 ‘인사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 ‘나무껍질’과 ‘나뭇가지’는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고유어+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나뭇가지’는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뀔에 비해 ‘나무껍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14.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의 비표준 발음은 ‘굵는 → 글는 → [글른]’의 과정을, ㉡의 표준 발음은 ‘짹네 → 짹네 → [짹레]’의 과정을 거치므로 ‘굵는 → 글는’, ‘짹네 → 짹네’의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글는 → [글른]’, ‘짹네 → [짹레]’의 유음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은 ‘굵는 → 극는 → [극는]’의 과정을, ㉣의 비표준 발음은 ‘짹네 → 짹네 → [짹네]’의 과정을 거치므로 ‘굵는 → 극는’, ‘짹네 → 짹네’의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극는 → [극는]’, ‘짹네 → [짹네]’의 비음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 ㉣의 표준 발음은 각각 ‘끓기고[끈키고]’, ‘뚫지[뚫치]’이며, 이때 예사소리 ‘ㄱ’, ‘ㄷ’, ‘ㄴ’, ‘ㄷ’이 ‘ㅎ’과 만날 때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만 일어난다. 정답 ①

15. 시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의 예문은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 예로 보기 어렵다.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각인 ‘쓰다’가 서술어인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음 주에 약속이 있다는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미래의 일이지만 수첩을 보고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더-’를 써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놀랍다’가 서술어인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밉다’가 서술어인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④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기쁘다’가 서술어인 의문문이기기는 하지만, 수사 의문문이므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일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16-21] 인문,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의학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을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에 영향을 받아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한편 최한기는 흠손의 『전체신론』에 영향을 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몸기계의 개념, 즉 인체가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라는 관점을 확립하였다. 최한기는 흠손과 달리 인체의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하였는데, 신기가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한기의 인체론에서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감각을 통합할 수 있고,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한기의 인체론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을 접합하여 인체의 작동을 설명한 것으로 서양 의학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7세기 초부터 서학 서적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서양 의학이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뇌가 몸의 운동을 주관한다는 서양 의학의 설명을 수용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최한기는 흠손의 저서를 통해 인체를 몸기계로 파악한 자신의 견해를 더욱 분명히 하되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에 의해 자발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 글은 서양 의학이 수용되면서 일어난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의 변화를 이익과 최한기의 주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파하기]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③ 인체관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이 담긴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④ 이익은 지각 활동을 심장이 주관한다고 본 반면 최한기는 신기가 주관한다고 보았으므로 두 학자의 견해가 서로 충돌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양 의학 지식이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에 미친 영향이 제시되고 있을 뿐 동양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전체신론』은 인체의 운동을 기계적 인과 관계로 보고 있지만 아담 샬의 『주제군징』에는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한기는 흙슨의 『전체신론』을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아담 샬은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고 설명한 데 반해 이익은 심장이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내세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흙슨은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뇌주지각설을 내세웠다. 이익 역시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흙슨과 이익은 모두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주제군징』에는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이 실려 있었으며, 『전체신론』은 인체의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창조주의 존재를 상정하였으므로 두 책에는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이유, 즉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가 서양 의학이 영향을 미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②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이 내용 면에서 부족했다는 설명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당시 서양 의학은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것과 같은 천문 지식처럼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설명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19.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ㄴ. 6단락을 통해 최한기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하고,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에 쏠린 신기는 청각을 통해, 눈에 쏠린 신기는 시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최한기의 견해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ㄷ. 6단락을 통해 최한기는 신기가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기가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한다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심장이 군주가 되고, 인간의 지각이 심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견해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로 이익의 견해에 부합한다. 최한기는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신기에 의해 인간의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ㄴ. 최한기가 신기의 종류를 대소로 구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최한기는 신기가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구분되어 있다는 설명은 최한기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20. 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최한기는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을 뿐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신기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즉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인체 기관인 두뇌의 작용이 아닌 신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본 것이다. 반면 데카르트는 정신이 사유라는 특징을 가지며, 두뇌에 갇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두뇌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데카르트는 정신이 물질, 곧 신체와 독립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최한기는 신기가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몸을 구성하면서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신기와 신체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데카르트는 정신을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물질과 구분하여 정신이 물질의 하나인 두뇌에 갇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신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최한기 역시 신기는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기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데카르트의 주장이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최한기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내용을 종합하고 확장하는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신체(감각 기관)와 사고(사유)가 영향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한기는 데카르트가 받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데카르트는 물질, 즉 신체의 운동을 기계적 운동으로 보았는데,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맹신하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를 뜻한다. ‘가리다’는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를 뜻하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입되다’는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오게 되다.’를 뜻하므로 ‘들어오기’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제시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를 뜻하므로 ‘드러내었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전파하다’는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를 뜻하므로 ‘퍼뜨리기’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수록되다’는 ‘책이나 잡지에 실리다.’를 뜻하므로 ‘실린’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2~26] 독서

[22-26] 사회, ‘사법(私法)의 계약과 그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법(私法)에서의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단속 법규’의 경우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벌금과 같은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 내용은 유효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의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이미 계약을 통해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의 계약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주제] 사법(私法)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서 국가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그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임의 법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였다. ② ‘임의 법규’는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

을 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단속 법규'는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6문단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의 효력까지 인정하지 않는 '강행 법규'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⑤ 4, 5문단에서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ㄱ. 2문단을 통해 방충망 수선에 대한 것은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 법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게 된다. '임의 법규'는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므로,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ㄴ. 방충망 수선에 대한 것은 '임의 법규'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임의 법규'보다 우선 적용되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ㄷ.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져야 하며,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져야 하며, 방충망 수선에 대한 것은 '임의 법규'에 해당하여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건물주가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은 '단속 법규'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법적 불이익이 있다. ㉡은 '강행 법규'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과 ㉡의 계약에서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계약 자체가 유효하므로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에만 해당한다. ㉣
㉦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 ㉠ 모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법의 영역에 해
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대법원 판례는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
난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다. 이는 벌금만 부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법규'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행 법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농지 임대차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 임대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
긋나게 계약을 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농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 ㉣ 5문단에 따르면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기>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 이
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이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
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의 의미로, ㉤가 문맥상 같은 의미로 쓰인 사
례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의 의미이다. ㉡ '신세나 은혜를
입다.'의 의미이다. ㉢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의 의미이다. ㉣ '물건을 짚어
서 등에 엮다.'의 의미이다.

[27-31] 현대시 - (가) 박봉우, '휴전선' / (나) 배한봉, '우포늪 악새' / 현대 수필 - (다) 김기림, '주을온천행'

지문해설 : (가)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나타내는 '휴전선'을 소재로 휴전으로 미봉책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남과 북의 화합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이 시는 '꽃'을 통해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화산',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 '겨우살이' 등을 통해 전쟁을 나타내는 등,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민족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미상관적 구성,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 대한 반복적 제시, 설의적 표현의 반복 사용 등으로 역사적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동원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남북 간의 화합으로 분단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민족 분단의 비극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

(나)는 우포늪에서 살아가는 악새의 울음소리를 어느 소리꾼의 소리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악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전생에 득음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소리꾼을 떠올린다. 이름 없이 살았으나 평생 진정한 소리를 추구했던 소리꾼을 떠올리며, 화자는 상상 속에서 날아가는 우포늪의 악새와 소리꾼 영혼의 심연을 연결 짓고 있다. 이 작품은 진정한 소리를 찾는 예술의 세계를 자연의 생명력과 어울려 형상화함으로써 그 조화로운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우포늪에서 구현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이 가진 생명력의 가치

(다)는 오심암 혹은 세심암이라 불리는 바위를 보고 느끼거나 깨달았던 점을 서술하고 있다. 글쓴이는 단풍과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어우러진 오심암의 경치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또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자연의 경관을 보며 세속의 찌든 몸과 마음을 지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오심암에서 잠시나마 속세의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속세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친구들과 다시 오심암을 찾을 날을 기약하며 그곳을 떠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자연물을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오심암의 경관에 대한 예찬과 세속적인 삶에 대한 반성

27.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남북 분단의 현실과 연결 지어 우리 민족이 겪는 비극과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소리꾼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연결 지어 그의 삶과 우포늪이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는 바위로 대표되는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 공간과 세속적 삶에 물든 글쓴이를 연결 지어

바위처럼 살고 싶은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모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화자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희망하고 있다. (가)에서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며,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 예견하고 있지도 않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부정적인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우포늪의 생명력,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한 자연과 달리 교만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2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위기감이 감도는 휴전선의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비극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 것은 아니다. (나)는 화자가 떠올린 한 소리꾼의 삶과 우포늪의 모습이 연관되어 형상화되었을 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 쓰는가.’, ‘~ 하는가.’ 등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한 대목 절창’을 ‘폭포물줄기로 내리’친다고 했는데, 이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리꾼의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④ (가)에서는 ‘산과 산이 ~ 쓰는가.’라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한 소리꾼의 삶을 통해 우포늪에서 창조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우리 민족이 겪는 분단의 아픔과 공포를 ‘꽃’, ‘화산’, ‘바람’이라는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소리꾼의 예술에 대한 염원을 ‘우포늪 왁새’라는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왕래할 수 없도록 땅을 나눈 휴전선과 달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끝끝내 하나인’ 세계를 의미한다. 또 (다)에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자연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의미하고, (다)의 ‘검은 절경’은 붉게 누렇게 물든 단풍 빛과 조화를 이루는 오심암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 즉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의미하고, (다)의 ‘찬기’는 글쓴이에게 자신이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발발할 수도 있는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상황을 뜻하고, (다)의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고 있는 부정적 존재를 상징한다. ⑤ (가)의 ‘요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꽃’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다)의 ‘바위’는 세속적 삶을 잠시나마 망각하게 하는 소중한 존재를 의미한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E]에서 화자는 하늘을 선회하는 악새를 바라보며,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끝낸 소리꾼과 이 악새를 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우포늪의 악새로부터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면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그려 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화자는 악새 울음소리가 퍼지는 눈부신 우포늪의 모습을 보며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한 소리꾼을 연상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득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소리꾼의 삶의 비애를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C]에서는 소리꾼이 평생 찾아 헤맸던 절창이 늪 뒷산 솔바람에 있었음을 발견한 화자의 정서가 영탄적 어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악새들이 ‘동편제’를 넘어가는 상상의 장면을 ‘소목 장재 토평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3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에서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순결한 자연에 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먼지, 즉 세속의 때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 글에서 ‘티끌’은 세속의 더러움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이 ‘티끌’처럼 작다고 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오심암 주변의 가을 풍경을 붉고 누른 단풍, 검은 바위, 푸른 하늘빛, 흰 구름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② 자연을 ‘예술의 극치’라며 예찬하는 반면, ‘사람’의 예술을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오심암’이 인간과 달리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으며, 인간과 달리 먼지 하나 없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⑤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오심암’을 바라보며 먼지 낀 의복을 입은 자신을 굽어보고, 더러운 ‘몸뚱어리’와 ‘마음’을 지닌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32-34] 고전 시가 - (가)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조위, '만분가'

지문해설 : (가)는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읊은 전체 3연의 고려 가요이다. 1연에서는 생활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구슬'과 '끈'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다. 3연에서는 임을 신고 떠나는 뱃사공을 원망하며 이별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임의 변심을 우려하는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시의 화자는 고전 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이고 인종의 미덕을 간직한 여성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

(나)는 조선 연산군 때 사회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귀양을 가게 된 조위가 비분강개의 심정을 담아 지은 유배가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가사로 알려져 있다. 화자를 옥황상제와 이별하고 하계로 내려온 선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충신연주지사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이 버려지게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정서가 두드러지며, 임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유배 문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제시된 부분은 임을 잃은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중심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제] 유배당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연군의 정

3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좃니노이다'는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임이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임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빋취어든'은 '비치거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자가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되어 임의 옷에 가닿고 싶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셔울'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지만 (나)의 '건덕궁'은 임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은 아니다. ② (가)의 '질삼뵈'는 화자에게 중요하지만 임과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나)의 '빈 낙대'는 사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재로, '질삼뵈'와 '빈 낙대'를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임이 아닌 화자의 슬픈 심정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⑤ (가)의 '그츠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 정도로 해석되며, 신의(信義)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반기실가'는 '반가워 하십니까?' 정도로 해석되며, 임이 자신을 반가워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을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을 돌 불근 밤’은 임과 헤어져 있어 슬픈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고, ‘월중’은 임의 옷에 비친 그림자라도 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제시되는 시간적 배경이다. 이들은 모두 이별한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배경으로,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산’에 거쳐하며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마음껏 ‘솟아’오르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② ‘만장송’과 ‘매화’는 전통적으로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곳곳한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는 모두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님의 귀에 들리’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는 이별로 인한 ‘흔’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흔’의 정서를 형상화한 소재로 이해할 수 있다.

34. 작품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A]와 [B]의 ‘바위’는 모두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과 ‘붉은 마음’이 ‘바위’로 형상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와 [B]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흩어질 수 있는 대상인 반면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신’을 통해, [B]에서는 ‘붉은 마음’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A]와 [B]에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사용되었고, 두 부분은 각각 고려가요와 한시의 형식으로 구현된 작품이므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A]에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라는 여음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반면 [B]에는 특별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35~38] 독서

[35-38] 과학, 'LFIA 키트의 원리와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키트 중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검사용 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FIA 키트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된다. 각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며, 목표 성분에 따라 다른 방식의 키트가 이용된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키트의 양성 또는 음성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해야 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고,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현실적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은 키트가 드물기 때문에 검사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주제] LFIA 키트의 원리와 검사 결과의 이해

3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LFIA 키트에서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은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 유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사선은 발색되지 않아도 표준선이 발색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의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하므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키트이며, 2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LFIA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목표 성분은 항원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나고,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각적으로 시료의 목표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어도 키트가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는 위양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직접 방식의 경우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36.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하지만 경쟁 방

식(㉔)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자체이다.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 위해 복합체의 목표 성분과 경쟁하게 되며,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항체와 결합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결합 패드의 검사선은 표준선보다 시료 패드에 더 가까우므로,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는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을 통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를 이용하여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표지 물질이 아니라 복합체의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과 관련이 있다.

3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함에도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위음성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시료에 대해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진음성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3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살모넬라균은 키트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이므로 항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직접 방식의 LFIA 키트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키트의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따라서 ㉔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에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이지 표지 물질에 항원인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므로 ㉔의 개발에는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 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LFIA 키트가 개발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는 데에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⑤ <보기>에서 ㉔가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낮다고 하였으므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가 위양성일 수 있다.

[39-42]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옹고집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소리게 소설로, 욕심 많은 주인공이 자신과 닮은 가짜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뒤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괘시하던 '참옹고집'은 도승이 보낸 '짚옹고집'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옹고집'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가져야 할 책무임을 깨닫게 된다. 진짜와 가짜가 송사를 벌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모티프로 삼고 있으며, 도술을 통해 핵심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기적(傳奇的) 성격도 엿보인다.

[주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개과천선

39.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짚옹고집'은 '참옹고집'보다 앞서 마을 사람들을 아는 척하며 '참옹고집'이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건넨으로써 '참옹고집'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서술자는 '참옹고집'의 입장에서 '날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중에 보인 행동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이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해 송사를 벌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② [A]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와 같은 반응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짚옹고집'이 승소하는 송사의 결과와 관련한 행인들 사이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은 서로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고 있다. ⑤ [A]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모나 외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4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㉞은 '참옹고집'이 집 근처에 왔음을 '짚옹고집'이 능히 알아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후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옹고집'을 개과시키기 위해 데려올 것을 사환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㉞을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㉟에서 '마누라'는 송사에서 이긴 '짚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믿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 ② ㉞에서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있다. ④ ㉞에서 '참옹고집'이 마을 뒷산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㉞에서 '참옹고집'은 '갈 마음 전혀 없다.'는 말로 함께 가자는 사환들의 요청을 거절하

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참옹고집’이 아니라 ‘짚옹고집’이 한 말이다. 또한 ‘참옹고집’이 스스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잘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는 말을 통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참옹고집’이 평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며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전곡을 흠여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참옹고집’의 재산으로 ‘짚옹고집’이 선행을 베푸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참옹고집’과 같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짚옹고집’이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에게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여’ 주는 모습에서 ‘참옹고집’이 쌓아 둔 재물이 많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전걸식’은 ‘참옹고집’이 겪은 고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참옹고집’의 고달픈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4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B]와 <보기>에서 ‘참옹고집’으로 하여금 개과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발화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기>에서는 ‘참옹고집’이 먼저 ‘도사’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있으므로, 개과천선을 요청하는 발화가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에는 ‘나의 어진 용심’이, <보기>에는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상황이 언급되었다. [B]의 ‘어진 용심’은 용서하는 ‘짚옹고집’이 지닌 것이고, <보기>의 ‘정상’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참옹고집’의 처지와 관련된 것이다. ② [B]의 ‘짚옹고집’은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로서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됨을 밝히고 있고, <보기>의 도사는 ‘참옹고집’ 가족의 가여운 상황을 고려하여 ‘참옹고집’을 용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B]와 <보기>에는 각각 ‘참옹고집’이 ‘부모 박대’하고,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하는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⑤ [B]의 ‘짚옹고집’이 ‘허수아비 찰벼 짚뭉음’으로 변하는 것이나 <보기>의 도승이 ‘홀연 간데없’어지는 것은 [B]와 <보기> 모두 도술과 같은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43-45] 현대 소설 - 양귀자, '한계령'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작가가 1980년대 부천 원미동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나'는 옛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25년 만에 연락하여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는 '은자'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은자'가 일하고 있다는 새부천 클럽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한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듣는다.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와 동시대를 살았던 소시민들의 고달팠던 삶에 대해 연민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주제]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 / 간직하고 싶은 추억의 소중함

4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이 글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은자'의 전화를 받은 '나'가 '은자'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끌어낸 서민들의 애환에 대한 사색을, 그리고 '은자'로부터 연상된 고향과 '큰오빠'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이 글은 '은자'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과, '은자'로부터 연상된 고향과 '큰오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은 이야기 내부의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과거의 기억들과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 외부에 서술자가 위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은 '나'의 시각에서 '은자'와 '큰오빠'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 모양이었다.', '~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글에는 서술자가 '은자'의 삶에 대해 추측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은 '은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4.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은자'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를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자'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

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라고 묻는 것에서 ‘은자’는 스스로가 작가인 ‘나’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은자’가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가 자신이 작가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의 전화를 통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은자’의 전화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은자’의 전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다. ③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의 전화 속 요청에 대해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다. 따라서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를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은자’는 ‘나’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을 체면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편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의 지난한 삶의 여정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녀를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굳건한 쇠문’을 몸으로 밀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지 그것을 ‘탐구하고 사색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내리막길을 마주’하는 ‘그들’과 그 길을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대립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지닌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을 찾으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쓸쓸함을 느끼는 ‘나’의 태도에서 고향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④ 변해 버린 현재의 ‘큰오빠’와 어린 시절의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대립적인 모습이 ‘나’의 생각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양면성이 나타난다는 답지 진술은 적절하다. ⑤ 옛 기억을 지키고 싶어 ‘은자’를 만나지 않으려는 ‘나’와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대립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1. ②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① 26. ③ 27. ③ 28. ③ 29. ② 30. ③
 31. ① 32. ⑤ 33. ⑤ 34. ④ 35. ② 36. ① 37. ④ 38. ③ 39. ⑤ 40. ⑤
 41. ⑤ 42. ② 43. ④ 44. ⑤ 45. ①

[1~2]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발표자는 ‘여러분,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들꽃이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발표의 화제인 ‘들꽃’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발표를 마무리하는 4문단에서 발표자는 도표를 제시하여 들꽃의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 들꽃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다음 시간에 들꽃이 명명된 이유와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 발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거나 발표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았다. ③ 발표의 내용에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발표를 시작하는 1문단에서 발표자는 프로젝트 과제와 발표 차례를 청중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 청중을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발표의 중간 중간에 발표자는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청중의 질문에 대해 발표자가 답을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발표자는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들꽃 이름이 분류된 도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들꽃이 이렇게 명명된 이유를 알아보고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다음 발표의 내용을 예고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한 것이지 들꽃 이름과 자연 환경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발표자는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1차 탐구 과제’와 ‘2차 탐구 과제’를 먼저 안내한 후, ‘오늘은 1차 탐구 과제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발표자는 자신이 찍은 ‘제비꽃 사진’을 제시하여 발표의 중심 화제인

들꽃의 모습에 대한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③ 3문단에서 발표자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고산 지대의 환경과 그곳에서 자라는 ‘고려엉겅퀴꽃’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 주는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발표자는 ‘인터넷을 검색한 화면’으로 ‘고산 지대에서 피는 금강초롱꽃과 동자꽃’의 모습을 보여 주며, 이들 꽃들도 ‘아담하면서 색이 선명’한 고산 지대 들꽃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7] 화법, 작문

3. 화법 참여자의 공통점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 ‘찬성 1’은 입론에서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찬성 1’이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반대 1’은 입론에서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대 1’도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찬성 1’과 ‘반대 1’은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언급할 뿐, 선거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찬성 1’은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1’은 ‘결선 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선 투표제’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1’만 새로운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찬성 1’과 ‘반대 1’ 모두 선거 홍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찬성 1’은 입론에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의 적절성을 묻는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해 ‘찬성 1’은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4.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반대 1’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결선 투표제’가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1’이 제기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찬성 1’의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라는 발언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찬성 1’은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라고 말하며 ‘반대 1’이 한 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결선 투표제는 단순 다수제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므로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반대 1’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반대 1’은 반론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찬성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반론에서, ‘반대 1’이 입론 때 제기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 토론 유형과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찬성 1’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할 수 있으므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박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찬성 1’은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말하며 ‘결선 투표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필자는 2문단과 3문단에서 찬반 양측이 발언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다음, 5문단에서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의 입장과 ‘단순 다수제’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토론회가 개최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서 글을 쓴 동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 2문단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학생회장이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해 ‘사회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토론을 들으며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언급하고, ‘관련 서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의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부분에서 토론회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에서 토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필자는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필자는 ‘찬성 측’이 제시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였지만 투표율이 낮아 대표성을 얻지 못한 ‘A 나라’의 사례를 들어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필자는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필자는 ‘반대 측’이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필자는 ‘반대 측’이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8~10] 작문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가)에 제시된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퍼네이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 제시된 ‘우리 동아리의 특색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1문단에서 ‘다른 봉사 동아리와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퍼네이션과 같은 기부 활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② (가)에 제시된 ‘퍼네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2문단에서 ‘퍼네이션(funation)’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결합한 말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 활동’이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④ (가)에 제시된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3문단에서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의 마음이며,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도 나눔의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⑤ (가)에 제시된 ‘가입 후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4문단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퍼네이션 홍보’를 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9.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ㄱ-2는 학교의 학생들의 88%가 주 4회 이상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ㄴ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 의식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보여 준다. 그러나 ㄱ-2를 통해 학생들이 SNS 이용 목적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SNS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ㄱ-1은 학교의 학생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부 활동에 ‘관심이 없어서’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의 3문단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서술

하고 있다. 따라서 ㄱ-1을 활용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② ㄱ-1을 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방법을 몰라서’임을 알 수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ㄱ-1과 연관 지어 보면,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부 방법을 모르는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동아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ㄴ과 연관 지어 보면, 동아리를 통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진로 의식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⑤ ㄷ은 퍼네이션을 위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재미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퍼네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의 4문단에서 퍼네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ㄷ과 연관 지어 보면,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은 사람들이 퍼네이션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나눔은 내가 베푼 마음이 누군가에게 퍼져 모두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은 나눔의 의의를 밝힌 것이다. 또한 ‘우리 동아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을 해 보지 않으시겠어요?’라는 문장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눔의 의의를 밝히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는 있으나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나눔의 의의를 밝히지 않았으며, 의문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아리 활동의 의의를 밝혔을 뿐 나눔의 의의는 밝히지 않았다. ⑤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라는 진술을 보면,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의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문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11~15] 문법

[11~12] 품사 분류의 기준 및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지문해설 : 이 글은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한 결과로 개별 품사들이 분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에 대해 상술하여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는 사례로 ‘밝다’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있다, 없다’의 경우 예외적인 양상을 보여서 의미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모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다.

[주제] 품사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 및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방법

11.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정답해설 : ‘즐거운’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라는 뜻을 지니는 ‘즐겁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활용을 하고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은 관형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옛날, 사진, 기억’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은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보니, 떠올랐다’가 이에 해당한다. ③ ㉣은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④ ㉤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을, 가’가 이에 해당한다. ‘을’은 목적격 조사이고, ‘가’는 주격 조사이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의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설명에 따라 ㉠의 ‘있다’와 ‘없다’는 형용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있다, 없다’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모두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문 ‘돈이 있는(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가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예쁘다’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예빠라’, ‘예쁘자’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명령형·청유형 어미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예쁘려고’, ‘예쁘러’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 ‘-러’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무가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길다.’의 ‘길다’는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나무가 쑥쑥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잘 긴다.’의 ‘길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후자는 선어말 어미 ‘-ㄴ-’과 결합할 수 있다.

13.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의 실제

정답해설 : ㉡에서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

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ㄷ’, ‘ㅌ’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같이[가치]’를 ‘gati’가 아니라 ‘gach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는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난다.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는 ‘잡다[잡따]’를 ‘japdda’가 아니라 ‘japda’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달아[다라]’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용언의 활용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놓지[노치]’를 ‘nohji’가 아니라 ‘noch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며, 이는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난다.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맨입[맨닙]’을 ‘maenip’이 아니라 ‘maennip’으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며, 이는 ‘밤물[밤물]’에서도 일어난다.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백미[뱅미]’를 ‘baekmi’가 아니라 ‘baengm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설명하는 예문에서 객체는 부사어 ‘부텃기(부처께)’의 ‘부터(부처)’이다. ‘왕(王)’은 주체이며, ‘ㅁㅅ물(마음을)’은 목적어로 쓰였다. 객체인 ‘부터(부처)’를 높이기 위해 ‘내아’가 아니라 ‘내ㅅㅂ(내-+-술-+-아)’가 쓰인 것이다. ㉡이 설명하는 예문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결합하는데, <보기>에서 어간 말음이 ‘ㄷ’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쓰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듣-+-졸-+-으며’를 연결(이어적기)한 ‘듣즈븍며’가 적절하다. **정답 ③**

15.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에는 ‘내가 늘 쉬-’가 전성 어미 ‘-던’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는 ‘자식이 건강하-’가 전성 어미 ‘-기’를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② ㉡에는 ‘연락도 없-’이 전성 어미 ‘-이’를 통해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이 전성 어미 ‘-음’을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⑤ ㉣에는 ‘아주 어렵-’이 전성 어미 ‘-은’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는 주어 ‘과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16~20] 문학

[16~20] 고전 시가 -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현대시 - (나)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이론 -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리듬

(가)

지문해설 :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섬기는 삶과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 사이의 고민을 드러낸 뒤,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대부의 심회를 진솔하게 노래한 총 19수의 연시조 작품이다. 각 연의 시상이 전개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강호에 은거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치군택민)과 ‘강호한정’을 추구하는 삶(조월경운)이 교차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살필 수 있다.

[주제]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의 고민과 한가한 삶의 수용

(나)

지문해설 : 화자의 가난한 어린 시절, 삶을 힘겹게 꾸려갔던 어머니의 한스러움을 회상하며 그려낸 작품이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생선을 파는 어머니의 고된 삶을 생선 눈썹의 빛이나 남강에 비친 별빛 등으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빛의 이미지는 마지막 연에서 달빛이 반사되는 옹기의 반짝임으로 연결되고, 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환기하며 어머니의 한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제]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회상

(다)

지문해설 :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음보와 음절 등 형식적 측면의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말소리, 휴지(休止), 첨표나 마침표 등의 반복을 통해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배후로 물러나 친숙함 혹은 낯설음을 유발하는데, 김소월과 이상의 시가 각각 해당된다. 즉 한국 현대 시에서의 리듬은 김소월의 친숙함과 이상의 낯설음과 같은 간극 사이에 위치한다.

[주제] 고전 시가와 현대 시에서 드러나는 리듬과 현대 시에 작용하는 고전 시가의 리듬

1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제1수>의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제16수>의 ‘오라 말라 흐느뇨’, <제17수>의 ‘어찌 다르리’, ‘아무 덴들 어떠리’ 등에서 ‘~리야’, ‘~뇨’, ‘~리’ 등의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2연의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3연의 ‘손 시리게 떨던가’, 4연의 ‘반짝이던 것인가’에서와 같이 ‘~나 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의 ‘강호(江湖)’는 탈속성이 있는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시적 공간은 탈속성과 관련이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뚜렷한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17.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17수>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은, 은둔함으로써 행하는 도(道)와 세상에 나아감으로써 행하는 도는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8수>의 ‘빈천거(貧賤居)’, <제16수>의 ‘행장유도(行藏有道)’와 연결 지어 보았을 때, 화자는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을 통해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수>의 화자가 고려한 ‘공명’은 <제17수>의 ‘성현이 가신 길’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2수>의 화자가 ‘부급동남(負莚東南)’ 한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 공명함으로써 훌륭한 임금을 섬기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③ <제4수>의 화자는 임금과 즐거움 사이, 공명과 강호 사이, 나아가 <제8수>에서는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제8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명철한 군자라면 기꺼이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하물며 부귀는 위태로울 수 있어 ‘빈천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강호’를 선택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부귀 위기’를 들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제4수>의 ‘기로(岐路)’는 자연을 즐기는 일과 벼슬살이를 하는 일 사이에서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제17수>에서 화자는 강호에 은거하거나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한 가지 도(道)로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기로’가 ‘일도’로 나타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⑤ <제17수>에서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를 통해 강호에 은거하여 가난한 삶을 살아도 성현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보면 (가)의 작가인 권호문은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다. 이를 참고할

때 <제16수>의 종장은 조정에서 화자에게 ‘회보미방(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하다며 벼슬에 나가기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 화자가 거절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이지 화자의 답변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두 번째 문장과 <제1수>의 초장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첫 문장을 통해 조선 시대에 충효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1수>의 ‘십재황황(十載惶惶)’하는 모습은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하니’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도를 행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기>의 유교적 출처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생활을 선택한 화자는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병들고 늙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손 시리게 떨던가’는 오누이가 추운 밤 ‘별 받’ 아래의 ‘골방’ 속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추위에 떠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행복감과 거리가 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바로 앞의 ‘바닷밑이 깔리는’과 연결되어 파장 무렵 바닷가 ‘생어물전’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다 팔지 못한 생선의 ‘빛 발하는 눈깔’은 둥글게 빛나는 유사한 이미지를 지닌 ‘손 안 닿는’ ‘은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한스러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④ 4연의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을 통해 어머니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늘 새벽에 집을 나서 밤에 귀가해 낮의 남강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 받은 옹기’의 표면과 어머니의 눈물을 연결지어, 어머니의 ‘한’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결합, 즉 모음 ‘ㄴ, ㄷ, ㅁ’와 유성 자음 ‘ㄹ, ㅁ’으로 이루어진 시어(‘울’, ‘엄매’)를 반복하여 리듬을 창출하고 어머니의 힘겨운 삶에 대한 화자의 애상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의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를 통해 (가)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를 통해 (가)가 규칙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를 통해 (나)의 ‘오명 가명’이 외적 규율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드러나는 어머니의 삶은 무료함과 거리가 멀다. ⑤ (다)의 ‘현대 시에서는 ~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로 볼 때,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시가의 리듬과는 관련이 없다.

[21~25] 독서

[21~25] 사회, ‘채권과 CDS 프리미엄’

지문해설 : 이 글은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상품인 CDS와 이에 관련된 경제 지표인 CDS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으로 이자와 원금이 투자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신용 위험이라 한다. 채권 투자자들은 CDS 거래를 통해 신용 위험을 보장 매도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신용 위험을 회피하는데, CDS 프리미엄은 이때 보장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험료이다.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나 기초 자산인 채권의 신용 등급 등이 있다.

[주제] 신용 위험을 보장하는 CDS 거래와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신용 위험은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 위험이 커지고,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신용 위험이 작아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질수록 신용 위험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를 통해 신용 평가 제도가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신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신용 등급이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문단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

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통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신용 위험이 커지고, 해당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를 통해 채권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문단의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 채권 투자에는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④ 4문단의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를 통해 ㉠이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CDS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인 ㉡은 ㉢을 대신해 ㉣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부담한 '보장 매도자'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발행하고 ㉢이 매입한 채권은 ㉡과의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매입하여 보유한 채권은 기초 자산이다. ② ㉠이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인 ㉡과 CDS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은 보장 매입자, ㉡은 보장 매도자이다. 기초 자산인 ㉣이 발행한 채권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은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이며, 채권을 매입한 ㉢이 채권 투자자이다. 채권 투자자인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파생 금융 상품인 CDS를 활용한다. ⑤ 5문단의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보장 매도자인 ㉡이 ㉣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를 ㉢에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자산인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은 ㉢이 지불한 보험료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면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난다면 ㉡은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고 보기 어렵다.

2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5문단을 통해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클수록,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커지며,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은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신용 위험이 클수록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는 점, 신용 등급이 AAA, AA, A, BBB, BB의 순으로 낮아진다는 점, '+', '-'를 통해 크고 작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과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을 비교했을 때,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BB+로 다른 거래에 비해 낮으면서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로 가장 높은 ㉠가 CDS 프리미엄이 가장 크다. 또한 ㉡ ~ ㉣ 중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BB+로 다른 거래에 비해 낮으면서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로 ㉡와 ㉢보다 높은 ㉣의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크다. ㉡ ~ ㉢는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은 ㉡, ㉢, ㉣ 순으로 CDS 프리미엄이 크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의 크기는 ㉠ > ㉣ > ㉡ > ㉢ > ㉤ 이다. 정답 ②

24.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X는 채권 발행자, Y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이자 보장 매입자, Z는 보장 매도자이다. Z는 X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위험으로 Y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신용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X의 지급 능력이 개선된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으므로 Y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보상에 주어야 하는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작아지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통해 2011년 1월 1일 X가 채권 Bx를 발행하였으며, Y가 발행 즉시 Bx를 전량 매입하고 Z와 CDS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Z이며, X는 채권의 발행자로 신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보기>를 통해 2011년 9월 17일에는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2011년 11월 Bx의 신용 등급은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인 A-보다 낮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2013년 9월 30일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계약 체결 당시의 AAA에서 AA+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DS 프리미엄은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을 때 커지므로, Z의 신용 등급이 낮아진 시점의 CDS 프리미엄이 100bp라면 신용 등급이 높았을 때에는 100bp보다 컸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였으며, 2011년 9월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2012년 12월 30일에는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고 하였으므로 2012년 12월 30일 이후 시점인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아졌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는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라는 의미이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에서의 ‘떨어졌다’는 이러한 의미로 쓰인 사례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익이 남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③ ‘입맛이 없어지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④ ‘옷이나 신발 따위가 헤어져서 못 쓰게 되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⑤ ‘명령이나 허락 따위가 내려지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26~28] 문학

[26~28]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홍길동전’

지문해설 : <홍길동전>은 영웅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한글 소설이다. 부패한 사회의 문제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이상 세계인 율도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서 차별의 문제와 관리들의 부패상을 함께 그려 냄으로써 모순된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혁명성과 서민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인물, 배경, 소재 등을 중국에서 취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무대로 삼아 현실성을 높였으며, 한글 표기를 통해 독자층을 서민층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진정한 한글 소설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시된 작품은 <홍길동전>의 19세기 이본으로, 당대 독자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변형을 통해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다음 권으로의 독서를 유도하는 상업적 전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 모순된 사회 제도의 개혁과 이상국의 건설

2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흥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따라 길동의 왼쪽 다리에 있는 ‘검은 일곱 점’을 통해 ‘참 길동’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러 길동의 다리를 살펴본 결과 모두 일곱 개의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길동’ 찾기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흥 의정이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느뇨?’라는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활빈당에 천하역사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쏘냐?’라고 길동이 대답한 내용으로 보아,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④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많은 길동이 흥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

리를 걷고 보이니’ 등으로 보아,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㉔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등의 내용으로 보아, 길동은 상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2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활빈당’의 상석에 앉은 인물은 흥길동에게 글을 보여 주며 이 글에 적힌 내용을 행하면 흥길동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장군 자리’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글’에 제시된 세 가지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하게 될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㉑는 길동이 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 주고 있다. 따라서 ㉑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㉒ ㉒에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와 같은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㉓ ㉓는 길동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되었으므로, 이것이 활빈당에서 길동이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㉔는 그 시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㉕는 그 시험을 통해 길동이 얻게 될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㉑와 ㉕가 길동의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㉖ ㉖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㉑가 활빈당에서 길동이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이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㉑을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㉑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고 했으므로, ㉑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㉒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㉑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㉓ 길동이 왕에게 ‘병조판서’의 자리를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윗글의 변형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이 작품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9~32] 독서

[29~32] 기술,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지문해설 : 이 글은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의 특징과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진공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TM은 금속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접촉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 상태를 관찰한다. STM은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하는 기체 분자와 시료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진공을 필요로 한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요구되는 진공도의 정도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 고정된 온도에서의 기체 분자 질량, 기체의 압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초고진공은 스퍼터 이온 펌프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기체 분자로부터 분리된 양이온을 고정시키고,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가 흡착되게 하여 초고진공 상태를 만든다.

[주제]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의 활용에 요구되는 진공 기술

2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고 설명하며 스퍼터 이온 펌프로 초고진공 상태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퍼터 이온 펌프가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진공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이며 진공도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높다. 따라서 진공은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높은 상태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며,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수준 이하의 기체의 압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온도가 일정한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비례한다. ⑤ 3문단에 따르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짧다.

3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질소의 경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760토르 대기압에서는 3×10^{-9} 초이지만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게 되면 약 2,500초로 증가한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STM의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거리가 원자 단위의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특징은 시료 표면의 높낮이 측정을 원자 단위에서 가능케 하므로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1문단에 따르면 STM을 이용해 시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금속 탐침과 시료 표면 간에 전압을 걸어 주어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해 관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이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지도록 진공이 요구된다. ⑤ 1문단에 따르면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접촉 없이도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3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 형성된다. 고전압의 영향으로 ㉠의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이러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양극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의 '음극'이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 따르면 양이온이 ㉠의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따라서 음극이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의 '음극'으로 당겨진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기체 분자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

은 ㉠의 ‘음극’에 박혀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의 ‘음극’이 양이온을 고정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4문단에 따르면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3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라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와 D의 통 내부에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은 같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만 비교 대상이 된다. E의 압력은 D와 같으나 분자의 질량은 D보다 크기 때문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경우이며, 이때 E의 충돌 빈도는 D보다 낮다. **정답 ㉡**

[오답피하기] ㉠ 3문단에서 질소를 예로 들어 온도가 20°C, 압력이 10^{-9} 토르일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대략 2,500초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이 같은 <보기>의 진공 통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다. ㉡ 2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B는 기체 압력이 10^{-9} 토르인 A보다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적으므로 기체 압력이 10^{-9} 토르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2문단에 따르면 진공도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진공도는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C는 B에 비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많으므로 C 내부의 진공도가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3문단에 따르면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클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 D는 A에 비해 분자의 질량이 크므로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 것이다.

[33~38] 독서

[33~38] 복합(인문, 예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과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대립된 주장을 먼저 살펴본 후, 두 입장을 포괄하는 이론적 단초로서 일찍이 영화를 통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설명한 벤야민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생산학파는 근대 도시의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 속에서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보는 반면,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결핍된 욕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벤야민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비 행위가 제공하는 복합적인 체험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에 이러한 복합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의 이론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주제]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대립된 주장을 포괄하는 벤야민의 견해

33.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일찍이 두 학파의 입장을 포괄하는 견해를 제시한 벤야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가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특성이 새로운 예술 형식인 영화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근대 도시의 산물인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②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근대 도시나 영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벤야민의 견해가 지닌 한계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③ 근대 도시의 기원이나 영화의 탄생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는 진술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④ 영화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있지 않으며, 벤야민의 주장에 대한 비판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했다고 본 생산학파와 달리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근대 도시인은 자신들이 가진 욕망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생산학파는 근대 도시에서 근대 도시인은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어떠한 쾌락이나 환상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대 도시가 근대 도시인의 환상에 의해 작동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 체계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은 생산학파가 아니라 소비학파의 주장에 가깝다. ③ 소비학파는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을 뿐,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욕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지는 않았다. ⑤ 집단 규율에 의해 노동자는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이 된다는 생산학파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을 뿐, 소비가 집단 규율을 완화하여 유순한 몸을 만든다는 입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는 영화 제작 과정이나 영화의 형식 원리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고 있으나 영화의 주제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밑줄 친 ㉔의 '정신적 충격'을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벤야민은 영화가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객이 영화를 통해 받는 정신적 충격은 근대 도시의 일상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㉔ 영화는 서로 다른 시 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의 형식 원리를 통해 관객에게 정신적 충격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㉕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체험을 관객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베르토프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영화인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를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㉒ 생산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는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여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 베르토프의 영화 속에서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되므로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훈육된 노동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㉓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했는데, 벤야민의 설명에 따르면 영화의 형식 원리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충격 체험, 즉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한다. ㉔ 베르토프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편집을 적극 활용하여 짧은 이미지들을 빠르게 교차해 제시했다. 이러한 기법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어지는 이미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㉕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데, 이는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7. 글의 주제, 함축된 의미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대 도시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라는 진술은 벤야민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근대 생산 체제에 종속된 노동자인 동시에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② 5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를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으로 본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는 기계화된 노동으로 인해 착취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근대 도시인은 소비 행위의 주체로서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므로 소비 행위는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고 보았다. ⑤ 노동자들이 집단 규율에 따라 기계화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생산학파의 견해인데, 5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이러한 노동자도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로 본다.

3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연상(聯想)하다’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떠올리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봉합(縫合)하다’는 ‘수술을 하려고 절단한 자리나 외상(外傷)으로 갈라진 자리를 꿰매어 붙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우르다’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보증(保證)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가져다주다’는 ‘어떤 상태나 결과를 낳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의지(依支)하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빚대다’는 ‘곧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개편(改編)하다’는 ‘책이나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바로잡다’는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39~41] 문학

[39~41] 시나리오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북측 초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리극 형식의 영화 시나리오이다. 사건에 대한 남과 북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자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서는 한국계 스위스 장교(소피)를 파견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념을 뛰어넘어 교류했던 남북 병사의 우정이 밝혀지면서 분단 현실의 극복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이 제시된다. 공동 경비 구역을 분단에 따른 대치의 공간이 아닌 공존과 화해의 지역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이념적 갈등 상황에 대한 휴머니즘적 극복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주제] 분단에서 비롯된 비극적 현실과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은 남북 병사의 우정

39. 작품의 내용 파악/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윗글 마지막 소피의 대사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에서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S#79.의 밑줄 친 ㉠ 마지막 부분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에서 '소피'의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고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② S#82.의 끝부분에서 '소피'는 '수혁'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S#82.에서 '수혁'의 두 번째 대사 '친근감이 들었습니다.'를 보면 '소피'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그녀를 경계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S#82.에서 '소피'의 여덟 번째 대사 중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부분을 통해 '소피'가 짐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S#82.에서 '소피'의 첫 번째 대사를 보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피'가 '수혁'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실의 대가'를 얻기 위해 '수혁'이 '소피'를 만나러 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S#79.에서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과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는 카메라의 시선이 드러나 있으므로,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와 외부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② S#79.에서 '보타'의 마지막 대사 중 '표 장군으로선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를 통해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S#82.에서 '소피'가

‘진짜 재미난 쇼’라고 말하며 ‘석 장의 이미지’를 ‘수혁’에게 제시하며 말하는 부분을 통해, ㉠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한 단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소피’의 대사에서 ‘수혁’이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어떤 디스켓을 제출할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41.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은 ‘소피’의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으로 초점화 되는 장면이므로,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내는 연출로 사건의 맥락을 관객에게 인지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멍 자국’을 자세히 클로즈업하는 카메라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과 ㉢은 ‘보타의 관측경으로,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의 모습과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을 번갈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대치 국면임을 드러내는 팔각정과 판문각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긴장감 있게 드러낼 수 있다. ㉡ ㉢ 바로 앞부분에서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피’가 결박당한 포로수용소의 포로들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에서 ㉣ ‘동그라미 처진 사람 얼굴로 zoom인’하는 확대 촬영은, 바로 앞부분 ‘보타’의 대사(㉠)와 연결된 맥락으로 ‘소피’의 아버지임을 환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 ㉤ ‘S#81.’은 ‘소피’가 자신의 숙소에서 접어두었던 가족사진을 펴며 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므로, 대사 없이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42~45] 문학

[42~45] 현대 소설 - 최명익, ‘비 오는 길’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독서와 사색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해 있는 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심리주의 소설이다. 주인공 병일은 하숙방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도보로 출근하는 노동자로서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비록 가난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일은 월급을 아껴 니체나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사서 읽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함으로써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일반적인 현실로부터 소외된 병일은 가끔 책상 앞을 떠나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내세우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에 관심과 흥미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병일은 계속해서 괴리됨과 불안함을 느끼고,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다가 사진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다시 독서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다.

[주제] 현실적 삶과 독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모습

4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도시의 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병일의 생각과 공장에서 일하는 병일이 공장의 주인에게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종락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돌아오면서,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면서 병일이 느끼는 바와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세태에 대한 비판보다는 인물의 자의식과 내면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풍자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한 반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자연이 아니라 도시 풍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보다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병일은 사무실에서 하숙방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길에 발을 멈추고 성문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㉔는 그저 지나치다가 생각나서 돌아볼 때 보게 된 성문의 일부일 뿐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누렸던 길이 매연과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검게 달라지고 있는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㉔의 소사는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급사는 급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며, 서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사와 급사와 서사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 ③ ㉔는 피곤한 병일의 일상에 지루함을 더하고 있는 배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⑤ ㉔는 이른 아침 출근하기 위해 자야 할 병일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㉔에서 병일은 사진사와의 대화 도중에 자신의 하숙방에서 자신을 기다릴 듯한 책을 떠올리고 있다. 책이 병일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책을 떠올렸다는 것은 그가 타인의 삶보다는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볼 때, ㉠을 통해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진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신용 보증’이란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2년 동안 병일이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주인은 그런 그를 믿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은 병일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② 주인은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병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하고 감시하면서 병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병일은 자신만의 독서와 사색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랬던 그가 ㉠과 같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병일은 독서와 사색을 즐기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다. 그런 그가 ㉠과 같이 느끼는 것은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5.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하숙방에서는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벼룩이만이 병일을 기다리고 있다. 병일은 그런 하숙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하고 있으므로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병일은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 사진관을 찾아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하숙방으로 돌아온 병일이 ‘이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반성하는 것으로 볼 때, 사진관은 자신의 생활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병일이 ‘니체’에 대해 상상을 하였던 곳은 사무실이었으며,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눌 뿐 그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병일은 하숙방에 유폐되어 있을 뿐 그곳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 한편 병일은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을 마시며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진관은 일시적으로나마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은 사무실이며,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누는 일은 ‘나의 시간’만을 보내던 병일이 평소 하지 않았던 경험이다. ⑤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사무실이며,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누면서 하숙방에 놓고 왔을 책을 떠올리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고 있지는 않다.

01. ①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① 19. ③ 20. ①
 21. ⑤ 22. ① 23. ④ 24. ② 25. ⑤ 26. ⑤ 27. ② 28. ⑤ 29. ④ 30. ⑤
 31. ② 32. ② 33. ① 34. ④ 35. ③ 36. ⑤ 37. ⑤ 38. ④ 39. ① 40. ②
 41. ③ 42. ④ 43. ① 44. ③ 45. ④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방송 진행자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라고 하면서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저도 □□ 님처럼 안타깝네요.’라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연 신청자는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였고, 방송 진행자는 ‘장점 말해 주기’와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사연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그러나 방송 진행자가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방송 진행자가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방송 진행자는 자신을 심리 상담가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방송 진행자가 방송의 시작과 끝에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연에 대해 상담하는 중에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다.

2.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방송 진행자는 사연 속 친구에 대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송 진행자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② 방송 진행자는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 가지 원인에 대해 말하고 이를 사연 속 친구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④ 방송 진행자는 친구의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 주라고 하면서 ‘장점 말해 주기’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방송 진행자는 ‘감정 헤아려 주기’와 관련

하여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말의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친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청취자 3’은 딸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딸아이에게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 줘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적용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청취자 1’은 자존감이 낮다는 자신의 문제 상황 때문에 방송을 들었다며 방송을 들은 목적을 언급하고, 방송에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취자 1’은 방송 내용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② ‘청취자 2’는 자존감을 높여 주려면 자기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방송을 이해한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 안내하지 않은,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그 방법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④ ‘청취자 4’는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연령대가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⑤ ‘청취자 5’는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있다.

[4~7] 화법, 작문

4. 고쳐 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는 (가)의 [본문]에 대해 (나)에서 ‘학생 2’는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학생 3’은 [본문]에 이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에서는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썼다는 내용만 추가하기로 계획하였을 뿐,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다는 내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는 (가)의 [표제]를 중심 소재가 드러나도록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에서 이를 반영하여 중심 소재인 ‘사제동행 마라톤’을 [표제]에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

기로 한 논의를 반영하여 ㉠에서 ‘작은 물방울들 하나 되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하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 (나)에서는 (가)의 [전문]에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공원 일대에서’를 추가하여 고쳐 쓰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 (나)에서는 (가)의 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고, ㉤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선생님은 1만 원씩, 학생은 5천 원씩의 성금’을 냈다고 수정하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 (나)에서는 (가)의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을 삭제하기로 했고, ㉦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과 중복된 내용인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를 삭제하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5.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에서 ‘학생 1’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넣자고 했다. ‘학생 2’는 이와 관련하여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학생 3’은 이를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장소 섭외가 힘들었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다.’라고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 인터뷰를 포함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과 ‘모금된 성금은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과 같이 행사를 주최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 인터뷰를 포함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달린’ 행사였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행사 이후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과 같이 행사를 주최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으나,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과 ‘K 군 가족’이 ‘성금’을 전달받았다는 행사 이후 결과를 포함했으나,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제시하지 않았다. ㉤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과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행사 이후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며 기쁘게 완주했다.’라는 학생회장의 인터뷰에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6. 토의의 내용과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은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발화이다. 이는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표제]를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학생 2’는 이 제안에 대해 ㉠에서 [표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학생 1’에게 요청하고 있다. ② [표제]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에서 ‘학생 1’은 그 제안을 수용할 경우 기사문의 의도와 달리 행사 규모를 강조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며 화합의 모습을 본문에 담고자 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끝부분에 ‘어때?’라는 질문을 던져 자신의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에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라고 질문을 던진다. 뒤이어 ‘학생 3’이 지난 회의에서 본문 내용에 대해 해당 논의를 한 것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한 것을 상대방에게 환기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7. 담화의 유형과 성격 파악

정답해설 : ‘학생 3’은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전문]에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두 번째 발화에서 행사에 대한 중심 소재를 [표제]에 드러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발화에서 [표제]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B]에서 ‘학생 2’는 [본문]에서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뒀’다는 내용이 빠졌음을 지적하고,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생 3’은 [B]의 네 번째 발화에서 이 의견을 수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참가 인원수를 제시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학생 1’은 그러할 경우 기사문의 의도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자는 제안을 한다. 이처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3’은 ‘학생 1’이 제안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수용하였으나, 양쪽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B]에서 ‘학생 2’는 자신이 담고자 의도한 내용이 [본문]에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학생 3’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다른 사실을 빠뜨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발화에서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된다고 하여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학생 1'은 '학생 2'의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고 있으나,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학생 1'은 [B]에서 실제 사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그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A]에서 '학생 1'은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기사문의 의도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⑤ [A]에서 '학생 2'는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자고 제시한 '학생 1'의 의견을 점검하여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학생 2'가 제시한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 1'이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학생 1'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학생 2'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할 수 없다.

[8~10] 작문

8.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1문단에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의 글'에서 로봇세 도입의 목적을 로봇 사용으로 인한 편안한 삶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1문단에 로봇세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로봇세의 개념에는 로봇세의 납부 주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1문단에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에서 로봇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글'의 3문단에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와 함께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어 있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4문단에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도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증가해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제기된 로봇세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으로,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에 해당한다.

9.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의 글’의 2문단에 ㉞의 사례로서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가 언급되어 있다.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㉞의 사례로 제시된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는 과세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만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㉞를 통해 사람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글’의 4문단에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어 있다. 로봇 기술의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는 ㉞의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④ ㉞와 관련하여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 뒤처짐으로써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국가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㉞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 가운데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로봇 수요 감소, 그에 따른 기술 개발 의지 약화 등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A]는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도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했으므로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기>는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로봇 사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와 <보기>는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를 근거로 [A]에 대해 반박한다면,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A]의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보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면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A]의 예측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로봇 기술을 발달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A]는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므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A]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③ <보기>는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했지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A]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④ <보기>에 따르면 로봇

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로봇세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A]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⑤ <보기>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산업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A]와 같은 입장에 해당한다.

[11~15] 문법

11.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쉬리-소리’, ‘마루-머루’, ‘구실-구슬’은 각각 최소 대립쌍이다. 이를 통해 음운 ‘ㄱ, ㄴ’, ‘ㅏ, ㅑ’, ‘ㅣ, ㅡ’를 추출할 수 있다. [B]의 단모음 체계에 따르면 ‘ㄱ’은 고모음, 전설 모음, 원순 모음이고, ‘ㄴ’은 중모음,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이다. 또한, ‘ㅏ’는 저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ㅑ’는 중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끝으로, ‘ㅣ’는 고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ㅡ’는 고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따라서 추출된 6개의 모음을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3개의 고모음, 2개의 중모음, 1개의 저모음’을, 혀의 앞뒤에 따라 분류하면 ‘2개의 전설 모음, 4개의 후설 모음’을,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4개의 평순 모음, 2개의 원순 모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추출한 음운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입술 모양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ㄱ	✓			✓			✓
ㄴ		✓			✓		✓
ㅏ			✓		✓	✓	
ㅑ		✓			✓	✓	
ㅣ	✓			✓		✓	
ㅡ	✓				✓	✓	
계	3개	2개	1개	2개	4개	4개	2개

[12~13] 국어사적 사실을 통한 현대 국어의 현상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국어사적 사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전제로, 국어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현대 국어에서 ‘ㄹ’ 받침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할 때의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합성어 형성 시 ‘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대해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로 쓰이던 ‘스’이 현대 국어에서 그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합성어 형성 시 ‘ㄹ’이 탈락하는 경우는 중

세 국어에서 합성어 형성 시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적용된 경우임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합성어 형성 시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는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중세 국어, 근대 국어에서의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주제] 현대 국어의 일부 합성어들에 대한 국어사적 사실을 통한 설명

12.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ㄹ’ 받침의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할 때, ㉠은 ‘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은 ‘ㄹ’이 탈락하는 경우, ㉢은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사례는 ‘쌀가루(쌀+가루)’, ‘술방울(술+방울)’이고, ㉡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술(물+술)’, ‘푸나무(풀+나무)’이며, ㉢에 해당하는 사례는 ‘설탕(설탕+달)’이다. ‘نال(날+알)’은 ‘ㄹ’ 받침의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다. **정답 ㉡**

13. 국어의 변화 과정 이해

정답해설 : 근대 국어로 오면서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는 제시문의 설명을 통해 볼 때, ‘숲 → 슷’, ‘뭇 → 뭇’의 과정에서 ‘ㅅ’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이 제시문에서는 ‘뭇’을 ‘뭇’으로 적는 것처럼 ‘숲’도 ‘숲’이 아니라 ‘스’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중세 국어에서 ‘술’, ‘저’, ‘이틀’은 모두 자립 명사이다. [자료]의 ‘중세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와 제시문의 ‘이틀’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현대 국어의 ‘술’은 ‘밥 따위의 음식물을 손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의 뜻을 지니는 의존 명사이다. [자료]의 ‘현대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에서 ‘술’이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음을, 세 번째 예에서 ‘술’이 의존 명사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중세 국어의 예’의 두 번째 예 중 하나인 ‘수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중세 국어의 예’의 두 번째 예 중에서 ‘숲 근’, ‘젓 가락 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세 국어의 ‘이틀 날’ 혹은 ‘이틀 날’이 근대 국어의 ‘이튿날’을 거쳐 현대 국어의 ‘이튿날’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 국어 ‘스가락’이 현대 국어 ‘손가락’으로 적히는 데에도 적용된다.

14.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의 안은문장은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이고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별을’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며,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아니다.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의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위기를’과 부사어 ‘좋은 기회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③ ④의 안긴문장은 ‘바다가 파랗다.’이고, 안긴문장은 ‘눈이 부시다.’이다. 따라서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파랗다’와 ‘부시다’의 주어이다. ⑤ ⑥의 안긴문장은 ‘기회가 좋다.’이고, ⑦의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좋은’과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⑧ ⑨의 ‘눈이 부시게’는 부사절이고, ⑩의 ‘반짝이는’은 관형사절이다. 둘 다 수식의 기능을 한다.

15. 품사의 개념 파악,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의 ‘밭게’는 형용사 ‘밭다’의 활용형이며, ㉢, ㉣의 ‘바투’는 부사이다. 따라서 ㉤의 표제어는 부사 ‘바투’이다. ‘바투㉠’의 뜻풀이를 고려해 볼 때 예문으로는 공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이 적절하다. ㉣은 ‘바투㉡’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밭다㉠’의 뜻풀이를 고려할 때 예문으로는 ㉠과 ㉡이 모두 적절하다. 정답 ㉤

[16~20] 사회

[16~20] 사회,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지문해설 : 이 글은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자신의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럴 경우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그림 A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갑이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 상황에서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다고 하면 을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이럴 경우 을은 이행 불능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면 이전의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므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주었던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주제]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6문단에서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법률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언급하였으며, 4문단에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4문단에서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갑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1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물건의 소유권 이전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문단에 따르면 그림 A의 소실로 ㉠은 이행 불능이 되었고, 6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7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따라서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인인 갑은 매도인인 을에게 그림 A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이행 의무를 갖는다. 또한 매도인인 을은 매수인인 갑에게 그림 A를 인도받을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행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은 매수인인 갑의 청

구와 매도인인 을의 이행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6, 7문단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이때 ㉠을 성립시키는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는 을의 승낙 없이 갑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며 이로써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5, 7문단에서, ㉡은 그림 A의 소실로 이행 불능이 되고, 그 결과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면서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이행되지 못한 결과로 ㉠이 발생한 것이다.

④ 2문단에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하고 있는데, 5문단에 따르면 그림 A의 소실로 ㉡은 이행 불능이 되었고, 그 결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이처럼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므로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는 을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6문단에 따르면 이처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 해제권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한 ①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소실되어 ㉣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이 된 동산인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③ 7문단에 따르면 원상회복 청구권은 계약으로 인해 이미 이행된 것이 있을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소실되어 ㉣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뿐이지 갑은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의 상황은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의 상황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의 상황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이며,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할 수 없지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1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며,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므로 변제의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매매는 매도인의 ‘팔겠다’는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매수인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법률 행위이다. <보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2문단에 따르면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고 하였는데, <보기>의 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 역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증여와 유언은 모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매매를 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는 반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문맥적 의미는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이다.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의 ‘나왔다’이

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문장에서 ‘나오니’의 의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겉으로 드러내다.’이다.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라는 문장에서 ‘나오는’의 의미는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다.’이다.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라는 문장에서 ‘나오는’의 의미는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이다.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문장에서 ‘나왔다’의 의미는 ‘상품이나 인물 따위가 산출되다.’이다.

[21~26] 문학

[21-26] 현대 소설 - (가) 박태원, ‘천변풍경’ / 시나리오 - (나)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가) 지문해설 : (가)는 1930년대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50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한 세태 소설이다. 여인들의 집합소인 빨래터와 남성들의 사교장인 이발소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70명의 평범한 인물들을 모자이크식으로 제시하여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서민층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서사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특정 인물을 확대해 보여주는 클로즈업 기법과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듯한 카메라아이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요 사건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1930년대 청계천 주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나) 지문해설 : (나)는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 6·25 전후의 비참하고 혼란한 사회상을 그린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성실하지만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철호, 가난으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린 철호의 아내, 돈을 위해서라면 윤리 의식마저 버릴 수 있다는 영호,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반복하는 어머니, 양공주가 되어 버린 명숙의 삶은 전쟁으로 고통 받던 당대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전쟁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 6·25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다 패배하는 인간의 비극

2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도회에서의 패잔자’들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이들이 낙향하는 모습을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큰길로 나가 사라지는’ 행위로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69에서는 철호가 아내를 보며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70에서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행위에는 아내가 가난으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음이 담겨 있다. #74에서 철호의 말에 반발하며 넥타이를 방구석에 집어던지는 영호의 행위에서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인물 간 대결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나)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철호와 영호 간 대결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나)에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해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희화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가)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회상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70에서 철호가 과거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지만, 이를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서글픈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나)에는 철호와 영호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22.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이발소 소년’은 천계천 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꾸준히 관찰하던 인물로, 그는 신전 집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처럼 ‘이발소 소년’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포착하는 인물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발소 소년’은 특정 가족이 몰락하여 집을 떠나는 사실을 포착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특정 가족이 몰락한 이유를 분석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이발소 소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을 포착하기는 했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그 사건의 진위에 대해 논평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진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뿐,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⑤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소식을 살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천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하지 못했던 원인을 독자가 그 정보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는 “독자는 ~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이미 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기하게 한 것이다. ② 신전 집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점룡이 어머니’였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③ 서술자는 ‘독자’가 이미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직접 작품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서술자는 신전 집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강원도 춘천’이 아니라 ‘경기 강화’임을 밝히고 있다.

24.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에서는 철호와 영호 간의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나,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 자체만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서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쁜이 어머니’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족 간의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에게 ‘골목’이 짧게 느껴진 것은 딸과의 이별이 아쉽기 때문이다. (나)에서 택시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해방촌의 ‘골목길’은 영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에는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나)에서 철호는 ‘어금니’가 푹푹 쑤시고 아프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어금니를 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금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아픔마저 견뎌내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 있다. ④ (가)에서 신전 집 사람들은 이십 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주인 영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전 집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72에서 철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누더기를 꿰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호네 가족이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신전 집 사람들로,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치열한 도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영호는 적은 월급을 받기 위해 취직하기보다는 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70에서 철호가 침묵하는 것은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이다. #71에서 택시 운전수와 대화를 하는 영호는 행동과 말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두 장면에서 나타나는 침묵과 대화는 상호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장면을 통해 영호가 소심하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68에는 철호만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69는 갑자기 철호의 아내가 등장한다. #69에 ‘철호㉔’를 삽입한 것은 철호의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에 대해 회상하는 이가 철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② #69에 나오는 ‘철호㉔’ 뒤에는 철호의 아내가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의 장면이 제시된다. 따라서 ‘철호㉔’에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아내에 대한 철호의 연민이 드러난다. ③ #69는 ‘O.L.’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는데, 시간은 바뀌었지만 ‘노래’를 활용하여 아내의 행복한 상태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④ #70에서 철호가 황홀한 도회지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때 도회지의 분위기는 그의 비참한 처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그의 침묵은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㉔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여 신전이라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75에는 변화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에는 자동차에 몸을 싣는 ‘이쁜이’와 이를 바라보는 ‘이쁜이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을 보여 주고 있다. #71의 자동차에서 내린 영호가 #72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 영호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㉔에는 같은 날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신전 집 사람들의 낙향 사건과 ‘이쁜이’가 집을 떠나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73과 #74는 공간은 다르지만 철호와 영호의 대화가 이어지는 설정을 통해 두 공간을 결합하고 있다. ③ ㉔에서는 서울 살림을 거두고 시골로 떠나는 집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73~#75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매개로 다른 공간이 연결되는데, #73에 등장하는 민호와 #75에 등장하는 명숙이 철호와 영호간의 대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④ ㉔과 ㉔은 같은 날 개천 사이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고 #74와 #75도 같은 날 방의 안과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㉔과 ㉔은 서술자의 설명에 의해 두 사건이 연결되지만 #74와 #75은 철호와 영호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이 연결된다.

[27~32] 독서

[27~32] 융합(인문, 과학),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우주론의 발전 과정을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의 이행으로 설명한 후,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우주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는데, 이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형이상학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내세운 태양 중심설은 케플러의 연구에 의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17세기 후반 뉴턴이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여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중국은 16세기 말부터 유입된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서양 과학과 중국의 지적 유산을 결합하여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중국의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서양 과학의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이 19세기까지 주를 이루었다.

[주제] 서양 우주론의 발전과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우주론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하였고,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는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광학 이론을 창안하였으며,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본문의 내용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양 우주론의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개념이 2~4문단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를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답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으로 17세기의 옹명우와 방이지, 17세기 후반의 왕석천과 매문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케플러가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하였으므로 서양에서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도 왕석천과 매문정이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양에서는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왕석천과 매문정은 옹명우 등이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하여 잘못된 우주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므로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이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양 천문학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하였으므로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중국에서는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입장이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다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9.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우주론을 주장한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했다. 따라서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충족시킨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설명했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는 형이상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케플러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응명우와 방이지는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응명우와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하였으므로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왕석천과 매문정 역시 중국 고전의 우주론을 서양 이론과 연결하였으므로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입장이 『사고전서』에 반영되었으므로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광학 이론을 창안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이지가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매문정은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으므로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고대 문헌에 언급된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였으므로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껍질들의 합계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지구 중심의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껍질들의 합계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태양 중심의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지구 껍질들의 질량 합계는 태양 껍질들의 질량 합계보다 작고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질점이 m 으로 같다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다르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라면 반지름이 큰 구 껍질일수록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질량도 크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므로,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만유인력은 커진다. ③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은 지구의 각 부피 요소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지구의 한 부피 요소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한 부피 요소와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이 그 중심(달의 중심과 동일)에서 지구의 한 부피 요소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나아가 이러한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의 중심과 질량이 M 인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은, 마찬가지로 ‘지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이 그 중심에서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 사이의 만유인력은, 그 거리가 동일할 때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작용한다.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지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해서 구할 수 있다. ⑤ ③과 같이,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이때 지구의 중심과 구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R+h$ 로 계산된다. 따라서 ‘지구의 질량(M)과 동일한 질점’과 ‘구슬의 질량(m)과 동일한 질점’ 사이의 거리가 $R+h$ 라면, 두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와 구슬 사이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와 같다.

3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고안(考案)하다’는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뜻이므로 ‘고안했다’는 ‘~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의 ‘만들었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작(振作)하다’는 ‘떨쳐 일어나다. 또는 떨쳐 일으키다.’라는 뜻이다. ②의 ‘일으킬’과 바꿔 쓰기에는 ‘발생시킬’ 또는 ‘야기할’ 등의 말이 적절하다. ③ ‘소지(所持)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다. ④의 ‘지닌’은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의 의미로 쓰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설정(設定)하다’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두다.’라는 뜻이다. ⑤의 ‘여겼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했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간주했다’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시사(示唆)되다’는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라는 뜻을 지닌 ‘시사하다’의 피동 표현이다. ‘갓추어지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는 뜻을 지닌 ‘갓추다’의 피동 표현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33~35] 문학

[33-35] 현대시 - (가) 유치환, '출생기' / (나)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가) 지문해설 : (가)는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의 암울함을 화자의 출생 내력과 연관 지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융희 2년(1908년)은 실제 시인이 태어난 해이자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된 1910년을 2년 앞둔 해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런 시대적 암울함을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부엉이'의 괴괴한 울음, '희미한 등잔불', '신월'과 같은 어둡고 음산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암울함은 지붕 위에서 남풍에 자라고 있는 '박년출', 푸른 하늘에 피 뻗은 듯 피어 있는 '석류꽃'과 같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와 대비됨으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고 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적 암담함을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출생의 내력과 일제 강점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암울함

(나) 지문해설 : (나)는 시인이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으로 유명한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보고 영감을 얻어 창작한 작품으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다양한 사물의 이미지를 병치시킴으로써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떠는 이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하늘에서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 '눈'의 이미지와 아궁이에 지퍼지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삼월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그리고 겨우내 말라 쥐똥만 해졌던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

3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융희(隆熙) 2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일제의 강점을 앞둔 1908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는 '삼월'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 넘치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지니셨고', '읽으셨다', '지었다오' 등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해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온다’, ‘판다’, ‘덮는다’, ‘지핀다’와 같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삼월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상서롭지 못한’, ‘욕된’, ‘신월같이 슬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는 삼월에 눈이 오는 사갈의 마을의 풍경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봄을 바라고 썼는’,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등의 표현을 보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어둔 바람’, ‘욕된 후에’, ‘곡성’과 같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지만,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 ‘올리브빛’, ‘제일 아름다운 불’과 같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특별히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34.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는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D]와 이어지는 행에서 화자를 ‘욕된 후에’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D]의 서술이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며, 이는 암울하고 음산한 정서를 불러 일으켜 화자가 출생하던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1연에 제시된 시대 상황은 암울하고 음산한 것인데 반해, [B]는 남풍에 자라는 박년출, 피 뺀 듯한 석류꽃 등은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③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읽으셨다’에서 대구 형식이 활용되어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의 울음소리에 출생을 연상하게 하는 ‘고고’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성’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돌메’라는 화자의 이름이 명이 길었으면 하는 할머니의 바람을 담은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3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하얀 ‘눈’ 내리는 ‘하늘’과, ‘눈’ 덮인 ‘지붕’, ‘굴뚝’은 흰색 혹은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했다는 ③의 진술

은 옳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나 '당나귀'와 같은 이질적 이미지의 병치가 (나) 시에 서는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되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그림 속 '올리브빛'의 이미지는 사나이의 얼굴에 나타난 것인데, 시인은 '올리브빛'을 봄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겨울 열매들'이 그렇게 물든다고 하여 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아낙', '아궁이'는 샤갈의 그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적 이미지로, 시인은 이를 통해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고 있다.

[36~38] 문학

[36~38]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 장군의 영웅적인 일생과 비극적 죽음을 그려 낸 역사 군담 소설이다.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친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병자호란의 역사적 치욕을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당대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영웅적 승리로 귀결되는 대부분의 군담소설과는 달리 임경업 장군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 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 임경업 장군의 충의 정신과 비극적 죽음

36.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경업은 거짓 조서를 꾸민 자점의 흉계로 인해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경업은 전옥(典獄) 관원을 통해 자점의 흉계를 알고 옥문(獄門)을 깨치는데 여기에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해 옥문을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는 초월적 능력을 일부 드러내나, 적대자인 자점과 지략 대결을 벌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경업은 자점의 흉계로 인해 다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경업은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죽게 된다. 이 장면에는 경업의 지략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며 경업의 초월적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점의 역심을 밝혀 자점을 물리치려는 경업과 경업을 해치려고 흉계

를 부리는 자점의 대립을 통해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② 이 작품은 주인공인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말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 ③ 경업이 옥문을 나와 상을 뵙고는,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일이며, 명과 함께 호왕을 베고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려고 했던 일, 그 와중에서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 갔다가 살아 돌아와 의주에서 잡혀 있던 일 등을 상에게 아뢰는 데서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경업을 죽인 악인인 자점이 상에게 역심을 품은 일을 자복하여 그 삼족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3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경업은 상의 꿈에 나타나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다고 아뢴다. 이에 상은 놀라 자점을 국문하고 자복을 받은 뒤, 경업의 자식을 불러 ‘너희 아버가 자결한 줄’ 알았더니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고 말하며 원수를 갚으라고 하교한다. 이를 볼 때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말을 듣고 자점을 다시 국문하여 자복을 받아내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밝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업은 자점이 꾸며낸 거짓 조서로 인해 옥에 갇히는데 강직한 전옥(典獄) 관원이 경업을 불쌍히 여겨 이 사실을 경업에게 말한다. 이를 통해 경업이 자점의 흥계를 알게 되므로 옥에 갇히기 전부터 경업이 자점이 거짓 조서를 꾸민 흥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옥졸은 옥에 갇힌 경업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데도 자점의 부탁으로 물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옥졸이 자점의 부탁으로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군은 경업이 궐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자(侍者)에게 경업의 거처를 묻는다. 이에 시자가 모른다고 하자 의심하여 바빠 입궐을 하게 된다. 대군이 자점의 흥계를 의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업의 거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경업을 만나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우의정 이시백은 절도(絶島)에 안치된 자점이 반심을 품는 등 불측지심이 나타나자 이를 상에게 아뢴다. 우의정 이시백이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8.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A]는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잡혀가는 내용이다. ⊕은 자점의 흥계로 경업이 박살나서 죽음을 당한 일에

대한 평민층의 안타까움을 나타낸 필사기라고 할 수 있다. [A]를 읽은 평민층은 ㉔을 통해 경업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자점의 행동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점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A]와 ㉔을 고려할 때, 평민층이 연민을 드러내는 대상은 자점의 행위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럽다’는 ㉑에서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A]는 경업이 자점의 흥제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잡혀가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다는 ㉒에서 경업의 시련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임 장군’이 ‘남의 손에 죽’는 것이 ‘천운’이라며 숙명론적 반응을 보이는 ㉓에서 자점의 손에 죽은 일에 대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경업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동국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㉔에서 경업과 같은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9~42] 독서

[39~42] 인문,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지문해설 : 이 글은 일상 언어의 진술을 분석하고 철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가능세계는 일상 언어의 진술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능세계 중 현실세계와의 유사성 정도와 관련하여 일상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가능세계는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은 물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널리 응용되고 있다.

[주제]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3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제시된 가능세계의 성질 중 완결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그러므

로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문단에 따르면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나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 모두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한 명제인데, 전자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는 데 비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에서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A의 거짓임이 “만약 A이면 B이다.”를 참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도 “만약 Q이면 Q이다.” 형식의 필연적인 명제이므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란 모든 가능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2문단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은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이므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과 ㉡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즉,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참인 경우에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도 반드시 참이 된다. 그러므로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와 ㉡이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⑤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명제가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문단의 정의에 따르면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모두 참일 수 있다.

41.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 중에는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여전히 지각을 하는 세계와,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지각을 하지 않는 세계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세계 중 후자가 전자보다 더 유사성이 높다고 했으므로 ③의 진술이 ④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3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④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하여야 한다. ④ 3문단은 현실세계와 가능세계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를 비교해서 ④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아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런데 내가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하지 않는 가능세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④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 수 없다. ⑤ ④에 대한 답변은 가능세계의 개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④와 같은 질문을 왜 하는지 이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④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답이 아니다.

42.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명제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반대관계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명제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이 가능하다. 즉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어느 하나만 참인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문단의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이므로 배중률을 이야기할 수 없고, 따라서 완결성도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완결성은 어느 가능세계에서나 P이거나 ~P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P인 가능세계가 있거나 ~P인 가능세계가 있다는 원리가 아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가능세계의 포괄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③ 배중률이 성립하려면 두 명제가 P와 ~P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두 명제는 둘 다 참일 수 있기 때문에 모순 관계, 즉 P와 ~P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완결성을 논할 수 없다. ⑤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포괄성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일관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므로, 달리 말하면,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43~45] 문학

[43~45] 고전 시가 - 김인겸, ‘일동장유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일본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올 때까지의 약 11개월에 걸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장편 기행 가사이다. 조선을 출발하면서부터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일본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보고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기행 가사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 조선 후기 기행 가사의 모범으로 일컬어진다. 제시된 부분 역시 일본으로 가는 배 안의 상황과 일본 선비와의 필담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행 가사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일본 방문의 여정과 견문

4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화자는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라는 표현을 통해 파도가 요동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물의 역동성을 이용하여 풍랑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라는 표현은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물결이

태산처럼 높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에서는 화자가 타고 있는 배를 나뭇잎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풍량을 만난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배가 물결에 따라 높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는 긴장된 상황을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⑤ ‘필담으로 써서 뵈되’, ‘승산이 다시 하되’를 통해 ‘전승산’의 행동을, ‘내 웃고 써서 뵈되’,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를 통해 화자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두 사람이 필담을 나누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풍량이 끝난 후에 배 방에서 밖으로 나온 화자가 눈앞에 펼쳐진 해돋이 풍광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즉 ‘이런 구경’에는 해돋이 장관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은 일본인 문인인 ‘전승산’이 ‘나’의 글 짓는 재주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나’가 글 짓는 것을 보게 된 상황을 ‘장한 구경’이라는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나’의 글솜씨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은 해돋이 풍광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역시 ‘나’의 글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을 담고 있으므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은 해돋이를 구경하게 된 화자가 해돋이에 대해 표현한 것이고, ㉡은 ‘나’가 글 짓는 것을 보게 된 ‘전승산’이 감탄하며 한 말이므로, 둘 다 대상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은 화자가 자신이 직접 본 풍경에 대한 표현이므로 여기에 타인의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에는 ‘나’의 글 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평가가 담겨 있다. ㉤ ㉠은 해돋이 풍광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담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 역시 ‘나’의 글 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퇴석’은 이 작품을 지은 김인겸의 호이다. 제시문에서는 ‘전승산’이 화자의 글 솜씨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듣기만 하던 ‘퇴석 선생’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화자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즉 ‘귀한 별호 퇴석’과 ‘소국의 천한 선비’는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승산’을 각각 지칭하는 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전승산'이 '나'가 글을 쓰는 것을 바라보게 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를 알아본 '전승산'은 나에게 필담을 써서 보여주게 된다. 즉 [A]는 두 사람의 필담이 시작된 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② [B]에서 '전승산'은 '나'의 글 솜씨에 대해 '빠른 재주'라고 표현하며 높게 평가하고 있고, [C]에서 '나'는 자신의 글을 '늡고 병든 둔한 글'이라며 겸손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는 '전승산'의 행위이고,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는 '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처럼 '나'와 '전승산'은 필담을 통해 서로 묻고 대답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④ [D]에서 '전승산'은 '나'의 뛰어난 글 솜씨를 접하게 된 것을 '장한 구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편 [E]에서 '나'는 '전승산'이 글 값으로 가져온 것들을 의(義)에 어긋난다며 거절하고 있다.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④ 07. ② 08. ③ 09. ⑤ 10. ③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③ 19. ② 20. ④
 21. ⑤ 22. ⑤ 23. ③ 24. ⑤ 25. ① 26. ② 27. ④ 28. ③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④ 34. ⑤ 35. ④ 36. ③ 37. ③ 38. ④ 39. ⑤ 40. ②
 41. ① 42. ④ 43. ⑤ 44. ① 45. ④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학생의 발표에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장면은 여러 곳에 나타난다. 가령 2문단의 첫 문장은 청중에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청중의 반응이 없자)'를 통해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청중의 반응이 없자 발표자는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입부에 해당하는 1문단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발표자는 자신의 수업 시간의 경험, 즉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운 경험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험은 발표 주제 선정 이후 발표를 준비하던 중에 생긴 것이다. ③ 발표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마무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단에서 청중에게 매체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다음 탐구 주제와 연관 짓고 있으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2. 매체 활용 계획

정답해설 : 2문단의 양반탈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문단의 관우 탈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문단의 카메룬의 탈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인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A에는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가 적절하다. 한편 5문단에서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B에는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양반탈은 ‘화려한 색채가 없이 표현한 것’이고, 카메룬의 탈의 색채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③ 발표자는 청중에게 각각의 탈이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④ 발표자는 각각의 탈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⑤ 탈들을 소개하며 ‘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는 청중이 발표를 들으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정한 후, 발표 내용에 대한 예측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을 발표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라는 반응은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라는 반응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화법, 작문

4.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메모에 따르면 <지역 연구소 자료 수집>의 하위 항목으로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가)의 4 문단은 관광객 수가 관광 수용력을 초과함에 따라 각종 문제에 봉착하게 된 ○○ 마을의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 <지역 연구소 자료 수집>에 근거하여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시청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부분은 2문단의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청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청 측의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은 2문단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둘레 길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솔빛 마을 주민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및 우려 사항'을 제시하는 부분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역 연구소 자료 수집>을 통해 '○○ 마을 한옥 관광지 사업 관련 통계'를 제시하는 부분은 4문단 '○○ 마을의 마을 소득과 관광객 수는 각각 연평균 약 5%, 7%씩 증가', '○○ 마을의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와 달리 ㉠은 '관광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과 같이 수정한 이유는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와 ㉠ 모두 인과 관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한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보기>의 내용 중 주제와 관련이 없어 삭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보기>에 등장한 '그러나', '이로 인해', '그에 따라'와 같은 담화 표지 중 글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된 것은 찾을 수 없다. ⑤ 수정 전후를 비교할 때 긴 문장을 둘로 나눈 부분은 찾을 수 없다.

6. 협상의 내용과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민 측의 입장을 [D]에서 찾기 어렵다. [D]에서 주민 측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개방 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주민 측은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 상황,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지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한옥 내부를 관광객에게 개방해 달라는 상대측 요구에 대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 주민 측은 '많은 관광객이 한곳에 몰리면'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악화'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③ [C]에서 주민 측은 ㉡와 관련된 상대측 계획인 '관람 인원은 매일 일정 수 이하로 제한', '단체 관광은 마을 관광 에티켓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시',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설치'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임을 인정하면서 '개방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할 것과 '한옥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⑤ [E]에서 주민 측

은 ‘노인 회관 시설 개·보수와 주민 문화 시설 마련’에 세수를 사용한다면 ‘개방 시간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7. 말하기 전략 추론

정답해설 : ㉔는 한옥 내부를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 ㉕는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면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 ㉖는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민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㉔~㉖ 모두 특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㉔~㉖ 모두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발화로 보기 어렵다. ② ㉔~㉖ 모두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③ ㉔~㉖ 모두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로 보기 어렵다. ④ ㉔~㉖ 모두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화로 보기 어렵다.

[8~10] 작문

8. 작문의 성격과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학생의 일기이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일종의 건의문이다. (가)는 일기이므로 자기 성찰적 성격이 분명한 글에 해당하며, 대개의 경우 자기 성찰적인 글의 예상 독자는 글쓴이 자기 자신이다. 한편 (나)는 건의문에 해당하므로 글의 목적상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가) 보다는 (나)에서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글쓴이는 (가)의 글쓴이를 포함한 □□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글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를 통해 PVC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이 (나)와 같은 건의문을 쓰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의문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이다. ③ 일기인 (가)에서는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를 분명하게 찾기 어렵다. 그러나 건의문인 (나)에서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과 ‘PVC 재질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④ 일기인 (가)는 건의문인 (나)에 비해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성찰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수정 의견의 핵심은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귀사 제품을 구매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귀사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주게 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은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필통의 재질을 PVC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라는 건의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이다. ②, ③, ④ 기업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10.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③ ㉔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㉔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체코가 가장 높았으므로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수정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㉑에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㉒를 통해 PVC는 재활용이 어렵고, 철은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㉒를 참고하여 ㉑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② ㉑에는 PVC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며, 질기고 깨지지 않아 필통 등에 쓰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㉒를 활용하여 PVC로 학용품을 생산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낼 수 있다. ④ ㉑에는 프탈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㉒에는 PVC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㉑와 ㉒를 참고하여 ㉔에 제시된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⑤ ㉔은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PVC를 대체할 다른 재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㉑와 ㉒를 참고하여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할 수 있다.

[11~15] 문법

[11~12] 어휘적 빈자리의 개념과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말-망아지’, ‘소-송아지’, ‘돼지-?’의 사례를 통해 어휘적 빈자리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어휘적 빈자리는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만 존재할 뿐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은 셋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외삼촌의 자식, 아기 돼지, 새끼 돼지’처럼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 둘째로 ‘주황(朱黃), 초록(草綠)’의 경우처럼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 마지막으로 ‘누이 : 누이동생’의 사례와 같이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있다.

[주제]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세 가지 방식

11. 어휘의 변화 유형 파악

정답해설 : ‘예전’의 ‘도야지’는 돼지의 새끼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지금의 ‘돼지’는 돼지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은 ‘돌(돼지)의 새끼’인데, 이 개념은 지금도 존재한다. ② ‘예전’의 ‘돌’은 돼지이고, ‘도야지’는 돼지의 새끼이기 때문에 ‘돌’이 ‘도야지’의 하의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예전’에는 ‘돌’, ‘도야지’가 모두 쓰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가 없었다. ⑤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은 돼지의 새끼인데, 지금은 이를 나타내기 위해 ‘아기 돼지, 새끼 돼지’처럼 단어가 아닌 구를 사용한다.

12. 어휘의 변화 유형 파악

정답해설 : ㄱ에서 학생 1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위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 이들을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고 입력하는 것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첫 번째 방식의 사례로 적절하다. ㄴ에는 ‘뽕’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로 ‘꺼병이’가 존재하므로 이는 어휘적 빈자리가 존재하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다. 한편 ㄷ은 ‘금성’의 고유어인 ‘개밥바라기’와 ‘샛별’ 중 ‘샛별’을 택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어휘적 빈자리를 보여주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13.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을 포함한 문장은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보조사 ‘고’가 결합한 형태인 ‘므스고’가 ㉠에 들어가야 한다. ㉡과 ㉢을 포함한 문장은 둘 다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종결 어미 ‘-니다’가 결합한 형태인 ‘가는다’, ‘아니하는다’가 각각 ㉡과 ㉢에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②**

14.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의 ‘풀잎[풀립]’에서는 ㄴ 첨가, 유음화, 평파열음화가 일어난다. ㉡의 ‘옴네[음네]’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평파열음화, 비음화가 일어난다. ㉢의 ‘벼훅이[벼훅치]’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는 음운 개수가 늘어나는 음운 변동이지만, ㉢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는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는 음운 변동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ㄴ 첨가, 유음화, 평파열음화가,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평파열음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에서 일어난 유음화와 ㉡에서 일어난 비음화는 둘 다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다. ③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고, ㉡에서 탈락된 음운은 ‘ㄹ’이다. ⑤ ㉠에서 일어난 유음화는 ‘ㄹ’로 인해 ‘ㄴ’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고, ㉢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인해 구개음이 아닌 음(ㄷ, ㅌ)이 특정 환경에서 경구개음(ㅈ, ㅊ)으로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15.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의 ‘쓸리다’는 ‘쓸다²①’의 피동사이고, ㉧의 ‘쓸리다’는 ‘쓸다²①’의 사동사이다. ㉨의 ‘쓸리다’는 ‘쓸게 하다’와 의미가 상통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갈리다’는 피동사이고, ㉧의 ‘갈리다’는 사동사이다. 그런데 ㉨의 ‘갈리다’는 ‘갈다¹②’에 대응함에 비해 ㉧의 ‘갈리다’는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뜻을 지니는 ‘갈다’에 대응한다. ② ㉦과 ㉧의 ‘깎이다’는 둘 다 ‘깎다¹③’에 대응하는 피동사이다. ③ ㉦과 ㉧의 ‘물리다’는 둘 다 ‘물다¹①’에 대응하는 사동사이다. ④ ㉧의 ‘물리다’는 ‘물다²④②’에 대응하는 피동사이고, ㉦의 ‘물리다’는 ‘입 속에 넣어 두다’의 뜻을 지니는 ‘물다’에 대응하는 사동사이다.

[16~18] 문학

[16~18] 현대 소설 - 박경리, ‘토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69년에 제1부를 시작하여 1994년에 총 5부의 완결판까지 모두 16권으로 완간한 대하소설이다.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아

경남 하동에서 진주, 만주, 일본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대된다. 최 참판 댁 일가의 몰락과 재건이라는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봉건적 가족 제도의 해체, 신분 계층의 해체, 서구 문물의 수용과 식민지 지배, 간도 생활을 통한 민족 이동의 문제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은 민족의 운명과 함께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평사리 농민부터 대지주, 지식인, 독립운동가, 일본인, 노동자, 신여성까지 폭넓은 인물 유형을 보여 준다. 유교적 질서의 근간이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해체되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이며 풍속적인 면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대하소설의 장대한 이야기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삶의 애환과 극복 과정

[전체 줄거리] · 제1부: 구한말, 지주인 최 참판 댁과 마을 소작인들이 어울려 사는 평사리에서 최치수가 살해되며, 먼 친척뻘인 조준구는 최 참판 댁의 재산을 노리고 계락을 꾸민다.

- 제2부: 조준구에게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긴 서희는 가문을 부흥시키려는 일념으로 간도로 이주하여 길상의 도움을 받아 토지 거래를 통해 큰 재산을 모은다.
- 제3부: 귀향 후 진주에 정착한 서희는 조준구에게 빼앗긴 재산과 토지를 되찾고, 서희의 남편이 된 길상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발각되어 투옥된다.
- 제4부: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희의 두 아들인 환국과 윤국은 자신들의 풍족한 처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윤국은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정학 처분을 받는다.
- 제5부: 출옥한 길상은 암자에서 탕화를 그리며 지내지만 사상범으로 다시 투옥된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 광복이 멀지 않은 가운데 서희는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갈 것을 결심한다.

16.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자정이 넘은 철흑의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정들이 최 참판댁을 습격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에서는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를 통해 공간적 배경이 방에서 연못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덩어리 같은 침묵’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장정들이 은밀하게 모여드는 행동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는 ‘와락와락’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흥 씨가 서희의 앞가슴을 잡고 흔들며 대는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자정이 넘은 마을의 모습과 윤보 일행 장정들이 모여드는 장면에 대한 서술자의 관찰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B]에서는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와 같이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④ [A]에서는 ‘넘었다’, ‘모여들었다’와 같이 장면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서술되다가 ‘짚는다’, ‘난다’, ‘앉는다’ 등과 같이 장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서술된다. 이와 같은 진술의 시제 전환을 통해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편 [B]에서는 ‘흔들어 댄다’, ‘남는다’, ‘날린다’ 등과 같이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흥 씨와 서희의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17.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를 볼 때, 흥 씨는 간밤에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가 서희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흥 씨는 윤보 일행의 습격을 ‘화적 놈’과 공모한 서희의 소행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삼수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댁 습격을 준비하는 윤보에게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든’이라고 말하며 조준구를 먼저 제거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지는 않다.

② 삼수가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기는 했지만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지는 않다. 조준구에게 윤보의 계획을 고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을 믿어 달라고 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희는 흥 씨에게 자신의 영악함이 범보다 더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다.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한 말이 아니다.

⑤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조준구가 삼수에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밤 조준구를 습격한 것은 삼수가 아닌 윤보이다. 삼수는 오히려 윤보 일행이 습격했을 당시 조준구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다.

18.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신분 질서의 와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흥 씨가 서희의 얼굴이 흠빛으로 변할 만큼 격렬하게 서희를 흔들어 댔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희 몸을 잡아당긴 것이다. 봉순이의 행위를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삼수는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 오.’라고 윤보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윤보는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라고 말하며 삼수의 제안을 거부하는데, 이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의 협력 관

계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은 조준구가 있는 최 참판댁 습격을 위해 모인 윤보 일행이다.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이라는 내용을 참고할 때, 윤보 일행이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생각을 고쳐먹고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흥 씨와 서희의 대립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를 통해 흥 씨와 서희가 대립 관계를 이어 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⑤ 삼수는 윤보에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라고 말하며 조준구를 치라고 한다. 그런데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삼수는 윤보 일행에게 습격당한 조준구를 돕는다. 이를 통해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2] 독서

[19~22] 인문,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지문해설 : 이 글은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그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비결정론적인 세계관에 기반을 둔 자연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이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그의 쾌락주의적 윤리학

19.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인간이 결정론적 세계관을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에피쿠로스 사상 중 이신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이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인간이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은 1문단에만 간단히 제시되어 있어

글 전체를 아우르는 표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 이 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보다는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신의 관여를 중심으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이 글에 에피쿠로스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에피쿠로스 사상이 지닌 한계나 사상의 발전적 계승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 ④ 이 글에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이나 그에 대한 이견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이 글에 에피쿠로스 사상의 의의, 쾌락주의적 윤리학과 행복 실현 방안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만,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는 믿음을 에피쿠로스는 잘못된 믿음이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신들이 인간사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2문단의 내용과, ㉡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가 없다고 보았다는 4문단의 내용을 통해 ㉠과 ㉡이 인간이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을 통해 에피쿠로스는 ㉢을 바탕으로 인간이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을 통해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배경이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므로,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2문단을 통해 ㉠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부정했음을 알 수 있으며, 5문단을 통해 ㉢은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이 아닌,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3문단에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언급은 되어 있으나, 인간이 이를 탐구하는 이유를 제시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2문단에 신의 존재 방식이나 존재 위치가 언급되어 있으나, ㉠과 ㉡이 인간의 존재 이유나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1문단과 5문단에서 ㉢이 ㉢을 토대로 인간이 삶에서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우주의 근원을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21.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ㄴ. 4문단에서 원자는 우연적인 운동을 하며,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ㄴ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주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가 인간의 삶

역시 의도하지 않더라도 뜻하지 않게 우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유 의지가 있더라도 뜻한 바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에피쿠로스를 비판할 수 있다.

ㄷ. 3문단을 통해 에피쿠로스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여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사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ㄷ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사후 세계 이외의 요소에 있다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에피쿠로스를 비판할 수 있다.

ㄹ. 1문단을 통해 당대 사람들은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에피쿠로스의 생각처럼 신이 자연재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당대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해도 ㄹ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재해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에피쿠로스를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4문단에서 에피쿠로스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 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22.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을 통해 에피쿠로스가 신이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보았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에피쿠로스가 <보기>의 생각과 달리 인간 세계에 대한 신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과 4문단을 통해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과 신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고 언급한 <보기>의 생각과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을 이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생각은 4문단에서 우주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통해 에피쿠로스가 '불사하는 존재'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와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④ <보기>에서 신은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문단을 통해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그의 사상과 <보기>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3~26] 문학

[23~26]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조웅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영웅 소설의 대표작으로, 주인공의 고행담을 다룬 전반부와 주인공의 영웅적 활동을 다룬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영웅의 일대기 형식에 맞춰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와 자유연애의 애정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과 자유연애 사상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문제 때 공신 조정인이 간신 이두병의 참소로 음독 자살을 하자 문제는 조정인의 아들 조웅을 애뜻해한다. 이에 이두병은 조웅을 죽이려 하지만 조웅 모친의 꿈으로 인해 조웅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어머니와 피신한다. 이후 문제가 세상을 떠나자 이두병은 태자를 귀양 보내고 제위에 오른다. 조웅 모자는 월경 대사를 만나 산사로 들어가고 조웅은 15세에 출세를 결심하고 철관 도사를 만나 병법과 무술을 배운다. 조웅은 모친을 만나러 가는 중에 장 진사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 장 소저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고, 서번이 위국을 침공하자 위국으로 가서 서번군을 격파하고 이두병의 협박에 시달리던 태자를 구출한다. 조웅은 서번 왕을 항복시키고 이두병이 임명한 지방 관리들을 차례로 처치하면서 위국으로 들어가 위왕과 연합하여 황성을 쳐서 이두병을 베고 태자를 구출하여 등극시킨다.

2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조웅은 함곡으로 들어가는 길에 노옹을 만난다. 노옹은 조웅과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늦게 도착하여 조웅을 만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고 말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조웅의 꿈속에서 송 문제는 조웅이 서번에게 잡힐까 염려하여 도사를 찾아가 조웅을 구하라고 부탁하였다고 말한다. 송 문제가 서번 적의 간계에 빠진 것은 아니다. ② 조웅은 송 태자를 구해 위국으로 가던 중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쉬게 하고 자신도 사관에서 쉬었다.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군마를 멈춘 것이 아니다. ④ 노옹이 내어 준 편지를 읽은 조웅은 위흥창에게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을 내린다. 이에 위흥창은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다고 보고한다. 위흥창이 선봉을 이끌어 함곡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⑤ 조웅의 꿈속에서 황금관을 쓴 노인은 궁궐의 상석에 용포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2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조웅의 꿈속 공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광활하여 완연한 별 세계’,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은 비현실적 세계, 신비로운 곳으로 그려져 있다. [B]에서는 조웅이 슬프고 상한 마음으로 행군을 하여 도달한 곳인 함곡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해가 지고 잔나비와 두견이 울고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함곡의 모습은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뻗뻗한 곳’에 들어가니 광활하였다고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 [B]에서는 함곡의 어두운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③ [A]에서 조웅이 날개를 얻어 공중에 이르게 되는 것은 비현실적 사건으로, 환상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B]에서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는다. ④ [A]에서 조웅이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뻗뻗한 곳’과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공간적 변화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통해 긴장감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B]에는 계절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으며, 강조되는 것은 쓸쓸함이 아닌, 불안감이다.

25.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는 제왕의 분부에 따라 저마다 자신의 공적을 밝히는 글을 올린다.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웅이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다며 안타까워하며 염려하기도 하고, 송 문제의 말을 듣고 대운이 막히지 않았다며 조웅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도 한다. ③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라고 하며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고,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라고 하며 희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④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각 소회를 다하고 ‘칼을 빼들’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 등 여러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큰 잔치’에는 좌석에 사람이 가득 앉았으며 술과 음식이 가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풍성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다’,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간계를 꾸민다’는 등의 꿈속의 말로 인해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즉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꿈속의 말대로 이루어질까 염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조웅의 꿈속에서 송 문제는 서번의 간계로 조웅이 위기에 처할까 하여 도사를 찾아가 조웅을 구하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통해 조웅이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받게 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조웅은 꿈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다고 말한다. 조웅이 꿈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천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 ④ 조웅은 자신의 꿈속에서 서번이 간계를 꾸미고 있으며 송 문제가 도사에게 자신을 구하라고 부탁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꿈에서 깨어난 조웅은 노옹이 전해 준 ‘천명 도사’의 편지의 지시를 따른다. 이는 조웅이 꿈속에서 알게 된 바가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꿈속에서 송 문제는 도사에게 조웅을 구하라고 부탁하였다. 이 꿈이 현실로 이어져 천명 도사가 노옹에게 자신의 편지를 조웅에게 전해 주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옹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7~31] 독서

[27~31] 사회,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지문해설 : 이 글은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변화된 금융감독 정책과 통화 정책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안정은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금융감독 정책에 있어 미시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과의 상호 보완 또한 필요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주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한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이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감독 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인해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자산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4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 정책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안정은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고 있다. 이는 과도한 신용 공급의 팽창이나 신용 공급의 축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과 달리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

용한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으로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활용하며, 5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이용하는데, 경기 과열기에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적립된 완충자본을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 때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문단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 때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에 따르면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경기가 과열되면, 즉 호황일 때에는 정책 당국은 금융 회사로 하여금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5문단에 따르면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즉 불황일 때에는 완충자본을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⑤ 5문단에 따르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에는 효과가 미미한데,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확대된 신용 공급은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기에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신용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자산 시장의 버블이 발생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통화 정책으로 인해 확대된 신용 공급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통

화 정책이 신용 공급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 버블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려 하더라도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기 주체의 반응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보기>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수단 외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 진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에서 ‘들’은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에서의 ‘들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에서 ‘든다’의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이다.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에서 ‘든’의 의미는 ‘어떤 처지에 놓이다.’이다.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에서 ‘들자’의 의미는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이다.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에서 ‘들기로’의 의미는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이다.

[32~36] 문학

[32-36] 고전 시가 - (가) 안서우, ‘유원십이곡’ / 고전 수필 - (나) 성현, ‘조용’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 안서우가 은처에 칩거하며 그곳에서의 생활을 노래한 총 13수의 연시조이다. 전반부에서는 출사를 포기하고 강호에서의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밝히며 강호에 은둔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보여 주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강호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현재의 삶이 지난날의 벼슬살이보다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드러내지만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이 귀먹고 눈먼 데다 병어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견딜 수 없는 심정임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자연에 은둔하였지만 현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제] 강호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흥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5세기의 학자인 성현이 ‘나’와 ‘게으름 귀신’ 사이의 대화를 활용하여 통념을 뒤집는 참신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이 작품은 어느 날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을 알게 된 글쓴이가 무당을 통해 게으름 귀신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자 게으름 귀신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말문이 막힌 글쓴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근면은 도리어 화근이 되며, 물러나 앉아 사람들이 시비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물욕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으름 귀신의 말을 ‘나’가 인정하는 것은 글쓴이가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유익함

3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속세를 상징하는 ‘홍진’, ‘인간’ 등과 자연을 상징하는 ‘백운’, ‘녹수’, ‘청산’, ‘물외’ 등의 대조적 소재를 통해 강호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도 ‘근면’과 ‘게으름’이라는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서 게으름이 유익한 경우도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에는 모두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글쓴이의 은거지, (나)는 글쓴이의 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으며, 둘 다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게으름 귀신’이라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나, (가)는 독백체로 구체적인 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지 않는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제9장>의 종장은 벼슬을 버리고 떠난 도연명과 소광의 처신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당당한 태도(‘호연 행색’)로 여기고 있다.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1장>의 초장은 ‘문장을 짓고자 하니,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이오.’라는 의미로, 화자가 강호를 선택해 은거하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② <제3장>의 종장 ‘시름 업시 늘거 가니’에서 강호를 선택하였을 때의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6장>의 종장은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수인가 하노라’라는 의미로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9장>의 종장은 ‘(도연명과 소광의 태도가 부럽다는 것을) 알고도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니’라는 의미로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다. 그리고 <제11장>의 종장은 ‘이제는 가려서 정하니 일흥(세속을 벗어난 흥취)을 참기 어려워하노라.’의 의미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유정코 무심’한 것은 ‘무심코 유정’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관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유정코 무심’한 것은 ‘인간의 벗’, ‘봉우’에 해당하는 특성이다. ‘물외에 벗’은 ‘백운’, ‘구로’와 같은 자연물이며, 화자가 이들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무심한 듯 보이지만 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6장>의 초장의 ‘인간 세상에 벗이 있다 하나 나는 알기를 싫어한다.’의 의미로 볼 때 화자가 ‘인간의 벗’과 절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② <제8장>의 초장의 ‘풍진’은 <제3장>의 초장의 ‘홍진’처럼 속세를 상징한다. 그리고 화자는 ‘풍진’의 ‘봉우’가 ‘유정코 무심’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봉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제3장>에서 화자는 ‘백운’과 ‘위우’하여 자연 속에서 시름없이 늙어가며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 ④ ‘구로’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정이 있는 자연물로 ‘물외에 벗’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물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과거의 생활이 그르고, 현재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생활이 옳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은 ‘나’가 ‘게으름 귀신’이 반박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잘못을 고치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화자가 공자와 맹자를 배운다는 것은 성인의 도를 익히는 것인데, 이는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의 ‘나’는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며 ‘게으름 귀신’이 말한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나)의 ‘굳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은 게으름을 멀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가 이를 다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 시름없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곳에서의 삶을 즐거워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 ‘나’는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라는 ‘게으름 귀신’의 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다.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인간 세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 ‘나’는 현재 물러나 앉은 상황으로 ‘시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나’

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게으름의 양면성은 경계해야 할 부정적 측면과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아울러 의미한다. ‘나’가 게으름 귀신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는 것으로 보아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나’가 게으름 자체를 자신의 ‘허물’이라고 여기지는 않았고, 또 이것을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과 연결할 수도 없으므로, ③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 없었다.’라고 판단한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등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한 것은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볼 수 있다. ④ ‘나’가 게으름을 통해 물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⑤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은 맹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한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라는 ‘게으름 귀신’의 말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다.

[37~42] 독서

[37~42] 융합(인문, 과학), ‘개체성의 조건과 공생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지문해설 : 이 글은 서로 다른 대상들을 동일한 개체의 부분들 혹은 동일한 개체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인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두 원핵생물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하나의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공생발생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떤 대상을 이루는 부분들을 동일한 개체의 부분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것이며,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철학에서 논의한 개체성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성에 관한 것이다. 공생발생설은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박테리아의 일종인 원생미토콘드리아로 독립된 생명체였으며,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고세균과 원생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공생이 지속되다가 진핵세포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공생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독립된 생명체로서 개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원생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됨으로써 개체성을 잃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공생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과정과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성 판단

37.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먼저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대상을 이룰 때 그 대상을 하나의 개체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두 대상 사이의 강한 인과성을 설명함으로써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원핵생물이었던 원생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된 과정을 공생발생설에 따라 서술하고,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에 매우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공생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자동차, 바닷물을 예로 들어 개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② 1문단과 2문단에서 어떤 대상을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인 개체성의 조건은 제시하고 있으나,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개체의 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원핵생물이 세포의 소기관으로 변화한 과정을 설명할 뿐 세포의 소기관의 분화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로 개체성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개체의 일부분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서술하였지만,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3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6문단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포핵에서 세포질을 거쳐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를 통해 유사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를 통해 바닷물을 이루는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를 통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와 5문단의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를 통해 진핵세포가 고세균의 ‘후손’이며 원생미토콘드리아는 고세균과 별개의 개체였으므로,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9.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공생발생설이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를 세밀하게 관찰하게 됨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DNA 복제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독립된 생명체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공생발생설이 생물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생물학계로부터 공생발생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당시 생물학계는 진핵세포의 소기관으로서 미토콘드리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생발생설은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본 당시의 전통적인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 따라서 공생발생설이 한동안 생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내부 공생이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것이며,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당시 생물학계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한 생

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당시 생물학계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가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4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ㄱ, ㄴ. 2문단에 제시된 세포의 조건과 5문단에 제시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들을 통해 <보기>에 제시된 각각의 연구 결과가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2문단에서, 세포 소기관이 이분 분열을 하고, 카디오리핀을 포함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의 세포 소기관은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3문단에 따르면 박테리아는 원핵생물이므로 세포 소기관이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ㄴ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ㄷ. 5문단에 따르면 진핵세포막에도 수송 단백질이 존재하므로 막에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것만으로 ㄷ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막에 존재하는 수송 단백질이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두 대상이 각자의 개체성을 잃고 둘을 다른 존재로 볼 수 없을 만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면 둘 사이의 관계를 별개의 개체 간 공생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부분들 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문단에 제시된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기>의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미토콘드리아와 달리 아메바의 관여 없이도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와 같이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6문단의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들은 공생 관계에 있다’를 통해 두 생명체가 서로의 생존에 관여하는 것은 두 생명체가 공생 관계에 있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테리아의

생존이 아메바의 생존에 관여하는 것은 박테리아와 아메바의 공생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과 '복어'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져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다면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개체성을 잃을 수 있다. ③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받을 뿐 복어와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 간에 DNA의 증식과 관련된 유기적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6문단에서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박테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아메바의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박테리아의 DNA 길이가 짧아졌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⑤ <보기>의 복어와 복어 체내에 서식하며 테트로도톡신을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복어 체내의 미생물을 제거해도 복어의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복어가 개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공생 관계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의 생존한 아메바와 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사이의 관계도 공생 관계로 볼 수 있다. 박테리아가 죽을 경우 아메바도 죽었으나 6문단에서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이라는 언급을 통해 각자가 개체성을 잃을 만큼 둘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한쪽을 제거했을 때 다른 쪽이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공생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조명(照明)되다'는 '어떤 대상이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보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의 '밝혀지면서'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로는 '어떤 사실이 판단되어 명백하게 밝혀지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판명(判明)되다'의 활용형인 '판명(判明)되면서'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구성(構成)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의 '이룬다고'를 '구성(構成)한다고'와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다. ② '존재(存在)하다'는 '현실에 실재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의 '있고'를 '존재(存在)하고'와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다. ③ '보유(保有)하다'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의 '가지고'를 '보유(保有)하고'와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다. ⑤ '생성(生成)되다'는 '사물이 생겨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의 '만들어진다'를 '생성(生成)된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43~45] 문학

[43-45] 현대시 - (가) 김광균, '추일서정' / (나)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30년대 모더니즘 경향의 시를 쓴 김광균의 대표작 중 하나로, 다양한 도시적 소재와 회화적인 이미지, 비유적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가을날의 도시 서정을 읊은 시이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 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특히 기계적, 물질적 이미지와 일상적 관념을 깨뜨리는 낯선 비유를 사용하여 서구 도시 문명을 나타내는 소재나 관념 등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불안감,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담겨 있다.

[주제] 가을날 도시 풍경에서 느끼는 쓸쓸한 정서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새로운 시각을 통해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풍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사물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은 시어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고정관념 속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나 이 시에서는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존재인 새는 하늘에 '놀려' 그 무게를 견디는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꽃이 떨어지는 것은 들쭉레가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 '꽃'을 '버리'기 때문이며, 하늘과 땅의 돌멩이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돌멩이 위에 '엮'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위가 모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시인은 사물의 행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물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사물의 풍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4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자연물인 '낙엽', '길'을 각각 인공물인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의미와 구조를 유사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가을', '일광(日光)', '두 시' 등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며,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③ ‘폴-란드’, ‘자옥-한’, ‘호올로’ 등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작품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업혀’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매달려 붙어 있는 형상이므로, ‘업혀’ 있는 존재인 담쟁이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공기를 누르고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담쟁이덩굴을 강인한 존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가 하늘에 ‘놀려’ 납작하게 되었으면서도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새가 하늘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③ ‘버리며’는 꽃을 떨군 주체를 들쭉레로 설정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 들쭉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엎힌다’는 대상 사이의 접촉을 전제한 단어이므로, 하늘이 돌맹이 위에 엎힌다는 표현을 통해 하늘과 돌맹이가 떨어져 있지 않고 맞닿아 있으며 돌맹이가 있는 땅과 하늘 역시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⑤ 바위가 모래를 깔고 앉은 것이 아니라,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렸다는 것은 모래가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길’을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길’을 도시적인 이미지와 연관 짓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망명정부의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므로, ‘낙엽’을 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낙엽이 생명력을 상실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상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돌팔매’의 하강 곡선을 ‘고독’하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들쭉레’가 ‘하얀 꽃’을 버리며 스스로 빈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떨어진 꽃이 아닌 꽃이 떨어진 빈자리의 공간적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허공’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행위는 황량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것이므로, ‘허공’은 황량한 생각을 드러내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됨을 알 수 있고, (나)의 ‘담쟁이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허공’이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③
 11. ① 12. ① 13. ② 14. ②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④ 22. ③ 23. ① 24. ⑤ 25. ② 26. ④ 27. ⑤ 28. ⑤ 29. ② 30. ③
 31. ① 32. ① 33. ⑤ 34. ④ 35. ② 36. ③ 37. ④ 38. ⑤ 39. ⑤ 40. ③
 41. ③ 42. ② 43. ⑤ 44. ③ 45. ①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발표 첫 부분의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한다는 발언에서 발표의 목적은 밝히고 있으나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발표자가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를 통해 이동 가능한 산대가 있다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를 통해 예산대라는 명칭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 주제와 관련된 ‘산대’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라는 발언과 ‘(청중의 대답을 듣고)’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㉞은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레바퀴’와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잘 드러나 있어 인형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3>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㉟은 예산대의 모습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자료 1>이 적절하나, 이는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

자료 제시 이후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라는 물음에 대한 정보를 <자료 3>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에 활용되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의 제시 목적이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크게 보여주려는 것이므로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대 위의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에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답변 내용이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에 대한 것이므로 발표에 제시된 예산대에 있는 여러 인형과 연관된 질문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라는 답변 내용을 통해 인형들의 의미를 묻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발표 내용에서 전통극 무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발표 내용 중 ‘예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라는 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 내용에서 ‘산’과 ‘신선의 세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발표 내용에서 예산대에서 인형극이 행해졌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 내용에서 사람이 직접 예산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발표 내용에서 『봉사도』가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보여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 내용에서 봉사도에 있는 예산대 외의 다른 그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4~5] 화법, 작문

4.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사서는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라는 질문을 통해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도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더 알고자 보충 질문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A]에서 학생은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라는 사서의 답변이 자신의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지는 않다. ㉡ [A]에서 사서는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니다. ③ [B]에서 학생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이유는 사서의 답변이 목적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사서의 첫 번째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이 생겨서이다.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B]에서 사서가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면담 중 사서의 5번째 말에는 '도서관에 직접 와서 ~ 신청서를 작성'이라는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이 쓴 글에서는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쓴 글에서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이라고 하여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드러내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있다. ② 글에서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로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알리고 있다. ③ 면담에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도서관은 단순히 ~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내용을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라는 부제로 제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면담에서 학생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는 주민들의 반응을 언급하였는데 글에서도 이를 제시하여 도서관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6~7] 화법, 작문

6.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 2는 옥수수 싹이 나오길 기다리며 '조급해했던' 마음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 1은 옥수수 씨앗을 심으며 '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선생님'의 조언을 계기로, 학생 2는 '선배'의 조언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 ③ 학생 1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학생 2는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④ 학생 1은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라는 문장을 다시 인용하며, 학생 2는 자신이 원

했던 ‘씩이 어느새 올라와’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설렘’에서 ‘투덜땀’으로, ‘투덜땀’에서 ‘반성’으로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 2는 자신의 조급해하는 태도를 교우 관계에서도 조급해하며 서운해했던 경험과 연결 지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7.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신과 학생 2의 공통된 생각보다는,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만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 1의 생각을 묻고 있다. ② ㉢에서는 수영을 배울 때 성급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 2의 글에 공감하고 있다. ③ ㉣에서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학생 2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다. ⑤ ㉤에서는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10] 작문

8.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문단에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실험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문단에서 확증 편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글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나 확증 편향의 원인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을 2문단에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한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3~5문단에 제시하고 있으나 ‘방안의 한계’와 ‘보완할 방향’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사회적 쟁점을 두고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은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을 통해 ‘집단의 의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4문단에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내용은 ‘집단의 의견’도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확증 편향’이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확증 편향으로 인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나)의 4문단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므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보기>의 내용은 집단의 의견도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5문단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비판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확증 편향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답지 진술은 (나)처럼 확증 편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문두에서 ‘확증 편향’이 아닌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갈릴레이가 천동설에 맞서 지동설을 펼친 것이 확증 편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글쓴이는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를 추가하여 앞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왜냐하면 고려의 ~ 있기 때문이다.’를 추가하여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④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제에서 벗어나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글에서 삭제하였다. 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찰스 다윈’의 사례를 근거로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15] 문법

[11~12] 조사 ‘에’와 ‘에서’의 역사적 형성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먼저 현대 국어의 조사 ‘에’와 ‘에서’의 의미 및 기능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이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셔’의 형성 과정에서 찾고 있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에서’ 계열의 조사가 쓰일 자리에 ‘에’ 계열의 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이 둘의 의미가 [지점]과 [공간]으로 분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듯이 중세 국어에서도 ‘에서’ 계열의 조사가 주격 조사로 쓰였음을 설명하는 한편,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께서’는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결합한 것으로서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씩셔’가 변화된 결과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에’와 ‘에서’의 의미 및 기능 차이에 대한 통시적 분석

1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중세 국어에서는 ‘애/에/예, 이/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가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에서 ‘에’ 앞에 붙은 ‘서울’이 ‘에서’ 앞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명사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느냐, [공간]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에’와 ‘에서’가 달리 쓰인다. ③ 중세 국어에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는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이시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에’에 결합되면서 ‘에셔’로 나타나는데, ‘이셔’의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는 진술을 통해 ‘셔’가 지점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 ‘에셔’는 현대 국어 ‘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그 지역에서’는 부사어로, ‘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정부에서’는 집단을 의미하는 주어로, ‘에서’는 주격 조사이다. ③ ‘할머니께서’는 주어이므로 ‘께서’는 주격 조사이다.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④ 현대어 풀이 중 ‘관청에서’가 주어로 쓰였음을 볼 때 ‘그 위예셔’ 역시 주어이며 이때의 ‘예셔’는 주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⑤ 현대어 풀이가 ‘부처님으로부터’이므로 ‘부터씩셔’는 부사어이고, ‘씩셔’는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

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씩셔’가 쓰였음을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를 연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안팍을’을 [안파글]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ㄱ’을 ‘ㄱ’으로 바꾼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겹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겹받침의 앞 자음은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되고 겹받침의 뒤 자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된다.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찰흘기]로 발음해야 한다. [찰흐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넋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넉씨]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시’가 아닌 ‘씨’로 발음되는 것은 ‘넉’의 ‘ㄱ’에 의한 된소리되기의 영향이다. [너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끝을’은 연음하여 [끄틀]로 발음해야 한다. 구개음화는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기 때문에 ‘끝을’과는 무관하다. ⑤ ‘숲에’는 연음하여 [수페]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숲에’를 [수베]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ㄴ’, ‘ㅈ’이 ‘ㅎ’을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ㅊ’, ‘ㅌ’로 발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숲에’와는 무관하다.

14.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떠넘기면’의 어간은 ‘떠넘기-’이다. ‘떠넘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뜨-’와 어근 ‘넘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또한, ‘넘기-’는 다시 어근 ‘넘-’과 접사 ‘-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떠넘기-’는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 충족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내리쳤다’의 어간은 ‘내리치-’이다. ‘내리치-’는 어근 ‘내리-’와 어근 ‘치-’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그러나 ‘내리치-’는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헛돌았다’의 어간은 ‘헛돌-’이다. ‘헛돌-’은 접사 ‘헛-’과 어근 ‘돌-’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 ㉡ ‘오간다’의 어간은 ‘오가-’이다. ‘오가-’는 어근 ‘오-’와 어근 ‘가-’로 분석되기 때문에 ㉢은 충족하지만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짓밟혀도’의 어간은 ‘짓밟히-’이다. ‘짓밟히-’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짓밟-’과 접사 ‘-히-’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짓밟-’은 다시 접사 ‘짓-’과 어근 ‘밟-’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짓밟히-’는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은 충족한다.

15.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겹문장은 ‘날씨가 춥다’가 관형절로 안겨 ‘날씨’를 꾸며주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때 안긴절의 주어 ‘날씨가’는 생략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제시된 겹문장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관형절로 안겨 ‘동생’을 꾸며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제시된 겹문장은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가 부사절로 안겨 ‘먹었다’를 꾸며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제시된 겹문장은 ‘날씨가 춥다’가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제시된 겹문장은 ‘형은 물을 마셨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연결 어미 ‘-지만’을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16~20] 문학

[16-20] 고전 시가 - (가) 정극인, ‘상춘곡’ / (나) 이이, ‘고산구곡가’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노래한 가사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묻혀 고고하게 살아가려는 내면적 의지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춘경(春景)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설의법,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의 표현 기교와 고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유희자적인 생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제]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고산 석담에 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며 후진 양성에 전념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송나라 주자의 「무이도가」를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 풍경

에 대한 묘사를 중시하여 각 연마다 풍경을 담아 노래하였다.

[주제]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

1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등의 자연물을 통하여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도 ‘벽파’와 ‘곶’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청상’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눈’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는 자연물이나 공간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 역사적 인물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나)의 ‘주자’는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있으나, 그를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㉞은 ‘사람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모르니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미로, 화암의 늦봄 경치와 계곡의 절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㉟은 ‘홍진(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삶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으므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은 이웃사람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내용이지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③ ㉡은 술동이기가 비었으면 자기에게 알리라는 내용으로,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⑤ ㉢은 직접 와서 살펴보지 않으면서 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속의 경박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1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는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취를 새에게 투영한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있다.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넋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고 있음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에서 스스로를 풍월주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친화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볼 수 있다. ③ ‘답청으란 오늘 흐고 욱기란 내일 흐새 / 아춤에 채산흐고 나조히 조수흐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물아일체의 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청류를 굽어보니 쩌오느니 도화 | 로다 / 무릉이 갓갓 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를 통해 화자가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봄의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앉아서 ‘한중진미’를 느끼는 공간이고, ㉡는 술을 마시며 일출을 즐기는 공간이다. ㉢와 ㉣가 주위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의 거처이며, 화자는 이곳에서 출발하여 ㉡와 ㉢로 이동하고 있다. ② ㉣와 ㉤는 화자가 은거한 ㉠을 구성하는 장소로, 각각 구곡 중의 하나이다. ④ ‘벽계수 얹피 두고’를 통해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주모복거흐니 벗님나 다 오신다’를 통해 (나)의 화자가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청류’를 굽어보고 ‘미’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낸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단풍에 둘러싸인 ㉤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바위를 덮은 ‘눈’은 문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이지,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보기>의 「송애기」와 관련한 설명에서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⑤

①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의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의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에서

‘강학’과 ‘음풍영월’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다.

[21~26] 독서

[21~26] 융합(인문, 예술), ‘역사와 영화의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역사 연구에서 사료가 지닌 의미와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통해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역사 서술에 있어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역사가는 과거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과거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사료는 불완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문헌 사료의 언어에 비해 도상적·지표적 기호로서의 특성을 지닌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영화를 매개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가 가능하며,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영화는 공식 역사에 가려 묻혀 있던 목소리를 발굴하고 표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주제] 역사 서술의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영화가 도상적·지표적 기호로서 역사를 증언하는 사료의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밝히면서,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역사 서술로서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5문단을 통해 영화가 사료의 원천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하는 대안적 역사 서술로서의 가능성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지 않았고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지도 않았다. ② 5문단에서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③ 4문단에서 영화의 허구성이 역사 서술에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이나 그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발굴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서 미시사 연구에서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료의 '발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도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개인적 기록인 일기, 편지 등도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문헌 사료의 언어는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헌 사료의 언어가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영화의 이미지는 다큐멘터리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가 아닌 도상적 기호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은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은 판소리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은 소설이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은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해 역사 서술을 보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은 설화집이라는 허구의 이야기 속 문장을 활용해 17세기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보완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은 경전의 어휘 분석을 통해 해당 경전의 일부가 편찬 시기로 알려진 B. C. 3세기경 이후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연구한 사례이다. 이는 경전이라는 공식적 사료에 대한 연구일 뿐, 허구의 이야기를 사료로 삼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거나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해 역사 서술을 보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또는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24.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는 허구적 이야기인 영화가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문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은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계속해서 자료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자료의 사실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이러한 자료들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나 구술 증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비로소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는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며, 사료로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A]를 비판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 ㉢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는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자료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A]를 비판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 영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공식 역사와 같은 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의 관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3문단에 서술되어 있듯이 영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 ㉤의 관점은 영화가 바탕으로 삼은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가 실제의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주목할 것이지,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을 문제 삼아 [A]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제작 당시 대중의 집단적 무의식,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머스비」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므로, 이 영화를 통해 19세기 중엽 미국의 생활상과 집단적 무의식 등 제작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역사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3문단에서 집단적 무의식을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으로 설명하므로,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3문단에서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마르탱 게르의 귀향」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3문

단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영화로 설명하고,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하고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으므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1 문단에서 서사적 자료의 예로 재판 기록을 들고 있고, 미시사 연구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 '결합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루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라는 뜻을 지닌 '구성(構成)하다'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만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눈앞에 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대면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여겨지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여기다'의 피동형으로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뜻을 지닌 '간주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나타나다'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생겨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다.'라는 뜻을 지닌 '대두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펼치다'는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내용을 진전시켜 퍼 나가다.'라는 뜻을 지닌 '전개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27~31] 독서

[27~31] 사회, '소유권의 공시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유효한 양도 계약과 함께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소유권이 공시된다. 그리고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도 소유권 양도 공시로 인정된다. 한편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양수인이 유효한 계약을 맺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한 경우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하지만 점

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가 인정되는 물건의 경우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가 인정되는 물건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데, 이는 거래의 안전보다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주제]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소유권 취득이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또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유권 양도의 공시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방의 점유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방을 점유하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방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하는데, 소유권의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데,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양수인은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동산인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물리적 지배를 하지 않아도 간접점유를 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지배 없이도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하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간접점유 역시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직접점유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점유할

수 있으므로,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피아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아노를 빌려 준다면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존재하면서 피아노의 소유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의 권리 보호보다 거래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 안전보다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의 양도가 공시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므로 ㉠과 달리 점유로 공시될 수는 없으나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과 같은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5문단에서 ㉡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은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 경우 소유권 양도의 공시는 등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갑과 을이 양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금반지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는 점유개정이라 볼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4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병이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을과 맺은 계약이 유효한 양도 계약이라면 계약 이후에도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더라도 양수인인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점유개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을은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반환청구권이 양도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②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을은 계약에 의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갑이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갑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하므로,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 반환청구권을 가진 을은 금반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문단에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갑이 금반지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⑤ 병과 을의 계약에 의해 을은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병과 을의 계약에서 양수인인 병은 양도인인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라고 믿었고,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원칙에 의해 갑과 상관없이 병의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된다.

3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에서 '일어나게'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에서의 '일어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에서 '일어났다'의 의미는 '소리가 나다'이다.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에서 '일어나게'의 의미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이다.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에서 '일어나지'의 의미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이다.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에서 '일어남으로써'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이다.

[32~34] 문학

[32~34]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장끼전'

지문해설 : 「장끼전」은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장끼 타령」 등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웅치전」, 「화충전」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적 기법으로 조선 후기의 인간 세태와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끼가 콩을 먹다 죽는 장면이고, 후반부는 까투리가 개가하는 장면이다.

제시된 부분은 장끼가 콩을 먹고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의 한 장면이다. 장끼 가족

이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어 양식이 떨어지자 장끼는 도적놈인 서대주를 찾아가 극진히 존대함으로써 양식을 빌려 온다. 이를 두고 딱부리는 도적놈인 서대주에게 양식을 빌어 왔다고 장끼를 비난하고 자신은 서대주를 겁박하여 쌀을 추심해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서대주를 찾아간 딱부리는 쌀을 받아오기는커녕 서대주에게 결박당하고 해만 입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조선 후기 유교적 질서의 와해에 따른 신형 세력의 부상과 구세력의 몰락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과 인간 세태 풍자

3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딱부리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에서 ‘주먹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와 같이 뱃, 주둥이, 끝동 부분에 이르기까지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위풍이 현양한’ 인물(딱부리)의 속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술자가 ‘서대주 맹랑하다’와 같이 개입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③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이나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와 같이 속담이나 옛글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일부 인물의 외적 갈등을 조성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거나 인물의 초월적 능력이 부각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공간적 배경은 협사촌의 서대주의 집과 장끼가 사는 곳인 양지촌이다. 이 두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장끼가 서대주에게 간 이유는 양식으로 쓸 쌀을 빌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방문 목적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딱부리가 장끼가 쌓아 놓은 곡식의 연유를 듣고,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딱부리 역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구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딱부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가 도적질한 것을 들어 협박함으로써 쌀을 받아내는 방법을 택한 것일 뿐, 애초에 서대주의 도적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끼와 딱부리 모두 서대주를 ‘도적질하는 놈’, ‘미천한 도적놈’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서대주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를 ‘서동지’로 존칭하며 대접하는 방식을 계획했고, 딱부리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를 하대하고 겁박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대주를 존대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딱부리는 처음에는 서대주를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다가 서대주에 의해 결박되어 해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비는’ 굴욕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된다. ④ 서대주의 거처에 당도하여 장끼는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닻’이냐고 서대주의 환심을 살 수 있게 예의를 갖추어 서대주의 집임을 확인했다. 이에 반해, 딱부리는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고 물으며 서대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시비 쥐’는 서대주를 섬기는 종이므로 신흥 부호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딱부리가 ‘도적질하는 서대주’라고 함부로 말하며 무례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지 딱부리로 대변되는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식이 떨어지자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쌀을 빌리러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간 장끼의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며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면서 화려한 복색을 갖추고 손님을 ‘외헌’에서 맞이하는 장면은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몰락 양반을 대변하는 장끼는 신흥 부호를 대변하는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리게 된다. 이렇게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장끼에게 또 다른 몰락 양반으로서 딱부리는 ‘간사하도다’라고 말하며 비판하는데, 이는 여전히 실리보다 양반으로서 위신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두 인물의 모습으로부터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행위는,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가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만큼 향촌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위세를 떨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5~37] 문학

[35~37] 현대시 - (가) 김영랑, '청명' / (나)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가) 지문해설 : 이 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가장 고읍지 못한 노래꾼'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세계의 일부에 속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화자가 자연에 대해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깔의 비릇이라'고 인식하며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에 젖어 든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마음

(나) 지문해설 : 작품의 제목인 '전언'은 '말을 전한다'는 의미로, 이 시는 봄날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초록 바람'이 전하는 말로 형상화하여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의인화된 대상인 '초록 바람'이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을 따라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서로 화답하고 조용하는 모습과 보리밭에서 김을 매던 여인의 모습을 연결하여, 봄을 맞은 세상 만물의 모습을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

35.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될 수 있다. (가)에서는 '-노라', (나)에서는 '-자'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에서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는 '초록 바람'을 의인화하여 바람이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는 봄날을 맞이한 자연의 모습과 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조용하여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청명한 가을날에 젖어 든 마음을 낮익은 고향을 찾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호르르’는 작은 새 따위가 날개를 가볍게 치며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을 ‘햇발이 처음 쏟아오아’로 표현하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청명’이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봄날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해 ‘아무려면 어떤가’라고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리고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대상의 유사성 때문인 것이지만 이들을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과 교감할 수 있게 된 것, (나)에서 화자가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 준다고 인식한 것은, 화자와 자연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관계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한 것, (나)에서 ‘솔나무’와 ‘미루나무’가 교감하는 것은, 생태계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자연인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화자가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한 것,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이 ‘바람’과 ‘미루나무’를 거쳐 ‘여인’, 그리고 다시 자연인 ‘정자나무’에 전해지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룻’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소리와 모든 빛깔이 자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나)에서 ‘오월’에 자연의 공간인 ‘산’과 인간의 공간인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임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생태 공동체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41] 기술,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하는데, GPS는 스마트폰의 절대 위치를 측정하며, IMU는 스마트폰의 상대 위치를 측정한다. 두 기술 모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위치 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정한다. 비콘이 보내는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근접성 기법, 삼변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 등이 있다.

[주제]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

3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상대 위치를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였다. 또 2문단에서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위치가 아니다. ②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단말기가 인식하는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5, 6문단에서 비콘 신호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이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3문단에서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라고 하였다. 6문단에서 위치 지도 기법은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해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비콘 신호의 세기를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한 후, 특정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에서 측정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비콘이 설치된 위치를 구별해

단말기가 속한 구역의 기준점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의 기술로,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낸다고 하였지만 그 신호는 비콘의 설치 위치를 알려 주는 식별 번호 등으로 GPS 신호가 아니다. 또 2문단에서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39.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해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IMU의 위치 오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IMU가 아닌 GPS라는 하였다. IMU는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와 관련이 없다. ② 2문단에서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IMU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하며,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PS만으로는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오차를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IMU를 활용해 단말기의 상대 위치를 구한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4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6문단에서 ㉠은 단말기가 비콘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해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이용하여 파악한 단말기의 위치는,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기준점의 위치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각 구역의 기준점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은 특정 위치의 단말기가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를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단말기가 전송한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기준점을 찾는다. 따라서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야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㉞은 기준점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하고,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한다고 6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 각 기준점별 비콘 신호의 세기를 다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비콘 신호의 세기,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삼변측량 기법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로 각 원의 크기를 고려할 때, ㉞에 위치한 장애물은 단말기와 비콘 3 사이에 있기에 신호의 세기가 약해져 비콘 3이 중심인 원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콘 3의 실제 원의 크기는 더 작을 것이고,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근접성 기법은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경우 근접성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 1의 위치이다. 또한 5문단에서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해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들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경우 세 원의 교점인 P가 단말기의 위치이다. ②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하였으며, 5문단에서 삼변측량 기법은 수신된 신호 세기를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신호 세기가 강하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신호 세기가 약하면 거리가 멀게 환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원의 반지름이 가장 큰 비콘 3, 비콘 2, 비콘 1의 신호 순이다. ④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㉞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비콘 3의 신호 세기가 강해져 비콘 3이 중심인 원의 반지름이

작아지고, 이로 인해 단말기의 위치인 세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이 P 방향이 아닌 비콘 3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⑤ <보기>에서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비콘 2가 중심인 원의 반지름이 커지고, 이로 인해 단말기의 위치인 세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은 비콘 2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42~45] 문학

[42~45] 현대 소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하는 인물인 지옥을 통해 참된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지옥의 대필 행위는 말이나 글이 인간의 의도나 이념 실현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옥은 자신의 과거 상처와 실패조차도 미화하고 싶어 하는 코미디언 피문오, 세상을 자신의 방법으로 외곬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최상윤에 대한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청준이 자신의 문학적 작업을 두고 '자기 구제의 한 몸짓'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소설에서도 참된 자서전 쓰기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행하는 일이며,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참된 글쓰기의 의미

4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 중심인물 지옥이 최상윤, 피문오와의 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묘사하고 있다. 지옥은 자신에게 자서전 집필을 의뢰한 최상윤의 회의를 없는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 일 때문에 피문오와 대립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③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있지 않으며, 서술자가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지도 않다. ④ 지옥과 피문오와의 대화 상황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자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4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피문오는 지옥에게 화를 내면서 지옥이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납득이 가게 답해 달라고 요구한다. ㉠에서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까닭, 자신이 지옥의 자서전 대필 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똑똑하게 말해 주겠다고 한다.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피문오는 지옥에게 왜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캐물으면서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이 피문오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때문이라고 한 지옥의 말이 말재간을 부린 것이라며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② ㉠을 통해 피문오는 자신이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냐며 지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③ 지옥은 피문오의 행패에 기가 질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과 같은 지경이 되었다. 지옥은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든 상태인 것이다. ④ ㉠에서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물으며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

44.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지옥은 어떤 사람의 결백, 엄격한 극기가 가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에서 없을 수 없는 후회나 의구, 사람으로서 근멸시킬 수 없는 욕망에 대해 시인하지 않는 것은 가식이자 부끄러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극기로 결백하게 사는 것이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옥은 최상윤의 확신에 찬 신념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 회의가 없는 신념이 맹목적인 자기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상윤의 자서전 대필을 하지 않았다.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② 지옥은 회의가 없는 자서전은 ‘거인의 동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의식의 경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회의를 통해 의식의 경화를 경계하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강요하며 욕박지른다. 지옥은 이런 사람의 자서전을 쓰면서 ‘밑구멍을 찢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반말 투로 작가를 욕박지르는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⑤ 피문오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자서전 대필을 거부한다는 지옥의 말을 ‘알량한 양심’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은 그 들러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는 피문오의 이런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45.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피문오가 ㉔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는 것이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치는 일, 채권을 파는 일,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을 사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피문오가 자서전 대필로 돈벌이를 하는 지옥이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피문오는 자서전 대필을 상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고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지옥에게 이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③ 피문오는 지옥을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옥에게 자신이 무식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피문오는 자서전 쓰기를 권장할 것을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⑤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서전 쓰기의 소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 대필로 돈벌이를 하면서 양심을 이야기하는 지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② 18. ④ 19. ⑤ 20. ②
 21. ② 22. ⑤ 23. ① 24. ③ 25. ① 26. ⑤ 27. ① 28. ③ 29. ① 30. ①
 31. ⑤ 32. ⑤ 33. ③ 34. ④ 35. ③ 36. ③ 37. ① 38. ③ 39. ④ 40. ⑤
 41. ⑤ 42. ③ 43. ④ 44. ② 45. ④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발표자는 청중에게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유성 볼펜, 수성 볼펜, 다색 볼펜,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가압 볼펜 등 다양한 볼펜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 청중의 대답에 발표자가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발표자는 볼펜을 화제로 제시하기 위해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발표자는 ‘볼펜의 볼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라고 질문을 한 뒤 볼펜의 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발표자는 발표 대상인 볼펜의 특징이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며 글씨가 써지는 것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볼펜을 만년필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2.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2는 볼펜의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면서 글씨가 써지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볼펜의 구조 중 볼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하여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른 모세관 현상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것은 아니다. ② 자료 2는 본체 끝에 볼이 삽입되어 있는 볼펜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을 뿐, 볼펜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것은 아니다. ④ 자료 3에는 대롱의 끝을 오므려 볼펜의 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자료

가 볼펜의 볼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자료 3을 통해 볼펜이 대롱의 잉크가 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볼펜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은 발표 내용과 무관하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발표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으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대답의 핵심 내용은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만년필 필기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으로는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과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발표자의 대답 내용에 만년필 외의 필기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년필 외에 모세관 현상이 적용되어 손쉽게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를 묻는 ②는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만년필 펜촉의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이는 정도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발표자의 대답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③은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발표자의 대답에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만 펜촉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펜촉의 형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있는 ④는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에 대한 답변이므로, ⑤는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4~7] 화법, 작문

4.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반대 1은 입론에서 ‘인공 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의 평가에 바탕이 되는 정보가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빅데이터를 근거로 할 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편리한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반대 1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지원자

가 불편을 겪거나 면접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②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경제적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찬성 1은 비용 절감의 사례를 활용하여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당장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④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의 평가가 객관적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찬성 1은 기존 면접과 달리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면접에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5.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A]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2의 반대 신문과 그 반대 신문에 대한 찬성 1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반대 2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객관적이라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해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축적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면접관의 주관이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 1은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오랜 기간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하여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지지하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반대 2는 찬성 측이 활용한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면접관의 주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 적합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B]에서 찬성 1은 △△회사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다는 상대측의 진술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④ [B]에서 반대 1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이를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상대측의 근거 자료에 대해 출처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의 찬성 1은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상대측의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인공 지능 면접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B]에서 반대 1은 인공 지능 면접의 확대 추세에 대해 상대측 자료를 인정하면서도, 인공 지능의 한계가 드러나 인공 지능 면접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6.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과제 학습장에는 반대 1의 입론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이 지닌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활용하여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는 글쓰기 전략이 2문단에 대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2문단에는 인공 지능은 도구에 불과하므로 인공 지능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기술적 결함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 첫째 문장에서 인공 지능의 면접 활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둘째 문장에서 인공 지능 앞에서 면접을 치르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말과 행동 이면의 의미까지 고려하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 능력에 대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셋째 문장에서 인공 지능은 빅데이터라는 정보에 기반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기계일 뿐,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인공 지능 면접이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는 찬성 측의 입장에 반박하는 글쓰기 전략을 바탕으로, 4문단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바탕이 되어야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7. 조건에 따른 새로운 내용의 생성

정답해설 : <보기>는 1문단의 첫째 물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둘째 물음에 대해 2문단의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라는 내용이다. ④는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첫째 물음에 대해,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둘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인 ‘주체’, ‘객체’를 사용하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 지능은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이라고 그 관계를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공 지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는 첫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지만,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도구이어야 한다.’를 첫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는 ‘공존’인데, 이 단어는 2문단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다. ③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객체인 인공 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첫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문장은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8~10] 작문

8. 글쓰기 계획의 파악

정답해설 : ㉠은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를 잘 모르는 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지역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도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 1문단에서 ‘초등학생의 80% 이상, 중학생의 60% 이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역 방언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제주 방언을 소멸 직전의 단계인 4단계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하였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은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분석한 것으로, 3문단 첫 문장에서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뒤이어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4문단에서 ‘올갱이, 데사리, 민물고동’ 등의 지역 방언의 예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지역 방언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9. 글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

정답해설 : [자료 2]는 공적인 언어로서의 표준어가 방언 사용 지역에서 사적인 언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이다. [A]는 지역 방언이 사라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단락이므로, [자료 2]를 활용하여 방언 사용 지역에서 표준어 사용 상황이 확대되는 경향을 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자료 1]은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의 언어 의식 조사로, 2010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는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부정적 느낌의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만 가지고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을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 ㉡ [자료 1]에서 표준어 사용자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에는 변화가 없고 그 비율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과 지역

방언 교육 정책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③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료 2]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자료 2]는 공식적 상황에서는 물론 비공식적 상황에서도 표준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식적 상황에서의 표준어 사용 교육 부재'라는 내용은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자료 1], [자료 2]를 통해서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와 지역 방언 사용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대중 매체의 지역 방언에 대한 편향성을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으로 추가할 수도 없다.

10. 고쳐 쓰기의 이유 추론

정답해설 : [고친 글]을 [B]와 비교해 보면, [B]에서 주장만 나열한 문장들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언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등의 근거를 추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시 고친 글]을 [고친 글]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문장이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글 전체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여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추가한 부분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므로, 완결되지 않은 문단을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③ 추가한 부분은 연결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삭제한 문장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지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아니다. ④ 글의 목적이 지역 방언에 대한 보호 촉구이므로 주장만 제시된 [B]에 근거를 추가한 것을 부족한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점검 과정에서는 담화 표지가 아니라 문장 하나를 삭제하고 있다. ⑤ 추가한 부분을 주요 개념 설명을 위한 부연 설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계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은 글의 앞 문단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문장이 중복된 내용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12] 다의어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사이의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은 먼저 다의어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개념을 밝히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지니는 주요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다의어가 중심 의미로 사용될 때에 비해,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하고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데 이때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1. 다의어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눈’의 중심 의미는 ‘감각 기관’이고, ‘눈이 나빠지다’의 ‘눈’은 ‘시력’을 뜻하는 주변 의미이다. 기존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주변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3문단의 진술을 고려할 때, ‘눈’의 기존 의미인 ‘감각 기관’에 비해, 확장된 주변 의미인 ‘시력’이라는 의미가 ‘더 구체적’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다. ‘별’은 중심 의미가 ‘천체의 일부’이고, 주변 의미가 ‘군인의 계급장’이기 때문에 ①은 추론 가능한 진술이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앉다’는 중심 의미가 ‘착석하다’이고, 주변 의미가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이기 때문에 ②는 추론 가능한 진술이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다의어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는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다’의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의 ‘이르다’ 사이에는 의미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다. 전자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이고, 후자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의 뜻을 지니는 형용사로, 이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다의어가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팽이가 돌다/팽이를 돌리다’에 쓰인 ‘돌다’에 비해 ‘군침이 돌다’에 쓰인 ‘돌다’는 사동형 ‘군침을 돌리다*’가 불가능한 문법적 제약을 지닌다. 이를 감안할 때,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12. 다의어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민수가 말한 ‘빚쟁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는 반면, 영희가 말한 ‘빚쟁이’는 ‘빚을 진 사람’을 뜻한다. 즉 다의어 ‘빚쟁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희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를 뜻하는 반면, 민수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를 뜻한다. 즉 다의어 ‘금방’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영희가 말한 ‘돈’과 민수가 말한 ‘돈’은 둘 다 ‘화폐’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의 ‘뒤’와 ‘발표 끝난 뒤에’의 ‘뒤’는 둘 다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다음이나 나중’을 뜻한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3. 음운 변동과 음절 유형 이해

정답해설 :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ㄱ’이 ‘ㅇ’으로 교체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국(㉔)’, ‘궁(㉔)’이어서 변화가 없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ㅅ’이 ‘ㅍ’으로 교체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상(㉔)’, ‘쌍(㉔)’이어서 변화가 없다. ㉒ ‘집일[짐닐]’에서의 [닐]은 ‘ㄴ’이 첨가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일(㉓)’ → ‘닐(㉔)’로 달라졌다. ㉓ ‘의복함[의보감]’에서의 [감]은 ‘ㄱ’과 ‘ㅎ’이 ‘ㄱ’으로 축약된 결과이지만, 음절 유형은 ‘함(㉔)’, ‘감(㉔)’이어서 변화가 없다. ㉕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활 + 살’의 과정에서 ‘ㄹ’이 탈락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활(㉔)’ → ‘화(㉒)’로 달라졌다.

14. 품사 및 시간 표현 이해

정답해설 : ㉑의 ‘남은’은 동사 ‘남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은 ㉑에 해당한다. ㉒의 ‘찬’은 ‘이미’라는 부사로 짐작할 수 있듯이 동사 ‘차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도 ㉑에 해당한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㉑ ㉑의 ‘뜯은’은 동사 ‘뜨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은 ㉑에 해당한다. ㉒ ㉒의 ‘부르던’은 동사 ‘부르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된 경우이다. ㉓의 ‘푸르던’은 형용사 ‘푸르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된 경우로, 이때의 ‘-던’은 ㉑에 해당한다. 따라서 ㉓의 ‘푸르던’만 ㉑에 해당한다. ㉔ ㉔의 ‘읽는’은 동사 ‘읽다’의 어간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㉑에 해당하지 않는다. ㉕ ㉕의 ‘빠른’은 형용사 ‘빠르다’의 어간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은 ㉑에 해당한다.

15.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㉑의 ‘나리’는 ‘날 + 이’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경우(㉑)이다. 마찬가지로, ㉒의 ‘아드리’는 ‘아들 + 이’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경우(㉑)이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㉒의 ‘太子(태자)’에는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太子(태자)’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는 음운 조건이 아니므로, 만일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았다면 ㉡처럼 ‘太子ㅣ’로 나타났어야 한다. ㉡의 ‘ㄷ리’는 ‘ㄷ리 + ∅’로 모음 ‘이’ 다음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에 비해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 ‘孔子ㅣ’는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인, ‘孔子(공자)’의 ‘ㅏ’ 다음에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난 경우이다.

[16~20] 독서

[16~20] 인문,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와는 다르게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한 베이지주의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베이지주의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 글에서는 조건화 원리가 적용될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정도가 변화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여 믿음의 태도를 보다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주제] 조건화 원리에 따른 믿음의 정도 변화 양상

1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베이지주의자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베이지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베이지주의자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

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아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가 그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베이즈주의자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베이즈주의는 조건화 원리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을 언급하였다. 또한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하였다고 언급하고 임의의 명제에 대하여 각 인식의 주체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보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1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태도에 강하거나 약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것처럼 임의의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 이들은 ‘베이즈주의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각 인식 주체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은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을이 ㉠이라면 을은 동시에 ㉡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은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각 인식 주체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은 을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은 믿음의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8.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베이스주의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베이스주의의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화 원리가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고 볼 수 없다. ③ 2문단에서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⑤ 1문단에서 베이스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각 인식 주체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2문단에서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될 경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서,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베이스주의의 정교한 설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화 원리의 적용 여부가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없으므로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1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은 ㉡와 관련이 있는 명제로, 2문단에 언급된 조건화 원리에 따라 ㉠이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 정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이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한다. 병과 정의 ㉠을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더라도 ㉠을 알게 된 후에 ㉡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새롭게 변하는 것이므로 ㉠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병이 ㉡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보기>에서 병과 정의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고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는 명제 ㉡에 대해 병과 정의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병이 참이라고 ㉠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그 수첩에 병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병과 정의 명제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보기>에서 병과 정의,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으므로 병이 참이라고 새롭게 ㉠만을 알게 된다면, 그 수첩은 병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 ㉠을 알게 된 후에 ㉠을 추가로 알게 된다면, 병의 이름이 적혀 있는 흰색 수첩은 체육관에 있을 수도 있고, 병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을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조건화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병이 ㉠과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과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따라’는 모두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가졌다’는 ‘모임을 치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은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봐’는 ‘말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은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얻은’은 ‘병을 앓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은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바꿨다’는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신 그에 필적할 만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1~25] 문학

[21~25] 고전 시가 - (가)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나) 고전 수필 - (나) 권근, ‘어촌기’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충청도 예산으로 돌아와서 창작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서사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소회를 제시한 후 본사에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풍경과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재미, 풍요로운 전원생활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결사에서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일상적 시어를 통해 농촌 생활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전원생활의 즐거움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나랏일에 몸이 매여 있으면서도 강호를 그리워하는 공백공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연의 낙을 즐기며 자유로운 정신 상태를 지향하려는 사대부들의 강호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공백공이 지향하는 어부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이러한 어부의 삶을 지향하는 공백공의 모습을 통해 번속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강호에 묻혀 살려는 신흥사대부의 풍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 강호에 머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

2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나)의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하며 때때로 낚싯대를 잡고 노를 저어 조류에 따라 강물을 오르고 내리다가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강 가운데를 흘러 경치를 완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삶의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에는 게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흘고 있는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나타나 있으며, ㉡에는 공백공이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여기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에서 화자는 초가를 비추고 있는 빛이 임금이 계신 옥루도 비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서 공백공은 자신이 탄 배가 흰 물결을 일으키고 달빛을 헤치고 나가면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잔을 기울이는 것을 술잔에 비치어 있는 달빛을 기울인다고 말하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운치 있게 나타내고 있다. ㉥에는 공백공이 벗과 함께 구운 고기와 생선회를 안주로 술을 마시는 흥겨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춘하추동의 경치가 아름답고 낮과 밤, 아침과 저녁에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이 새롭기 때문에 몸은 한가하지만 귀와 눈이 바쁘다고 말하며 변화하는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서 공백공은 그물을 건어 올릴 때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를 가진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누렇게 곡식이 익은 들판, 게를 잡는 아이들과 물고기를 파는 어부의 모습 등을 통해 가을날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생리라 괴로오라’를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만경 황운’은 아주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는 가을날 추수를 앞둔 들판의 모습을 ‘만경 황운’에 빗대어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중앙절이 다가왔다고 말하며 ‘내놀이’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을날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청유형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③ 화자는 가을이 되어 붉은 게가 여물었고 노란 닭이 살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④ 화자는 밝은 ‘밤불’ 속에서 게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과 밀물이 밀려오는 호두포의 모습을 묘사하며 가을날 전원생활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23.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공백공은 낮과 저녁, 깊은 밤, 그리고 여름날과 겨울날의 강물의 풍경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한 후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백공의 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③ 공백공은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부의 즐거움은 때가 없다' 등과 같이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공백공이 대화의 상대인 '나'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공백공은 강호에 뜻을 두고 노래에 의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묻고 있을 뿐,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공백공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시간에 따라 제시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작가는 공백공이 자신과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늦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아우라고 부른다고 언급한 후,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껴 그 말을 기록하여 공백공에게 보낸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은 그의 사욕 없는 마음과 사물을 초탈한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백공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와 달리 영화에 매달리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와 달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유유자적을 즐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공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작가는 자신이 공백공의 말을 기록한 것이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라 밝힌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공백공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백공은 강태공이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태공과 주 문왕이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을 기약할 수 없으며, 엄자릉은 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엄자릉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의미한다. ⑤ 작가는 공백공이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는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그의 음성은 맑고 밝아 천지에 가득 찰 듯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백공에 대한 이러한 작가의 평가는 공백공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2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는 ‘강호 어조’와 한 맹세가 깊지만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강호의 은거를 긍정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공백공은 자신의 몸은 비록 관직에 있지만 뜻은 강호에 두고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에 미련을 간직하고 있음은 드러나지만,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은 확인할 수 없다. ㉡에서 공백공은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드러낼 뿐, 그 이유가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에서 화자가 늙음으로 인해 정치 현실을 체념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의 이상 실현을 위해 임금께 맹세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며,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지니게 되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

[26~29] 독서

[26~29] 과학,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지문해설 : 이 글은 손상된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를 대체하는 장기 이식의 종류와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한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식편은 이식을 통해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식편을 이용하는 ‘동종 이식’을 실시할 경우 면역적 거부 반응이 수반된다. 한편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의 경우,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 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이종 이식편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과 관련한 다른 문제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문제가 있는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

는 세포 안에서는 활동하지 않다가 이종의 세포 속에 주입되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세포를 감염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주제] 장기 이식과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한 연구

2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 RNA를 DNA로 바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개체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진다.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유전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될 경우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5문단에서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생식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는 추가 전력 공급과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은 정기적인 교체라는 단점을 갖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으로 비용을 낮추어 정기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의 내용을 통해 개체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④ 3문단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는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 전반에서 이식편이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해 체내에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문제는 이종 이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동종 이식편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이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이식편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이러한 전자 기기 인공 장기가 아니므로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②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1문단에서 언급한 개체 사이의 MHC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MHC 차이에 의해 유발된 면역적 거부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5문단에서 이종 이식의 문제점인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DNA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므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수혜자에게 이식된다고 하더라도 이종 이식으로 인한 초급성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살아남아,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레트로바이러스(㉡)는 4문단에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을 시키고, 이후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 복제, 증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4문단에서 ㉔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으며,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다고 언급되어 있다. ㉓ 4, 5문단에서 ㉓은 자신에 속해 있는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㉔은 4문단에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감염을 시키고,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며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㉔의 작용은 1문단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㉕ 4문단에서 ㉕이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㉔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아,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역전사를 통해 자신의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DNA로 바꾼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㉕ 4, 5문단을 ㉕은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될 경우 ㉔으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㉕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고 볼 수 없다.

[30~32] 문학

[30~32] 현대 소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서술자 '나'가 자신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는 범인이 위층의 젊은 여자(서미혜)임을 알게 되고, 그녀를 계기로 영화 '자전거 도둑'을 떠올리며 아버지와 흑부리 영감에 얽힌 일화들을 통해 유년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그려낸 이야기이다. '나'는 캐리멜과 관련된 일화를 떠올리며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상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건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흑부리 영감을 찾아간 사건과 그 과정에서 대면한 흑부리 영감의 몰인정한 모습,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 등을 떠올리며 유년 시절 자신이 겪었던 내면의 상처를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상처와 삶의 쓸쓸함

3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글에서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에게 물건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소주 스무 병 값을 치르고 열여덟 병만 들고 오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와 아버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흑부리 영감은 막무가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덧붙인다. 마지못해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가게로 돌아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른 이유가 그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열여덟 병만 온 것을 확인한 아버지의 얼굴이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당황한 내색을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가게에 있던 캐러멜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은 '나'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리꽂고 혼내는 장면을 통해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흑부리 영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준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나'의 기분과 무관하게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다녔음을 추측할 수 있다.

31.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흑부리 영감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인 데 반해, '나'는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구멍가게로 돌아와 기어코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둘 사이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흑부리 영감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나'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는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 흰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애정을 확인하며 그것이 아버지의 '생존 이유'였음을 짐작하고 있다. ② 아버지가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와 같은 이유를 대며, '닐름 털어 넣지 못하겠니'라고 권하는 모습을 통해 '나'에 대한 미안함을 서툴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③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등을 통해 궁핍으로 인한 '나'의 내면의 상처를 추측할 수 있다. ④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흑부리 영감의 매몰찬 태도는, 어린 '나'에게 이해타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32. 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은 아버지가 구멍가게로 돌아와 열여덟 병의 소주를 쓰다듬으며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다. <보기>에 진술된 서술 방식 중,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유년 ‘나’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첫째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이라는 표현에서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둘째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독자는 유년 ‘나’가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서 있었던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③ ㉠을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으므로 독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④ ㉠을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으로 본다면, 독자는 흑부리 영감이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침을 튀기며 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33~36] 문학

[33~36]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유효공선행록」의 후편으로, 삼대록계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상층 가문의 품격 높은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이다. 유씨 가문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3대에 걸쳐 유장하게 펼쳐져 있으며, 가문의 창달과 번영은 물론 인생살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밀도 있게 보여 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제] 유씨 가문 3대의 이야기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선생 형제)은 이 일을 문책하고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찾아가 곡절을 말하고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백공은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다. 이로 인해 한림(유세기)이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

다. ② 백공이 거짓말로 일을 꾸미고 ‘정약’이라는 글자를 더한 탓에,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문책하였다.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이다. ④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엄히 꾸짖었다. ⑤ 백공이 한림의 특출함을 아껴 딸의 배필로 삼으려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이 때문에 한림은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34.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장 씨는 낭군(유세형)에게 공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게 되었다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 씨가 유세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A]는 장 씨의 생각을 드러낸 장면으로, 대화 상대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장 씨가 한스러움을 느끼게 된 사건, 즉 유세형이 부마가 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B]는 장 씨가 공주의 위세로 인해 억눌림을 당하고 슬픔을 느낀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A]의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B]의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웁니다.’는 공주의 위세로 억눌림을 당하는 장 씨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A]의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공주에 대한 장 씨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B]에는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라는 의문형 표현이 있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A]에서 장 씨는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고 하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B]에서 장 씨는 진양궁에서 궁비와 시녀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일 등의 지난 일을 토로하며 자신의 신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35.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장 씨는 ㉠에서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자신이 천대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며 슬픔과 한스러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장 씨의 모습을 본 유세형은 장 씨에게 애정을 느끼고 ㉡을 떠나지 않고 신혼의 정을 나누었다. 장 씨의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었던 ㉠이 장 씨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인 ㉡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 씨가 ㉠에서 학문을 연마하지는 않았으며, ㉡에서 덕행을 닦지도 않았다. ② 장 씨는 ㉠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픔을 토로하였다. ㉡에서 장 씨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도 않다. ④ 장 씨는 ㉠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만 계획을 꾸미지는 않았다. ㉡은 장 씨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⑤ 장 씨가 ㉠에서 일의 선후 시비를 따지고 있지는 않다. 장 씨는 항거할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신세가 구차하고 슬프게 되었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 씨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은 장 씨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다.

3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은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하여 가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유세기가 가법을 어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백공의 거짓말로 인해 ‘ 좋지 않은 일 ’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하게 된 것은 유세형이 장 씨를 가련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를 문책하고 내쫓은 것,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장 씨가 천대를 받고 한스러움을 느낀 것은 모두 가문의 혼사와 관련된 것으로,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관여하여 유세기를 문책하였다. 또한 백공에게 곡절을 들은 후에 ‘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라고 하였다.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선생과 승상 등 가문의 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④ 백공은 유세기를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일을 꾸몄다. 천자 역시 유세형을 부마로 뽑았다. 혼인의 당사자가 아닌 혼인 당사자의 부친이 혼사를 주도한 것으로, 혼사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유세기는 선생과 승상의 명령을 받들어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썼으며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였다. 이는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일이 해소되고, 유세기와 관련된 혼사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37~42] 독서

[37~42] 융합(법, 경제), ‘ BIS 비율 규제로 살펴보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

지문해설 : 이 글은 조약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규범인 국제 관습법

과 대비하여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기구 결정의 사례로 BIS 비율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 BIS 비율은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으로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 협약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는데,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결정된다.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고,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바젤 기준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주제] BIS 비율 규제와 관련한 바젤 협약의 변천과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37.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의 내용을 ‘바젤 I’ 협약, ‘바젤 II’ 협약, ‘바젤 III’ 협약의 순서로 제시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인 조약이나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국제 관습법과 대비하여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젤 기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IS 비율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이 2문단에서 설명되고 있긴 하지만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BIS 비율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이 2문단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이 설명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 역시 설명되고 있지 않다. ⑤ 글의 핵심 화제인 BIS 비율 규제의 주체는 바젤위원회뿐이므로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3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신뢰가 구속력을 형성하는 BIS 비율 규제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조약이나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인 국제 관습법은 ‘딱딱한 법’이고, 이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BIS 비율 규제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은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

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라는 내용이 1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4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바젤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지 못해 재무 건전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5문단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이 국제기구의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 결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젤위원회의 바젤 기준을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법제화하는 것은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시장에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5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39.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바젤 I' 협약에서는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바젤 II' 협약에서도 유지된다. '바젤 II' 협약에서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으로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내부 모형의 경우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 모두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바젤 I' 협약은 회사채에 위험 가중치 100%를 획일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에도 위험 가중치나 위험가중자산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BIS 비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바젤 II' 협약은 감독 기관이 필요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채의 위험 가중치는 0%에서 150%까지이고,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20%에서 150%까지이다. 만약 위험 가중치가 낮은 국채를 매각하고, 이를 위험 가중치가 높은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위험가중자산이 더 커지므로 BIS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⑤ '바젤 III' 협약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였다. 바젤위원회의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결정되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완자본의 비율이 2%가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기본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 BIS 비율을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완자본의 비율이 1.5%라고 할 때 기본자본의 비율이 6.5% 이상이면 BIS 비율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6%를 넘겨야 한다는 ‘바젤Ⅲ’ 협약도 충족시킨다. 따라서 ‘바젤Ⅲ’ 협약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바젤Ⅲ’ 협약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도록 하고 있다. 갑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변동 없이 1,000억 원이고, 기본자본은 50억 원이므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은 $(50/1,000) \times 100 = 5\%$ 가 된다. 따라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완자본의 증액 여부는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갑 은행은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바젤Ⅱ’ 협약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110억(50억+20억+40억) 원이고, 위험가중자산은 1,000억(300억+300억+400억) 원이므로 BIS 비율은 $(110/1,000) \times 100 = 11\%$ 가 된다. 따라서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인 8%를 상회한다. ② <보기>에서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만약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은 줄어든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면 BIS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는 가정하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국채나 회사채 모두 동일하게 300억 원이 된 상황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 된다. 만약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큰 1,000억 원이라 가정할 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300억 원이므로 국채의 위험 가중치는 30%가 된다. 즉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보다 낮다. ④ <보기>는 ‘바젤Ⅱ’ 협약에 따라 발표한 표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에 위험 가중치 50%를 곱한 값이 300억 원이다. 따라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젤Ⅰ’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100%이므로 ‘바젤Ⅰ’ 협약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600억(600억×100%) 원임을 알 수 있다.

4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본문의 밑줄 친 ㉠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은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

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이고,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기준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젤위원회가 바젤 기준을 국제 금융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시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구속 받지 않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기준의 준수 의무가 있는 회원의 국가가 바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준의 준수 의무가 없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바젤 기준을 지키는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과 반대되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바젤위원회 헌장은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회원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의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2.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해설 : 국제 금융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으므로 ‘발을 들이지’를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계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영하여 산출하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BIS 규제 비율은 적어도 8%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은 ‘8%가 넘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⑤ ‘딱딱하게 응고될지’는 ‘말랑말랑한 법’이 ‘딱딱한 법’의 모습이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말랑말랑한 법’에 대비되는 ‘딱딱한 법’에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해당하므로 ‘딱딱하게 응고될지’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로 바꿔 쓸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시 - (가)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김기택, '새'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출발점과 종점을 알 수 없이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4연에서 '시대'를 언급한 것을 통해 이 괴로움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5, 6연에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중에 반석과 언덕 위에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도시적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을 인식하던 새는, 이내 새장 속의 생활에 적응하여 새장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 않고 닭처럼 걷는다. 이는 비상을 위한 날개의 기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새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상을 잊은 채 폐쇄되고 억압된 삶에 익숙해진 새의 모습은,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력과 본질을 잃고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4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에서 '없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고,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불러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고 떠올린 여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제시 글에서 ‘바람’을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에서 ‘바람’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의 속성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에서는 ‘바람’이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바람’의 흔들리는 속성이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괴로움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에서는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과 새장 안의 폐쇄된 공간을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가 새장에 갇힌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에서는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에서는 ‘아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창살 사이의 바람을 쫓는 새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보기>는 ‘새장에 갇힌 새’를 통해 이 작품이 일상 속에서 잠재력과 본질을 잃고 자유의 가치를 잃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 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의 모습은, 일상에만 충실하게 살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은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새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의 구절을 통해, 창살에 부딪친 후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새의 모습이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의 모습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지는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은, 마치 날지 않아서 날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닭과 유사하다. 이는 새장 안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비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는 데 그치고 마는 새의 모습을 통해,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7. ③ 08. ③ 09. ② 10. ①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① 17. ④ 18. ②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② 27. ② 28. ② 29. ② 30. ⑤
 31. ④ 32. ③ 33. ③ 34. ② 35. ⑤ 36. ④ 37. ⑤ 38. ③ 39. ② 40. ③
 41. ① 42. ② 43. ④ 44. ⑤ 45. ④

[1~3] 화법

1. 연설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연설자는 연설 도입 부분의 ‘여러분, ~ 떠올려 봅시다.’, 연설 마무리 부분의 ‘건강한 지구를 ~ 동참합시다.’와 같이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갖자는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019년 통계에 따르면’과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설자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갖자는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연설자는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와 같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하지만 ~ 뛰어납니다.’와 같이 반박하여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연설자는 연설 도입 부분에서 청중과 공유하는 환경의 날 행사 때의 경험을 들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⑤ 연설자는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처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연안 생태계의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연설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연설자는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하자고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연설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연설 관련 그림 자료 및 이에 대한 설명 내용은 ‘연안의 염생 식물과 ~ 블루카본이라 합니다.’라는 연설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그 동안 우리나라는 ~ 힘써 왔습니다.'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한다. ③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한다. ④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한다.

3. 연설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해설 :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연설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에 공감한 학생이 '㉠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하는 말로는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② 연설 내용에 따르면 블루카본은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저장한 탄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는 연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말이다. ③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연설의 취지이므로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는 연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말이다. ⑤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연설의 취지이므로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자.'는 연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말이다.

[4~7] 화법, 작문

4. 화법과 작문의 다양한 성격 이해

정답 해설 : (가), (다)와 달리 (나)는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참여자들('학생1~3')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는 (나)만 해당한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나)의 '(고개를 끄덕이며)'처럼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는 개인이 등교할 때 발생한 자신의 경험을 다룬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의 게시글인 반면, (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공동의 문제에 대해 건의하는 '학교 게시판'의 게시글로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가)보다 (다)에서 '-입니다'와 같이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② (나)에서 '홈피'라고 지칭된 대상이 (다)에서는 '홈페이지'라고 지칭되는 부분에서 일상 대화보다는 줄인 말을 잘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다)보다 (나)에서 조사의 생략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부분에서 공식적인 글보다 조사의 생략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는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의 게시글이고, (다)는 '학교 게시판'의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가), (다) 모두 '문어 상황'이지만 (가)에서는 '되게', '친구하고'처럼 구어적인 특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나)와 유사한 구어적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학생 2'는 [A]에서 '학생 1'의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라는 의견에 대해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B]에서도 '학생 2'는 '학생 1'의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갯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이라는 발화를 듣고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와 같이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와 같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1'은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갯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와 같이 자신과 관점이 같은 다수의 학생이 있음을 언급하여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3'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조하여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6. 건의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은 □□경찰서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체적 수치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은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보기>의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에 해당하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자가용 등교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므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예상 독자의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⑤ ㉡은 현재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희망을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7. 건의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해설 : (나)에서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과 같이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에서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여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먼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가용 등교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는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제시하는 건 어때?’와 같이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고 있으며, (다)에서는 ‘오늘 아침 ~ 안전했나요?’와 같이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하여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와 같이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에서는 3문단의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와 같이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와 같이 자가용 등교 자제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에서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 갖게 될 것입니다.’와 같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

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⑤ (나)에서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가용 이용 자제’와 ‘주변을 살피며 등굣길 걷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에서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와 같이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8~10] 작문

8.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자료3>은 2004년이라는 ‘연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나)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작성된 ‘초고’는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작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초고’의 2문단과 3문단에서 물을 마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료1>의 ‘내용’인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은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② ‘초고’의 1문단에서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학생들의 인식과 달리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료2>의 ‘내용’인 ‘물 중독 사례’가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④ <자료4>의 내용인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은 ‘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⑤ <자료4>는 ‘연례 보고서’라는 보고서의 성격과 2013년이라는 ‘연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나)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9.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해설 : 1문단의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의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을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의 ‘피로감이 커지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의 ‘연구팀은 ~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다.’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법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의 ‘목이 마를 때 ~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보기>에 제시된 조건은 첫째,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과 둘째,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하는 것’이다.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라는 문장은 첫째 조건을,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은 둘째 조건을 충족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 물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③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거나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문장은 물을 마시는 양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목마르지 않는데 마시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도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의 긍정적인 가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도 그러하다.’라는 문장은 물을 마시는 양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1~15] 문법

[11~12] 담화 응집성에 필요한 형식적 장치와 의도를 드러내는 문법 요소

지문 해설 : 이 글은 담화의 개념을 밝히고 담화가 내용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 내의 발화나 문장들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담화 내의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형식적 장치인 지시, 대용, 접속 표현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담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는데, 이 글에서는 높임 표현과 문장 종결 표현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지시, 대용, 접속 표현과 의도 구현에 활용되는 문법 요소

11. 담화의 특성

정답 해설 : ㉠의 ‘거기’는 영선의 발화에 언급된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는 내용상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주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② ㉢의 ‘거기’는 영선의 발화에 언급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③ ㉣의 ‘여기’와 ㉤의 ‘거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선희가 보여 준 사진에 등장하는 ‘해수욕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 ④ ㉥의 ‘그리고’는 두 발화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2. 높임 표현 및 문장 종결 표현

정답 해설 :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화자는 ‘드리-’를 통해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의 의미를 고려할 때,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화자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화자는 높임의 어휘 ‘계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⑤ ‘-렴’은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고 오는 행동을 청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13.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 해설 : 선행 체언인 ‘아바님(아버님)’은 존칭의 대상인 유정물이기 때문에 ㉠은 관형격 조사 ‘스’이 쓰인 ‘아바님 곁’이 되어야 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선행 체언인 ‘그럭(기러기)’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이고 음성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인다. ③ 선행 체언인 ‘아들(아들)’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이고 양성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이’가 쓰인다. ④ 선행 체언인 ‘수풀(수풀)’이 무정물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스’이 쓰인다. ⑤ 선행 체언인 ‘등잔(등잔)’이 무정물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스’이 쓰인다.

14. 문장의 짜임

정답 해설 : ㉠이 서술어인 문장은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인데, 여기에서는 ‘주기적으로 운동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주격 조사 ‘가’와 함께 쓰여 주어의 기능을 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다)’인데, 여기에는 명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원하(다)’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④ ㉢이 서술어인 문장은 ‘(계획(을)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인데, 여기에서는 ‘계획(을) 세우-’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⑤ ㉣이 서술어인 문장은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하(다)’인데,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 세우-’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주격 조사 ‘가’와 함께 쓰여 주어의 기능을 한다.

1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띄어쓰기)

정답 해설 : ㉠의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의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들 조사들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한편, ㉣의 ‘뿐’은 ‘다만 어떠한거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뿐’이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정답 ㉤

[16~21] 독서

[16~18] 인문 - (가)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 (나) ‘과거제의 부작용과 개혁 방안’

(가) 지문 해설 : 이 글은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킨 제도이다. 과거제는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기여하여 지식인 집단을 폭넓게 형성하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선교사에 의해 유럽에까지 전해진 과거제는 세습적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서구의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주제]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과거제

(나) 지문 해설 : 이 글은 과거제의 부정적 측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자들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제는 사회적 유동성의 확대라는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만 매달림으로써 재능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관리들이 출세 지향적 성향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성과만 중시하여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주제] 봉건적 요소를 접목하여 과거제를 보완하려는 개혁론의 등장과 그 배경

1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 (가)의 3, 4문단에서는 과거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안정과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음을 ‘~(으)로써 ~ 증대시켰다/기여했다’ 등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유)으로 과거제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과거제로 인해 합격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학습, 인재들의 재능 낭비 문제와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익명성에 대한 회의를, 3문단에서는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능력주의적 태도의 문제점과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인한 부정적 모습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의 등장과 관련하여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는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과거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나) 역시 과거제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했던 유형원, 고염무, 황종희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과거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구체적인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여 과거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④ (나)는 과거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과거제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글로 과거제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나)는 과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나 과거제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최종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인 과거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떨어진 사람들도 지방의 관료로 채용되기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문단에서 과거제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과거제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의 앞부분에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언급하였다. 인성이나 실무 능력은 그 사람의 됴됨이와 관련되므로 ㉡은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 ㉠으로 인해 응시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은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가)에서는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하였다. 한편 (나)에서는 관료 선발에 봉건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의 등장 배경 중 하나로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다는 설명도, ㉡이 관직의 세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 과거제는 고전과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의 하나이므로 ㉠으로 인해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은 과거제를 통한 관료 선발의 부정적 측면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로 인해 ㉡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은 과거제가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2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병’은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제는 고전과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을 평가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실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답 ㉤**

[오답 피하기] ㉠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갑’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가)

의 2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주의적 시험인 과거제가 지닌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성격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을’이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을 안타까워한 것은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③ ‘을’은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제 하에서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로 시험이 치러진 것에 주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병’은 책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㉔의 ‘매달리다’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려 있다.’의 의미이다.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의 ‘매달리다’ 역시 동일한 의미이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㉓의 ‘두다’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이다. ‘열쇠를 방 안에 두고’의 ‘두다’는 ‘일정한 곳에 놓다.’의 의미이다.

② ㉖의 ‘되살리다’는 ‘죽거나 없어졌던 것이 다시 살다.’의 의미로 쓰이는 ‘되살다’의 사동형이다. ‘기억을 되살렸다’의 ‘되살리다’는 ‘잊었던 감정이나 기억, 기분 따위가 다시 일다.’의 의미로 쓰이는 ‘되살다’의 사동형이다.

③ ㉔의 ‘걸치다’는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 이어지다.’의 의미이다.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의 ‘걸치다’는 ‘가로질러 걸리다.’의 의미이다.

⑤ ㉕의 ‘어렵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의 의미이다. ‘형편이 어려울수록’의 ‘어렵다’는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의 의미이다.

[22~24] 문학

[22-24] 현대시 - (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가) 지문 해설 : (가)는 광복 후 민족의 미래를 고고한 태도로 모색하는 지사적 풍모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광복의 기쁨 가운데, 수난을 겪었던 과거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성찰하고 있다. 절제된 어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나) 지문 해설 : (나)는 도심 속 나무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처와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도시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화자는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 있는 가로수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이는 삭막한 도시의 환경에서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에서 도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무의 삶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으며,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2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숨으라', '사양하라'에서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인 '새별', '사슴과 토끼'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도시가 나무에게 /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 붕붕거린다는 것, ~ 뜯어 먹는다는 것', '나무는, 알고 보면 / 치욕으로 푸르다' 등에서 도시에서 꽃을 피운 나무의 모습에 대한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시월상달'을 통해 계절감을 연상할 수는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서 '도시'의 '도로변'이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가)에서 '높으디높은 산마루', '떠오르는 햇살'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이나 화자가 바라는 지향점 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므로 자연의 위대함을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서 '붕붕거린다는 것', '아삭아삭',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나무'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의 '나래 떨던 새별아 숨으라'에서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에서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무를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에서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은 없다. (나)의 '참을 수 없다 나무는'에서 도치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의 맥락과 주제 의식을 고려해 볼 때,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다.

2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 해설 : [A]의 '무엇'은 화자가 '울'면서 '간구'한 대상으로 화자가 과거에 염원했던 것이고, [B]의 '무엇'은 [A]에서 '간구'했던 '무엇'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래 떨던 샛별'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대상을 의미하고 '향기로운 싸릿순'은 평화로운 세계에서 대상들이 서로 '사양'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B]에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A]에서 화자는 '못 박힌 듯 기대어' '울어 왔'다고 했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B]에서 화자는 '옷자락을 날리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A]의 '긴 밤'은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던 부정적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B]의 '맑은 바람 속'은 화자가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2연의 '이 아침'에 '시들은 핏줄의 굽이굽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온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피리의' '가락을 더듬'은 후에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보기>의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치욕으로 푸르다'는 척박한 도시 환경에서도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기 위해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나무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욕으로 푸르다'를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의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들뜬 뿌리라도 내리'려는 화자의 모습은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한 나무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의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와 연관 지어 감상할 때,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의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시

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25~28] 독서

[25~28] 기술 -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 해설 : 이 글은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의 흔들림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인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은 이미지 센서에 닿는 빛의 세기 변화를 자이로 센서가 감지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고, 제어 장치가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영상을 안정화하는 기술이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발생한 힘으로 렌즈를 이동시켜 영상의 흔들림을 감소한다. 이외에도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흔들림을 감소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한편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영상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연속되는 프레임들에서 특징점의 위치 차이를 계산하여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특징점의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OIS 기술은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의 한계로 인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반면 DIS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 시간이 길어지고 보정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한 경우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떨어질 수 있다.

[주제]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과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

2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프레임 간 피사체의 위치 차이를 줄여 영상을 보정한다.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영상을 보정하는 기술은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의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를 통해,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의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를 통해,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와 2문단의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를 통해, 손 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고, 보정 기능이 없다면 이러한 빛의 세기 변화로 인하여 영상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빛의 세기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따라서 자이로 센서가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것은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이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이다. 또한 이미지 센서에 피사체의 상이 맺히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빛의 세기에 비례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되므로,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것은 영상이 아니라 피사체의 상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의 구성 장치 중에는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가 있으며, 보이스코일 모터는 렌즈를 움직여서 동영상을 보정하는 장치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문단의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발생한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4문단에서 OIS 기술은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3문단에서 코일에서 발생한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는 방법과 이외에도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상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7.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특징점으로는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 선택되므로,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

다. 또한 특징점으로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도 선택되므로,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작을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한편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리므로,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시간은 늘어난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③, ⑤ 특징점들의 수와 보정에 필요한 프레임의 수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특징점들이 많아지더라도 보정에 필요한 프레임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2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DIS 기능을 통해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을 잘라내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 ㉠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이는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IS 기능에 의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특징점은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부분은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빌딩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각 특징점들의 ㉡, ㉢ 프레임 간 위치 차이를 계산하여 ㉠을 보정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④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 ㉢ 모두 OIS 기능으로 손 떨림이 보정된 프레임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피사체가 기울어진 이유는 렌즈의 이동 범위의 한계로 인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OIS 기능은 카메라로 촬영할 때 작동하는 기술이므로, 촬영이 끝난 후에는 OIS 기능으로 ㉠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에서 피사체가 기울어진 것을 보면 ㉡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로 보정하기 전이므로 DIS 기능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29~33] 독서

[29~33] 사회 - '지식 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지문 해설 : 이 글은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 즉 지식 재산의 보호 문제와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식 재산으로 수입을 거두는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ICT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각 국에 세워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며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서도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통한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며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주제] 디지털세 도입의 배경과 지식 재산 보호

29.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 3문단에서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4문단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상이한 국가별 입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1문단에서는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영업 비밀의 범위와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함은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법인세의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는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로열티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

30.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 2문단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하는 것은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불거진 결과이므로 디지털세의 도입은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 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ICT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3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 Z사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세운 자회사를 ㉠라 하고, 법인세율이 A보다 높은 B국에 세운 자회사를 ㉡라고 할 때,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로 하여금 ㉠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CT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는 ㉠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해야 하므로 ㉠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의 이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인 ㉡의 수입이 많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로 하여금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CT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⑤ 2문단에서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로 하여금 ㉠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하여 ㉡의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이윤을 최소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는 ㉠에 비해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높고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고,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3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A]에서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어 접근 비용을 줄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A]에 따르면,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중시할 수 있다. 따라서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지적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목적으로 <보기>의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② [A]에서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④ [A]에서 소개한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보기>의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라고 하였으므로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을 때보다 낮아졌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⑤ [A]에서는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 즉 유인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즉 접근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3.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 해설 : ICT 다국적 기업인 Z사는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수입 중 일부를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의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출하도록 하여 A국의 자회사의 수입을 늘린다. 2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국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하였으므로 Z사가 A국에 세운 자회사는 이윤이 늘어나도 법인세를 적게 낼 것이다. 따라서 Z사는 B국의 자회사는 이윤을 최소화하여 내야 할 법인세를 줄이는 반면 A국의 자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므로 ㉔를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로 바꿔 쓸 수 없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ICT 다국적 기업인 Z사는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B국의 자회사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이윤은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의 이윤은 늘리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㉔를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ICT 다국적 기업인 Z사는 ㉔의 과정에서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㉔를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㉔는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B국의 자회사가 A국의 자회사에 지출하는 로열티는 제반 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㉔를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로 바꿔 쓸 수 있다.

[34~37] 문학

[34~37] 현대 소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1990년대 후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인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을 '전(傳)'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차용하여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향토적인 방언과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마을의 굶은일에 열성을 다하는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과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대비하고 있는데, '전'의 형식은 현대인들의 메말라 가는 인정을 풍자하고 암울한 농촌 현실을 효과적으로 고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주제] 이타적인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㉔에서 '민 씨는 모른다'는 앞서 황만근이 말한 '팔죽 할머니'에 대해 민 씨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부분으로, 이를 통해 황만근의 이야

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이 들려준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② [A]의 황만근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라는 구절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B]의 토끼의 '말'은 [A]에서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기이한 체험의 이야기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B]의 '말'을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이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황만근의 집으로 들어온 '어떤 처녀'로 [B]에는 '어떤 처녀'의 말이 제시되지 않는다. ⑤ 평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바보 취급했다는 점과 [B]의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구절을 고려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A]에서 황만근이 들려준 '이야기'를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⑤ 황만근의 어머니는 밥 덩어리로 인해 목이 막혀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만, 집에 도착한 황만근이 어깨를 흔들면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하게 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황만근의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을 황만근에게 속은 토끼의 복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토끼가 말을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의 전개는 신이한 존재와 대면하여 위기를 겪는 주인공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다는 민담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언어의 주술성은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의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토끼가 황만근에게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세 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황만근과 대결을 펼치던 토끼는 동쪽 하늘이 부엌에 밝아 오기 시작하자 황만근을 놓아주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인자 죽었다'라는 황만근의 말을 들은 후 당황하여 다급하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놓아줄 것인지를 묻게 되고, 이에 황만근은 자신의 소원을 세 가지 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황만근이 토끼를 위협하는 발언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사람을 향해 말을 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토끼는 '신이한 존재'에 해당한다. 황만근은 처음에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토끼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설 정도로 무서움을 느끼지만, 토끼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자 토끼를 향해 '바보 자숙아'라고 말하게 된다.

[38~40] 문학

[38-40] 고전 시가 - 정철, '관동별곡'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1580년 작가 정철이 45세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내금강·외금강·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면서 본 뛰어난 경관과 감흥을 노래한 가사이다. 시상 전개에 따라 내용을 4단으로 나눌 수 있다. 1단에서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에 은거하고 있다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2단에서는 만폭동·금강대·진혈대·개심대·화룡소·불정대 등 내금강의 뛰어난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3단에서는 산영루·총석정·삼일포·의상대·경포·죽서루·망양정 등 외금강·해금강과 동해안에서의 유람을 노래하고 있다. 4단에서는 여로의 종착으로 내면적 갈등의 해소와 애민 정신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금강산과 관동의 절경 유람 및 애민 정신

38.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 해설 : 화자는 '개심대'에 올라 금강산의 만이천 봉우리를 조망하고, 그에 대한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금강산의 봉우리마다 맺혀 있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먼저 묘사하고 금강산의 기운을 흠여 인걸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봉우리의 정다움 등 금강산을 보고 느낀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화자는 '금강대'의 '선학'이 '서호 넷 주인'을 반기는 것처럼 자신을 반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자연에 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진혈대'에 올라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화자가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화자는 '진혈대'에서는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으며, '불정대'에서는 십이폭포의 장관에 감탄하고 있다. '진혈대'와 '불정대'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는 '화룡소'를 보며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다고 묘사하면서 '화룡소'가 넓은 바다와 이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불정대에 오르고 있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는 드러나 있다.

39.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A]에서는 금강산 봉우리가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고 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동해를 박차는 것 같다고 하면서 금강산의 웅장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백옥'과 '동명'을 통해 금강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A]에서는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부용'을 꽂아 놓은 것 같기

도 하고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봉우리를 연꽃과 백옥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A]에서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동해를 박차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을 꺾어 놓은 것 같기도 하면서 금강산의 크고 거대한 모습,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④ [A]의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제시한 것으로, 대구적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날고, 뛰고, 서 있고, 솟는 등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금강산 봉우리의 역동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⑤ ‘고짚는 듯’과 ‘박차는 듯’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보이는 표현으로, 금강산 봉우리가 아름다움과 웅장함 등 다채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해설 :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생겨날 때에 금강산의 만이천 봉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자연의 미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혈망봉’은 ‘천만겁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 대상으로, 변치 않는 지조를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혈망봉’을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은 작가가 지조라는 가치를 투사하여 ‘혈망봉’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② 맑고 깨끗한 금강산의 기운을 흠어 내어 인걸을 만들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는 ‘개심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을 통해 목민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있다.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를 은하수를 베어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폭포를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연의미를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에 대해 이백도 여산 폭포가 더 낫다는 말을 못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이백의 시구에 등장하는 관념적인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닌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41~45] 문학

[41~45] 고전 소설 · 시나리오 복합 - (가)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시나리오 - 최동훈, ‘전우치’

(가)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고전 소설이

다. 서사구조 면에서 일대기적 구성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전우치가 도술을 부리며 일으킨 사건과 행적들을 삽화적으로 나열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온갖 도술로 악한 벼슬아치나 타락한 중에게 벌을 주고, 임금과 조정을 희롱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홍길동전」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전우치전」이 「홍길동전」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으로 보고 주제의 측면에서 두 작품을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사회 소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주제]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

(나)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고전 소설 「전우치전」을 현대적 액션 코미디물로 변용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500년 전 조선 시대와 현대를 배경으로 오가며 전설의 피리 ‘만파식적’을 두고 전우치가 화담 및 요괴들과 도술로 대결하며 사투를 벌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전우치가 둔갑술을 써서 부패한 권력자인 왕을 속여 곤경에 빠뜨리는 장면이다.

[주제] 요괴를 상대로 하여 벌이는 전우치의 뛰어난 도술과 활약상

4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화담은 전우치의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한다고 말하며 전우치를 죽이려 한다. 전우치가 사죄하자 화담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선도(仙道)를 닦’기를 권한다. 전우치는 이에 응하여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게 된다. 따라서 ‘화담’을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끄’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선도를 닦기 위해 영주산으로 함께 가기를 권유한 인물은 전우치가 아니라 화담이다. ③ 화담은 도술을 써서 달아나는 전우치를 공격하여 제압할 뿐 전우치의 공격을 받지는 않는다. ④ 화담이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기를 제안하자 전우치가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나라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는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화담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기로 한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우치의 집에 찾아와 영주산으로 함께 갈 것을 권하였다.

42.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해설 : 전우치는 술법으로 왕과 조정의 신하들을 희롱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우치를 ㉠처럼 나라에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우치는 모친에게 ‘효’를 이행하기는 하나 ‘충’을 행하지는 않으므로 충효를 다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얻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도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전우치는 천서를 통해 술법을 습득하게 되자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벼슬하여’ 입신양명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는 탁월한 능력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이다. ④ 전우치가 고려국 왕에게 ‘옥황상제 전교’를 빙자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하는 것은 임금과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모습이다. 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는 ‘재산을 훔어 노복’에게 나눠 주고 화담과 함께 영주산으로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주인공이 나라에 공을 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영웅 소설의 결말과는 다른 모습이다.

43.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정답 해설 : [A]에서 전우치가 왕과 헤어지는 장면은 전우치가 탄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과 헤어질 때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산수화)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 전우치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지도 않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전하는 설정을 취하여 왕에게 매우 근엄하게 말하나 (나)에서 전우치는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등과 같이 말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A]에서 전우치는 ‘모친’을 가급적 빨리 ‘봉양’하기 위해 계교를 부려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게 하고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전우치는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A]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을 요구하며 황금을 ‘그날’ 대령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고 위협한다. 그런데 (나)에서는 전우치가 왕의 꿈에 나타나 내린 명령을 실행한 것에 대해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값아 줄 것이다’라며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⑤ [A]에서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면에는 요구 사항이 대화를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나)에서 전우치의 요구 사항은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라는 왕의 대사에 포함해 간략히 처리되고 있다.

44.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정답 해설 : 처음에는 왕의 손짓에 따라 궁중 악사들이 정악 연주를 시작한다. 하지

만 이후 전우치의 손짓에 따라 악사들은 ‘무엇에 홀린 듯’ 전우치가 좋아하는 다른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따라서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음악이 계속 바뀌거나 이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와 왕과의 갈등은 전우치가 ‘나를 아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계기로 왕이 ‘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라고 반응하는 것에서 표출된다. 이로써 사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②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는 전우치의 말은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부패한 왕과 대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③ 처음에 왕은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알고 ‘고개를 더 낮추’며 최고의 예우로 대한다. 그러나 이는 전우치의 정체성이 밝혀질 때 전우치가 왕을 ‘능멸’한 일이 되고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④ 전우치에게 속은 왕은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떠받들다가 전우치가 정체를 드러내자 ‘도사 놈’으로 바뀌어서 부른다. 이로부터 전우치에 대한 왕의 인식이 적대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45.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

정답 해설 : ㉞은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보기 어렵다.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도술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번갈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바람을 불게 하고 장대비를 내리게 하며 전우치가 땅을 접어 달리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으로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방법으로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할 수 있다. ② ㉡: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클로즈업(close-up)하여 화면에 가득 담음으로써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③ ㉢: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줌으로써 천군들의 정체를 알게 된 왕이 느끼는 당혹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 왕을 농락하고 떠나는 전우치의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고,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줌으로써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②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② 18. ③ 19. ④ 20. ④
 21. ① 22. ① 23. ② 24. ③ 25. ③ 26. ⑤ 27. ① 28. ⑤ 29. ④ 30. ③
 31. ⑤ 32. ② 33. ③ 34. ① 35. ② 36. ③ 37. ③ 38. ① 39. ③ 40. ①
 41. ⑤ 42. ④ 43. ⑤ 44. ② 45. ①

[1~3] 화법

1.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2문단의 ‘과학 시간에 ~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와 3문단의 ‘이것은 감의 ~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1문단과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제를 먼저 제시한 후 발표에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청중의 요청이나 이에 따라 추가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뚝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찾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발표 내용 생성하기

정답 해설 : 3문단의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뚝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뚝은맛을 내는 타닌 성분을 시각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타닌 이외의 성분을 분석한 자료는 보여 주고 있지 않으므로 ‘뚝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라는 발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의 ‘여러분에게 뚝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뚝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의 ‘과학 시간에 ~ 촉각에 해당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인 맛과 뚝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뚝은맛을 내는 ~ 텁텁하다고 느

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떫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의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떫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로 녹차와 홍차를 언급하고 있다.

3.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해설 : 학생 2의 ‘떫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 봐야겠어.’와 학생 3의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떫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1은 ‘녹차의 떫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으나 학생 2는 그렇지 않다.

[4~7] 화법, 작문

4.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가)에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지도사’에게 질문하는 내용과 ‘지도사’가 이를 바로잡아 주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도사’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대화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지도사’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고 있으나,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

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지도사'의 두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도사'의 두 번째 발화와 '진행자'의 세 번째 발화 중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도사'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도사'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성찰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해설 : (가)의 '지도사'의 두 번째 발화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나)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지도사'의 마지막 발화에서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나)의 3문단에서 해당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지도사'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화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나)의 1문단에서 그러한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③ (가)의 '지도사'의 세 번째 발화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나)의 2문단 '내 생각과 달리 ~ 생각했다.'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기존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의 2문단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7. 성찰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에서 '섬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에서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②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확인할 수 없다. ③, ④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섬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10] 작문

8.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해설 : (나)의 5문단에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보기>는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의 화제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A]는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와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예상 독자인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A]에는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A]에는 글의 제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만 드러나 있다. ④ 글의 도입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A]에는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지 않았다. ⑤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나)의 4문단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2문단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 것'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나)의 4문단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2문단에서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2문단에서는 (나)의 5문단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을 근거로 알림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나)의 4문단을 통해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을 정보 처리 시간 절감과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나,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어 본 경험의 여부이다. ⑤ (나)의 4문단에 인포그래픽의 효율성

이 언급되어 있으나,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에 대한 공감 여부가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지 않는 이유이다.

[11~15] 언어

11.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 해설 : ‘견디-+-어서’가 [견더서]로 발음될 때에는 ‘ㅣ + ㅜ → ㅟ(j + ㅜ)’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용언 어간의 단모음 ‘ㅣ’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뛰-+-어’가 [뛰어]로 발음될 때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차-+-아도’가 [차도]로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 ‘ㅏ’가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잠그-+-아’가 [잠가]로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 ‘ㅡ’가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키우-+-어라’가 [키워라]로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 ‘ㅜ’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13] 국어사전의 표제어에 쓰인 붙임표의 기능

지문 해설 : 이 글은 국어사전의 표제어에 쓰인 붙임표가 해당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립성과 관련하여 접사와 어미에는 붙임표가 쓰이고, 조사에는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용언이 표제어로 오를 때에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가 표제어가 되지만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에 쓰이는 붙임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기원적으로는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를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와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표제어에 쓰인 붙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12. 단어의 이해

정답 해설 : 3문단에서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논독길’의 표제어는 ‘논-독-길’이 아니라 ‘논독-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논독’과 ‘길’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는 ‘맨-’이다. 2문단에서 접사에는 붙임표가 쓰여 표제어로 오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는 목적격 조사 ‘를’이다. 2문단에서 조사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조사가 표제어로 오를 때에는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는 ‘삽니다’이며, ‘삽니다’의 어간은 ‘살-’이다. 2문단에서 용언은 어간에 ‘-다’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며,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는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단어의 이해

정답 해설 : 4~6문단에서는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를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생산력이 낮은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와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떨어진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자주’는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라는 뜻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원이 되는 용언 ‘잦다’와 의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 ‘-우(잦- + -우)’가 쓰인 경우이므로 전자에 해당한다. <보기>의 ‘조차’, ‘차마’, ‘부터’는 각각 ‘좃다’, ‘참다’, ‘붙다’의 본뜻과 의미가 떨어진 것으로, ㉠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다. 정답 ④

14. 품사와 문장 성분

정답 해설 : ㉠에서는 부사 ‘아주’가 관형사 ‘옛’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때에 따라 관형사나 다른 부사 등도 수식할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명사 ‘빵’이 보조사 ‘은’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목적격 조사는 ‘을/를’이다. ③ ㉣에서는 명사 ‘어른’이 조사와 결합 없이 보어로 쓰였다. ④ ㉤에서는 명사 ‘장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다. ⑤ ㉥에서는 수 관형사 ‘세’가 의존 명사 ‘마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세’는 관형사이며, ‘셋’이 수사이다.

15.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 해설 : ‘뿌메’는 ‘뿌- + -음 + 에’로 분석되고 이때의 ‘-음’은 명사형 전성어미이

다. ‘쁘-’는 ‘쁘다’의 어간이며 ‘쁘다’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말씀미’는 ‘말씀+이’로, ‘흙 배’의 ‘배’는 ‘바+ㅣ’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 자음 뒤에서는 ‘이’가, 모음 ‘ㅣ’나 반모음 ‘y’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ㅣ’가 쓰였다. ② 중세 국어 ‘하다’는 현대어 ‘많다’에 대응하며, 그 품사는 형용사이다. ③ 방점은 강약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 즉 성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예시의 각 글자 왼쪽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높은 소리)을 의미한다. ④ ‘히여’와 ‘뻘한키 하고저’는 각각 현대어 ‘하여금’과 ‘편하게 하고자’와 대응한다. 모두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다.

[16~19] 문학

[16-19] 현대 소설 - 이기영, ‘고향’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경향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1930년대 농촌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소작 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유랑민이 크게 급증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당시 현실의 모순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향한 ‘김희준’이라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자발적·주체적 공동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농민 의식의 성장

1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A]에서는 안승학의 가난했던 형편 및 그의 가족사, ‘이 동리’로 가족이 옮겨오게 된 이유 등과 같은 인물의 내력을 간추려 설명하고 있다. 즉 서술 대상인 안승학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그에 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는 서술 대상인 안승학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인물에 대한 독백적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안승학이 ‘이 동리’로 옮겨 와 살게 된 내력을 소개하고 있으나, 안승학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안승학의 부친과 모친의 죽음, 그리고 ‘이 동리’로 옮겨 살게 된 내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을 뿐, 병렬적 서술을

통해 안승학에 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안승학의 내력을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안승학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B]에서 안승학은 엽서를 작성해서 우편통에 넣고, 그 엽서가 자신의 집으로 배달되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안승학이 새로운 문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이웃 사람들은 새로 생긴 전봇대나 우편소가 무엇인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전봇대와 우편소 안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우편소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안승학은 엽서를 작성해서 우편통에 넣고 이 엽서를 자신의 집에서 받아 본다. 그러나 우편소를 처음 접해 잘 모르는 이웃 사람들은 엽서가 배달된 것에 대해 신기해하며 놀라고 있다. ④ 안승학이 우편통에 넣은 엽서가 그의 집에 배달되어 오는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을 ‘참, 조항속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인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이웃 사람들은 전봇대에서 노상 나는 ‘잉-’ 소리와 우편소 안에서 무시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가 모두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는 전봇대나 우편소와 같은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농촌에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희준은 안승학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 ‘요구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에 대해 희준이 안승학에게 경고하고, 이러한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남의 집을 찾아왔으면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는 안승학의 말에 대해 김선달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 다 대고 말씀하십시오.”라고 응수하며 안승학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이냐고 묻는 희준에게 안승학은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라고 말하며 ‘요구 조건’에 대

한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안승학은 ‘그따위 이야기’, ‘어림없지’ 등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요구 조건’의 수용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담뱃대를 밀어 던지면서 자신을 방문한 다섯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반응에 대해 다섯 사람은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겠냐며 안승학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연행을 통해 ‘요구 조건’ 수락을 둘러싼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과 이로 인한 긴장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⑤ 안승학은 희준을 포함한 다섯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방문하자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김선달에게 분해하면서도 그에게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그가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다섯 사람이 안승학에게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묻는 것은 안승학이 ‘요구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사음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승학은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다섯 사람에게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방문한 것에 대해 안승학이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승학의 반응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섯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별다른 지체도 없이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안승학은 마을 사람들의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음의 자리에 오르며 지위가 변하게 된다. 사음이라는 지위가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안승학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지위가 달라진 인물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던 것과 달리, 안승학은 사람들에게 목판차를 탔던 경험을 말하고 우편소 이용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근대 문물의 유입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는 ‘근본’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변모시켜가는 인물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안승학은 사람들에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에 갔던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이 지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근대 문물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안승학은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인지를 묻는 다섯 사람에게 서로의 물질상 손해만 커질 것이라며, 나락을 뵈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다섯 사람으로 대표되는 소작농의 이익보다는 사음인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

는 인물형을 확인할 수 있다.

[20~25] 독서

[20~25] 인문 - (가) '예술 정의에 대한 미학 이론의 전개' / (나)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

(가) 지문 해설 : 이 글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에서 출발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8세기 말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한 후 모방론은 쇠퇴하고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콜링우드의 표현론과 벨의 형식론이 제기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기존의 미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과 디키의 제도론이 등장한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제] 모방론 이후 예술을 정의하고자 한 다양한 미학 이론들

(나) 지문 해설 : 이 글은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맥락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은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대두된다. 형식주의 비평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주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판단 방법

20.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 (가)의 1문단에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예술의 정의 문제를 다룬 모방론이 낭만주의 사조의 등장으로 많이 쇠퇴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2문단에서 그 새로운 이론으로 표현론과 형식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이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과 일반적인 변기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대두된 두 가지 대응 이론으로 3문단에서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을,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을 나누고 있다.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에 대해 소개하고, 3문단에서는 맥락주의가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다양한 이론 또는 비평 방법이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② 화제에 대한 이론이나 비평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각각의 이론이나 비평 방법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화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 또는 비평 방법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론 또는 비평 방법을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2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2문단에서 ‘형식론’은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론은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 즉 ‘의미 있는 형식’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의 2문단에서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의미 있는 형식’을 식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론이 아니라 표현론의 관점이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형식론이 아니라 표현론이다. ⑤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 해설 : (가)의 1문단에서 모방론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하였으며,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뒤샹의 작품 「샘」이 변기 그 자

채이기 때문에 모방론자의 입장에서는 「샘」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의 1문단에서 낭만주의 사조는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모방론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고 하면서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낭만주의 예술가의 입장에서 모방론자를 대상의 재현만 강조하고 예술가의 감정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표현론은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론자는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 ④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뒤상은 자신의 작품인 「샘」 이외의 다른 변기들도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웨이츠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라는 견해를 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 가 제시한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라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로 볼 수 있다.

2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리움」이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쳐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가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한 것은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 즉 「그리움」이라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리움」에 그려진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주목한 것이므로 디키의 관점을 적용한 착안점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리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에서 비롯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하면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보기>의 팸플릿의 설명을 고려할 때 「그리움」에 그려진 아버지의 낡은 신발이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울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 작품 정보 요약 내용에서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 주목하여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서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프랑스의 말을 인용하며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여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다.

2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나)의 4문단에서 인상주의 비평은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② (나)의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1937년’이라는 해에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품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⑤ (나)의 4문단에서 인상주의 비평은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망을 갈구하는'이라는 서술은 비평가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5.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 이론(理論)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를 뜻하며, 예문의 이론(異論)은 '다른 이론(理論)이나 의견.'을 뜻한다. 따라서 이론(異論)은 이론(理論)과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정답 ㉢**

[오답 피하기] ㉠ ㉡와 예문의 '전제(前提)'는 모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 ㉢와 예문의 '시기(時期)'는 모두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을 뜻하는 단어이다. ㉣ ㉤와 예문의 '근거(根據)'는 모두 '어떤 일이나 의견, 의견에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을 뜻하는 단어이다. ㉥ ㉦와 예문의 '시각(視角)'은 모두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뜻하는 단어이다.

[26~30] 독서

[26~30] 사회,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

지문해설 : 이 글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입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는데,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국회보다 이를 다루는 데에 더 적합한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특정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제정되는 위임명령은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지방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하며,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주제] 행정입법의 유형과 그 특징

2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회에 비해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1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이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위임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반면,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므로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의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에 행정입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진술은 조례에 해당하므로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이 모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국회가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3문단에 제시된 행정규칙 중 고시, 예규 등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이 모두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서 조례의 경우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이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는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여 제정되는 경우 제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었다는 것은 '위임받은 범위'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여 제정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위임명령은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위임명령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에서 말하는 제한 위반으로 인한 효력 상실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은 행정입법의 제정 취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여 제정될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28.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과 위임명령은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은 법률로부터 위임 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임 근거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제정 주체가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위임명령이나 조례는 모두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과 ㉡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이므로 ㉣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제3조는 법률이고 ㉣의 제5조는 법률에 근거한 위임명령이다.

㉠의 제5조는 ㉡를 근거로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해 제정된 것이므로 ㉢의 제3조를 통해 위임 근거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위임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의 제5조는 ㉢의 제3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는 것이지 ㉢의 제16조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 ㉠는 위임명령이므로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조례인 ㉣도 마찬가지이다. ㉤ 대통령령인 ㉠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준수해야 하지만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인 ㉣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다고 진술해야 한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예측하다'는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의 의미이므로 이를 '헤아리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실현하다'는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룬다.'의 의미이므로 '나타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반영하다'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내다.'의 의미이므로 '드러내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응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의 의미이므로 이를 '마주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구별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의 의미이므로 '달라진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33] 문학

[31~33]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심청전'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화되어 정착된 판소리게 소설이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심과 효행을 주로 담은 효행 설화 등을 바탕으로 주인공 '심청'의 출생과 성장, 죽음과 부활, 부녀의 상봉과 심봉사의 개안(開眼)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며 유교 이념인 '효(孝)'를 부각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아버지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제물로 팔려 가게 된 장면과 심청이 황후가 되어 심봉사와 상봉하고 심봉사가 반가움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다.

[주제] 심청의 효심과 효행

3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은 심청의 내적 갈등을 짐작하게 하나, ㉡의 전후 상황에서 심청과 심봉사의 외적 갈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봉사가 ㉠을 ‘반겨 들고’ 고마워하며 ‘그 일 매우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심청과의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를 통해 심청이 ㉡으로 감추려고 한 것은 아버지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시주할 공양미 삼백 석을 장만하기 위해 뱃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게 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으로부터 ㉠이 심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장승상댁 노부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인물에 대해 심봉사는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라고 말하는데 이로부터 장승상댁 노부인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심봉사는 ㉠을 듣고 반가움과 고마움의 반응을 보이며 ‘언제 가느냐?’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심봉사는 ㉠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 해설 : 황후는 심봉사에게 ‘처자 있으신가?’라며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에 심봉사는 ‘상처’한 일과 자신의 딸이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황후는 심봉사가 ‘정녕 부친인 줄’ 알게 되므로 ‘가족에 관한 질문’이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 황후는 ‘반기’지만 심봉사는 ‘굽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고 있다. 이렇듯 ‘심봉사’가 별전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심봉사는 ‘아무 연분에 상처하’었다고 말했을 뿐, ‘상처’의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④ 심봉사는 ‘신도 모르게’ 딸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봉사가 심청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황후는 심봉사가 ‘말씀을 마치자’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 ‘제가 그 심청’이라고 밝혔다. 즉 황후는 심봉사의 발언이 끝난 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힌 것이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는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여기에서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심청이 눈먼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엎질러진 물이요, 쏟아 놓은 화살이다.’라고 ‘다시금 생각’하는 것에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라며 ‘내가 살았을 제’ 아버지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죽은 후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곁에 될 어려움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심봉사의 개안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뒤늦게 실현되기 때문에 발화 장면에서 심봉사는 아직 맹인인 처지이다. 그러므로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개안이 뒤늦게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37] 독서

[34~37] 과학 - ‘항(抗)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작용기제’

지문 해설 : 이 글은 항(抗)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작용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서,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포자의 파괴 여부에 따라 멸균제와 감염방지제로 분류되며,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인체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 소독제이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제는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체의 세포막 또는 피막의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한편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키므로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주제] 방역용 화학 물질인 항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항미생물 화학제의 병원

34.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4문단에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언급은 있으나, 병원성 세균이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1문단에서 세균은 세포막과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점, 4문단에서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지질을 용해시키고 병원성 세균의 세포벽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세균의 표면 구조는 일반적으로 세포막과 그것을 감싸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균의 표면 구조는 일반적으로 세포막과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는 캡시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해 방역 효과가 있다는 점, 하이포염소산 소독 등의 산화제는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 하이포염소산 소독 등의 산화제가 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3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하이포염소산 소독이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인 캡시드를 손상시킨다는 점을 4문단에서,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포염소산 소독은 병원체의 내부와 표면 모두에서 단백질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병원체 내부가 아닌 표면의 단백질만 손상시킨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4문단에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진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핵산의 염기에 결합

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고 하였다.

36.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을 통해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는 반면, ㉡은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 따라서 ㉠과 달리 ㉡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을 뿐 진균의 포자는 사멸시킬 수 없다. ② ㉢은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항미생물 화학제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고 ㉡은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뿐 아니라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도 사멸시킬 수 있다. ⑤ 사람의 세포막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 물론 ㉢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알코올 화합물(A)은 지질을 용해시켜 바이러스의 지질 피막을 손상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켜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인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고 했으므로, C는 B에 비해 지질을 손상시키는 효과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효과가 모두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C가 B에 비해 더 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C가 B에 비해 더 낮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B는 A에 비해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하므로,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② C는 A에 비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하므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A에 비해 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A와 C

가 동일하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정도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④ D는 A에 비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하고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약하다. 따라서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고 보아야 한다. ⑤ D는 B에 비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하므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B에 비해 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B와 D의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동일하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정도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38~42] 문학

[38-42] 갈래 복합 - (가)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나) 윤선도, '만흥(漫興)' / 이덕무, '우언(迂言)'

(가) 지문 해설 : (가)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것이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의 경험, 내면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거나, 외부 세계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의 내면으로 수용하거나,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에 따라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주제]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나) 지문 해설 : (나)는 총 6수의 연시조로,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도 한가롭게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아내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다) 지문 해설 : (다)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덕무의 저술을 모아 엮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실린 수필이다. 글쓴이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삶의 방식을 나누고, 자신을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자신의 삶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시제나 사정에 밝지 못한 말, 즉 '우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시정에 살지만 은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글쓴이가 우회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

38.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 <제1수>의 '산수 간 바회 아래 뒹집'은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으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일상의 공간이다. <제6수>의 '강산'은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로 화자에게 '님군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므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제2수>의 '보리밥 풋늬물'은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제3수>의 '잔' 역시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3수>에서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2수>의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바회 굿 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해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5수>에서 화자의 의문이 해소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 ④ <제3수>에서의 '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 속에 거처하는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4수>에 '소부', '허유' 같은 고대 중국의 은자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역사에 대한 부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제4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3수>에는 '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제3수>에서 화자는 '뫼'를 바라보는 감흥이 그리운 임이 오는 반가움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제1수>에서는 '산수 간 바회 아래 뒹집'을 짓고 거처하고 있는 화자를 '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이 대비되면서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바회 굿 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화자는 속세의 일을 '녀나쁜 일'이라고 말하며 '녀나쁜 일'과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4수>에서는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㉔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이라고 말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4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나'는 자신이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고 있으므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며, 이 작은 즐거움이 '가장 높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가치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㉒ '나'는 산림에 사느냐, 시정에 사느냐와 명리에 마음을 두느냐, 은거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㉓ '나'는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인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나'는 산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인데, 큰 즐거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고,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㉕ '나'는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든 작은 즐거움이든 '즐거움'에,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든 작은 부끄러움이든 '부끄러움'에 대응시키고 있다.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것이다.

41.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해설 : ㉔에서 화자는 자신을 '하암'이라고 낮추어 표현하면서 자연 속에서 거처하는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서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과 달리,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하면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㉔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말이 '물정을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다른,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한 것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화자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함으로써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서 글쓴이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 해설 : (나)의 <제4수>에 '소부', '허유' 같은 고대 중국의 선인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나)에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한편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에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는 무정물인 '뒬'을 반갑고 좋은 대상으로 여기며 그것에 대해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즉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산림'은 큰 부끄러움을 누릴 수도, 큰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공간이다. '산림'을 자연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을 나누고 그중에서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본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 만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하며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짓고 있다.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다)는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43-45] 현대시 - (가) 김수영, '사령' / (나)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가) 지문 해설 : (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여 있다고 토로하며,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화자는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한다는 표현을 통해 자유가 억압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유를 말하는 벗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주제]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괴감

(나) 지문 해설 : (나)는 눈이 내린 날 한강물이 얼어붙어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늘어서 있는 모습과 연결하여 자유가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한강물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배들을 비웃으며, 말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고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 강물 위에 붙들려 늘어선 배들을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나뭇구는 몸짓과 같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주면서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

4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 등의 반복을 통해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이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벗'을 '그대'라는 호칭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벗'에 대한 화자의 경의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시적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황혼', '저 돌벽 아래 잡초' 등에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인 '황혼'이나 '돌벽 아래 잡초'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라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해설 :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원인은 한강물이 얼어 '강물에 붙들'렸기 때문이므로 배의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배가 움직일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화자는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면서 그에 따른 시적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붙들린 배'는 시상 전개에 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보며 '비웃'는다고 했으므로 정렬된 배의 모습에 대한 냉소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한강물'이 '흐르지 못'한 이유는 '한강물'이 '얼'었기 때문이므로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꽁꽁'의 사전적 의미가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임을 고려할 때, '꽁꽁꽁'은 감각적 표현을 통해 강물이 얼어붙은 상황이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조하며 성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의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직된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에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애 활성화할 수 없다는 화자의 성찰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보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비웃는 모습과 뒹구는 장면을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가)에서 화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고요함'과 (나)에서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것'을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가)에서 '자유'에 대한 표현이 '활자'로 한정된 것을 의사소통의 장애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나)에서 '날아가지 못하는 말'을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했다고 하였으므로 이 내용과 연관 지어, (가)에서 '황혼', '돌벽'

아래 잡초' 등과 같은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을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불박힌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의 언어 상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고 하였으므로 (나)에서 '언 강물'로 인해 배가 가지 못하는 상황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으로 감상한 것 역시 적절하다.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③ 08. ① 09. ⑤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① 17. ④ 18. ⑤ 19. ③ 20. ④
 21. ③ 22. ② 23. ① 24. ① 25. ④ 26. ⑤ 27. ③ 28. ① 29. ④ 30. ②
 31. ④ 32. ② 33. ⑤ 34. ② 35. ② 36. ④ 37. ④ 38. ⑤ 39. ⑤ 40. ⑤
 41. ③ 42. ③ 43. ⑤ 44. ② 45. ④

[1~3] 화법

1.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1문단의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와, 2문단의 ‘그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등에서 발표자가 발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발표자가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여 발표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청중이 발표자에게 요청한 바가 없으므로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발표자가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발표자가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3문단의 ‘한편 이 시기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에 제시된 것처럼,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은 사신이다. 그런데 [자료 3]의 고분 벽화에 그려진 대상은 사신이 아니라 연꽃 위에 그린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이므로,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는 선지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자료 제시)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 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라고 했으므로, ㉡에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자료 1]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라고 했으므로, ㉠에 종에 비해 주인이 크게 그려져 있는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에 종에 비해 주인이 크게 그려져 있는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3문단에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자료 제시)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에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이 그려져 있는 [자료 3]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발표 내용 생성하기

정답 해설 :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대답에서 핵심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후 세계에 관한 관심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중의 질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선지 ㉠의 질문 중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라는 내용과 ‘무덤 내부에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내용은 발표자의 대답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대응된다. 따라서 선지 ㉠이 발표자의 대답이 나오기에 가장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 ‘이 시기’는 고구려 시기를 의미하므로 ‘고구려 이후’에 대한 발표자의 대답이 나오기 위한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당시’는 고구려 시기를 의미하므로 ‘고구려 이후’에 대한 발표자의 대답이 나오기 위한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무덤 형태’가 나타난 시기는 고구려 시기이므로 ‘고구려 이후’에 대한 발표자의 대답이 나오기 위한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지닌다는 것’의 의미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라는 발표자의 대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7] 화법, 작문

4.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해설 :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라는 학생 3의 발언에 대해 학생 1이 ‘아무래도 장소의 다양성이 줄어드니까 가 볼 만한 장소가 줄어들겠지.’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은 장소의 획일화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대해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은 바로 앞의 발언인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른 현안’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가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확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바로 앞의 발언인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③ ㉢은 바로 뒤의 발언인 ‘응. 장소가 본모습을 잃고 다른 장소와 유사하게 변한 것을 말해.’로 보아, 상대의 의견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은 바로 뒤의 발언인 ‘그래, 그게 장소 획일화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로 보아,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른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에서 ㉠의 ‘지난 활동에서 논의된 사항 환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1의 두 번째 발언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장소의 획일화에 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거든. 그건 어때?’에서 ㉡의 ‘매체에서 찾은 현안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1의 여섯 번째 발언 ‘다른 문제점도 있을 텐데, 내가 자료 수집하면서 더 조사해 볼게. 다른 역할도 나눠 볼까?’에서 ㉢의 ‘[활동 2]와 관련해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학생 1의 발언에서 ㉣의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나, ㉤의 ‘관점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 안내’는 확인할 수 없다.

6. 비평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해설 : (나)의 2문단에서는 장소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장소의 획일화로 인해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훼손될 경우 장소는 인간에게 애착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도 못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장소의 획일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장소의 획일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학생 2가 ‘장소의 획일화를 현안으로 다뤄 보자.’라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학생 3이 동의를 하며 이후 대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제목에 ‘장소의 획일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학생 3이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거리로 변해 버린 상황을 언급하

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1문단에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학생들이 즐겨 찾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개성 없는 ○○거리가 자리 잡았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가)에서 학생 3이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거리로 변해 버렸잖아.’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3문단에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일어난 변화가 최근 우리 동네 곳곳으로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우리 동네 보고서’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⑤ (가)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나)의 5문단에 ‘△△재래시장’이 ‘전통적인 모습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살려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내용이 장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사례로서 제시되고 있다.

7. 비평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4문단에서 언급된 ‘비슷한 장소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을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로 볼 수 있으나,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에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장소의 획일화를 규정하고,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라고 밝히고 3문단에서도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도 줄어든다.’라고 밝히며,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한 에드워드 렐프의 견해를 제시하며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장소는 더 이상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장소의 획일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장소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다.

[8~10] 작문

8. 정보 전달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1문단에서 게임화와 게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차이가 있는 개념을 들어 대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에서 게임화가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성

취감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참여자들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하며, 게임화의 효용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교육 분야에서 게임화가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3문단에서 보건,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 게임화가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게임화는 ‘게임적 사고나 게임 기법과 같은 요소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예상 독자인 우리 학급 학생들이 게임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사 수업 시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9.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ㄴ은 게임화된 과제에서 성취감과 같은 보상이 과제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ㄷ은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에서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ㄴ과 ㄷ을 활용하여 성취감과 같은 보상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에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학습 동기나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ㄱ은 게임화의 요소를 적용한 나무 심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나)의 내용에 교육, 보건, 기업의 마케팅 외에 환경 분야에서도 게임화가 활용된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② ㄴ은 게임화된 과제에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나)의 내용에 게임화의 특징으로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된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ㄷ은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나)의 내용에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게임화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ㄱ은 게임화가 활용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를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ㄴ은 게임화된 과제에서 참여자가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바탕으로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나)에서 게임화가 보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10.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1)은 모둠 활동에 접목시킨 게임화가 모둠에 속한 학생으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과제에 임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으나,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을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학생들 간의 불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게임화로 인해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그 참여자들의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은 게임화로 인해 경쟁이 과열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그 이유를 물질적 보상에만 연연하는 데에서 찾고 있지는 않다. ② (1)은 게임화로 인해 경쟁이 과열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흥미 추구로 인한 게임화의 상업적 변질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1)은 게임화에 의해 경쟁이 과열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제에 도전하려는 의욕이 없는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1)은 게임화로 인해 과도하게 과제 수행에 과도하게 몰입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제에 대한 몰입 저해에 관련한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15] 언어

[11~12] 단어의 의미 형성 및 구성 방식

지문 해설 :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와 다른 신조어였던 ‘원어기, 소젓메쥬’라는 사례를 통해 대상의 인식 방식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총각, 부대찌개’를 통해 단어 속에 과거의 관습과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두길보기, 산돌이’의 사례를 통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단어에 담긴 인식과 시대상 및 단어의 다양한 구성 방식

11.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 해설 : ‘새해맞이’의 ‘새해’는 관형사 ‘새’가 후행 명사 ‘해’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새해맞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룬다. 한편 ‘한몫하다’의 ‘한몫’은 관형사 ‘한’이 후행 명사 ‘몫’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한몫하다’는 ‘한몫을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룬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두말없이’의 ‘두말’은 관형사 ‘두’가 후행 명사 ‘말’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두말없이’는 ‘두말이 없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룬다. ‘숨은그림찾기’는 ‘숨은그림을 찾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루지만, ‘숨은그림찾기’의 ‘숨은그림’에서는 관형사가 아닌 동사 어간 ‘숨-’에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의 ‘숨은’이 후행 명사 ‘그림’을 수식한다.

12. 단어의 의미 형성

정답 해설 : ‘수세미’는 그릇을 닦을 때 쓰이기도 하던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기존의 의미에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의 ‘설거지 도구’라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사례이다. 그러나 ‘총각’은 ‘머리를 땅아 갈라서 틀어 땀’이라는 기존의 의미가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로 변화된 사례이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일상의 단어였던 ‘메주’를 사용하여 ‘치즈’를 ‘소젯메주’로 표현했듯이, 일상의 단어였던 ‘연지’를 사용하여 ‘립스틱’을 ‘입술연지’로 표현한 것이다. ② ‘총각, 부대찌개’에 과거의 관습과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듯이, ‘변사’에도 무성 영화가 상영되었던 당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④ ‘원어기-전화기’의 사례처럼 ‘가족띠-허리띠’도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다를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⑤ ‘양반’은 원래 조선 시대의 특정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점에서 신분 구분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13. 용언의 활용

정답 해설 : ‘거르- + -어서 → 걸러서’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지만, ‘푸르- + -어 → 푸르러’는 ‘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담그- + -아 → 담가’, ‘예쁘- + -어도 → 예뻐도’는 둘 다 ‘ㄹ 탈락’에 해당한다. ③ ‘갈- + -(으)ㄴ → 간’과 ‘살- + -니 → 사니’는 둘 다 ‘ㄹ 탈락’에 해당한다. ④ ‘하얗- + -았던 → 하였던’, ‘동그랗- + -아 → 동그래’는 둘 다 ‘ㅎ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⑤ ‘젓- + -어 → 저어’, ‘긋- + -은 → 그은’은 둘 다 ‘ㅅ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14. 문장의 짜임

정답 해설 : ㉓는 전성 어미 ‘-는’이 쓰인 관형절의 예로, ‘예보’를 꾸며 주고 있다. 인용절에는 조사 ‘라고, 고’가 쓰인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㉔는 ‘공원이 많고 거리가 깨끗하-’에 전성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㉕는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에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㉖는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명사절이며,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주성분인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㉗는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이다. 조사와의 결합 없이, ‘들판’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15. 중세 국어의 음운

정답 해설 : (가)의 ‘불휘라’는 ‘불휘 + ∅라’로 분석되는데, 체언의 끝소리가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꺾임)이기 때문에 ‘∅라’가 결합한 것이다. (나)의 ‘이제라, 아래라’ 역시 ‘∅라’가 결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 개’가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지비라’는 ‘집+이라’로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에 ‘이라’가 결합한 사례이다. ② ‘스시라’는 ‘스시+∅라’로 체언의 끝소리가 단모음 ‘ㅣ’일 때에 ‘∅라’가 결합한 사례이다. ④ ‘전치라’는 ‘전츠+ㅣ라’로 체언의 끝소리가 ‘그 밖의 모음’에 해당하는 ‘ㅣ’일 때에 ‘ㅣ라’가 결합한 사례이다. ⑤ ‘곡되라’는 ‘곡도+ㅣ라’로 체언의 끝소리가 ‘그 밖의 모음’에 해당하는 ‘ㅣ’일 때에 ‘ㅣ라’가 결합한 사례이다.

[16~21] 독서

[16~21] 융합(인문+사회) - (가) ‘18세기 북학파의 북학론’ / (나) ‘18세기 후반 청의 사회·경제적 현실’

(가) 지문 해설 : 이 글은 18세기 북학파들 가운데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 형성 배경과 견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박제는 18세기 청의 현실이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이덕무는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지만,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덕무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제]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 형성 배경과 견해 차이

(나) 지문 해설 : 이 글은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8세기 후반 중국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당시 청의 번영이 19세기 들어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중국은 국내 교역이 활발했음은 물론 대외 무역이 발전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문제가 나타나면서 불법 활동과 반란의 기반이 된 결사 조직이 출현하고 정제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씨앗들은 통치자들의 불안으로 이어져 서양과의 교역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제] 18세기 후반 정점에 달한 청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불안 요인

1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 (가)는 1778년 함께 여행길에 올라 함께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여행록을 바탕으로 18세기 중국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제시한 글로, 1문단에서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점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달라 18세기 북학파들의 북학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청의 현실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았던 박제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면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던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북학파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는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18세기 북학론 중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 양상을 다루고 있을 뿐,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거나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18세기 후반 중국을 다녀온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을, (나)는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중국의 현실이 당시 조선이나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당시 청의 현실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청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자신이

인식한 청의 현실을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도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당시 청의 현실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으로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등견은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풍토로 인한 청과 조선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은 평등견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 해설 : (나)의 1문단에서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문단에서는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청이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징후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자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결사 조직들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서 ‘위기의 씨앗’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은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고 말한 근거에 해당하므로 ㉠은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의 2문단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자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나타나고, 이런 결사 조직들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을 ‘위기의 씨앗’으로 볼 수 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은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하지만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20.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 해설 : (나)에서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라는 내용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은의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 박제가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은이 기여한 요소를 고려할 때,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은의 효용적 측면을 높이 사는 평가라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A]에서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라는 내용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가)의 [A]에서 박제가는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③ (나)의 1문단에서 18세기 후반의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라는 내용은 상업이 융성하고 관련 활동이 활발했던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이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관료 조직의 규모가 정제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종종 관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라는 내용은 (나)에서 제시된 바 없는 관료, 지배층의 다른 면모이므로 당시 청의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다.

21.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해설 : ‘한정되다’는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그치다’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㉓는 ‘그치지’로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보존되다’는 ‘잘 보호되고 간수되어 남겨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드러난’은 문맥상 ㉒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도외시하다’는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생각하지’는 문맥

상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자극하다’는 ‘외부에서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따라갔다’는 문맥상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성행하다’는 ‘매우 성하게 유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일어났다’는 문맥상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2~25] 문학

[22-25] 현대 소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베트남전에서 귀환한 ‘나’가 현실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드러낸 이야기로, 삶이 허무하다고 인식하던 주인공의 인식 변화를 그려냄으로써 삶의 허무를 극복하는 인간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전쟁을 통해 죽음은 별것 아닌 것이고 삶은 무상한 것이라고 느끼게 된 ‘나’는 의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노인을 보며 노인에게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리라 결심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했지만, 오히려 노인이야말로 삶의 허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고달프고 충격적인 삶의 사건들을 견뎌내는 노인의 방법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린 ‘나’는 삶을 허무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타인에게 주입하고자 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다. 이 작품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고 있는 ‘나’와 노인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통해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찰하게 해 준다.

[주제] 삶에서 느끼는 허무와 이를 극복해 내려는 인간의 노력

2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A]는 ‘나’가 베트남에서 겪은 과거의 일을 나미에게 들려주는 부분의 일부로, ‘말했어’, ‘고장났지’, ‘트더군’, ‘싫더군’, ‘문제였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B]에는 ‘나’가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 눈에 잡힌다’, ‘~ 짐을 내린다’, ‘~ 있을 곳에 놓여진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나’가 보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A]는 ‘나’의 회상에 의한 부분이며, [B]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A]는 ‘나’가 당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스스로 전달하는 내용이고, [B]는 ‘믿어지지 않는다’와 같이 서술자가 주관적 정서를 담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에는 인물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공간 이동 상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탑승한 두 인물은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외적 갈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B]는 노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을 뿐 공간에 대해 특별히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들의 외적 갈등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는 한병장과 '나'의 대화를 삽입하고 있지만, 삽입된 대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무서움, 결혼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B]는 '나'의 눈에 비친 노인의 행동을 제시할 뿐,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A]에 중심인물인 '나'의 말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말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인물과 각자의 감회나 기대에 관해 나눈 일상적인 대화일 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B]에는 주변 인물의 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나'는 전선(베트남)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주변의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품은 채, 그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흥미나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듯 삶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며칠 전 다방에서 나미를 만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나'가 D 고지로 향하는 중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함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는 D 고지의 연대원에게 물을 실어다 주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③ '나'는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 동이 터 오자 날이 밝으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중 사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④ 결혼 계획을 밝히며 제대 이후의 삶을 언급한 것은 한병장이다. 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전선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나'는 오늘도 노인이 나타나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대체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공터에 나타난 노인은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는 행동을 변함없이 계속하여 '나'를 놀라게 한다. 그러므로 '나'가 '노인'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나'는 '물건'의 정체는 무엇이기에 노인이 그토록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인지, '물건'의 정체와 노인이 '물건'을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③ '나'는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라며, 노인이 '물

건'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나'는 자신이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된 상태라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자신 안의 긴장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지만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⑤ '나'는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주변의 모든 사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은 '물건'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무언가를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보기>는 이 작품이 시각을 통해 긴장 상태에서의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한편,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나'가 한병장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나'의 감각이 어둠 속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 극도의 미세한 것까지도 정밀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나'의 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나'는 집에 돌아온 자신이 아직도 집 안의 상황을 '전선'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내 몸에 밴 전쟁 냄새' 때문이라며 후각을 활용하여 말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리에 대해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는 전선에서 돌아온 자신이 아직도 타인과 다른 현실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③ 한병장과 한밤중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나'는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 '돌', '벌레' 등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전장의 긴장감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나'는 노인의 행위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한다. 이런 당황스러움은 노인과 관련한 '나'의 현실 인식이 빛나간 데에서 비롯되며,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26~30] 독서

[26~30] 사회, '예약의 법적 성질'

지문 해설 : 이 글은 '예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예약은 법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권리자가 가지는 법적 성질에 따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 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 권리

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응낙하는 것을 말하며 이후 본계약의 체결에 따라 본계약상의 급부가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여 본계약상의 급부가 발생한다.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관여되어 있으며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제삼자에게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인 제삼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주제] 예약의 법적 성질과 급부의 미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26.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5문단에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합의가 없어도 계약상의 채권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예약 모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7.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약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은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서 다만 기차에 탑승하는 권리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이 급부이다. ② ㉠은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것이므로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에 따라 발생한 채권, 즉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④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약이다. 2문단에서 ㉠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을 탑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예약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상 급부는 본계약 성립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것(ㄱ)이다. 예약상 급부에 의해 본계약이 체결되면 본계약상 급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급식 제공에 따라 급식 대금을 지급받는 것(ㄷ)이라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상의 급부는 없다(ㄴ)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2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갑의 손해가 을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을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병 역시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을과 병 모두 손해 배상의 채무는 지지만 병은 갑과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을은 갑에게 약속한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해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② 을이 고의가 있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역시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진다. 다만 5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인 을이나 방해자인 병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지므로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의 채무는 사라진다. ③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을이 갑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5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병도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을과 달리 갑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㉑의 ‘받기’와 ㉒의 ‘받았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㉑ ㉒의 ‘가진’은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㉑의 ‘가진’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쓰였다. ㉓ ㉔의 ‘생길’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㉓의 ‘생긴’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㉕ ㉖의 ‘물을’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㉕의 ‘물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㉗ ㉘의 ‘끼치는’은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㉗의 ‘끼쳤다’는 ‘소름이 한꺼번에 돋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31~33] 문학

[31-33]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최치원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영웅 소설이다. 신라 말의 역사적 인물로서 뛰어난 글재주를 지니고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았던 최치원을 적강 영웅으로 형상화했으며,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거울을 깨뜨린 죄로 노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파경노 설화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최치원의 비범성과 기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1.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신라 왕이 나업에게 석함 안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린 뒤 나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근심하였다. 상황을 알게 된 파경노는 소저를 찾아가 자신이 소저의 근심을 없애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얼마 뒤 소저는 나업에게 파경노의 재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파경노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파경노와 소저의 대화, 나업과 소저의 대화를 통해 나업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 즉 신라 왕이 나업에게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령한 사건의 해결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에 대해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인물을 희화화하여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꿈과 현실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3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해설 : 아이는 소저에게 반해 거울을 일부러 깨뜨리고, 거울 값을 갚겠다고 하며 승상 나업의 집의 노비가 되기를 자처하였다. 이에 승상은 아이에게 파경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따라서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파경노와 소저가 시로써 교감하는 계기가 된다. 승상 부인은 파경노가 돌보는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파경노의 비범성을 알아차렸으므로 동산의 화초가 승상 부인으로부터 파경노가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아이는 소저의 재예가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 소저의 집에 찾아갔다. 소저는 유모에게 ‘거울’을 주고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는데, 이때 아이는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 거울이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업의 일로 슬피 울던 소저가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창밖에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거울이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소저는 동산의 ‘꽃’을 보고 싶었지만 파경노가 꽃을 키우므로 부끄러워 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는 소저의 창밖에서 ‘꽃’을 들고 서서 이 꽃이 소저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꽃은 소저에 대한 파경노의 마

음을 전달해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소저가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시를 짓자 파경노가 ‘시’로써 화답하였다.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저는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나업에게 파경노의 재주에 대해 말하며 파경노를 불러 시를 짓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소저가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를 파경노가 지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신라 왕이 나업에게 석함 안에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린 뒤 나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통곡하였으므로,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는 나업의 일로 울고 있는 소저에게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오.’라고 말하였는데, 이로 보아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가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해설 : 시를 지으면 후한 상을 줄 것이라고 한 나업의 제안에 대해 파경노는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며 시 짓기를 거절하였다. 이는 파경노가 진심으로 시를 짓지 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저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아이는 나업의 딸인 소저의 재예에 대한 말을 듣고 자신을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이고 승상의 집에 찾아갔다. 이때 아이가 험웃으로 바꾸어 입은 것은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② 천상의 선관들이 물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파경노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파경노가 천상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③ 파경노가 화초를 기른 뒤 화초가 무성하고 조금도 시들지 않으며 상서로운 새인 봉황까지 날아들었다는 것은 파경노가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어 하나 부끄러움을 느껴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승상에게 노모를 뵈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향하지 않고 동산에서 소저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즉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은 것은 소저와의 만남을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34~37] 독서

[34~37] 기술,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지문 해설 : 이 글은 3D 합성 영상을 생성하고 출력하기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

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며, '렌더링'은 모델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치면 프레임이 생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생성된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처리장치(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활용된다.

[주제]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의 방법

3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모델링 단계를 설명한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하였다. 즉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렌더링 과정이 아닌 모델링 단계에서 지정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모델링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면을 생성하며 각 화소별로 화소값을 부여하여 밝기나 색상을 나타낸다고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려면 자연 영상과 달리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물체의 입체감과 원근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렌더링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5.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모델링은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물체와 관련한 모든 삼각형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렌더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③ 2문단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고, 렌더링은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6.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더라도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전 코어의 연산 이후에 다른 코어에서 다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총 연산 시간은 단일 코어에서 데이터 연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② 4문단에서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GPU와 CPU가 각각 1개의 코어에서 1개의 동일한 연산을 할 경우, CPU의 연산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동시에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기 때문이다.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다고 하였으므로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길다.

3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장면 3은 풍선과 '네모'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특정한 관찰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는 장면을 구상한 것이다.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원근감은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 단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 단계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데, 장면 3은 풍선이 그 자체의 크기에 변화 없이 '모양을 유지한 채'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장면이므로,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질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면 1에서 관찰 시점상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은 2차원의 화면에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표면 특성이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② 2문단에서 모

델링 단계에서의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장면 2가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장면이라고 해도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모델링에서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면 2에서는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화소는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으로,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숫값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렌더링 단계에서 장면 3이 나타난 전체 화면의 화소 개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장면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소의 화숫값만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8~42] 문학

[38-42] 복합세트 - (가) 정철, '사미인곡' / (나) 신희, '창 밧긔'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가)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정철이 고향 창평에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가사로, 여성 화자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빗대어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절과 연군의 정을 고백한 작품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본사는 다시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서사에서는 광한전에서 임과 함께 지내던 화자가 하계로 내려온 상황을 그려 임금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낸다. 본사에서는 봄의 매화를 보며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긴 여름날 임에게 보낼 옷을 짓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을 맑은 달을 보며 임에게 청광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추운 겨울날 임을 염려하며 따뜻한 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그리고 있다. 결사에서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연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정과정'을 잇는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 연군지정

(나)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음성상징어와 '착각-진실'의 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조이다. 창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임이 오신 소리로 착각하여 살펴보지만, 낙엽 지는 소리임을 깨닫고 애달파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다)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예전에 살던 집의 당호를 소재로, '고요함'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글이다. 소란스러움과 더위라는 외적인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당시의 태도를 떠올리면서 필자

는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고 되새기고자 하고 있다.

[주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삶

38. 시어,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가)에서 화자는 베개 머리맡을 비추는 달을 보며 입을 떠올리고 있다. 입과 동일시되는 대상인 달을 보며 ‘님이신가 아니신가’라고 독백하는 것을 통해 홀로 지내는 긴 시간 동안 화자가 입을 간절히 그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님이신가’ 착각하고 일어나 살피고 있다. 낙엽 날리는 작은 소리에도 혹시 입일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독백적 어조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가), (나)의 ‘님이신가’라는 어구는 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노여’는 ‘전혀’의 의미로, 입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비할 바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다’는 입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인해 간증이 ‘모두’ 끊어질 것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노여’와 (나)의 ‘다’가 입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흐느고 야’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의 ‘흐노라’는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자 사용되었다. 이들을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미화’는 화자가 입에게 보내고 싶은 것으로,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님이 너를 보고’를 통해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혜란’이 의인화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의 ‘므스 일고’는 아직 차가운 날씨임에도 피어난 매화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의 ‘므스 일고’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에 대한 낙담을 드러낸 것이므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염냥’이 ‘가는 듯 고택’ 온다는 인식은 유한한 인생에서 입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시간의 흐름이 속절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제 입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과 단절된 채 흐르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유한한 화자의 인생에 비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천상의 시간적 질서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지속되므로, 입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입과의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기는 바

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점어 잇고'라는 시구는 화자가 '광한던'에서 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과거의 한때, 즉 '천상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늑거야'라는 시구는 화자가 임과 헤어져 '하계'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는 현재, 즉 '지상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보기>를 통해 화자가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임과 함께 광한전에서 지내던 때를 '엇그제'로 표현한 것은 임과 함께한 기억이 너무도 선명히 남아 있어 '삼 년'이라는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심리적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통해 천상의 시간적 질서와는 다른 지상의 시간적 질서가 화자를 힘겹게 함을 알 수 있다. '인심은 유한'과 '무심한 세월'은 유한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른 화자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굳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필자가 집을 지으려는 곳이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외적 고요의 공간인 '임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외부의 낙엽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 즉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②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가 간절하게 임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③ <보기>에 따르면 (다)의 필자는 내적 고요를 추구함으로써 삶에서 느끼는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으로 인해 필자가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임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외적 고요를 드러내는데, 필자는 이에 당호를 더함으로써 내적 고요까지 추구하려 하고 있다.

41.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광한전에서 홀로 하계로 내려와, 함께 지내던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필자는 형제들과 함께 선친을 모시고 학문과 예술을 담론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올 저귀 비슨 머리 헛틀언 디'에 외양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

이 나타난다. ② (가)와 (다) 모두에서 새로운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 인생의 유한함이 언급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다)에서 인간사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다)의 필자는 장흥방 길갓집에 살던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그 뜻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다.

42.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 해설 : (다)의 필자는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고 있다. 옛집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냈던 뜻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라는 말을 당호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에서 옛집의 외양이 변함없음을,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에서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를 통해 알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시 - (가) 이용악, ‘그리움’ / (나)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가)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시인이 광복 직후에 서울로 혼자 상경하여 외롭게 생활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1연과 5연의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 눈 내리는 북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을 통해 고향을 떠나와 있는 화자의 외로운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

[주제] 북쪽 고향(가족)에 대한 그리움

(나)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화자가 객지로 떠나와서도 결코 잊히지 않는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그곳(고향, 그 언덕)’을 떠올리며 추억하고 있는 시이다. 유년의 화자의 추억 속의 ‘그곳’은 밭의 가장 자리에 탕자 울타리가 쳐진 곳이며,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지나다녔던 곳이고, 아래로 흐르는 냇물의 침식을 받아 황토가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잊지 못하는 고향 마을의 평화롭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추억들을 다양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여 선명하게 전달하면서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마음에서 잊히지 않는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

4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해설 : 4연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방에서 화자는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 잠을 깨어’라고 자책하는 듯 의문을 던지고 있다. ‘어찌자고 잠을 깨어’ 뒤에 이어지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을 통해 쓸쓸한 현실 속에서 ‘너를 남기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절절하고 애달픈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연에서 1행의 ‘(눈이) 오는가’는 2행에서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되고 있다. 눈을 매개로 북쪽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연에서 ‘돌아간’은 철길의 휘어진 모양을 나타내고 ‘(철길 위를) 달리는’은 화물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더구나 화물차는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고 있다. 따라서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긴장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2연에서는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휘어진 모양이 묘사된 ‘철길’과 달리,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그 철길 위를 운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묘사의 초점 이동이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4연에서는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고향을 떠나와 있는 화자 자신의 외로운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잉크병’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해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정답 해설 : ㉠은 유년의 화자가 언덕 아래 냇가에서 들은 어떤 소리와 관련된 표현이다. 화자는 그 소리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 것도 같았고, ‘좌르르 좌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집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시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을 활용하여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팡팡’은 수수알이 ‘여무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수알 (곡식)이 ‘여무는’ 것을 ‘팡팡’을 활용해 표현함으로써 유년의 화자 자신이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청청히’는 ‘아주 맑게’의 뜻으로 ‘푸르던’을 수식하고 있다. ‘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또 ‘푸르던’ 앞에 ‘청청히’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한 것은 유년의 화자 자신이 감동을 느낀 하늘의 푸른 색채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까르르’는 ‘주로 여자나 아이들이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섭증을 느껴 냇가에서 언덕으로 올라온 유년의 화자의 상황과 대비해 볼 때 ‘까르르 까르르’는 이웃들의 웃음소리를 더욱 밝게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⑤ ‘또랑또랑’은 ‘조금도 흐리지 않고 아주 밝고 똑똑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가을 들’이 익어가는 냄새를 ‘또랑또랑’을 활용해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을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느낀 경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 해설 : (가)에서 ‘눈’을 ‘복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이용악의 시에서 나타나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이시영 시의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화자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애정 어린 목소리로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에 그려진 고향은 ‘복된 눈’이 내리는 북쪽의 ‘작은 마을’이다. 따라서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햇빛’을 받은 ‘깨꽃’은 <보기>에서 말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의 고향은 ‘험한 벼랑’에 놓인 철길이 아니면 왕래하기 쉽지 않은 교통의 오지이다. 또한 화자가 그리는 ‘작은 마을’은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산촌 마을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나)에서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은 어린 시절 화자가 고향 마을에서 지냈을 때의 평화로움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구체화 것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화자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너’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에서 함께 있다 두고 온 사

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고향에서 함께했던 이웃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⑤ (가)에서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기>에서 설명한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떠난 고향, 그러나 마음속에 늘 살아 있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